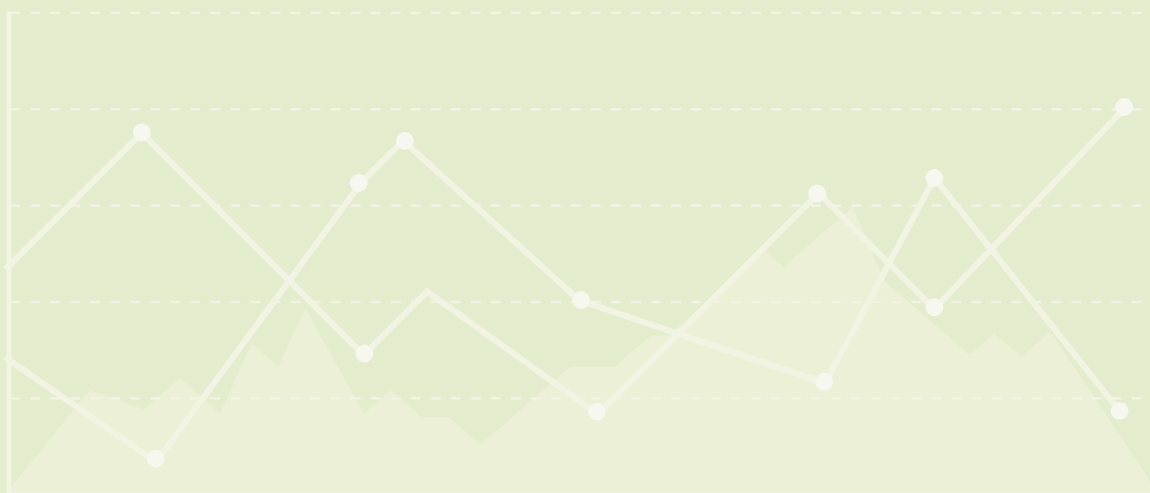




2013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고등교육 · 취업통계편

머리말

시시각각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생활하는 현대인에게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점차 필수 불가결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최근 데이터 및 증거 기반 정책의 수립과 집행, 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정보 파악에서 나아가 정보들 간의 관계와 의미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일은 교육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통계·정보의 풍부한 수집과 다양한 분석은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과 미래 사회의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이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교육정책 입안자들과 연구자들에게 정확한 통계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교육통계 조사결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매년 한권으로 발간되던 것을 2012년부터 ‘유·초·중등교육통계편’, ‘고등교육·취업통계편’, ‘평생교육통계편’으로 나누어 발간하여 각각의 교육단계 또는 기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고자 하였다.

교육통계 분석자료집(고등교육·취업통계편)은 고등교육기관을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으로 나누어 각 장을 구성하였고, 각 장은 학교, 학생, 교원, 학습 환경 및 여건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단순히 통계자료를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통계 자료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기술하여 우리나라의 교육현황 및 여건에 대해 조망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 자료집이 우리나라 교육 현황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넓히고, 과학적 교육정책의 기획 및 수립에 이바지 하며, 학술연구 활동 등 교육발전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집을 발간하는 과정에서 적극 지원해 주신 교육부 관계관 여러분과 본원 교육통계연구센터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3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장

백순근

일러두기

| 분석자료집 개요

- 교육통계 분석자료집(고등교육·취업통계편)은 고등교육기관을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으로 나누어 각 장을 구성하였고, 각 장은 학교, 학생, 교원, 학습 환경 및 여건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함. 각 장은 여러 개의 지표로 구성되며, 자료에 근거한 현황 기술 및 분석, 그래프, 통계표의 순으로 제시하여 해당 주제에 대한 현황 파악과 이해가 용이하도록 구성함.

| 일러두기

- 전문대학은 전문대학과정에서 전문대학만을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전문대학과정에 있는 학교의 정보는 개황에서 제시하고 있음.
- 대학은 대학과정에서 4년제 일반대학만을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4년제 대학의 정보는 개황에서 제시하고 있음.
- 시계열 자료는 1980년부터 2013년까지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제시가 가능한 연도부터 수록함.
- 고등교육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별 구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제시함.
- 학생 수나 전임교원의 수와 같은 기본 현황은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등의 7대 계열 구분을 따르나, 법률로 정한 교원법정정원을 통해 산출되는 전임교원확보율의 경우에는 법률에 의한 5대 계열 구분을 따름. 5대 계열은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으로 나뉨.

목차

CONTENTS ▶

개 황	1
대한민국 학제	2
2013년도 학교급별 규모	3
2013년도 시도별 개황	4
학교 수	4
학생 수	5
교원 수	6
사무직원 수	7
연도별 개황	8
학교 수	8
학생 수	9
교원 수	10
I. 전문대학	11
1. 학교	12
2. 학생	14
3. 교원	32
4. 학습 환경 및 여건	38
II. 대학	47
1. 학교	48
2. 학생	50
3. 교원	73
4. 학습 환경 및 여건	79
III. 대학원	87
1. 학교	88
2. 학생	90
3. 교원	113
관련조사 및 자료/참고문헌	121



CONTENTS ▶

013 표 | -1-1 연도별 설립별 학교 수(1980~2013)

013 표 | -1-2 지역별 학교규모별 설립별 학교 수(2013)

015 표 | -2-1 연도별 설립별 성별 학생 수(1980~2013)

015 표 | -2-2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학생 수(2013)

017 표 | -2-3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입학생 수(2013)

017 표 | -2-4 연도별 연령별 입학생 수(2006~2013)

017 표 | -2-5 학생유형별 설립별 성별 입학생 수(2013)

019 표 | -2-6 연도별 설립별 성별 휴학생 수 및 휴학률(1980~2012, 학년도 기준)

019 표 | -2-7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휴학생 수 및 휴학률(2012, 학년도 기준)

021 표 | -2-8 연도별 설립별 성별 중도탈락자 수 및 중도탈락률(1980~2012, 학년도 기준)

021 표 | -2-9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중도탈락자 및 중도탈락률(2012, 학년도 기준)

023 표 | -2-10 연도별 설립별 성별 편입생 수 및 편입률(1980~2012, 학년도 기준)

023 표 | -2-11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편입생 수 및 편입률(2012, 학년도 기준)

026 표 | -2-12 연도별 설립별 성별 졸업생 수(1985~2013)

026 표 | -2-13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졸업생 수(2013)

027 표 | -2-14 연도별 설립별 성별 진학자 수 및 진학률(2005~2013)

027 표 | -2-15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진학자 수 및 진학률(2013)

030 표 | -2-16 연도별 설립별 성별 취업 현황(2005~2013)

031 표 | -2-17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취업자 수(2013)

031 표 | -2-18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취업률(2013)

034 표 | -3-1 연도별 설립별 성별 교원 수(1990~2013)

035 표 | -3-2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전임 교원 수(2013)

035 표 | -3-3 연도별 설립별 외국인 교원 현황(2000~2013)

037 표 | -3-4 연도별 전임교원 학위 소지 현황(1980~2013)

037 표 | -3-5 지역별 계열별 전임교원 학위 소지 현황(2013)

039 표 | -4-1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확보율(2008~2013)

039 표 | -4-2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전임교원 확보율(2013)

041 표 | -4-3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2000~2013)

041 표 I -4-4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2013)
043 표 I -4-5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주당 수업시간 수(2000~2013)
043 표 I -4-6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전임교원 주당 수업시간 수(2013)
045 표 I -4-7 연도별 설립별 학생 1인당 교지면적 및 교사면적(2000~2013)
045 표 I -4-8 지역별 설립별 학생 1인당 도서관 예산(2013)

049 표 II -1-1 연도별 설립별 학교 수(1980~2013)
049 표 II -1-2 지역별 학교규모별 설립별 학교 수(2013)

052 표 II -2-1 연도별 설립별 성별 학생 수(1980~2013)
052 표 II -2-2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학생 수(2013)
053 표 II -2-3 연도별 인구 만 명당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 수(1980~2013)
055 표 II -2-4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입학생 수(2013)
055 표 II -2-5 연도별 연령별 입학생 수(2006~2013)
055 표 II -2-6 학생유형별 설립별 성별 입학생 수(2013)
057 표 II -2-7 연도별 설립별 성별 휴학생 수 및 휴학률(1980~2012, 학년도 기준)
057 표 II -2-8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휴학생 수 및 휴학률(2012, 학년도 기준)
059 표 II -2-9 연도별 설립별 성별 중도탈락자 수 및 중도탈락률(1980~2012, 학년도 기준)
059 표 II -2-10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중도탈락자 및 중도탈락률(2012, 학년도 기준)
061 표 II -2-11 연도별 설립별 성별 편입생 수 및 편입률(1980~2012, 학년도 기준)
061 표 II -2-12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편입생 수 및 편입률(2012, 학년도 기준)
064 표 II -2-13 연도별 설립별 성별 졸업생 수(1980~2013)
064 표 II -2-14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졸업생 수(2013)
065 표 II -2-15 연도별 설립별 성별 진학자 수 및 진학률(1980~2013)
065 표 II -2-16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진학자 수 및 진학률(2013)
068 표 II -2-17 연도별 설립별 성별 취업 현황(2005~2013)
069 표 II -2-18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취업자 수(2013)
069 표 II -2-19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취업률(2013)
071 표 II -2-20 연도별 설립별 성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2005~2013)
071 표 II -2-21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2013)



CONTENTS ▶

- 071 표 II-2-22 권역별 출신국가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2013)
- 072 표 II-2-23 연도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졸업 현황(2007~2013)
- 072 표 II-2-24 연도별 성별 어학연수 및 기타연수 학생 수(2005~2013)
- 072 표 II-2-25 연도별 출신국가별 국내 외국인 연수생 현황(2005~2013)

- 075 표 II-3-1 연도별 설립별 성별 교원 수(1990~2013)
- 076 표 II-3-2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전임 교원 수(2013)
- 076 표 II-3-3 연도별 설립별 외국인 교원 수(2000~2013)
- 078 표 II-3-4 연도별 전임교원 학위 소지 현황(1980~2013)
- 078 표 II-3-5 지역별 계열별 전임교원 학위 소지 현황(2013)

- 080 표 II-4-1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확보율(2008~2013)
- 080 표 II-4-2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전임교원 확보율(2013)
- 082 표 II-4-3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2000~2013)
- 082 표 II-4-4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2013)
- 084 표 II-4-5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주당 수업시간 수(2000~2013)
- 084 표 II-4-6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전임교원 주당 수업시간 수(2013)
- 086 표 II-4-7 연도별 설립별 학생 1인당 교지면적 및 교사면적(2000~2013)
- 086 표 II-4-8 지역별 설립별 학생 1인당 도서관 현황(2013)

- 089 표 III-1-1 연도별 설립별 유형별 대학원 수(1980~2013)
- 089 표 III-1-2 연도별 유형별 대학원 설치 현황(2000~2013)

- 092 표 III-2-1 연도별 대학원과정별 성별 학생 수(1980~2013)
- 092 표 III-2-2 지역별 계열별 대학원과정별 성별 학생 수(2013)
- 093 표 III-2-3 대학원유형별 대학원과정별 성별 학생 수(2013)
- 095 표 III-2-4 지역별 계열별 대학원과정별 성별 입학생 수(2013)
- 095 표 III-2-5 대학원유형별 대학원과정별 성별 입학생 수(2013)
- 096 표 III-2-6 연도별 연령별 입학생 수(2006~2013)
- 096 표 III-2-7 계열별 연령별 입학생 수(2013)
- 098 표 III-2-8 연도별 대학원과정별 성별 휴학생 수(2006~2012, 학년도 기준)

- 098 표 III-2-9 지역별 계열별 대학원과정별 성별 휴학생 수(2012, 학년도 기준)
- 100 표 III-2-10 연도별 대학원과정별 성별 중도탈락 학생 수(1980~2012, 학년도 기준)
- 100 표 III-2-11 지역별 계열별 대학원과정별 성별 중도탈락 학생 수(2012, 학년도 기준)
- 102 표 III-2-12 연도별 대학원과정별 성별 학위취득자 수(1980~2013)
- 102 표 III-2-13 지역별 계열별 대학원과정별 성별 학위취득자 수(2013)
- 103 표 III-2-14 계열별 대학원과정별 평균 졸업소요기간(일반대학원, 2013)
- 106 표 III-2-15 연도별 대학원과정별 성별 취업 현황(일반대학원, 2006~2013)
- 107 표 III-2-16 지역별 계열별 대학원과정별 성별 취업자 수(일반대학원, 2013)
- 107 표 III-2-17 지역별 계열별 대학원과정별 성별 취업률(일반대학원, 2013)
- 108 표 III-2-18 지역별 계열별 대학원과정별 성별 기취업자 수(일반대학원, 2013)
- 108 표 III-2-19 지역별 계열별 대학원과정별 성별 기취업자 제외 취업률(일반대학원, 2013)
- 111 표 III-2-20 연도별 대학원과정별 성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2005~2013)
- 111 표 III-2-21 지역별 계열별 대학원과정별 성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2013)
- 111 표 III-2-22 출신국가별 대학원과정별 성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2013)
- 112 표 III-2-23 연도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졸업 현황(2007~2013)
- 112 표 III-2-24 성별 어학연수 및 기타연수 학생 수(2013)
- 112 표 III-2-25 출신국가별 국내 외국인 연수생 현황(2013)
-
- 115 표 III-3-1 연도별 설립별 성별 교원 수(2000~2013)
- 115 표 III-3-2 연도별 설립별 외국인 교원 수(2000~2013)
- 116 표 III-3-3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교원 수(2013)
- 118 표 III-3-4 연도별 전임교원 학위 소지 현황(2000~2013)
- 118 표 III-3-5 지역별 계열별 전임교원 학위 소지 현황(2013)
- 119 표 III-3-6 연도별 성별 신규임용 전임교원 박사학위 소지 현황(2006~2013)
- 119 표 III-3-7 지역별 계열별 성별 신규임용 전임교원 박사학위 소지 현황(2013)

그림

CONTENTS ▶

- 012 그림 | -1-1 연도별 설립별 학교 수(1980~2013)

- 014 그림 | -2-1 연도별 성별 학생 수(1980~2013)
- 014 그림 | -2-2 계열별 성별 학생 비율(2013)
- 016 그림 | -2-3 지역별 계열별 입학생 수(2013)
- 016 그림 | -2-4 연도별 연령별 입학생 비율(2013)
- 018 그림 | -2-5 연도별 성별 휴학률(1980~2012, 학년도 기준)
- 018 그림 | -2-6 지역별 계열별 휴학률(2012, 학년도 기준)
- 020 그림 | -2-7 연도별 성별 중도탈락률(1980~2012, 학년도 기준)
- 020 그림 | -2-8 지역별 계열별 중도탈락률(2012, 학년도 기준)
- 022 그림 | -2-9 연도별 성별 편입률(1980~2012, 학년도 기준)
- 022 그림 | -2-10 지역별 계열별 편입률(2012, 학년도 기준)
- 025 그림 | -2-11 연도별 성별 졸업생 수(1985~2013)
- 025 그림 | -2-12 지역별 계열별 졸업생 수(2013)
- 025 그림 | -2-13 연도별 성별 진학률(2005~2013)
- 025 그림 | -2-14 지역별 계열별 진학률(2013)
- 029 그림 | -2-15 연도별 성별 취업률(2005~2013)
- 029 그림 | -2-16 계열별 성별 취업률(2013)
- 029 그림 | -2-17 수도권 계열별 성별 취업률(2013)
- 029 그림 | -2-18 비수도권 계열별 성별 취업률(2013)
- 029 그림 | -2-19 수도권 계열별 설립별 취업률(2013)
- 029 그림 | -2-20 비수도권 계열별 설립별 취업률(2013)

- 033 그림 | -3-1 연도별 전임교원 현황(1990~2013)
- 033 그림 | -3-2 연도별 비전임교원 현황(1990~2013)
- 033 그림 | -3-3 연도별 전임 여교원 비율(1990~2013)
- 033 그림 | -3-4 연도별 비전임 여교원 비율(1990~2013)
- 033 그림 | -3-5 연도별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 비율(1990~2013)
- 033 그림 | -3-6 연도별 외국인 교원 현황(2000~2013)
- 036 그림 | -3-7 연도별 전임교원 학위소지 현황(1980~2013)
- 036 그림 | -3-8 계열별 전임교원 학위소지 현황(2013)

038 그림 I -4-1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확보율(2008~2013)
038 그림 I -4-2 계열별 지역별 전임교원 확보율(2013)
040 그림 I -4-3 연도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2000~2013)
040 그림 I -4-4 계열별 지역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2013)
042 그림 I -4-5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주당 수업시간 수(2000~2013)
042 그림 I -4-6 계열별 지역별 전임교원 주당 수업시간 수(2013)
044 그림 I -4-7 연도별 학생 1인당 교지면적(2000~2013)
044 그림 I -4-8 연도별 학생 1인당 교사면적(2000~2013)

048 그림 II-1-1 연도별 설립별 학교 수(1980~2013)

051 그림 II-2-1 연도별 성별 학생 수(1980~2013)
051 그림 II-2-2 연도별 설립별 학생 수(1980~2013)
051 그림 II-2-3 계열별 성별 학생 비율(2013)
051 그림 II-2-4 연도별 인구 1만명당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 수(1980~2013)
054 그림 II-2-5 지역별 계열별 입학생 수(2013)
054 그림 II-2-6 연도별 연령별 입학생 비율(2006~2013)
056 그림 II-2-7 연도별 성별 휴학률(1980~2012, 학년도 기준)
056 그림 II-2-8 지역별 계열별 휴학률(2012, 학년도 기준)
058 그림 II-2-9 연도별 성별 중도탈락률(1980~2012, 학년도 기준)
058 그림 II-2-10 지역별 계열별 중도탈락률(2012, 학년도 기준)
060 그림 II-2-11 연도별 성별 편입률(1980~2012, 학년도 기준)
060 그림 II-2-12 지역별 계열별 편입률(2012, 학년도 기준)
063 그림 II-2-13 연도별 성별 졸업생 수(1980~2013)
063 그림 II-2-14 지역별 계열별 졸업생 수(2013)
063 그림 II-2-15 연도별 성별 진학률(1980~2013)
063 그림 II-2-16 지역별 계열별 진학률(2013)
067 그림 II-2-17 연도별 성별 취업률(2005~2013)
067 그림 II-2-18 계열별 성별 취업률(2005~2013)
067 그림 II-2-19 수도권 계열별 성별 취업률(2013)

그림

CONTENTS ▶

- 067 그림 II-2-20 비수도권 계열별 성별 취업률(2013)
- 067 그림 II-2-21 수도권 계열별 설립별 취업률(2013)
- 067 그림 II-2-22 비수도권 계열별 설립별 취업률(2013)
- 070 그림 II-2-23 연도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 수(2005~2013)
- 070 그림 II-2-24 출신국가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2013)

- 074 그림 II-3-1 연도별 전임교원 현황(1990~2013)
- 074 그림 II-3-2 연도별 비전임교원 현황(1990~2013)
- 074 그림 II-3-3 연도별 전임 여교원 비율(1990~2013)
- 074 그림 II-3-4 연도별 비전임 여교원 비율(1990~2013)
- 074 그림 II-3-5 연도별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 비율(1990~2013)
- 074 그림 II-3-6 연도별 외국인 교원 현황(2000~2013)
- 077 그림 II-3-7 연도별 전임교원 학위소지 현황(1980~2013)
- 077 그림 II-3-8 계열별 전임교원 학위소지 현황(2013)

- 079 그림 II-4-1 연도별 전임교원 확보율(2008~2013)
- 079 그림 II-4-2 계열별 지역별 전임교원 확보율(2013)
- 081 그림 II-4-3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2006~2013)
- 081 그림 II-4-4 계열별 지역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2013)
- 083 그림 II-4-5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주당 수업시간 수(2000~2013)
- 083 그림 II-4-6 지역별 계열별 전임교원 주당 수업시간 수(2013)
- 085 그림 II-4-7 연도별 설립별 학생 1인당 교지면적(2000~2013)
- 085 그림 II-4-8 연도별 설립별 학생 1인당 교사면적(2000~2013)

- 088 그림 III-1-1 연도별 설립별 대학원 수(1980~2013)
- 088 그림 III-1-2 연도별 유형별 대학원 수(2000~2013)

- 091 그림 III-2-1 연도별 성별 대학원 학생 수(1980~2013)
- 091 그림 III-2-2 연도별 학생성비(석사과정, 1980~2013)
- 091 그림 III-2-3 연도별 학생성비(박사과정, 1980~2013)
- 091 그림 III-2-4 계열별 학생성비(석사과정, 2013)

- 091 그림 III-2-5 계열별 학생성비(박사과정, 2013)
- 094 그림 III-2-6 계열별 석사과정 입학성비(2013)
- 094 그림 III-2-7 계열별 박사과정 입학성비(2013)
- 097 그림 III-2-8 대학원 과정별 성별 휴학률(2012, 학년도 기준)
- 097 그림 III-2-9 계열별 성별 휴학률(2012, 학년도 기준)
- 099 그림 III-2-10 연도별 대학원과정별 중도탈락률(1980~2012, 학년도 기준)
- 099 그림 III-2-11 계열별 대학원과정별 중도탈락률(2012, 학년도 기준)
- 101 그림 III-2-12 연도별 성별 석사학위 취득자 수(2000~2013)
- 101 그림 III-2-13 연도별 성별 박사학위 취득자 수(2000~2013)
- 105 그림 III-2-14 연도별 성별 석사 취업률(2006~2013)
- 105 그림 III-2-15 연도별 성별 박사 취업률(2006~2013)
- 105 그림 III-2-16 계열별 지역별 석사 취업률(2013)
- 105 그림 III-2-17 계열별 지역별 박사 취업률(2013)
- 105 그림 III-2-18 계열별 기취업자 대비 취업자비율(석사, 2013)
- 105 그림 III-2-19 계열별 기취업자 대비 취업자비율(박사, 2013)
- 110 그림 III-2-20 연도별 성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석사, 2005~2013)
- 110 그림 III-2-21 연도별 성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박사, 2005~2013)
- 110 그림 III-2-22 지역별 계열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석사, 2013)
- 110 그림 III-2-23 지역별 계열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박사, 2013)
- 110 그림 III-2-24 출신국가별 대학원과정별 유학생 및 외국인 연수생(대학원) 현황(2013)
-
- 114 그림 III-3-1 연도별 성별 전임교원 현황(2000~2013)
- 114 그림 III-3-2 연도별 성별 비전임교원 현황(2000~2013)
- 114 그림 III-3-3 연도별 전임 여교원 비율(2000~2013)
- 114 그림 III-3-4 연도별 비전임 여교원 비율(2000~2013)
- 114 그림 III-3-5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 비율(2000~2013)
- 114 그림 III-3-6 연도별 외국인 교원 현황(2000~2013)
- 117 그림 III-3-7 연도별 전임교원 학위소지 현황(2000~2013)
- 117 그림 III-3-8 계열별 전임교원 학위소지 현황(2013)

개황

대한민국 학제

2013년도 학교급별 규모

2013년도 시도별 개황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

사무직원 수

연도별 개황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



2013년도 학교급별 규모

(단위: 개, 명)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				
		전체	국립	공립	사립	전체	국립	공립	사립	전체	국립	공립	사립	
전체		1,590	279	17	1,294	3,709,734	863,713	29,750	2,816,271	86,656	18,865	618	67,173	
전문 대학 과정	소계	163	2	7	154	805,011	2,536	13,483	788,992	14,143	87	229	13,827	
	전문대학	140	2	7	131	757,721	2,536	13,483	741,702	13,015	87	229	12,699	
	기술대학	—	—	—	—	42	—	—	42	—	—	—	—	
	각종학교	1	—	—	1	36	—	—	36	7	—	—	7	
	원격대학	1	—	—	1	2,262	—	—	2,262	16	—	—	16	
	사이버대학	2	—	—	2	5,250	—	—	5,250	37	—	—	37	
	사내대학	4	—	—	4	251	—	—	251	3	—	—	3	
	기능대학	3	—	—	3	11,581	—	—	11,581	213	—	—	213	
	전공대학	12	—	—	12	27,868	—	—	27,868	852	—	—	852	
대학 과정	소계	227	47	1	179	2,574,901	757,097	13,287	1,804,517	65,077	16,215	339	48,523	
	일반대학	188	32	1	155	2,120,296	458,081	13,287	1,648,928	63,042	15,079	339	47,624	
	교육대학	10	10	—	—	17,500	17,500	—	—	835	835	—	—	
	산업대학	2	—	—	2	76,377	32,291	—	44,086	316	—	—	316	
	기술대학	1	—	—	1	128	—	—	128	—	—	—	—	
	방송통신대학	1	1	—	—	245,257	245,257	—	—	145	145	—	—	
	각종학교	4	2	—	2	4,448	3,850	—	598	171	150	—	21	
	원격대학	1	—	—	1	1,011	—	—	1,011	10	—	—	10	
	사이버대학	17	—	—	17	109,673	—	—	109,673	542	—	—	542	
	사내대학	3	2	—	1	211	118	—	93	16	6	—	10	
대학원 과정	소계	1,200	230	9	961	329,822	104,080	2,980	222,762	7,436	2,563	50	4,823	
	대학원 대학	소계	43	1	—	42	8,746	261	—	8,485	665	60	—	605
		일반대학원	1	1	—	—	261	261	—	—	60	60	—	—
		전문대학원	37	—	—	37	7,692	—	—	7,692	539	—	—	539
		특수대학원	5	—	—	5	793	—	—	793	66	—	—	66
	대학 부설 대학원	소계	1,157	229	9	919	321,076	103,819	2,980	214,277	6,771	2,503	50	4,218
		일반대학원	183	35	1	147	148,978	54,648	1,187	93,143	1,002	310	3	689
		전문대학원	177	55	3	119	36,856	14,164	334	22,358	5,006	2,147	44	2,815
특수대학원		797	139	5	653	135,242	35,007	1,459	98,776	763	46	3	714	

주: 1) ()은 분교 수로, 학교 수에서 제외됨.

2) 기술대학은 한 개의 대학에서 전문대학과정과 대학과정을 함께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수는 대학과정에 포함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2013년도 시도별 개황

학교 수

(단위: 개)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전문 대학 과정	전체	1,590	463	97	48	34	62	87	14	9
	소계	163	14	9	10	4	7	5	3	1
	전문대학	140	9	9	7	3	6	4	2	1
	기술대학	-	-	-	-	-	-	-	-	-
	각종학교	1	-	-	-	-	-	-	-	-
	원격대학	1	-	-	-	-	-	-	-	-
	사이버대학	2	-	-	1	-	-	-	-	-
	사내대학	4	1	-	-	-	-	-	1	-
	기능대학	3	3	-	-	-	-	-	-	-
	전공대학	12	1	-	2	1	1	1	-	-
대학 과정	소계	227	53	15	4	4	11	13	2	1
	일반대학	188	38	12	3	3	10	11	2	1
	교육대학	10	1	1	1	1	1	-	-	-
	산업대학	2	-	-	-	-	-	-	-	-
	기술대학	1	1	-	-	-	-	-	-	-
	방송통신대학	1	1	-	-	-	-	-	-	-
	각종학교	4	1	-	-	-	-	-	-	-
	원격대학	1	-	-	-	-	-	-	-	-
	사이버대학	17	10	2	-	-	-	1	-	-
	사내대학	3	1	-	-	-	-	1	-	-
대학원 과정	소계	1,200	396	73	34	26	44	69	9	7
	대학원	43	23	-	-	2	-	2	1	-
	일반대학원	1	-	-	-	-	-	-	-	-
	전문대학원	37	18	-	-	2	-	2	1	-
	특수대학원	5	5	-	-	-	-	-	-	-
	대학 부설 대학원	1,157	373	73	34	24	44	67	8	7
	일반대학원	183	42	13	3	4	9	12	2	2
	전문대학원	177	92	7	4	7	8	7	-	-
	특수대학원	797	239	53	27	13	27	48	6	5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문 대학 과정	전체	246	62	60	88	77	43	116	66	18
	소계	37	10	5	7	9	9	17	14	2
	전문대학	33	9	5	6	9	9	16	10	2
	기술대학	-	-	-	-	-	-	-	-	-
	각종학교	1	-	-	-	-	-	-	-	-
	원격대학	1	-	-	-	-	-	-	-	-
	사이버대학	-	-	-	-	-	-	1	-	-
	사내대학	-	-	-	-	-	-	-	2	-
	기능대학	-	-	-	-	-	-	-	-	-
	전공대학	2	1	-	1	-	-	-	2	-
대학 과정	소계	31	9	12	17	12	10	21	10	2
	일반대학	29	8	10	12	9	10	19	9	2
	교육대학	-	1	1	1	1	-	-	1	-
	산업대학	-	-	-	1	1	-	-	-	-
	기술대학	-	-	-	-	-	-	-	-	-
	방송통신대학	-	-	-	-	-	-	-	-	-
	각종학교	-	-	1	2	-	-	-	-	-
	원격대학	-	-	-	-	-	-	1	-	-
	사이버대학	1	-	-	1	1	-	1	-	-
	사내대학	1	-	-	-	-	-	-	-	-
대학원 과정	소계	178	43	43	64	56	24	78	42	14
	대학원	11	-	-	2	1	-	1	-	-
	일반대학원	1	-	-	-	-	-	-	-	-
	전문대학원	10	-	-	2	1	-	1	-	-
	특수대학원	-	-	-	-	-	-	-	-	-
	대학 부설 대학원	167	43	43	62	55	24	77	42	14
	일반대학원	27	7	8	13	8	8	17	7	1
	전문대학원	17	4	5	5	6	0	8	4	3
	특수대학원	123	32	30	44	41	16	52	31	10

주: 1) 분교 수는 학교 수에서 제외됨.

2) 기술대학은 한 개의 대학에서 전문대학과정과 대학과정을 함께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수는 대학과정에 포함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학생 수

(단위: 명)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전체		3,709,734	1,068,940	301,096	149,515	86,482	132,261	174,281	40,908	26,692
전문 대학 과정	소계	805,011	77,297	60,595	65,888	28,133	29,262	32,469	13,777	5,317
	전문대학	757,721	62,249	58,941	59,890	24,752	28,056	30,842	12,267	5,317
	기술대학	42	42	-	-	-	-	-	-	-
	각종학교	36	-	-	-	-	-	-	-	-
	원격대학	2,262	-	-	-	-	-	-	-	-
	사이버대학	5,250	-	-	3,736	-	-	-	-	-
	사내대학	251	46	-	-	-	-	-	60	-
	기능대학	11,581	11,581	-	-	-	-	-	-	-
	전공대학	27,868	3,379	1,654	2,262	3,381	1,206	1,627	1,450	-
대학 과정	소계	2,574,901	846,577	220,160	70,902	50,308	88,478	121,674	23,895	20,291
	일반대학	2,120,296	495,395	213,594	69,015	49,247	86,712	111,612	23,895	20,291
	교육대학	17,500	1,726	1,772	1,887	1,061	1,597	-	-	-
	산업대학	76,377	11,213	648	-	-	169	8,866	-	-
	기술대학	128	128	-	-	-	-	-	-	-
	방송통신대학	245,257	245,257	-	-	-	-	-	-	-
	각종학교	4,448	3,049	-	-	-	-	40	-	-
	원격대학	1,011	-	-	-	-	-	-	-	-
	사이버대학	109,673	89,731	4,146	-	-	-	1,116	-	-
	사내대학	211	78	-	-	-	-	40	-	-
대학원 과정	소계	329,822	145,066	20,341	12,725	8,041	14,521	20,138	3,236	1,084
	대학원 대학	소계	8,746	4,692	-	-	332	-	1,071	114
		일반대학원	261	-	-	-	-	-	-	-
		전문대학원	7,692	3,899	-	-	332	-	1,071	114
		특수대학원	793	793	-	-	-	-	-	-
	대학 부설 대학원	소계	321,076	140,374	20,341	12,725	7,709	19,067	3,122	1,084
		일반대학원	148,978	64,990	10,893	5,506	2,790	7,538	1,810	596
		전문대학원	36,856	21,024	1,179	1,259	2,942	2,079	1,200	-
		특수대학원	135,242	54,360	8,269	5,960	1,977	4,904	5,742	488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538,587	147,456	146,683	233,413	148,842	89,508	248,768	143,770	32,532
전문 대학 과정	소계	241,799	26,294	28,210	29,592	26,812	31,708	53,889	41,800	12,169
	전문대학	236,496	25,536	26,898	27,839	25,759	31,233	51,249	38,228	12,169
	기술대학	-	-	-	-	-	-	-	-	-
	각종학교	36	-	-	-	-	-	-	-	-
	원격대학	2,262	-	-	-	-	-	-	-	-
	사이버대학	-	-	-	-	-	-	1,514	-	-
	사내대학	-	-	-	-	-	-	-	145	-
	기능대학	-	-	-	-	-	-	-	-	-
	전공대학	3,005	758	1,312	1,753	1,053	475	1,126	3,427	-
대학 과정	소계	265,316	112,964	107,641	190,791	111,041	54,264	181,415	91,595	17,589
	일반대학	248,092	111,384	103,110	165,761	97,300	50,464	170,603	86,232	17,589
	교육대학	1,800	1,580	1,417	1,739	1,377	-	-	1,544	-
	산업대학	12,833	-	2,820	20,014	7,219	3,800	4,976	3,819	-
	기술대학	-	-	-	-	-	-	-	-	-
	방송통신대학	-	-	-	-	-	-	-	-	-
	각종학교	-	-	294	1,065	-	-	-	-	-
	원격대학	-	-	-	-	-	-	1,011	-	-
	사이버대학	2,498	-	-	2,212	5,145	-	4,825	-	-
	사내대학	93	-	-	-	-	-	-	-	-
대학원 과정	소계	31,472	8,198	10,832	13,030	10,989	3,536	13,464	10,375	2,774
	대학원 대학	소계	1,939	19	-	428	-	83	-	-
		일반대학원	261	-	-	-	-	-	-	-
		전문대학원	1,678	19	-	428	-	83	-	-
		특수대학원	-	-	-	-	-	-	-	-
	대학 부설 대학원	소계	29,533	8,179	10,832	12,602	10,921	13,381	10,375	2,774
		일반대학원	9,926	3,669	4,811	4,697	1,948	7,249	4,064	1,089
		전문대학원	1,724	382	697	669	1,150	712	1,457	382
		특수대학원	17,883	4,128	5,324	7,236	4,494	1,588	4,854	1,303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교원 수

(단위: 명)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전문 대학 과정	전체	86,656	22,933	7,041	3,308	2,132	3,521	4,557	1,533	554
	소계	14,143	1,425	948	1,087	471	501	554	256	92
	전문대학	13,015	1,112	903	984	379	462	511	213	92
	기술대학	-	-	-	-	-	-	-	-	-
	각종학교	7	-	-	-	-	-	-	-	-
	원격대학	16	-	-	-	-	-	-	-	-
	사이버대학	37	-	-	26	-	-	-	-	-
	사내대학	3	1	-	-	-	-	-	1	-
	기능대학	213	213	-	-	-	-	-	-	-
대학 과정	전공대학	852	99	45	77	92	39	43	42	-
	소계	65,077	18,318	5,946	1,863	1,180	2,775	3,553	1,236	455
	일반대학	63,042	17,532	5,839	1,769	1,049	2,699	3,538	1,236	455
	교육대학	835	96	77	94	131	76	-	-	-
	산업대학	316	-	-	-	-	-	-	-	-
	기술대학	-	-	-	-	-	-	-	-	-
	방송통신대학	145	145	-	-	-	-	-	-	-
	각종학교	171	128	-	-	-	-	-	-	-
	원격대학	10	-	-	-	-	-	-	-	-
대학원 과정	사이버대학	542	416	30	-	-	-	10	-	-
	사내대학	16	1	-	-	-	-	5	-	-
	소계	7,436	3,190	147	358	481	245	450	41	7
	대학원 대학	소계	665	328	-	21	-	71	16	-
		일반대학원	60	-	-	-	-	-	-	-
		전문대학원	539	262	-	21	-	71	16	-
		특수대학원	66	66	-	-	-	-	-	-
	대학 부설 대학원	소계	6,771	2,862	147	358	460	379	25	7
		일반대학원	1,002	582	9	42	6	120	-	4
		전문대학원	5,006	1,941	110	309	444	109	237	-
		특수대학원	763	339	28	7	10	16	25	3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문 대학 과정	전체	11,271	4,096	3,705	5,643	3,845	2,200	5,850	3,599	868
	소계	4,117	441	516	516	561	672	1,104	690	192
	전문대학	3,988	415	482	445	524	651	1,056	606	192
	기술대학	-	-	-	-	-	-	-	-	-
	각종학교	7	-	-	-	-	-	-	-	-
	원격대학	16	-	-	-	-	-	-	-	-
	사이버대학	-	-	-	-	-	11	-	-	-
	사내대학	-	-	-	-	-	-	-	1	-
	기능대학	-	-	-	-	-	-	-	-	-
대학 과정	전공대학	106	26	34	71	37	21	37	83	-
	소계	6,355	3,510	2,932	4,976	2,938	1,519	4,578	2,426	517
	일반대학	6,329	3,435	2,851	4,687	2,694	1,519	4,541	2,352	517
	교육대학	-	75	67	87	58	-	-	74	-
	산업대학	-	-	-	158	158	-	-	-	-
	기술대학	-	-	-	-	-	-	-	-	-
	방송통신대학	-	-	14	29	-	-	-	-	-
	각종학교	-	-	-	-	-	-	-	-	-
	원격대학	-	-	-	-	-	10	-	-	-
대학원 과정	사이버대학	16	-	-	15	28	-	27	-	-
	사내대학	10	-	-	-	-	-	-	-	-
	소계	799	145	257	151	346	9	168	483	159
	대학원 대학	소계	179	-	31	11	-	8	-	-
		일반대학원	60	-	-	-	-	-	-	-
		전문대학원	119	-	31	11	-	8	-	-
		특수대학원	-	-	-	-	-	-	-	-
	대학 부설 대학원	소계	620	145	257	120	335	9	160	483
		일반대학원	19	-	1	27	10	60	1	1
		전문대학원	432	139	247	55	289	-	68	473
		특수대학원	169	6	9	38	36	9	32	9

주: 1) 교원 수에는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가 포함됨.

2) 기술대학에는 전임교원이 없음.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사무직원 수

(단위: 명)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전체		36,179	9,807	2,971	1,329	877	1,440	1,929	423	182
전문 대학 과정	소계	6,008	542	454	388	181	212	224	99	46
	전문대학	5,587	449	444	356	164	197	211	90	46
	기술대학	-	-	-	-	-	-	-	-	-
	각종학교	1	-	-	-	-	-	-	-	-
	원격대학	30	-	-	-	-	-	-	-	-
	사이버대학	46	-	-	11	-	-	-	-	-
	사내대학	12	2	-	-	-	-	-	-	-
	기능대학	65	65	-	-	-	-	-	-	-
	전공대학	267	26	10	21	17	15	13	9	-
대학 과정	소계	29,195	8,862	2,484	831	654	1,206	1,582	302	136
	일반대학	27,170	7,686	2,394	773	558	1,152	1,566	302	136
	교육대학	645	107	63	58	96	54	-	-	-
	산업대학	121	-	-	-	-	-	-	-	-
	기술대학	-	-	-	-	-	-	-	-	-
	방송통신대학	532	532	-	-	-	-	-	-	-
	각종학교	191	130	-	-	-	-	-	-	-
	원격대학	4	-	-	-	-	-	-	-	-
	사이버대학	523	407	27	-	-	-	7	-	-
	사내대학	9	-	-	-	-	-	9	-	-
	소계	976	403	33	110	42	22	123	22	-
대학원 과정	대학원 대학	소계	401	230	-	-	12	-	34	22
	대학원 대학	일반대학원	7	-	-	-	-	-	-	-
		전문대학원	366	202	-	-	12	-	34	22
		특수대학원	28	28	-	-	-	-	-	-
	대학 부설 대학원	소계	575	173	33	110	30	22	89	-
	대학 부설 대학원	일반대학원	274	35	11	104	5	1	84	-
		전문대학원	152	86	9	-	23	17	0	-
		특수대학원	149	52	13	6	2	4	5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4,567	1,532	1,605	2,136	1,532	1,058	2,861	1,514	416
전문 대학 과정	소계	1,629	251	247	305	242	238	581	299	70
	전문대학	1,561	230	236	279	224	229	536	265	70
	기술대학	-	-	-	-	-	-	-	-	-
	각종학교	1	-	-	-	-	-	-	-	-
	원격대학	30	-	-	-	-	-	-	-	-
	사이버대학	-	-	-	-	-	-	35	-	-
	사내대학	-	-	-	-	-	-	-	10	-
	기능대학	-	-	-	-	-	-	-	-	-
	전공대학	37	21	11	26	18	9	10	24	-
대학 과정	소계	2,797	1,281	1,348	1,790	1,284	819	2,266	1,207	346
	일반대학	2,784	1,222	1,289	1,585	1,166	819	2,238	1,154	346
	교육대학	-	59	57	54	44	-	-	53	-
	산업대학	-	-	-	67	54	-	-	-	-
	기술대학	-	-	-	-	-	-	-	-	-
	방송통신대학	-	-	-	-	-	-	-	-	-
	각종학교	-	-	2	59	-	-	-	-	-
	원격대학	-	-	-	-	-	-	4	-	-
	사이버대학	13	-	-	25	20	-	24	-	-
	사내대학	-	-	-	-	-	-	-	-	-
	소계	141	-	10	41	6	1	14	8	-
대학원 과정	대학원 대학	소계	81	-	-	19	1	-	2	-
	대학원 대학	일반대학원	7	-	-	-	-	-	-	-
		전문대학원	74	-	-	19	1	-	2	-
		특수대학원	0	-	-	-	-	-	-	-
	대학 부설 대학원	소계	60	-	10	22	5	1	12	8
	대학 부설 대학원	일반대학원	16	-	3	5	1	1	4	-
		전문대학원	7	-	6	1	-	3	-	-
		특수대학원	37	-	1	16	4	-	5	4

주: 기술대학에는 전담 사무직원이 없음.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연도별 개황

학교 수

(단위: 개)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전체		358	463	563	748	1,184	1,436	1,427
전문 대학 과정	소계	128	120	117	149	159	161	155
	전문대학	128	120	117	145	158	158	152
	기술대학	-	-	-	-	-	-	-
	각종학교	-	-	-	4	1	1	1
	원격대학	-	-	-	-	-	2	2
	사이버대학	-	-	-	-	-	-	-
	사내대학	-	-	-	-	-	-	-
	기능대학	-	-	-	-	-	-	-
대학 과정	전공대학	-	-	-	-	-	-	-
	소계	109	142	148	178	196	224	221
	일반대학	85	100	107	131	161	173	175
	교육대학	11	11	11	11	11	11	11
	산업대학	-	6	6	17	19	18	14
	기술대학	-	-	-	-	1	1	1
	방송통신대학	1	1	1	1	1	1	1
	각종학교	12	24	23	18	3	4	3
대학원 과정	원격대학	-	-	-	-	-	15	15
	사이버대학	-	-	-	-	-	-	-
	사내대학	-	-	-	-	-	1	1
	소계	121	201	298	421	829	1,051	10,51
	대학원 대학	소계	-	-	-	17	34	36
		일반대학원	-	-	-	0	0	0
		전문대학원	-	-	-	10	32	32
		특수대학원	-	-	-	7	2	4
	대학 부설 대학원	소계	121	201	298	812	1,017	1,015
		일반대학원	58	75	97	106	145	149
		전문대학원	-	126	201	44	98	106
		특수대학원	63	-	-	639	774	76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1,414	1,423	1,484	1,506	1,561	1,566	1,590
전문 대학 과정	소계	152	151	150	149	167	163	163
	전문대학	148	147	146	145	147	142	140
	기술대학	-	-	-	-	-	-	0
	각종학교	1	1	1	1	1	1	1
	원격대학	2	2	2	1	1	1	1
	사이버대학	-	-	-	1	2	2	2
	사내대학	1	1	1	1	1	2	4
	기능대학	-	-	-	-	12	12	3
대학 과정	전공대학	-	-	-	-	3	3	12
	소계	220	217	219	221	226	226	227
	일반대학	175	174	177	179	183	189	188
	교육대학	11	10	10	10	10	10	10
	산업대학	14	13	12	11	9	2	2
	기술대학	1	1	1	1	1	1	1
	방송통신대학	1	1	1	1	1	1	1
	각종학교	2	2	1	2	4	4	4
대학원 과정	원격대학	15	15	4	2	1	1	1
	사이버대학	-	-	12	15	16	17	17
	사내대학	1	1	1	1	1	1	3
	소계	1,042	1,055	1,115	1,138	1,168	1,177	1,200
	대학원 대학	소계	36	37	38	40	41	43
		일반대학원	-	1	1	1	1	1
		전문대학원	31	31	32	34	35	37
		특수대학원	5	5	5	5	5	5
	대학 부설 대학원	소계	1,006	1,018	1,077	1,098	1,126	1,157
		일반대학원	154	157	162	166	177	181
		전문대학원	117	119	161	165	171	177
		특수대학원	735	742	754	767	778	797

주: 1) 분교 수는 학교 수에서 제외됨.

2) 기술대학은 한 개의 대학에서 전문대학과정과 대학과정을 함께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수는 대학과정에 포함됨.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학생 수

(단위: 명)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전체		647,505	1,277,825	1,691,681	2,343,894	3,363,599	3,548,728	3,545,774
전문 대학 과정	소계	165,051	242,117	323,825	574,239	914,397	856,564	821,698
	전문대학	165,051	242,117	323,825	569,820	913,273	853,089	817,994
	기술대학	-	-	-	-	50	87	65
	각종학교	-	-	-	4,419	1,074	54	39
	원격대학	-	-	-	-	-	3,304	3,600
	사이버대학	-	-	-	-	-	-	-
	사내대학	-	-	-	-	-	30	-
	기능대학	-	-	-	-	-	-	-
	전공대학	-	-	-	-	-	-	-
대학 과정	소계	448,515	1,141,002	1,280,693	1,655,819	2,219,765	2,409,939	2,434,047
	일반대학	402,979	931,884	1,040,166	1,187,735	1,665,398	1,859,639	188,8436
	교육대학	9,425	18,174	15,960	19,650	20,907	25,141	25,881
	산업대학	-	20,254	51,970	120,670	170,622	188,753	180,435
	기술대학	-	-	-	-	100	102	130
	방송통신대학	32,053	153,215	148,650	314,977	360,051	282,023	273,417
	각종학교	4,058	17,475	23,947	12,787	2,687	1,094	1,027
	원격대학	-	-	-	-	-	53,156	64,658
	사이버대학	-	-	-	-	-	-	-
	사내대학	-	-	-	-	-	31	63
대학원 과정	소계	33,939	68,178	87,163	113,836	229,437	282,225	290,029
	대학원 대학	소계	-	-	-	2,164	3,601	4,832
		일반대학원	-	-	-	-	-	-
		전문대학원	-	-	-	1,305	3,467	4,501
	대학 부설 대학원	소계	33,939	68,178	87,163	227,273	282,091	285,197
		일반대학원	21,551	40,377	51,054	111,542	120,601	123,835
		전문대학원	-	27,801	36,109	48,080	15,828	13,938
		특수대학원	12,388	-	-	111,227	145,662	147,424
		소계	296,576	301,412	306,471	316,633	329,933	329,822
대학원 과정	대학원 대학	소계	5,361	6,009	6,637	7,074	7,877	8,746
		일반대학원	-	205	210	223	256	261
		전문대학원	4,844	5,226	5,699	6,076	7,038	7,692
	대학 부설 대학원	소계	291,215	166,517	305,743	309,559	322,056	321,076
		일반대학원	126,584	129,464	132,017	137,309	146,782	148,978
		전문대학원	17,873	20,541	30,166	28,285	32,119	33,701
		특수대학원	146,758	16,512	143,560	143,965	143,155	140,413
		소계	296,576	301,412	306,471	316,633	329,933	329,822
	대학원 대학	소계	5,361	6,009	6,637	7,074	7,877	8,746
		일반대학원	-	205	210	223	256	261
		전문대학원	4,844	5,226	5,699	6,076	7,038	7,692
	대학 부설 대학원	소계	291,215	166,517	305,743	309,559	322,056	321,076
		일반대학원	126,584	129,464	132,017	137,309	146,782	148,978
		전문대학원	17,873	20,541	30,166	28,285	32,119	33,701
		특수대학원	146,758	16,512	143,560	143,965	143,155	140,413

주: 전문대학의 1980년 학생 수에는 초급대학과 전문학교의 값이 포함되어 있고, 1985년 학생 수에는 전문학교의 값이 포함되어 있음.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교원 수

(단위: 명)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전체		20,900	33,895	42,911	58,977	57,632	66,862	69,201
전문 대학 과정	소계	5,488	6,406	7,382	10,502	11,713	12,053	11,879
	전문대학	5,488	6,406	7,382	10,384	11,707	12,027	11,857
	기술대학	-	-	-	-	-	-	-
	각종학교	-	-	-	118	6	5	4
	원격대학	-	-	-	-	-	21	18
	사이버대학	-	-	-	-	-	-	-
	사내대학	-	-	-	-	-	-	-
	기능대학	-	-	-	-	-	-	-
	전공대학	-	-	-	-	-	-	-
대학 과정	소계	15,174	27,077	35,529	48,475	45,190	53,136	55,332
	일반대학	14,458	26,047	33,340	45,087	41,943	49,200	51,859
	교육대학	564	623	694	766	698	798	857
	산업대학	-	-	855	2,106	2,390	2,658	2,117
	기술대학	-	-	-	-	-	-	-
	방송통신대학	-	-	136	166	113	131	134
	각종학교	152	407	504	350	46	28	18
	원격대학	-	-	-	-	-	321	347
	사이버대학	-	-	-	-	-	-	-
대학원 과정	소계	-	-	-	-	729	1,673	1,990
	대학원 대학	소계	-	-	-	194	379	403
		일반대학원	-	-	-	-	-	-
		전문대학원	-	-	-	123	365	376
		특수대학원	-	-	-	71	14	27
	대학 부설 대학원	소계	-	-	-	535	1,294	1,587
		일반대학원	-	-	-	-	-	92
		전문대학원	-	-	-	319	998	1,170
		특수대학원	-	-	-	216	296	32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70,957	73,072	75,469	77,697	82,190	84,910	86,656
전문 대학 과정	소계	11,713	12,134	12,487	12,573	14,028	14,215	14,143
	전문대학	11,685	12,100	12,451	12,530	12,891	13,078	13,015
	기술대학	-	-	-	-	-	-	0
	각종학교	4	4	3	7	7	7	7
	원격대학	21	23	25	12	15	16	16
	사이버대학	-	-	-	16	30	32	37
	사내대학	3	7	8	8	1	2	3
	기능대학	-	-	-	-	894	881	213
	전공대학	-	-	-	-	190	199	852
대학 과정	소계	56,349	57,841	57,977	59,381	61,646	63,996	65,077
	일반대학	52,763	54,331	54,518	55,972	58,104	61,993	63,042
	교육대학	855	812	805	813	820	842	835
	산업대학	2,190	2,137	2,073	1,942	1,869	286	316
	기술대학	-	-	-	-	-	-	0
	방송통신대학	136	137	140	139	148	149	145
	각종학교	18	19	7	23	180	184	171
	원격대학	386	404	104	30	9	8	10
	사이버대학	-	-	324	453	506	524	542
대학원 과정	소계	2,895	3,097	5,005	5,743	6,516	6,699	7,436
	대학원 대학	소계	479	561	604	619	636	665
		일반대학원	-	54	52	57	57	60
		전문대학원	438	455	502	516	528	539
		특수대학원	41	52	50	64	65	66
	대학 부설 대학원	소계	2,416	2,536	4,401	5,124	6,049	6,771
		일반대학원	271	265	314	560	826	1,002
		전문대학원	1,787	1,877	3,649	4,009	4,394	5,006
		특수대학원	358	394	438	555	829	763

주: 1) 교원 수에는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가 포함됨.

2) 기술대학에는 전임교원이 없음.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I .전문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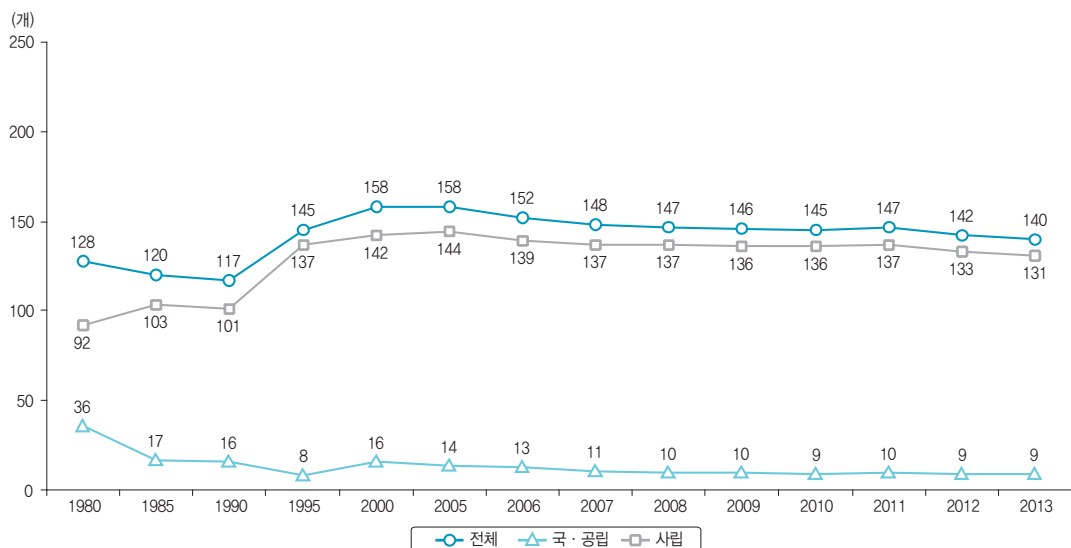
1. 학교
2. 학생
3. 교원
4. 학습 환경 및 여건

이 장에서의 '전문대학'은 전문대학과정에 있는 전문대학만을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전문대학과정에 있는 학교의 정보는 개황에서 제시하고 있음.

1. 학교¹⁾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기관 중 전문대학은 2013년 현재 140개교에 이른다. 1980년 당시 128개교였던 전문대학은 1990년대 초반까지 줄어들다가 1990년대 중반에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후 10여년 간 증가세가 유지되어 2000년부터 158개교에 달했는데, 2000년대 후반부터 다시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 이는 당시 대학구조개혁과 관련하여 전문대학들이 통폐합의 과정을 거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한강희 외, 2010). 설립별로 살펴보면, 1990년대 중반까지 학교 수의 감소는 국·공립이 주도하였다. 1980년 36개교였던 국·공립이 1995년에는 8개교로 축소되었다.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잠시 증가세를 보였으나 곧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3년 현재 9개교에 불과하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국·공립은 감소한 반면에, 사립은 200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여 2005년에는 144개교로 늘어났다. 그러나 사립도 2000년대 후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3년 현재 131개교로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 중 사립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71.9%, 1990년 86.3%, 2000년 89.9%, 2010년 93.8%, 2013년에는 93.6%까지 늘어나 전문대학의 대부분을 사립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전문대학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여 살펴보면(〈표 I-1-2〉 참조), 수도권의 경우 45개교, 비수도권에 95개교가 있다. 국·공립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각 2개교, 7개교가 있고, 사립은 각각 43개교, 88개교가 있다. 규모로 보면 국·공립은 모두 5,000명 미만이고, 사립은 5,000명 미만인 학교가 65개교, 5,000명 이상인 학교가 66개교이다. 수도권에는 5,000명 이상의 학교가 31개교로 68.9%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비수도권은 5,000명 미만의 학교가 60개교로 63.2%(31개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그림 I-1-1 ■ 연도별 설립별 학교 수(1980~2013)

1) 이 장에서의 '전문대학'은 전문대학과정에 있는 전문대학만을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전문대학과정에 있는 학교의 정보는 개황에서 제시하고 있음.

■ 표 I-1-1 ■ 연도별 설립별 학교 수(1980~2013)

(단위: 개)

	전체	국·공립	사립
1980	128	36	92
1985	120	17	103
1990	117	16	101
1995	145	8	137
2000	158	16	142
2005	158	14	144
2006	152	13	139
2007	148	11	137
2008	147	10	137
2009	146	10	136
2010	145	9	136
2011	147	10	137
2012	142	9	133
2013	140	9	131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 표 I-1-2 ■ 지역별 학교규모별 설립별 학교 수(2013)

(단위: 개)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140	9	131
수도권	소계	45	2	43
	5,000명 미만	14	2	12
	5,000명 이상	31	-	31
비수도권	소계	95	7	88
	5,000명 미만	60	7	53
	5,000명 이상	35	-	35

주: 학교규모는 학생 수 5,000명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음.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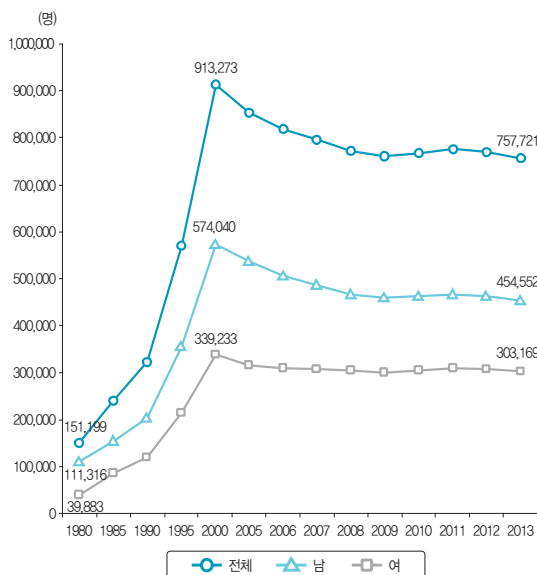
2. 학생

1) 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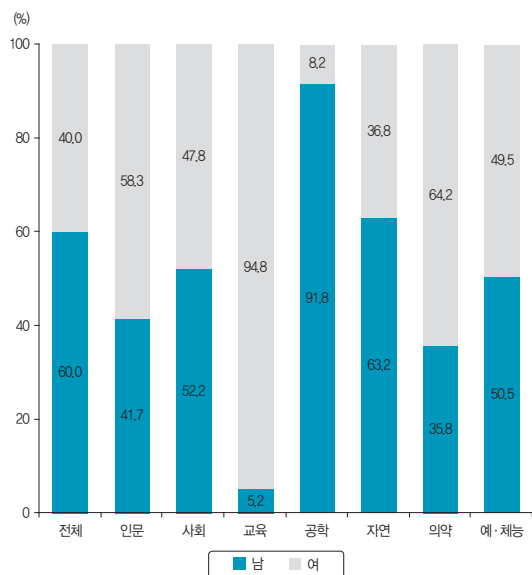
전문대학의 학생 수는 2013년 현재 남학생은 454,552명이고 여학생은 303,169명으로 전체 학생 수는 757,721명이다. 1980년 학생 수는 151,199명이었고, 2000년에는 913,273명으로 6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이후 다소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학생 수의 변화는 학교 수의 변화를 따라가는 추세이다. 이는 또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생자원의 감소, 대학 준칙주의와 정원 자율화로 인하여 4년제 대학의 양적 팽창, 이들 4년제 대학의 직업교육 기능 잠식화 등의 교육환경의 변화로 보인다(한강희 외, 2010).

성별로 학생 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남학생 수는 1980년 111,316명에서 2013년 454,552명으로 4배 늘어났으나, 여학생 수는 1980년 39,883명에서 2013년 303,169명으로 약 7.6배 증가하였다. 여학생 수의 증가는 학생 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 수에서 차지하는 여학생 비율의 증가도 가져왔다. 1980년 당시 여학생의 비율은 26.4%로 나타났으나, 1985년에는 30%를 넘어섰고,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13년에는 여학생이 전체 학생의 40.0%를 차지하였다.

2013년 학생 수를 계열별로 살펴보면, 공학계열이 전체 학생의 30.2%(228,615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사회계열이 24.3%(183,811명), 예·체능계열이 16.2%(122,863명), 의약계열이 15.1%(114,708명), 자연계열이 7.3%(55,314명), 교육계열이 4.0%(30,583명)이었고, 마지막으로 인문계열이 2.9%(21,827명)로 가장 비중이 낮았다. 계열별로 여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교육계열이 9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의약계열(64.2%), 인문계열(58.3%), 예·체능계열(49.5%), 사회계열(47.8%), 자연계열(36.8%), 공학계열(30.2%)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학계열은 다른 계열에 비해서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 그림 I-2-1 ■ 연도별 성별 학생 수(1980~2013)



■ 그림 I-2-2 ■ 계열별 성별 학생 비율(2013)

표 I-2-1 연도별 설립별 성별 학생 수(1980~2013)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1980	151,199	111,316	39,883	22,422	17,857	4,565	131,777	96,459	35,318
1985	242,114	154,991	87,123	22,956	19,588	3,368	219,158	135,403	83,755
1990	323,825	204,480	119,345	26,959	22,113	4,846	296,866	182,367	114,499
1995	569,820	355,510	214,310	21,473	15,414	6,059	548,347	340,096	208,251
2000	913,273	574,040	339,233	37,331	24,822	12,509	875,942	549,218	326,724
2005	853,089	536,763	316,326	36,153	26,042	10,111	816,936	510,721	306,215
2006	817,994	507,280	310,714	33,553	24,261	9,292	784,441	483,019	301,422
2007	795,519	487,066	308,453	30,372	22,204	8,168	765,147	464,862	300,285
2008	771,854	466,153	305,701	26,702	19,531	7,171	745,152	446,622	298,530
2009	760,929	459,534	301,395	25,248	18,514	6,734	735,681	441,020	294,661
2010	767,087	462,241	304,846	21,473	15,801	5,672	745,614	446,440	299,174
2011	776,738	466,491	310,247	18,790	14,313	4,477	757,948	452,178	305,770
2012	769,888	462,538	307,350	16,792	12,782	4,010	753,096	449,756	303,340
2013	757,721	454,552	303,169	16,019	12,146	3,873	741,702	442,406	299,296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표 I-2-2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학생 수(2013)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757,721	454,552	303,169	16,019	12,146	3,873	741,702	442,406	299,296
수도권	소계	323,497	190,061	133,436	3,248	2,718	530	320,249	187,343	132,906
	인문	14,643	5,317	9,326	86	42	44	14,557	5,275	9,282
	사회	79,468	39,275	40,193	308	243	65	79,160	39,032	40,128
	교육	12,115	553	11,562	42	3	39	12,073	550	11,523
	공학	106,159	95,172	10,987	1,057	1,010	47	105,102	94,162	10,940
	자연	22,165	12,454	9,711	1,288	1,089	199	20,877	11,365	9,512
	의약	21,064	6,453	14,611	108	78	30	20,956	6,375	14,581
	예·체능	67,883	30,837	37,046	359	253	106	67,524	30,584	36,940
비수도권	소계	434,224	264,491	169,733	12,771	9,428	3,343	421,453	255,063	166,390
	인문	7,184	3,780	3,404	-	-	-	7,184	3,780	3,404
	사회	104,343	56,761	47,582	2,507	1,542	965	101,836	55,219	46,617
	교육	18,468	1,029	17,439	547	66	481	17,921	963	16,958
	공학	122,456	114,591	7,865	5,911	5,556	355	116,545	109,035	7,510
	자연	33,149	22,513	10,636	1,699	1,150	549	31,450	21,363	10,087
	의약	93,644	34,635	59,009	779	495	284	92,865	34,140	58,725
	예·체능	54,980	31,182	23,798	1,328	619	709	53,652	30,563	23,089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 I. 전문대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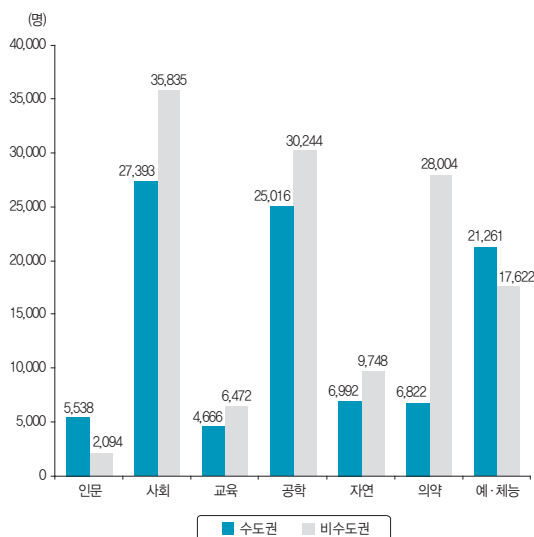
2) 입학

전문대학 입학생 수를 살펴보면, 2013년 227,707명으로서, 남학생은 107,270명, 여학생은 120,437명으로 전체 입학생 수 대비 여학생의 비율은 52.9%이다. 설립별로는 사립대학의 입학생 수가 2013년 223,033명으로 전체 입학생 수의 98.0%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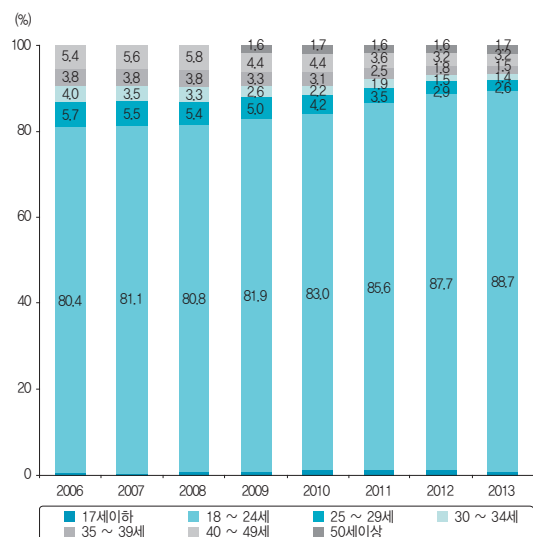
2013년 계열별 입학생 수를 살펴보면, 사회계열이 전체 입학생의 27.8%(63,228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공학계열이 24.3%(55,260명), 예·체능계열이 17.1%(38,883명), 의약계열이 15.3%(34,826명), 자연계열이 7.4%(16,740명), 교육계열이 4.9%(11,138명)이었고, 인문계열이 3.6%(7,632명)로 가장 낮았다. 이는 공학계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재학생 수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 입학자의 비중은 공학계열, 사회계열, 예·체능계열, 의약계열, 자연계열, 인문계열, 교육계열 순이었고, 여학생은 사회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 교육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인문계열 순이었다.

지역별·계열별로 입학생 수를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사회계열이 27,393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 인문계열, 교육계열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역시 사회계열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공학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 자연계열, 교육계열, 인문계열 순이었다.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대학의 계열 비중은 약간 차이가 있었다.

연령별로 보면, 25세 이상의 입학생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25~29세와 30~34세의 경우, 2006년과 2013년에 각각 5.7%에서 2.6%로, 4.0%에서 1.4%로 감소하여, 20대 후반과 30대의 입학자 비중이 작아지고 있다. 2013년 입학생의 학생유형별로 보면, 당해 연도 고교졸업자 69.9%, 재수자 20.7%, 재진학자 3.4%, 검정고시합격자 4.0%, 기타 2.0%를 차지했다. 또한, 2013년 당해 연도 고교졸업자의 비중을 보면, 남학생은 71.3%이며, 여학생은 68.7%이었다. 재수자와 재진학자의 비율도 차이가 없고, 검정고시합격자의 비중이 남학생은 3.2%인 반면에, 여학생은 4.7%로 여학생이 좀 더 많았다.



■ 그림 I-2-3 ■ 지역별 계열별 입학생 수(2013)



■ 그림 I-2-4 ■ 연도별 연령별 입학생 비율(2013)

■ 표 I-2-3 ■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입학생 수(2013)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227,707	107,270	120,437	4,674	3,011	1,663	223,033	104,259	118,774
수도권	소계	97,688	43,574	54,114	653	480	173	97,035	43,094	53,941
	인문	5,538	1,434	4,104	19	6	13	5,519	1,428	4,091
	사회	27,393	9,997	17,396	32	19	13	27,361	9,978	17,383
	교육	4,666	138	4,528	16	1	15	4,650	137	4,513
	공학	25,016	20,720	4,296	62	50	12	24,954	20,670	4,284
	자연	6,992	2,944	4,048	420	342	78	6,572	2,602	3,970
	의약	6,822	1,638	5,184	41	32	9	6,781	1,606	5,175
	예·체능	21,261	6,703	14,558	63	30	33	21,198	6,673	14,525
비수도권	소계	130,019	63,696	66,323	4,021	2,531	1,490	125,998	61,165	64,833
	인문	2,094	827	1,267	-	-	-	2,094	827	1,267
	사회	35,835	14,648	21,187	886	438	448	34,949	14,210	20,739
	교육	6,472	247	6,225	228	24	204	6,244	223	6,021
	공학	30,244	27,176	3,068	1,593	1,431	162	28,651	25,745	2,906
	자연	9,748	5,096	4,652	564	311	253	9,184	4,785	4,399
	의학	28,004	8,107	19,897	236	125	111	27,768	7,982	19,786
	예·체능	17,622	7,595	10,027	514	202	312	17,108	7,393	9,715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 표 I-2-4 ■ 연도별 연령별 입학생 수(2006~2013)

(단위: 명)

	전체	~ 17세	18 ~ 24세	25 ~ 29세	30 ~ 34세	35 ~ 39세	40 ~ 49세	50세 ~
2006	254,433	2,037	204,542	14,421	10,155	9,557	13,721	-
2007	255,395	1,166	207,211	14,158	9,056	9,628	14,176	-
2008	249,291	2,346	201,317	13,414	8,105	9,559	14,550	-
2009	242,525	2,653	198,549	12,223	6,321	8,118	10,675	3,986
2010	249,144	3,268	206,832	10,390	5,598	7,841	10,947	4,268
2011	249,693	3,110	213,654	8,832	4,824	6,131	9,032	4,110
2012	238,952	2,846	209,538	6,985	3,678	4,213	7,754	3,938
2013	227,707	2,209	202,029	5,875	3,081	3,374	7,267	3,872

주: 2006~2008년의 40~49세 범주에는 '40세 이상'의 값을 제시함. 당시에는 50세 이상의 범주를 별도로 구분하여 조사하지 않고, 해당 대상을 40세 이상에 포함시켜 함께 집계함.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 표 I-2-5 ■ 학생유형별 설립별 성별 입학생 수(2013)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227,707	107,270	120,437	4,674	3,011	1,663	223,033	104,259	118,774
당해연도 고교졸업자		159,154	76,435	82,719	3,326	2,169	1,157	155,828	74,266	81,562
재수자		47,108	21,950	25,158	674	459	215	46,434	21,491	24,943
재진학자		7,661	3,502	4,159	150	79	71	7,511	3,423	4,088
검정고시합격		9,146	3,447	5,699	159	111	48	8,987	3,336	5,651
기타		4,638	1,936	2,702	365	193	172	4,273	1,743	2,53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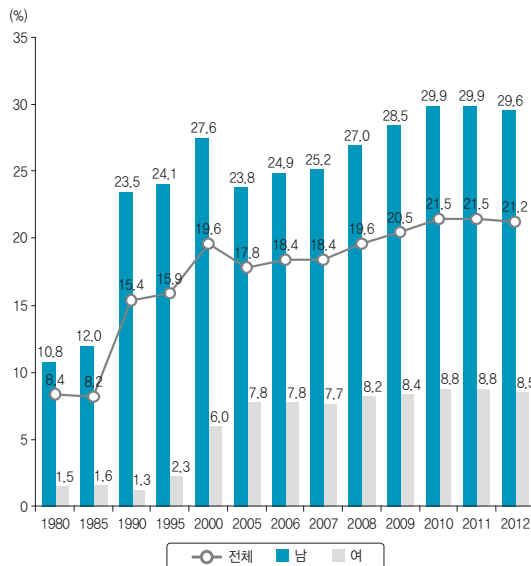
3) 학생 변동 상황²⁾

① 휴학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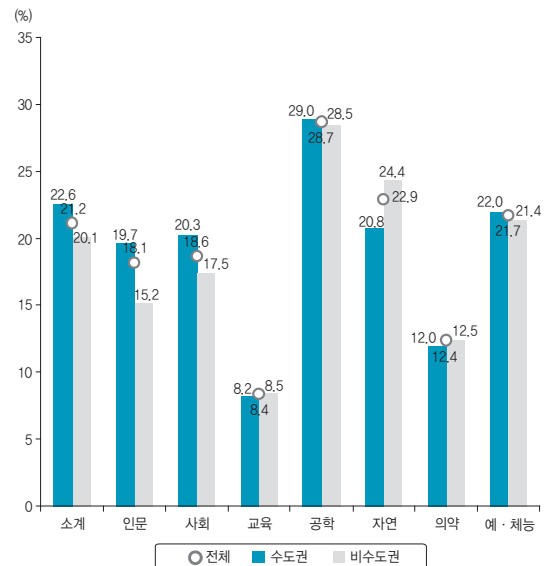
전문대학의 2012학년도 전체 휴학생 수는 163,084명이었고, 휴학생 비율⁴⁾은 21.2%로 나타났다. 2000학년도의 휴학생 비율은 19.6%로 이전에 비하여 급격하게 늘었다가, 2000년대 중반 잠시 감소했다가 2010학년도까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2학년도에는 약간 감소하긴 했지만 큰 차이는 없다. 전반적으로 휴학생 비율은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성별 휴학률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980학년도에는 남학생은 10.8%, 여학생은 1.5%였으나 2012학년도에는 남학생은 29.6%, 여학생은 8.5%로 각각 18.8%p, 7.0%p 증가하였다. 1980학년도 이래로 남학생의 휴학률이 여학생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남학생의 군복무로 인한 휴학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설립별로 휴학률을 보면, 1980학년도에 국·공립대학은 9.0%, 사립대학은 8.1%이었다. 그러나 2012학년도에는 국·공립대학은 22.8%, 사립대학은 21.1%로 각각 약 2.6배씩 증가하였다(〈표 I-2-6〉 참조).

2012학년도의 계열별 휴학률을 보면, 교육계열의 휴학률이 8.4%로 가장 낮았으며, 공학계열이 28.7%로 가장 높았다. 공학계열(28.7%), 자연계열(22.9%), 예·체능계열(21.7%)의 휴학률이 20%를 넘었고, 사회계열(18.6%), 인문계열(18.1%), 의약계열(12.4%)이 휴학률이 10%를 넘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모두 공학계열이 휴학률이 가장 높았고, 교육계열이 가장 낮았다.



■ 그림 I-2-5 ■ 연도별 성별 휴학률(1980~2012, 학년도 기준)



■ 그림 I-2-6 ■ 지역별 계열별 휴학률(2012, 학년도 기준)

2)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휴학, 중도탈락, 편입 현황은 조사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재적 학생 현황 파악 차원에서 조사되는 경우와 조사년도 기준으로 전년도 3월 1일부터 차년도(조사년도) 2월 28일을 기준으로 학생 변동 상황 파악 차원에서 조사되는 경우의 두 장표로 조사된다. 이 절에서의 학생 변동 상황은 조사년도 기준으로 전년도 3월 1일부터 차년도(조사년도) 2월 28일을 기준으로 하는 두 번째 조사 기준에 의한 자료임을 밝혀둔다.

3) 휴학과 관련한 자료(학년도 기준)의 자료기준일은 기준학년도 3월 1일-차년도 2월 28일임.

4) 휴학생 비율(학년도 기준)=(휴학생 수/재적학생 수)×100

■ 표 I-2-6 ■ 연도별 설립별 성별 휴학생 수 및 휴학률(1980~2012, 학년도 기준)

(단위: 명, %)

	전체						국·공립						사립					
	휴학생 수			휴학률			휴학생 수			휴학률			휴학생 수			휴학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남	여
1980	12,656	12,074	582	8.4	10.8	1.5	2,011	1,954	57	9.0	10.9	1.2	10,645	10,120	525	8.1	10.5	1.5
1985	19,972	18,593	1,379	8.2	12.0	1.6	2,844	2,780	64	12.4	14.2	1.9	17,128	15,813	1,315	7.8	11.7	1.6
1990	49,709	48,116	1,593	15.4	23.5	1.3	4,473	4,381	92	16.6	19.8	1.9	45,236	43,735	1,501	15.2	24.0	1.3
1995	90,711	85,762	4,949	15.9	24.1	2.3	3,845	3,685	160	17.9	23.9	2.6	86,866	82,077	4,789	15.8	24.1	2.3
2000	179,016	158,535	20,481	19.6	27.6	6.0	7,051	6,482	569	18.9	26.1	4.5	171,965	152,053	19,912	19.6	27.7	6.1
2005	152,207	127,622	24,585	17.8	23.8	7.8	5,266	4,658	608	14.6	17.9	6.0	146,941	122,964	23,977	18.0	24.1	7.8
2006	150,433	126,268	24,165	18.4	24.9	7.8	7,785	6,986	799	23.2	28.8	8.6	142,648	119,282	23,366	18.2	24.7	7.8
2007	146,546	122,763	23,783	18.4	25.2	7.7	6,726	5,985	741	22.1	27.0	9.1	139,820	116,778	23,042	18.3	25.1	7.7
2008	150,912	125,824	25,088	19.6	27.0	8.2	6,451	5,825	626	24.2	29.8	8.7	144,461	119,999	24,462	19.4	26.9	8.2
2009	156,212	130,852	25,360	20.5	28.5	8.4	7,097	5,812	1,285	28.1	31.4	19.1	149,115	125,040	24,075	20.3	28.4	8.2
2010	165,175	138,373	26,802	21.5	29.9	8.8	5,547	4,677	870	25.8	29.6	15.3	159,628	133,696	25,932	21.4	29.9	8.7
2011	166,987	139,668	27,319	21.5	29.9	8.8	4,008	3,646	362	21.3	25.5	8.1	162,979	136,022	26,957	21.5	30.1	8.8
2012	163,084	136,900	26,184	21.2	29.6	8.5	3,821	3,457	364	22.8	27.0	9.1	159,263	133,443	25,820	21.1	29.7	8.5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 표 I-2-7 ■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휴학생 수 및 휴학률(2012, 학년도 기준)

(단위: 명, %)

		전체						국·공립						사립					
		휴학생 수			휴학률			휴학생 수			휴학률			휴학생 수			휴학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163,084	136,900	26,184	21.2	29.6	8.5	3,821	3,457	364	22.8	27.0	9.1	159,263	133,443	25,820	21.1	29.7	8.5	
수도권	소계	73,519	60,011	13,508	22.6	31.2	10.2	350	314	36	8.9	9.4	6.3	73,169	59,697	13,472	22.8	31.6	10.2
	인문	3,176	1,951	1,225	19.7	33.4	11.9	2	2	—	1.7	2.9	—	3,174	1,949	1,225	19.8	33.8	12.0
	사회	15,886	12,164	3,722	20.3	31.5	9.4	80	68	12	19.7	20.9	14.8	15,806	12,096	3,710	20.3	31.5	9.4
	교육	953	162	791	8.2	30.6	7.2	2	1	1	4.1	14.3	2.4	951	161	790	8.3	30.8	7.2
	공학	31,415	30,213	1,202	29.0	31.0	10.8	127	125	2	8.2	8.4	3.5	31,288	30,088	1,200	29.3	31.4	10.8
	자연	4,710	3,772	938	20.8	30.2	9.2	63	52	11	5.1	5.0	5.9	4,647	3,720	927	21.7	32.5	9.3
	의약	2,441	1,661	780	12.0	26.6	5.6	21	20	1	17.9	25.0	2.7	2,420	1,641	779	12.0	26.7	5.6
	예·체능	14,938	10,088	4,850	22.0	32.4	13.2	55	46	9	11.9	13.2	7.8	14,883	10,042	4,841	22.1	32.6	13.3
비수도권	소계	89,565	76,889	12,676	20.1	28.4	7.3	3,471	3,143	328	27.0	33.4	9.5	86,094	73,746	12,348	19.9	28.3	7.2
	인문	1,301	929	372	15.2	21.0	9.0	—	—	—	—	—	—	1,301	929	372	15.2	21.0	9.0
	사회	19,173	15,373	3,800	17.5	26.0	7.5	592	486	106	22.8	30.4	10.6	18,581	14,887	3,694	17.3	25.9	7.4
	교육	1,638	242	1,396	8.5	21.1	7.7	54	13	41	10.5	22.0	9.0	1,584	229	1,355	8.4	21.1	7.6
	공학	35,416	34,624	792	28.5	29.8	9.5	1,958	1,915	43	32.8	34.3	11.1	33,458	32,709	749	28.2	29.6	9.4
	자연	8,210	7,190	1,020	24.4	31.5	9.4	410	376	34	25.3	34.7	6.4	7,800	6,814	986	24.4	31.4	9.6
	의약	11,366	8,908	2,458	12.5	26.1	4.3	172	156	16	21.8	30.5	5.8	11,194	8,752	2,442	12.5	26.0	4.3
	예·체능	12,461	9,623	2,838	21.4	29.5	11.0	285	197	88	20.8	33.8	11.2	12,176	9,426	2,750	21.4	29.4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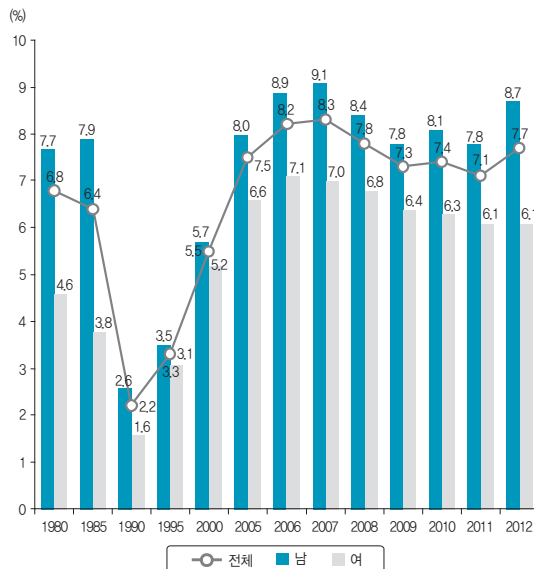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② 중도탈락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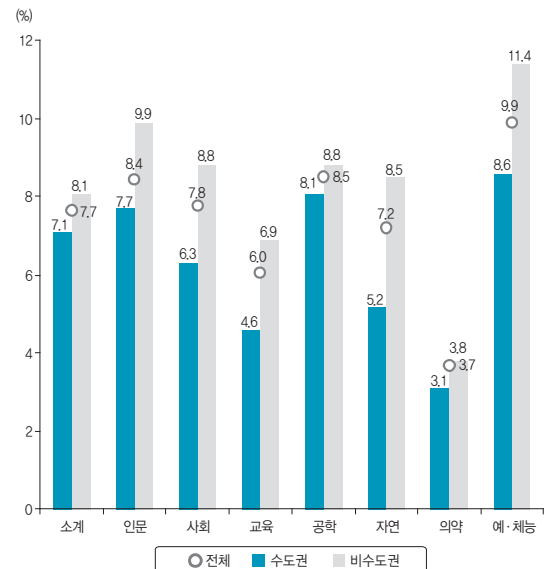
2012학년도 중도탈락 학생 수는 전체 58,923명, 7.7%로 남학생 40,148명, 8.7%, 여학생 18,775명, 6.1%로 나타났다. 중도탈락률⁶⁾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8학년도 이후에 감소하는 추세로 바뀌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중도탈락률이 여학생보다 높은데, 모두 비슷한 변화의 경향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중도탈락률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2008학년도 이후 여학생의 중도탈락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남학생의 경우에는 오르내림의 현상을 볼 수 있다. 설립별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1995학년도, 2006학년도, 2012학년도에는 국·공립의 중도탈락률이 유독 높게 나타났다.

설립별로 중도탈락률을 살펴보면, 1980학년도 국·공립대학의 중도탈락률은 4.9%, 사립대학은 7.0%로 사립대학의 중도탈락률이 국·공립대학보다 높았지만 2012학년도에는 국·공립대학이 15.1%(2,533명)이었고, 사립대학은 7.5%(56,390명)이었다(〈표 I-2-8〉 참조). 2012학년도가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차이가 가장 컸으며,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에 비해 중도탈락률이 2배 정도 높았다.

2012학년도의 계열별 중도탈락률을 보면, 예·체능계열 9.9%, 공학계열 8.5%, 인문계열 8.4%, 사회계열 7.8%, 자연계열 7.2%, 교육계열 6.0%, 의약계열 3.7%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대학(7.1%)이 비수도권 대학(8.1%)보다 중도탈락률이 낮았는데, 학생의 휴학률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계열별로 보면, 모든 계열에서 비수도권 대학의 중도탈락률이 수도권 대학에 비해 높았다. 공학계열과 의약계열은 비수도권과 수도권 대학의 중도탈락률 차이가 많지 않았지만, 그 외 계열들은 비수도권과 수도권 대학간 중도탈락률이 2.2%~3.3%p 차이를 보였다.



■ 그림 I-2-7 ■ 연도별 성별 중도탈락률(1980~2012, 학년도 기준)



■ 그림 I-2-8 ■ 지역별 계열별 중도탈락률(2012, 학년도 기준)

5) 중도탈락과 관련한 자료(학년도 기준)의 자료기준일은 기준학년도 3월 1일~차년도 2월 28일임.

6) 중도탈락률(학년도 기준)=(중도탈락 학생 수/재적학생 수)×100

표 I-2-8 연도별 설립별 성별 중도탈락자 수 및 중도탈락률(1980~2012, 학년도 기준)

(단위: 명, %)

	전체						국·공립						사립					
	중도탈락자 수			중도탈락률			중도탈락자 수			중도탈락률			중도탈락자 수			중도탈락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남	여
1980	10,346	8,516	1,830	6.8	7.7	4.6	1,097	995	102	4.9	5.6	2.2	9,249	7,521	1,728	7.0	7.8	4.9
1985	15,598	12,258	3,340	6.4	7.9	3.8	1,328	1,265	63	5.8	6.5	1.9	14,270	10,993	3,277	6.5	8.1	3.9
1990	7,224	5,361	1,863	2.2	2.6	1.6	837	774	63	3.1	3.5	1.3	6,387	4,587	1,800	2.2	2.5	1.6
1995	19,066	12,511	6,555	3.3	3.5	3.1	1,544	1,352	192	7.2	8.8	3.2	17,522	11,159	6,363	3.2	3.3	3.1
2000	50,496	32,905	17,591	5.5	5.7	5.2	1,725	1,247	478	4.6	5.0	3.8	48,771	31,658	17,113	5.6	5.8	5.2
2005	63,853	42,898	20,955	7.5	8.0	6.6	2,902	2,236	666	8.0	8.6	6.6	60,951	40,662	20,289	7.5	8.0	6.6
2006	67,323	45,196	22,127	8.2	8.9	7.1	3,462	2,694	768	10.3	11.1	8.3	63,861	42,502	21,359	8.1	8.8	7.1
2007	65,697	44,227	21,470	8.3	9.1	7.0	2,339	1,761	578	7.7	7.9	7.1	63,358	42,466	20,892	8.3	9.1	7.0
2008	59,958	39,166	20,792	7.8	8.4	6.8	2,276	1,707	569	8.5	8.7	7.9	57,682	37,459	20,223	7.7	8.4	6.8
2009	55,237	35,948	19,289	7.3	7.8	6.4	1,947	1,468	479	7.7	7.9	7.1	53,290	34,480	18,810	7.2	7.8	6.4
2010	56,658	37,463	19,195	7.4	8.1	6.3	1,316	998	318	6.1	6.3	5.6	55,342	36,465	18,877	7.4	8.2	6.3
2011	55,163	36,335	18,828	7.1	7.8	6.1	1,122	869	253	6.0	6.1	5.7	54,041	35,466	18,575	7.1	7.8	6.1
2012	58,923	40,148	18,775	7.7	8.7	6.1	2,533	2,110	423	15.1	16.5	10.5	56,390	38,038	18,352	7.5	8.5	6.0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표 I-2-9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중도탈락자 및 중도탈락률(2012, 학년도 기준)

(단위: 명, %)

		전체						국·공립						사립					
		중도탈락자 수			중도탈락률			중도탈락자 수			중도탈락률			중도탈락자 수			중도탈락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58,923	40,148	18,775	7.7	8.7	6.1	2,533	2,110	423	15.1	16.5	10.5	56,390	38,038	18,352	7.5	8.5	6.0
수도권	소계	23,120	15,111	8,009	7.1	7.9	6.0	1,385	1,198	187	35.3	35.7	32.9	21,735	13,913	7,822	6.8	7.4	5.9
	인문	1,238	515	723	7.7	8.8	7.0	44	40	4	37.6	58.0	8.3	1,194	475	719	7.5	8.2	7.0
	사회	4,918	2,688	2,230	6.3	7.0	5.6	97	85	12	23.9	26.2	14.8	4,821	2,603	2,218	6.2	6.8	5.6
	교육	530	38	492	4.6	7.2	4.5	94	3	91	191.8	42.9	216.7	436	35	401	3.8	6.7	3.7
	공학	8,777	7,948	829	8.1	8.2	7.4	832	777	55	53.9	52.2	96.5	7,945	7,171	774	7.4	7.5	7.0
	자연	1,189	661	528	5.2	5.3	5.2	49	48	1	4.0	4.6	0.5	1,140	613	527	5.3	5.4	5.3
	의약	633	259	374	3.1	4.2	2.7	9	8	1	7.7	10.0	2.7	624	251	373	3.1	4.1	2.7
	예·체능	5,835	3,002	2,833	8.6	9.6	7.7	260	237	23	56.0	68.1	19.8	5,575	2,765	2,810	8.3	9.0	7.7
비수도권	소계	35,803	25,037	10,766	8.1	9.3	6.2	1,148	912	236	8.9	9.7	6.9	34,655	24,125	10,530	8.0	9.2	6.2
	인문	843	450	393	9.9	10.2	9.5	-	-	-	-	-	-	843	450	393	9.9	10.2	9.5
	사회	9,667	6,180	3,487	8.8	10.5	6.9	227	165	62	8.7	10.3	6.2	9,440	6,015	3,425	8.8	10.5	6.9
	교육	1,333	175	1,158	6.9	15.3	6.4	43	8	35	8.4	13.6	7.7	1,290	167	1,123	6.9	15.4	6.3
	공학	10,999	10,300	699	8.8	8.9	8.4	560	526	34	9.4	9.4	8.8	10,439	9,774	665	8.8	8.8	8.3
	자연	2,865	2,086	779	8.5	9.1	7.2	122	89	33	7.5	8.2	6.2	2,743	1,997	746	8.6	9.2	7.2
	의약	3,432	1,793	1,639	3.8	5.3	2.9	64	49	15	8.1	9.6	5.4	3,368	1,744	1,624	3.7	5.2	2.9
	예·체능	6,664	4,053	2,611	11.4	12.4	10.2	132	75	57	9.6	12.9	7.2	6,532	3,978	2,554	11.5	12.4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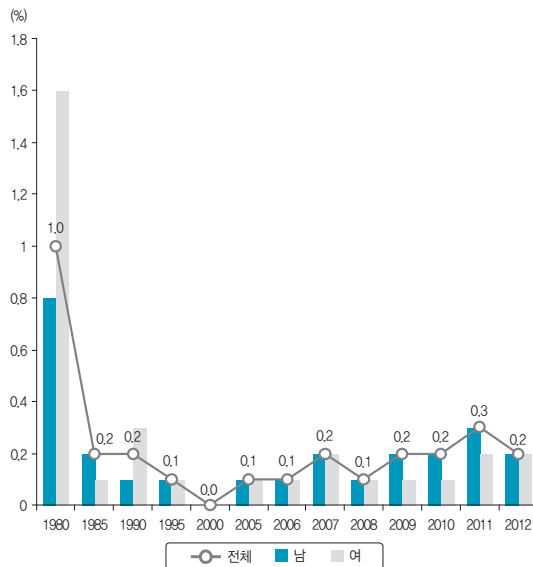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③ 편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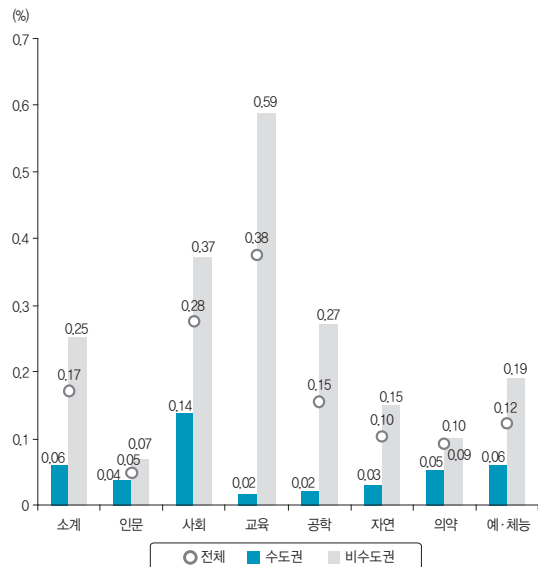
전문대학의 편입생은 지난 30여년간 2,000명 이내로 전체 학생 대비 편입생 비율이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이었다. 편입생 수가 가장 적었던 해는 2000학년도로 전체 편입생 수가 130명이었고, 이 중 남학생이 103명, 여학생이 27명이었 다(〈표 I-2-10〉 참조). 반대로 편입생 수가 가장 많았던 2011학년도는 편입생 수가 1,953명이었고 이 중 남학생이 1,338명, 여학생이 615명이었다. 2012학년도 편입생은 전체 1,322명으로, 남학생 726명, 여학생 596명으로 나타났다. 편입생 수는 2000년 이후 대체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많은 편이었다. 설립별로는 국·공립 의 경우 전체 규모가 작기 때문에 편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편입은 사립에서 이루어졌다.

편입률은 1980학년도에 1.0%이었고, 그 후 전문대학 편입률은 0.5%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낮았다. 성별로 보면 편입률은 1990년대까지는 여학생이 좀 더 높았는데, 2000년대부터는 남학생의 편입률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2012학년도의 경우에는 전문대학 편입률이 0.17%로 2011학년도(0.25%)보다는 낮아졌다. 계열별로는 교육계열이 0.3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사회계열(0.28%), 공학계열(0.15%), 예·체능계열(0.12%), 의학계열(0.09%), 인문계열(0.05%) 순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대학(0.06%)에 비해 비수도권 대학(0.25%)의 편입률이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은 사회계열의 편입률이 0.14%로 가장 높았고, 교육계열과 공학계열이 0.02%로 가장 낮았다. 반면, 비수도권 대학은 교육계열의 편입률(0.59%)이 가장 높았고, 인문계열(0.07%)의 편입률이 가장 낮았다.



■ 그림 I-2-9 ■ 연도별 성별 편입률(1980~2012, 학년도 기준)



■ 그림 I-2-10 ■ 지역별 계열별 편입률(2012, 학년도 기준)

표 I-2-10 연도별 설립별 성별 편입생 수 및 편입률(1980~2012, 학년도 기준)

(단위: 명, %)

	전체						국·공립						사립					
	편입생 수			편입률			편입생 수			편입률			편입생 수			편입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남	여
1980	1,538	901	637	1.0	0.8	1.6	12	4	8	0.1	0.0	0.2	1526	897	629	1.2	0.9	1.8
1985	410	313	97	0.2	0.2	0.1	18	18	-	0.1	0.1	-	392	295	97	0.2	0.2	0.1
1990	507	173	334	0.2	0.1	0.3	4	4	-	0.0	0.0	-	503	169	334	0.2	0.1	0.3
1995	525	291	234	0.1	0.1	0.1	-	-	-	-	-	-	525	291	234	0.1	0.1	0.1
2000	130	103	27	0.0	0.0	0.0	1	1	-	0.0	0.0	-	129	102	27	0.0	0.0	0.0
2005	1,034	663	371	0.1	0.1	0.1	22	11	11	0.1	0.0	0.1	1,012	652	360	0.1	0.1	0.1
2006	968	753	215	0.1	0.1	0.1	14	12	2	0.0	0.0	0.0	954	741	213	0.1	0.2	0.1
2007	1,425	894	531	0.2	0.2	0.2	104	76	28	0.3	0.3	0.3	1,321	818	503	0.2	0.2	0.2
2008	1,041	633	408	0.1	0.1	0.1	4	1	3	0.0	0.0	0.0	1,037	632	405	0.1	0.1	0.1
2009	1,145	773	372	0.2	0.2	0.1	4	3	1	0.0	0.0	0.0	1,141	770	371	0.2	0.2	0.1
2010	1,428	985	443	0.2	0.2	0.1	-	-	-	-	-	-	1,428	985	443	0.2	0.2	0.1
2011	1,953	1,338	615	0.3	0.3	0.2	3	2	1	0.0	0.0	0.0	1,950	1,336	614	0.3	0.3	0.2
2012	1,322	726	596	0.2	0.2	0.2	2	-	2	0.0	-	0.0	1,320	726	594	0.2	0.2	0.2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표 I-2-11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편입생 수 및 편입률(2012, 학년도 기준)

(단위: 명, %)

		전체						국·공립						사립					
		편입생 수			편입률			편입생 수			편입률			편입생 수			편입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1,322	726	596	0.2	0.2	0.2	2	-	2	0.0	-	0.0	1,320	726	594	0.2	0.2	0.2
수도권	소계	200	91	109	0.1	0.0	0.1	-	-	-	-	-	-	200	91	109	0.1	0.0	0.1
	인문	6	2	4	0.0	0.0	0.0	-	-	-	-	-	-	6	2	4	0.0	0.0	0.0
	사회	109	33	76	0.1	0.1	0.2	-	-	-	-	-	-	109	33	76	0.1	0.1	0.2
	교육	2	-	2	0.0	-	0.0	-	-	-	-	-	-	2	-	2	0.0	-	0.0
	공학	23	23	-	0.0	0.0	-	-	-	-	-	-	-	23	23	-	0.0	0.0	-
	자연	7	4	3	0.0	0.0	0.0	-	-	-	-	-	-	7	4	3	0.0	0.0	0.0
	의약	11	3	8	0.1	0.0	0.1	-	-	-	-	-	-	11	3	8	0.1	0.0	0.1
예·체능	42	26	16	0.1	0.1	0.0	-	-	-	-	-	-	42	26	16	0.1	0.1	0.0	
비수도권	소계	1,122	635	487	0.3	0.2	0.3	2	-	2	0.0	-	0.1	1,120	635	485	0.3	0.2	0.3
	인문	6	3	3	0.1	0.1	0.1	-	-	-	-	-	-	6	3	3	0.1	0.1	0.1
	사회	410	181	229	0.4	0.3	0.5	-	-	-	-	-	-	410	181	229	0.4	0.3	0.5
	교육	114	12	102	0.6	1.0	0.6	-	-	-	-	-	-	114	12	102	0.6	1.1	0.6
	공학	338	295	43	0.3	0.3	0.5	-	-	-	-	-	-	338	295	43	0.3	0.3	0.5
	자연	51	34	17	0.2	0.1	0.2	2	-	2	0.1	-	0.4	49	34	15	0.2	0.2	0.1
	의약	91	39	52	0.1	0.1	0.1	-	-	-	-	-	-	91	39	52	0.1	0.1	0.1
예·체능	112	71	41	0.2	0.2	0.2	-	-	-	-	-	-	112	71	41	0.2	0.2	0.2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4) 졸업·진학

전문대학의 졸업생⁸⁾은 1985년 73,927명에서 2000년에는 약 3배 정도 늘어난 228,763명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후로 입학생과 마찬가지로 졸업생은 점차 감소하여 2013년에는 184,817명으로 나타났다. 졸업생 중에서 남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5년에는 55.0%로 여학생보다는 많았지만, 졸업생 중 남학생 비율은 1990년 47.2%, 2000년 43.5%, 2010년 42.5%, 2013년 42.1%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재학생 중 남학생의 비율도 1985년 64.0%, 1990년 63.1%, 2000년 62.9%, 2010년 60.3%, 2013년 60.0%로 완만하지만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과 같은 양상이었다.

설립별로 졸업생 수를 살펴보면(〈표 I-2-12〉 참조), 1985년에는 국·공립 대학 졸업생은 7,540명이며 사립대학 졸업생은 66,387명이었고 2013년에는 국·공립 대학 졸업생은 3,638명, 사립대학 졸업생은 181,179명으로 같은 기간 동안에 사립대학은 졸업생 수가 2.7배 늘었으나 국·공립대학은 졸업생 수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처럼 사립대학 졸업생이 더 많이 증가한 이유는 대학 진학자의 증가가 사립대학을 통해서 더 활발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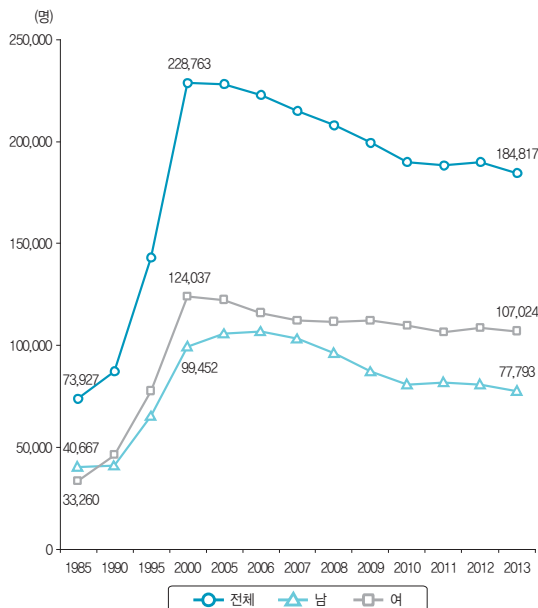
계열별로 졸업생 수를 살펴보면, 재학생 비율은 공학계열이 가장 높는데, 졸업생은 사회계열이 30.1%(55,595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공학계열 졸업생은 21.8%(40,369명)로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예·체능계열은 17.0%(31,391명), 그 다음으로 의약계열은 14.8%(27,386명)의 비중을 차지했다. 나머지 졸업생은 자연계열 13,226명, 교육계열 9,646명, 인문계열 7,201명으로 각각 7.2%, 5.2%, 3.9%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졸업생은 77,482명, 비수도권의 졸업생은 107,335명으로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비수도권 대학의 졸업생(58.1%)이었다.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모두 사회계열의 졸업생 비중이 가장 많았고, 공학계열이 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 졸업생 중에서 진학한 학생의 비율⁹⁾은 2005년 5.4%(12,221명)이었고,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1년에는 3.6%(6,838명)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여 2013년에는 5.2%(9,635명)로 늘어났다. 성별로 보면, 2013년을 제외하면 남자 졸업생의 진학률이 여자 졸업생의 진학률보다 높았다. 2005년 남자 졸업생의 진학률은 6.9%이었고, 2011년까지 계속 감소 추세이다가 2012년과 2013년에 약간씩 증가하였다. 여자 졸업생은 2005년 진학률이 4.0%이었다가 그 후 3%대를 유지하였고, 여자 졸업생도 2012년과 2013년에 진학률이 증가하였고, 2013년에는 남자 졸업생의 진학률을 넘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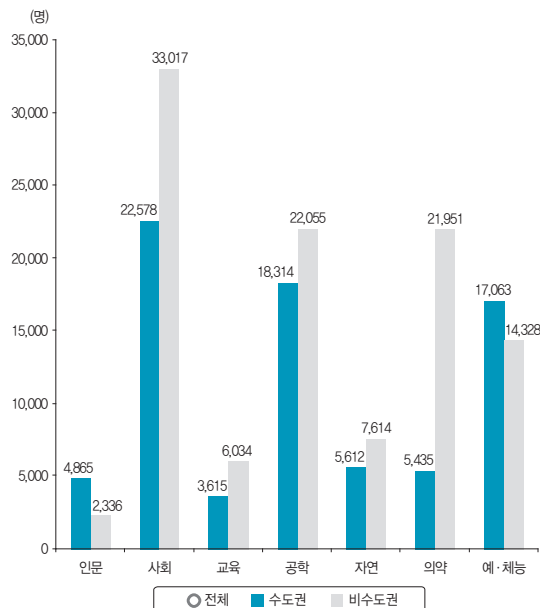
2013년의 계열별 진학률을 보면, 인문계열 졸업자의 진학률이 11.7%로 가장 높았고, 예·체능계열 졸업자의 진학률(7.7%)이 그 다음으로 높았으며, 사회계열 졸업자(5.7%)의 진학률도 5%를 넘었다. 이외 계열의 졸업자들의 진학률은 자연계열이 4.3%, 공학계열이 3.7%, 의약계열이 3.4%, 교육계열이 2.2%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모두 인문계열 졸업자의 진학률이 가장 높았고, 교육계열 졸업자의 진학률이 가장 낮았다. 수도권 대학의 경우, 졸업자의 진학률은 인문계열(11.0%), 예·체능계열(7.1%), 사회계열(4.9%), 자연계열(3.7%), 공학계열(3.6%), 의약계열(3.1%), 교육계열(2.2%) 순이었고, 비수도권 대학도 졸업자의 진학률은 인문계열(13.1%), 예·체능계열(8.3%), 사회계열(6.3%), 자연계열(4.7%), 공학계열(3.8%), 의약계열(3.4%), 교육계열(2.2%) 순이었다. 교육계열을 제외하면 모든 계열에서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진학률이 높게 나타났다.

8) 졸업자는 전년도 8월 졸업자 및 당해년도 2월 졸업자를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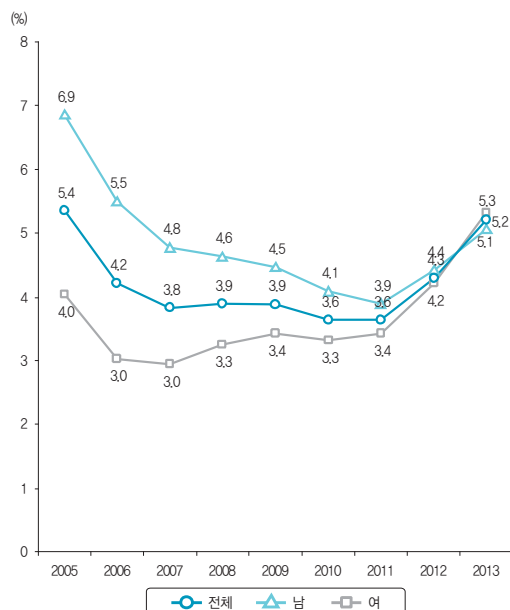
9) 진학률=(진학자 수/졸업자 수)×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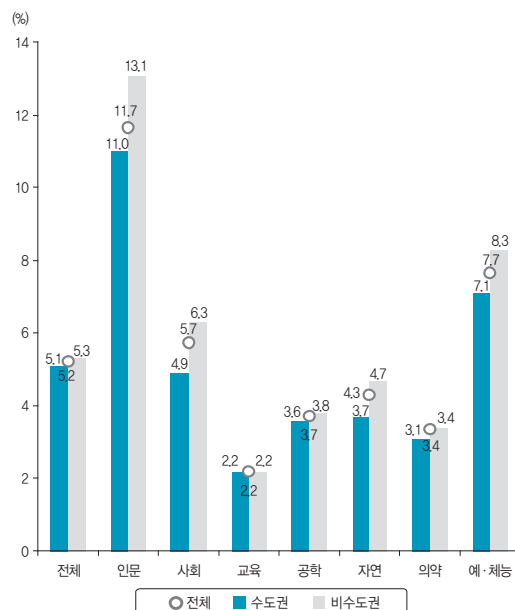
■ 그림 I-2-11 ■ 연도별 성별 졸업생 수(1985~2013)



■ 그림 I-2-12 ■ 지역별 계열별 졸업생 수(2013)



■ 그림 I-2-13 ■ 연도별 성별 진학률(2005~2013)



■ 그림 I-2-14 ■ 지역별 계열별 진학률(2013)

■ I. 전문대학 ■

■ 표 I-2-12 ■ 연도별 설립별 성별 졸업생 수(1985~2013)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1985	73,927	40,667	33,260	7,540	6,052	1,488	66,387	34,615	31,772
1990	87,131	41,109	46,022	6,132	4,534	1,598	80,999	36,575	44,424
1995	143,075	65,435	77,640	5,692	3,263	2,429	137,383	62,172	75,211
2000	228,763	99,452	124,037	8,543	3,903	4,640	214,946	95,549	119,397
2005	228,336	106,061	122,275	9,800	5,385	4,415	218,536	100,676	117,860
2006	222,973	106,913	116,060	9,377	5,357	4,020	213,596	101,556	112,040
2007	215,040	103,047	111,993	8,676	5,009	3,667	206,364	98,038	108,326
2008	207,741	96,278	111,463	7,883	4,504	3,379	199,858	91,774	108,084
2009	199,421	87,321	112,100	6,879	3,967	2,912	192,542	83,354	109,188
2010	190,033	80,719	109,314	5,897	3,486	2,411	184,136	77,233	106,903
2011	188,216	81,709	106,507	5,097	3,081	2,016	183,119	78,628	104,491
2012	189,733	81,040	108,693	3,845	2,226	1,619	185,888	78,814	107,074
2013	184,817	77,793	107,024	3,638	2,143	1,495	181,179	75,650	105,529

주: 교육기본통계와 취업통계조사는 조사기준이나 일시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어서, 위 자료의 2005년, 2012년의 전체 졸업생 수는 교육통계연보의 수치와 차이가 남. 2005년의 경우, 강원관광대학이 학내소요로 인해 취업통계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2012년의 경우 성화대학이 폐교조치가 되었지만 취업통계조사에는 응하였기 때문임. 교육기본통계 조사에 의한 교육통계연보에서 2005년의 전체 수는 228,763명이고, 2012년의 전체 수는 188,468명임.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 표 I-2-13 ■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졸업생 수(2013)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184,817	77,793	107,024	3,638	2,143	1,495	181,179	75,650	105,529
수도권	소계	77,482	31,609	45,873	696	524	172	76,786	31,085	45,701
	인문	4,865	982	3,883	15	2	13	4,850	980	3,870
	사회	22,578	7,350	15,228	87	63	24	22,491	7,287	15,204
	교육	3,615	71	3,544	15	4	11	3,600	67	3,533
	공학	18,314	14,958	3,356	172	157	15	18,142	14,801	3,341
	자연	5,612	2,127	3,485	312	247	65	5,300	1,880	3,420
	의약	5,435	1,142	4,293	41	27	14	5,394	1,115	4,279
	예·체능	17,063	4,979	12,084	54	24	30	17,009	4,955	12,054
비수도권	소계	107,335	46,184	61,151	2,942	1,619	1,323	104,393	44,565	59,828
	인문	2,336	759	1,577	-	-	-	2,336	759	1,577
	사회	33,017	11,592	21,425	726	321	405	32,291	11,271	21,020
	교육	6,034	230	5,804	159	10	149	5,875	220	5,655
	공학	22,055	19,081	2,974	1,090	939	151	20,965	18,142	2,823
	자연	7,614	3,555	4,059	361	164	197	7,253	3,391	3,862
	의약	21,951	5,897	16,054	181	93	88	21,770	5,804	15,966
	예·체능	14,328	5,070	9,258	425	92	333	13,903	4,978	8,925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표 I-2-14 연도별 설립별 성별 진학자 수 및 진학률(2005~2013)

(단위: 명, %)

	전체						국·공립						사립					
	진학자 수			진학률			진학자 수			진학률			진학자 수			진학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05	12,221	7,272	4,949	5.4	6.9	4.0	418	266	152	4.3	4.9	3.4	11,803	7,006	4,797	5.4	7.0	4.1
2006	9,399	5,877	3,522	4.2	5.5	3.0	401	278	123	4.3	5.2	3.1	8,998	5,599	3,399	4.2	5.5	3.0
2007	8,234	4,928	3,306	3.8	4.8	3.0	361	266	95	4.2	5.3	2.6	7,873	4,662	3,211	3.8	4.8	3.0
2008	8,092	4,465	3,627	3.9	4.6	3.3	377	232	145	4.8	5.2	4.3	7,715	4,233	3,482	3.9	4.6	3.2
2009	7,753	3,904	3,849	3.9	4.5	3.4	299	198	101	4.3	5.0	3.5	7,454	3,706	3,748	3.9	4.4	3.4
2010	6,929	3,294	3,635	3.6	4.1	3.3	234	137	97	4.0	3.9	4.0	6,695	3,157	3,538	3.6	4.1	3.3
2011	6,838	3,188	3,650	3.6	3.9	3.4	173	103	70	3.4	3.3	3.5	6,665	3,085	3,580	3.6	3.9	3.4
2012	8,165	3,581	4,584	4.3	4.4	4.2	167	101	66	4.3	4.5	4.1	7,998	3,480	4,518	4.3	4.4	4.2
2013	9,635	3,938	5,697	5.2	5.1	5.3	186	100	86	5.1	4.7	5.8	9,449	3,838	5,611	5.2	5.1	5.3

주: 2012년 취업통계조사에서는 성화대학의 진학자 44명이 포함되어 있어서 교육통계연보에 제시된 전체 진학자 수 8,121명과 차이가 남.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표 I-2-15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진학자 수 및 진학률(2013)

(단위: 명, %)

		전체						국·공립						사립					
		진학자 수			진학률			진학자 수			진학률			진학자 수			진학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9,635	3,938	5,697	5.2	5.1	5.3	186	100	86	5.1	4.7	5.8	9,449	3,838	5,611	5.2	5.1	5.3
수도권	소계	3,987	1,548	2,439	5.1	4.9	5.3	30	18	12	4.3	3.4	7.0	3,957	1,530	2,427	5.2	4.9	5.3
	인문	533	110	423	11.0	11.2	10.9	1	—	1	6.7	—	7.7	532	110	422	11.0	11.2	10.9
	사회	1,113	394	719	4.9	5.4	4.7	7	5	2	8.0	7.9	8.3	1,106	389	717	4.9	5.3	4.7
	교육	78	7	71	2.2	9.9	2.0	2	2	—	13.3	50.0	—	76	5	71	2.1	7.5	2.0
	공학	665	496	169	3.6	3.3	5.0	2	2	—	1.2	1.3	—	663	494	169	3.7	3.3	5.1
	자연	209	45	164	3.7	2.1	4.7	4	1	3	1.3	0.4	4.6	205	44	161	3.9	2.3	4.7
	의약	170	56	114	3.1	4.9	2.7	7	4	3	17.1	14.8	21.4	163	52	111	3.0	4.7	2.6
	예·체능	1,219	440	779	7.1	8.8	6.4	7	4	3	13.0	16.7	10.0	1,212	436	776	7.1	8.8	6.4
비수도권	소계	5,648	2,390	3,258	5.3	5.2	5.3	156	82	74	5.3	5.1	5.6	5,492	2,308	3,184	5.3	5.2	5.3
	인문	306	85	221	13.1	11.2	14.0	—	—	—	—	—	—	306	85	221	13.1	11.2	14.0
	사회	2,079	710	1,369	6.3	6.1	6.4	44	16	28	6.1	5.0	6.9	2,035	694	1,341	6.3	6.2	6.4
	교육	134	7	127	2.2	3.0	2.2	5	—	5	3.1	—	3.4	129	7	122	2.2	3.2	2.2
	공학	834	679	155	3.8	3.6	5.2	53	47	6	4.9	5.0	4.0	781	632	149	3.7	3.5	5.3
	자연	358	103	255	4.7	2.9	6.3	24	8	16	6.6	4.9	8.1	334	95	239	4.6	2.8	6.2
	의약	752	269	483	3.4	4.6	3.0	5	3	2	2.8	3.2	2.3	747	266	481	3.4	4.6	3.0
	예·체능	1,185	537	648	8.3	10.6	7.0	25	8	17	5.9	8.7	5.1	1,160	529	631	8.3	10.6	7.1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5) 취업¹⁰⁾

전문대학 졸업생 중, 취업자 수는 2013년 남자 43,024명, 여자 59,597명, 전체 102,621명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 177,919명이던 취업자 수는 2006년 555명, 2007년 3,560명, 2008년 6,278명, 2009년 4,918명이 각각 감소하여 2009년에는 총 162,608명이 취업을 하였다. 특히 2010년에는 64,891명이 감소하여 97,717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률로 보면, 2005년 83.7%이었던 것이 2009년까지는 86.5%로 조금 상승하였다. 그러나 2010년 55.6%로 급감하였고, 이후 조금씩 회복하여 2013년 61.2%까지 상승하였다. 취업자 수와 취업률이 이같이 급격한 변화를 보인 것은 우선, 2010년부터 취업통계조사 방식이 변화된 데에 기인한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는 대학자체조사로 통계를 산출하면서, 취업자를 “조사기준일 시점에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일정 소득이 있는 자”로 정의하였지만, 2010년부터는 건강보험 DB와 연계해서 조사하여 실질적으로 취업한 인원 수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사방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취업자 구분 기준을 엄격하게 변경하였기 때문에 취업자 수와 취업률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조사방법과 기준의 변경뿐만 아니라, 2000년대 후반의 경기침체 때문에도 취업자 수와 취업률의 급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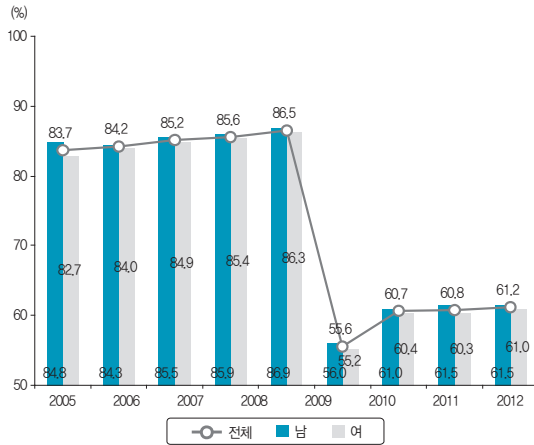
성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취업을 조사가 처음 실시된 해인 2005년 남자는 84.8%, 여자는 82.7%이었으며 2009년까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조사방식 변경되었던 2010년에는 남자 56.0%, 여자 55.2%로 남녀 모두 취업률이 급감하였다. 그 이후로 완만하게 상승 경향을 보이면서 2013년 취업률이 남자가 61.5%, 여자가 61.0%로 나타났다. 남자 졸업자들의 취업률이 여자 졸업자들에 비해 높은 경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설립별로 보면(표 I-2-16) 참조), 국·공립대학보다 사립대학의 취업률이 더 높았으나 이들간의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06년 8.8%p의 차이를 보였던 것이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는 0.4%p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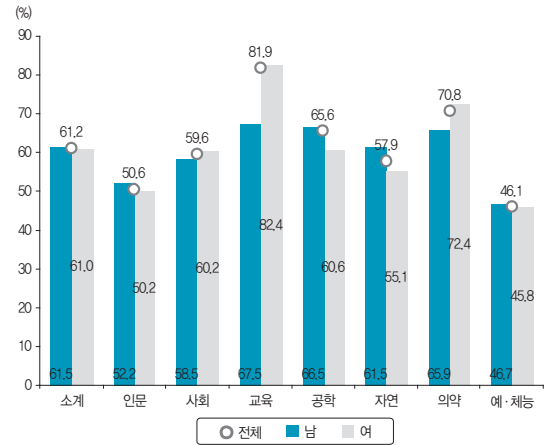
2013년 계열별 취업률을 보면, 교육계열이 81.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는 의약계열 70.8%, 공학계열 65.6%, 사회계열 59.6%, 자연계열 57.9%, 인문계열 50.6%, 예·체능계열 46.1% 순이었다. 여자 졸업생의 취업률은 교육계열 82.4%, 의약계열 72.4%, 공학계열 60.6%, 사회계열 60.2%, 자연계열 55.1%, 인문계열 50.2%, 예·체능계열 45.8%로 전체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남자 졸업생의 경우에도 교육계열이 67.5%로 가장 높았고, 공학계열 66.5%, 의약계열 65.9%, 자연계열 61.5%, 사회계열 58.5%, 인문계열 52.2%, 그리고 예·체능계열이 46.7%로 그 뒤를 따랐다. 설립별로 보면, 국·공립의 경우에는 모든 계열의 취업률이 50%가 넘는 반면, 사립대학은 계열간 취업률의 차이가 국·공립에 비해 컸다.

지역별 취업률을 보면, 수도권은 58.6%, 비수도권은 63.1%로 비수도권의 취업률이 조금 더 높았다. 남녀 성별로 보았을 때도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의 취업률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 보면, 사회계열, 교육계열, 자연계열은 수도권의 취업률이, 인문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은 비수도권의 취업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계열과 자연계열은 남녀 모두 수도권이, 인문계열, 공학계열, 그리고 예·체능계열은 남녀 모두 비수도권의 취업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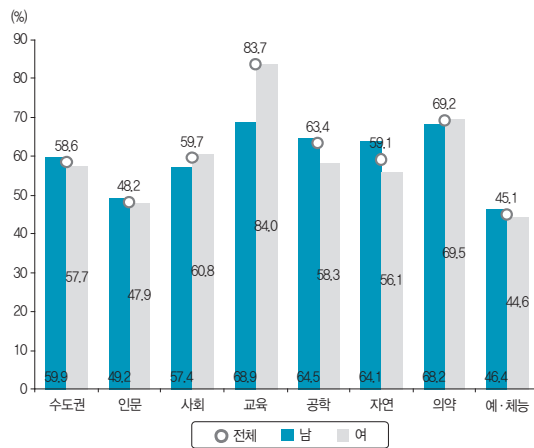
10) 2004년 이전의 졸업생 자료는 교육기본통계를 따르고, 2004년부터의 자료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업통계조사에 근거함. 제시된 자료 중 교육기본통계조사에서 산출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의 졸업생 현황과 불일치하는 부분은 별도로 주석 처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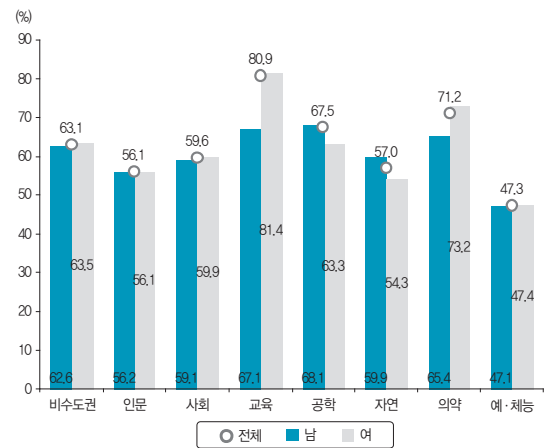
■ 그림 I-2-15 ■ 연도별 성별 취업률(2005~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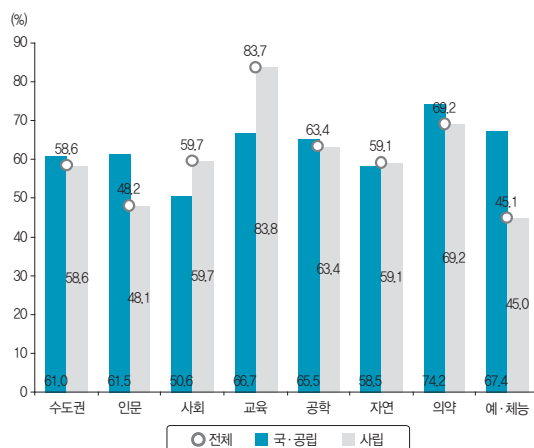
■ 그림 I-2-16 ■ 계열별 성별 취업률(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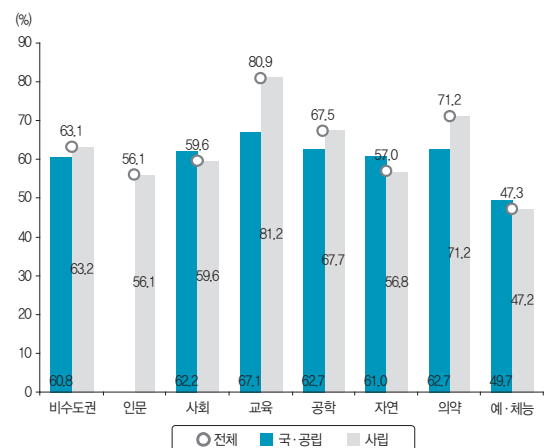
■ 그림 I-2-17 ■ 수도권 계열별 성별 취업률(2013)



■ 그림 I-2-18 ■ 비수도권 계열별 성별 취업률(2013)



■ 그림 I-2-19 ■ 수도권 계열별 설립별 취업률(2013)



■ 그림 I-2-20 ■ 비수도권 계열별 설립별 취업률(2013)

■ I. 전문대학 ■

■ 표 I-2-16 ■ 연도별 설립별 성별 취업 현황(2005~2013)

(단위: 명, %)

	취업자 수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05	177,919	80,833	97,086	7,175	3,829	3,346	170,744	77,004	93,740
2006	177,364	83,061	94,303	6,663	3,702	2,961	170,701	79,359	91,342
2007	173,804	81,915	91,889	6,408	3,634	2,774	167,396	78,281	89,115
2008	167,526	75,856	91,670	5,694	3,136	2,558	161,832	72,720	89,112
2009	162,608	69,999	92,609	5,110	2,873	2,237	157,498	67,126	90,372
2010	97,717	41,255	56,462	3,106	1,876	1,230	94,611	39,379	55,232
2011	105,589	45,571	60,018	2,675	1,598	1,077	102,914	43,973	58,941
2012	106,139	45,437	60,702	2,056	1,206	850	104,083	44,231	59,852
2013	102,621	43,024	59,597	1,997	1,167	830	100,624	41,857	58,767

	취업률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05	83.7	84.8	82.7	78.6	78.7	78.5	83.9	85.2	82.9
2006	84.2	84.3	84.0	75.7	75.5	76.0	84.5	84.8	84.3
2007	85.2	85.5	84.9	79.1	80.1	77.9	85.4	85.8	85.1
2008	85.6	85.9	85.4	77.7	76.4	79.5	85.9	86.4	85.6
2009	86.5	86.9	86.3	79.3	78.7	80.0	86.8	87.3	86.5
2010	55.6	56.0	55.2	57.2	58.2	55.7	55.5	55.9	55.2
2011	60.7	61.0	60.4	57.6	57.8	57.5	60.7	61.2	60.4
2012	60.8	61.5	60.3	59.5	61.4	56.9	60.9	61.5	60.4
2013	61.2	61.5	61.0	60.8	60.8	60.8	61.2	61.5	61.0

주: 1) 취업자에 대한 연도별 정의

- : 2004~2009년=조사기준일 시점에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일정 소득이 있는 자.
- : 2010년=조사기준일 당시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 2011년=조사기준일 당시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 : 2012~2013년=조사기준일 당시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영농업종사자.
- 교내취업자(2013년 기준): 조사 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학교법인 및 관련 기관(산학협력단, 학교기업 등)에 1년 이상 계약한 자로서, 최저임금 이상의 월 급여(월 1,015,740원, 2013년도 최저임금 4,860원을 월급여액으로 환산한 금액)를 받는 자.
- 해외취업자: 조사 기준일 당시 해외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며, 91일 이상 고용 계약한 자.
- 영농업종사자: 조사 기준일 당시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영농업에 종사하는 졸업자.

2) 취업률을 구하는 방식은 연도에 따라 조금씩 변하여 왔음.

연도	취업률	취업대상자
2004~2005	(취업자/취업대상자)×100	졸업자-(진학자+입대자)
2006~2009	(취업자/취업대상자)×100	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 유학생)
2010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대상자)×100	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제외 인정자+외국인유학생)
201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교내취업자+해외취업자)/취업대상자]×100	
2012~2013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교내취업자+해외취업자+영농업종사자)/취업대상자]×100	

- 취업불가능자: 수형자, 사망자, 해외이민자,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자를 포함함.
 - 제외인정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고 지도자 양성 관련학과 졸업자, 여자군인 중 임관 전 훈련생,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교육대상자를 포함함.
- 3) 2012년 취업통계조사에서는 성화대학의 취업자 625명이 포함되어 있어서 교육통계연보에 제시된 전체 취업자 수 105,514명과 차이가 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DB.

■ 표 I-2-17 ■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취업자 수(2013)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102,621	43,024	59,597	1,997	1,167	830	100,624	41,857	58,767
수도권	소계	41,795	17,357	24,438	377	279	98	41,418	17,078	24,340
	인문	2,012	393	1,619	8	1	7	2,004	392	1,612
	사회	12,410	3,844	8,566	40	30	10	12,370	3,814	8,556
	교육	2,911	42	2,869	8	-	8	2,903	42	2,861
	공학	10,926	9,104	1,822	110	100	10	10,816	9,004	1,812
	자연	3,069	1,256	1,813	159	124	35	2,910	1,132	1,778
	의약	3,569	715	2,854	23	14	9	3,546	701	2,845
비수도권	예·체능	6,898	2,003	4,895	29	10	19	6,869	1,993	4,876
	소계	60,826	25,667	35,159	1,620	888	732	59,206	24,779	34,427
	인문	1,054	331	723	-	-	-	1,054	331	723
	사회	17,275	5,947	11,328	406	171	235	16,869	5,776	11,093
	교육	4,624	141	4,483	100	4	96	4,524	137	4,387
	공학	13,556	11,867	1,689	618	525	93	12,938	11,342	1,596
	자연	3,960	1,970	1,990	199	96	103	3,761	1,874	1,887
	의약	14,536	3,478	11,058	106	52	54	14,430	3,426	11,004
	예·체능	5,821	1,933	3,888	191	40	151	5,630	1,893	3,737

주: (표 I-2-16) 각주 참조.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DB

■ 표 I-2-18 ■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취업률(2013)

(단위: %)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소계	61.2	61.5	61.0	60.8	60.8	60.8	61.2	61.5	61.0
	인문	50.6	52.2	50.2	61.5	50.0	63.6	50.6	52.2	50.1
	사회	59.6	58.5	60.2	60.9	58.3	63.3	59.6	58.5	60.2
	교육	81.9	67.5	82.4	67.1	44.4	68.4	82.2	68.3	82.6
	공학	65.6	66.5	60.6	63.1	62.8	65.2	65.7	66.6	60.5
	자연	57.9	61.5	55.1	59.9	60.3	59.2	57.8	61.6	55.0
	의약	70.8	65.9	72.4	64.5	61.7	67.7	70.8	65.9	72.4
수도권	예·체능	46.1	46.7	45.8	51.5	52.6	51.2	46.0	46.7	45.7
	소계	58.6	59.9	57.7	61.0	60.1	63.6	58.6	59.9	57.7
	인문	48.2	49.2	47.9	61.5	50.0	63.6	48.1	49.2	47.9
	사회	59.7	57.4	60.8	50.6	52.6	45.5	59.7	57.5	60.8
	교육	83.7	68.9	84.0	66.7	-	72.7	83.8	70.0	84.0
	공학	63.4	64.5	58.3	65.5	65.4	66.7	63.4	64.5	58.2
	자연	59.1	64.1	56.1	58.5	58.5	58.3	59.1	64.8	56.0
비수도권	의약	69.2	68.2	69.5	74.2	70.0	81.8	69.2	68.1	69.5
	예·체능	45.1	46.4	44.6	67.4	52.6	79.2	45.0	46.4	44.5
	소계	63.1	62.6	63.5	60.8	61.1	60.4	63.2	62.7	63.6
	인문	56.1	56.2	56.1	-	-	-	56.1	56.2	56.1
	사회	59.6	59.1	59.9	62.2	59.4	64.4	59.6	59.1	59.8
	교육	80.9	67.1	81.4	67.1	50.0	68.1	81.2	67.8	81.7
	공학	67.5	68.1	63.3	62.7	62.4	65.0	67.7	68.4	63.2
비수도권	자연	57.0	59.9	54.3	61.0	62.7	59.5	56.8	59.8	54.0
	의약	71.2	65.4	73.2	62.7	59.8	65.9	71.2	65.5	73.2
	예·체능	47.3	47.1	47.4	49.7	52.6	49.0	47.2	47.0	47.3

주: (표 I-2-16) 각주 참조.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DB

3. 교원

1) 교원의 구성

전문대학의 교원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임교원에는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가 포함되고, 비전임교원에는 시간강사, 겸임교수, 명예교수, 객원교수, 대우교수, 초빙교수, 기타 등이 포함된다. 전임교원 수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 7,382명이었던 전체 전임교원 수는 2005년 12,027명에 이르기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다소 증가세가 주춤하였지만,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증가하여 2013년에는 13,015명에 이르렀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전임교원 수가 1.7배가량 증가하였고, 이 기간에 여성 전임교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였다. 남성 전임교원에 비하여 그 수는 적지만, 1990년 1,950명(전임교원 중 26.4%)이었던 여성 전임교원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부침이 있기는 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서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여성 전임교원은 2013년에는 4,550명(35.0%)까지 성장하여, 같은 기간에 남성 전임교원은 1.6배 정도 증가한 것에 비하여 여성 전임교원은 2.3배가량 증가하였다.

전임교원의 이러한 증가 규모에 비하여 같은 기간에 비전임교원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13년의 비전임교원 수는 전년도에 비하여 약간 줄어들기는 했지만 31,879명으로 1990년의 6,002명에 비해서 5.3배 정도 늘어났다. 비전임교원도 전임교원과 마찬가지로 2005년 32,485명까지 증가했다가, 2006년 다소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비전임교원 중에서 여성은 1990년 1,877명(비전임교원 중 31.3%)이었다가 계속 증가하여 2013년 15,149명(47.5%)까지 증가하였다. 이 기간에 남성 비전임교원은 4.1배 정도 증가하였고, 여성 비전임교원은 8.1배가량 증가하였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1990년부터 2013년까지 전임교원은 1.7배, 비전임교원은 5.3배 증가한 것이 보여주듯이,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 비율은 계속 악화되어 왔다. 1990년 전임교원의 81.3%를 차지하던 비전임교원은 1990년대 중반부터 전임교원 수를 추월하였다. 2007년에는 전임교원의 2.7배까지 증가했다가 2013년에는 2.4배가량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비전임교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여성 교원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경우 1990년 비전임교원이 전임교원의 96.3%로 비슷한 규모였는데, 2007년에는 비전임교원이 전임교원의 4.2배까지 증가했었다. 2013년에는 다소 감소하여 3.3배 정도였다. 남성의 경우에는 1990년에 비전임교원이 전임교원의 75.9%이었고, 2007년에는 2.1배, 2013년에는 2배 정도였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대 중반까지는 사립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났는데,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국·공립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공립의 여성 교원의 경우에는 전임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는 51명에 불과한데, 비전임교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307명이 되었고, 비전임교원이 전임교원의 6배에 이르고 있다. 반면에 2013년 현재 사립의 여성 비전임교원은 전임교원의 3.3배 정도 된다(표 I-3-1 참조).

외국인 교원은 2000년에 381명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에는 1,039명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2013년에 약간 줄어서 984명이었다. 이들이 전체 교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 높지 않지만, 2000년 1.0%에서 2011년, 2012년에는 2.3%까지 증가했다. 2013년에는 2.2%를 차지했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외국인 교원 중 비전임교원이 전임교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는 40%대를 유지하고 있어, 내국인 교원보다는 양호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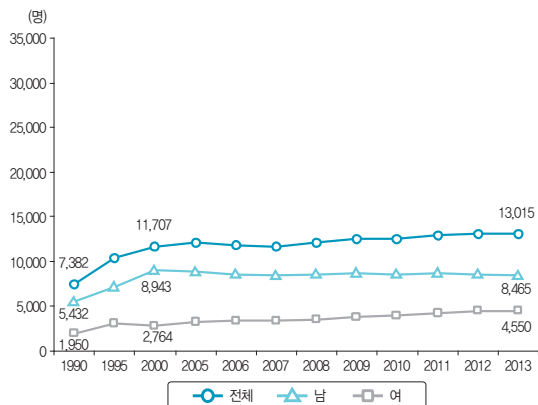


그림 I-3-1 연도별 전임교원 현황(1990~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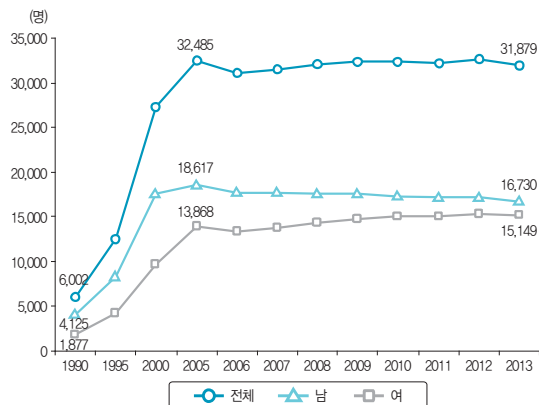


그림 I-3-2 연도별 비전임교원 현황(1990~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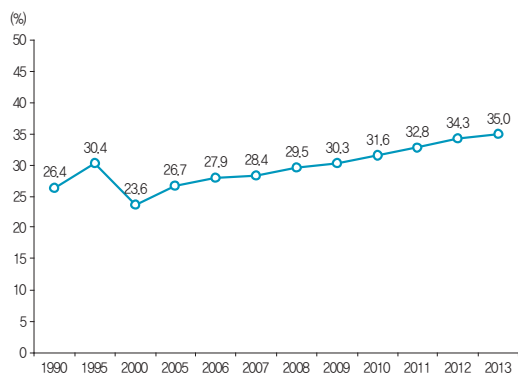


그림 I-3-3 연도별 전임 여교원 비율(1990~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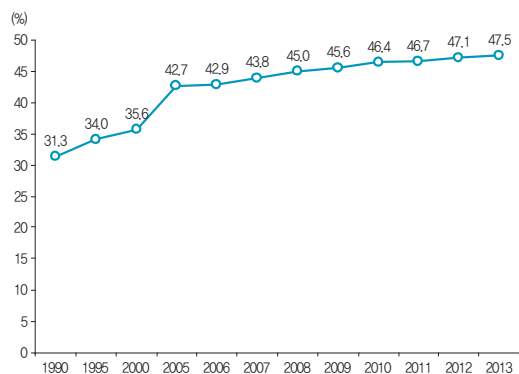


그림 I-3-4 연도별 비전임 여교원 비율(1990~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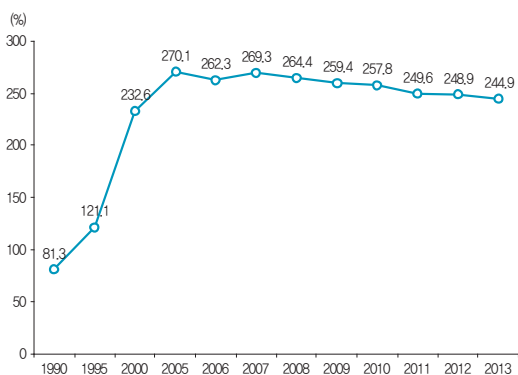


그림 I-3-5 연도별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 비율 (1990~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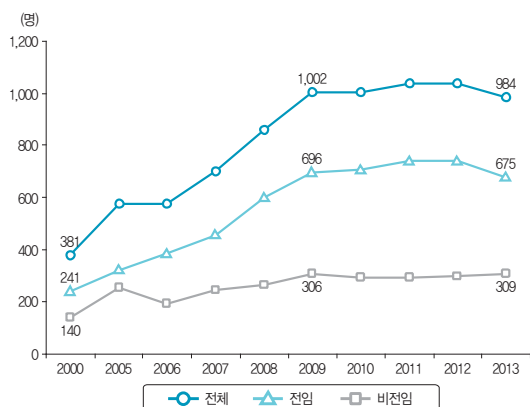


그림 I-3-6 연도별 외국인 교원 현황(2000~2013)

■ I. 전문대학 ■

■ 표 I-3-1 ■ 연도별 설립별 성별 교원 수(1990~2013)

(단위: 명)

	전임교원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1990	7,382	5,432	1,950	958	863	95	6,424	4,569	1,855
1995	10,384	7,232	3,152	602	459	143	9,782	6,773	3,009
2000	11,707	8,943	2,764	740	601	139	10,967	8,342	2,625
2005	12,027	8,813	3,214	651	513	138	11,376	8,300	3,076
2006	11,857	8,543	3,314	598	487	111	11,259	8,056	3,203
2007	11,685	8,366	3,319	515	438	77	11,170	7,928	3,242
2008	12,100	8,531	3,569	457	377	80	11,643	8,154	3,489
2009	12,451	8,675	3,776	458	379	79	11,993	8,296	3,697
2010	12,530	8,575	3,955	305	251	54	12,225	8,324	3,901
2011	12,891	8,667	4,224	333	279	54	12,558	8,388	4,170
2012	13,078	8,595	4,483	308	258	50	12,770	8,337	4,433
2013	13,015	8,465	4,550	316	265	51	12,699	8,200	4,499
	비전임교원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1990	6,002	4,125	1,877	171	126	45	5,831	3,999	1,832
1995	12,574	8,298	4,276	298	200	98	12,276	8,098	4,178
2000	27,235	17,541	9,694	1,432	1,054	378	25,803	16,487	9,316
2005	32,485	18,617	13,868	1,401	998	403	31,084	17,619	13,465
2006	31,097	17,770	13,327	1,259	866	393	29,838	16,904	12,934
2007	31,472	17,678	13,794	1,151	809	342	30,321	16,869	13,452
2008	31,990	17,586	14,404	1,094	755	339	30,896	16,831	14,065
2009	32,304	17,588	14,716	1,097	760	337	31,207	16,828	14,379
2010	32,297	17,325	14,972	732	470	262	31,565	16,855	14,710
2011	32,182	17,158	15,024	832	537	295	31,350	16,621	14,729
2012	32,553	17,212	15,341	869	555	314	31,684	16,657	15,027
2013	31,879	16,730	15,149	857	550	307	31,022	16,180	14,842

주: 1) 전임교원에는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가 포함됨.

2) 비전임교원에는 시간강사, 겸임교수, 명예교수, 객원교수, 대우교수, 초빙교수, 기타 등을 포함함.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표 I-3-2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전임 교원 수(2013)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13,015	8,465	4,550	316	265	51	12,699	8,200	4,499
수도권	소계	5,479	3,554	1,925	87	69	18	5,392	3,485	1,907
	인문	332	172	160	11	8	3	321	164	157
	사회	1,335	921	414	12	9	3	1,323	912	411
	교육	255	55	200	4	2	2	251	53	198
	공학	1,454	1,317	137	9	7	2	1,445	1,310	135
	자연	372	225	147	23	23	-	349	202	147
	의약	455	157	298	7	6	1	448	151	297
	예·체능	1,239	674	565	19	12	7	1,220	662	558
	소속학과없음	37	33	4	2	2	-	35	31	4
비수도권	소계	7,536	4,911	2,625	229	196	33	7,307	4,715	2,592
	인문	160	103	57	-	-	-	160	103	57
	사회	1,769	1,337	432	46	42	4	1,723	1,295	428
	교육	434	125	309	15	10	5	419	115	304
	공학	1,712	1,594	118	88	85	3	1,624	1,509	115
	자연	491	328	163	30	28	2	461	300	161
	의약	1,895	766	1,129	16	9	7	1,879	757	1,122
	예·체능	982	578	404	28	16	12	954	562	392
	소속학과없음	93	80	13	6	6	-	87	74	13

주: 전임교원에는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가 포함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표 I-3-3 연도별 설립별 외국인 교원 현황(2000~2013)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전임	비전임	소계	전임	비전임	소계	전임	비전임
2000	381	241	140	11	3	8	368	236	132
2005	575	320	255	6	-	6	569	320	249
2006	578	386	192	17	1	16	561	385	176
2007	703	456	247	15	-	15	688	456	232
2008	860	598	262	20	-	20	840	598	242
2009	1,002	696	306	28	-	28	974	696	278
2010	1,001	708	293	7	-	7	994	708	286
2011	1,035	741	294	7	-	7	1,028	741	287
2012	1,039	740	299	5	-	5	1,034	740	294
2013	984	675	309	7	-	7	977	675	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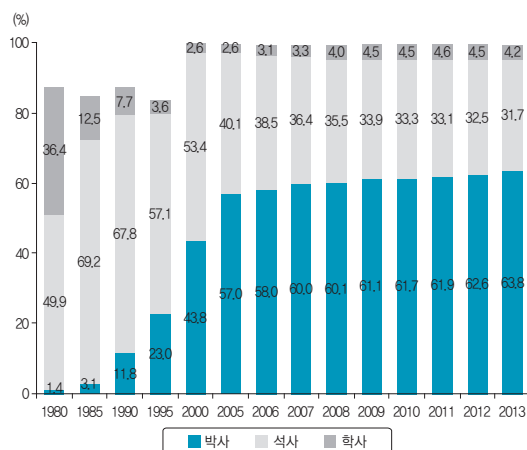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2) 교원의 학위 소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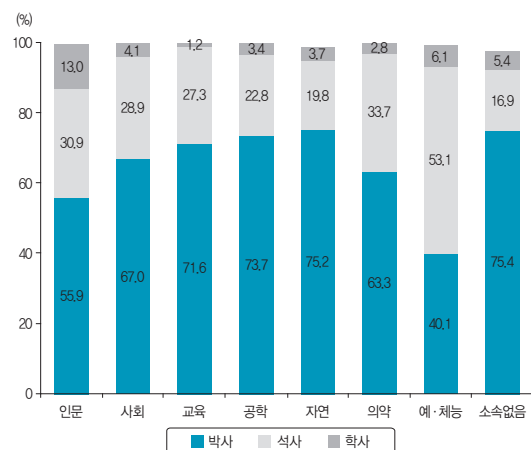
교원의 학위 소지 현황은 박사학위, 석사학위, 학사학위, 기타로 구분된다. 기타에는 국제전문학교 졸업 및 기타의 사유로 정식학사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교원, 곧, 전문학사 혹은 학사학위가 없는 교원이 포함된다. 연도별로 살펴본 전임 교원의 학위 소지 현황에 따르면,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1980년에는 석사학위와 학사학위를 가진 전임교원이 대부분이었는데, 1980년대 중반부터 전임교원의 학력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1985년에는 석사학위 소지자가 4,430명으로 1980년의 2,738명에 비하여 1.6배 정도 증가하여 전체 전임교원의 69.2%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후 박사학위 소지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석사학위 소지 전임교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는 31.7%를 차지했고, 학사학위 소지 전임교원은 2013년에 4.2%에 불과했다. 1980년에 77명에 불과하던 박사학위 소지 교원은 2013년 8,307명으로 늘어나서 108배가 넘게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박사학위 소지 전임교원이 2/3정도, 석사학위 소지 전임교원이 1/3정도 차지하는 경향으로 수렴되고 있다. 학사학위를 소지한 교원의 경우, 교원 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전체 교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비중이 줄어들었다. 학사나 석사 학위 소지자의 수가 2000년대 후반 이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전문대학에서 산업체 현장 경력을 중시하면서 현장 경력이 많은 전임교원을 채용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한강희 외, 2010).

2013년 계열별 박사학위 소지 교원을 보면, 자연계열이 75.2%로 가장 높았고, 공학계열은 73.7%로 그 뒤를 따랐다. 그리고 교육계열이 71.6%, 사회계열이 67.0%, 의약계열이 63.3%, 인문계열 55.9%, 예·체능계열 40.1% 순이었다. 석사학위 소지 교원의 경우에는 예·체능계열이 53.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의약계열 33.7%, 인문계열 30.9%, 사회계열 28.9%, 교육계열 27.3%, 공학계열 22.8%, 자연계열 19.8% 순이었다. 학사학위 소지 교원은 인문계열이 13.0%로 가장 많고, 예·체능계열 6.1%, 사회계열 4.1%, 자연계열 3.7%, 공학계열 3.4%, 의약계열 2.8%, 교육계열 1.2%이었다.

지역별 교원의 학위 소지 현황을 살펴보면(〈표 I-3-5〉 참조), 전반적으로 수도권 대학에서 전임교원 중에서 박사학위 소지자가 63.4%(3,471명), 석사학위 소지자가 31.0%(1,697명), 학사학위 소지자가 5.5%(299명)로 박사학위 소지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전체 교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는 64.2%(4,836명), 석사학위 소지자가 32.2%(2,426명), 학사학위 소지자가 3.3%(248명)로 역시 박사학위 소지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 그림 I-3-7 ■ 연도별 전임교원 학위소지 현황(1980~2013)



■ 그림 I-3-8 ■ 계열별 전임교원 학위소지 현황(2013)

■ 표 I-3-4 ■ 연도별 전임교원 학위 소지 현황(1980~2013)

(단위: 명)

	전체	박사			석사	학사	기타
		전체	국내	국외			
1980	5,488	77	55	22	2,738	1,998	675
1985	6,406	201	161	40	4,430	802	973
1990	7,382	872	780	92	5,003	572	935
1995	10,384	2,388	2,188	200	5,925	374	1,697
2000	11,707	5,124	4,767	357	6,257	307	19
2005	12,027	6,858	6,402	456	4,824	311	34
2006	11,857	6,882	6,430	452	4,564	369	42
2007	11,685	7,008	6,534	474	4,251	381	45
2008	12,100	7,271	6,797	474	4,293	487	49
2009	12,451	7,610	7,098	512	4,224	562	55
2010	12,530	7,728	7,223	505	4,174	570	58
2011	12,891	7,978	7,461	517	4,272	591	50
2012	13,078	8,187	7,661	526	4,252	588	51
2013	13,015	8,307	7,802	505	4,123	547	38

주: '전체'에는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소지자뿐만 아니라, 국제전문학교 졸업 및 기타의 사유로 정식학사 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한 교원(즉, 전문학사 혹은 학사학위가 없는 교원)이 포함됨.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 표 I-3-5 ■ 지역별 계열별 전임교원 학위 소지 현황(2013)

(단위: 명)

		전체	박사			석사	학사	기타
			전체	국내	국외			
전체		13,015	8,307	7,802	505	4,123	547	38
수도권	소계	5,479	3,471	3,160	311	1,697	299	12
	인문	332	186	142	44	96	49	1
	사회	1,335	908	846	62	342	84	1
	교육	255	204	181	23	48	3	—
	공학	1,454	1,111	1,025	86	296	47	—
	자연	372	273	248	25	78	17	4
	의약	455	303	295	8	126	25	1
	예·체능	1,239	457	403	54	704	73	5
	소속학과없음	37	29	20	9	7	1	—
비수도권	소계	7,536	4,836	4,642	194	2,426	248	26
	인문	160	89	66	23	56	15	—
	사회	1,769	1,171	1,128	43	555	42	1
	교육	434	289	278	11	140	5	—
	공학	1,712	1,223	1,178	45	425	62	2
	자연	491	376	363	13	93	15	7
	의약	1,895	1,185	1,156	29	667	41	2
	예·체능	982	434	414	20	475	62	11
	소속학과없음	93	69	59	10	15	6	3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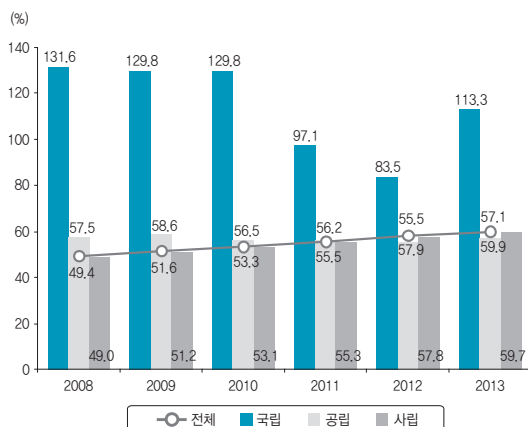
4. 학습 환경 및 여건

1) 전임교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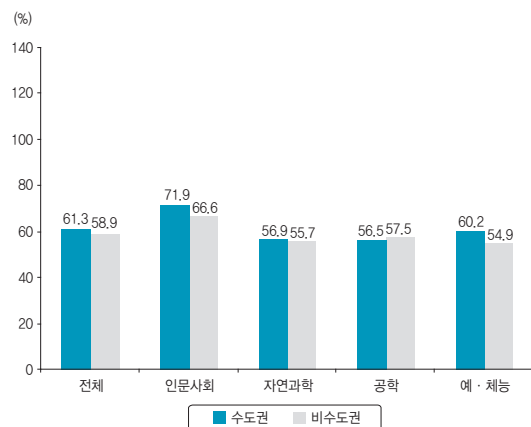
① 전임교원 확보 현황

전임교원 확보율은 전문대학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서 평가지표로서 뿐만 아니라, 3년제 학과 운영이나 산업체 위탁, 전공심화과정 운영의 조건 지표로도 활용되어 왔다(한강희 외, 2010). 따라서 대학들은 전임교원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결과, 2008년 49.4%에 머물렀던 전임교원 확보율이 2013년 59.9%까지 높아져서 2008년 대비 무려 10.5%p나 증가하였다. 설립별로 살펴보면, 같은 시기 국립 전문대학의 확보율은 2008년 131.6%에서 2013년 113.3%로 18.3%p 낮아졌으며, 공립은 57.5%에서 57.1%로 0.4%p 낮아졌다. 그러나 전문대학에서 국·공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3년 현재 6.4%에 불과할 만큼 작아서, 국·공립 전문대학에서의 전임교원 확보율 변화 추이가 전체 변화 양상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 사립 전문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2013년 59.7%로 전체 전임교원 확보율 추이와 비슷하게 2008년 대비 10.7%p 올랐다. 그러나 사립 전문대학에서의 교원 여건 관련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립대학에 비해 열악하다.

전임교원 확보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61.3%, 비수도권은 58.9%로 수도권에서의 확보율이 2.4%p 높았다. 계열별¹¹⁾로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인문사회계열의 전임교원확보율이 가장 높았지만, 인문사회계열의 경우에도 수도권(71.9%)이 비수도권(66.6%)보다 전임교원확보율이 높았다. 수도권 대학은 전임교원확보율이 인문사회계열(71.9%), 예·체능계열(60.2%), 자연과학계열(56.9%), 공학계열(56.5%) 순으로 높았고, 비수도권 대학은 인문사회계열(66.6%), 공학계열(57.5%), 자연과학계열(55.7%), 예·체능계열(54.9%) 순으로 높았다. 설립별로 보면, 국립 전문대학은 수도권에만 있었고, 인문사회계열이 전임교원확보율이 가장 높았고, 공립 전문대학은 비수도권에만 있었고, 역시 인문사회계열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가장 높았다. 사립의 경우, 수도권 대학의 확보율이 비수도권 대학보다 2.0%p 높게 나타났다.



■ 그림 I-4-1 ■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확보율(2008~2013)



■ 그림 I-4-2 ■ 계열별 지역별 전임교원 확보율(2013)

11) 전임교원 확보율은 '대학설립·운영규정'의 5대계열로 구분하여 산출됨

■ 표 I-4-1 ■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확보율(2008~2013)

(단위: %)

	전체	국립	공립	사립
2008	49.4	131.6	57.5	49.0
2009	51.6	129.8	58.6	51.2
2010	53.3	129.8	56.5	53.1
2011	55.5	97.1	56.2	55.3
2012	57.9	83.5	55.5	57.8
2013	59.9	113.3	57.1	59.7

주: 1) 전임교원에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가 포함되며, 소속학과가 없는 전임교원의 수는 제외됨.

2) 전임교원 확보율(면제정원 기준)=(전임교원수/교원법정정원(면제정원 기준)) × 100

3) 여기서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편제정원 기준임.

4) 교원법정정원: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제1항의 “별표5”와 제2항에 의해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누어 산출(면제정원별)되며, 소수점이하는 올림하여 산출됨.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제1항의 별표5

대계열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교수1인당 학생 수	25	20	20	20	8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제2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할 교원을 산정하는 경우의 계열별 학생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학생 수를 말한다. 1) 대학원이 없는 대학: 대학의 학생 정원, 2) 대학원이 있는 대학: 학사과정의 학생정원에 대학원 학생정원의 1.5배(전문대학원의 경우는 학생정원의 2배)를 합한 학생 수, 3) 대학원 대학: 대학원 학생정원의 2배의 학생 수

5) 교원확보율 현황에는 폐교이나 잔여학생이 남아 있는 학교가 포함됨. 2011년에는 김천대학, 서울보건대학, 우송공업대학, 인천전문대학 등이 포함되고, 2012년에는 적십자간호대학과 한국철도대학이 포함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 표 I-4-2 ■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전임교원 확보율(2013)

(단위: %)

	전체	국립	공립	사립
전체	59.9	113.3	57.1	59.7
수도권	소계	61.3	113.3	60.9
	인문사회	71.9	333.3	71.3
	자연과학	56.9	67.9	56.5
	공학	56.5	160.0	56.3
	예·체능	60.2	237.5	59.4
비수도권	소계	58.9	-	57.1
	인문사회	66.6	-	65.4
	자연과학	55.7	-	56.1
	공학	57.5	-	55.3
	예·체능	54.9	-	44.4

주: 1) <표I-4-1>의 주 1)~5) 참조

2) 전임교원 확보율은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등의 5대 계열 구분(‘대학설립·운영규정’의 <별표1>에 의함)을 따름. 위의 전공계열은 이러한 계열 구분에 의한 것임.

- 인문·사회계열: 어학·문학·사회 및 신학 등
- 자연과학계열: 이학·해양·농학·수산·간호·보건·약학 및 한약학 등(의예과·치의예과·한의예과·수의예과 등은 자연과학계열에 포함됨)
- 공학계열: 공학 등
- 예·체능계열: 음악·미술·체육 및 무용 등
- 의학계열: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수의학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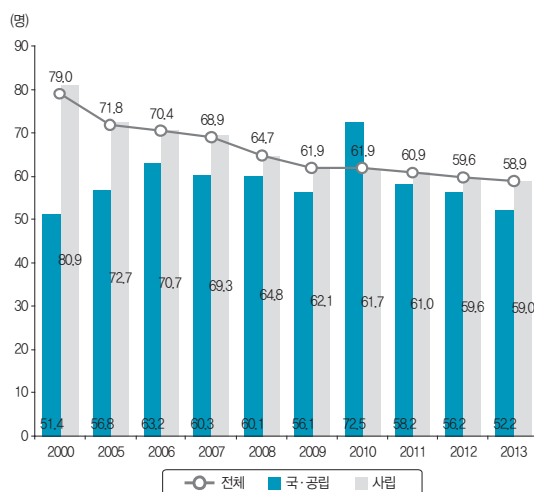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②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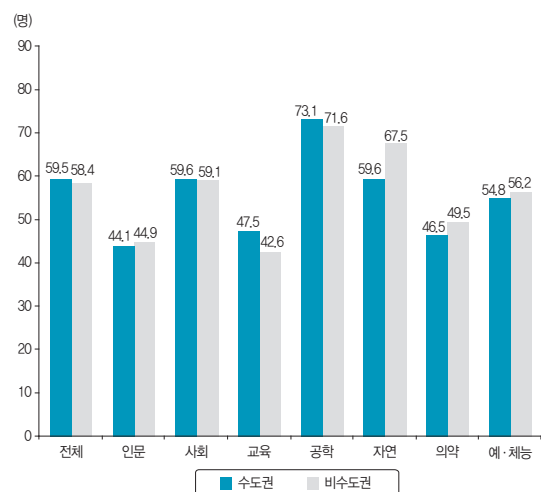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00년대에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00년에는 79.0명이었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2013년에는 58.9명까지 감소하였다. 이 기간 동안 특히 사립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사립의 경우 2000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80.9명이었는데, 이후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2005년 72.7명, 2010년 61.7명, 2013년 59.0명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국·공립의 경우에는 2000년에 51.4명이었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2006년 63.2명까지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후에 조금 감소하다가 다시 2010년에 일시적으로 72.5명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사립대학보다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더 많았다. 이후 다시 감소추세를 보여 2013년에는 52.2명까지 줄어들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사립의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국·공립의 여건이 좀 더 나은 편이다.

2013년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59.5명, 비수도권은 58.4명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를 설립별로 보면 수도권의 국·공립은 38.2명, 사립은 59.8명, 비수도권의 국·공립은 57.5명, 사립은 58.4명으로 수도권의 국·공립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다른 곳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았다(표 I-4-4 참조). 그러나 수도권의 국·공립의 숫자가 9개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다.

오히려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지역별 차이보다는 계열별 차이가 두드러진다. 수도권에서는 인문계열 44.1명, 의약계열 46.5명, 교육계열 47.5명, 예·체능계열 54.8명, 자연계열과 사회계열 59.6명, 공학계열 73.1명의 순으로, 특히 공학계열이 다른 계열보다 열악한 상황이다. 이는 비수도권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71.6명인 공학계열뿐만 아니라 자연계열도 67.5명으로 다른 계열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었다. 전문대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립에서 이러한 계열별 편차가 잘 나타나는데, 수도권의 공학계열은 72.8명, 자연계열은 59.8명이었고, 비수도권은 각각 71.8명, 68.2명이었다. 그 다음은 사회계열로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각각 59.9명, 59.2명이었다.



■ 그림 I-4-3 ■ 연도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2000~2013)



■ 그림 I-4-4 ■ 계열별 지역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2013)

■ 표 I-4-3 ■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2000~2013)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2000	79.0	51.4	80.9
2005	71.8	56.8	72.7
2006	70.4	63.2	70.7
2007	68.9	60.3	69.3
2008	64.7	60.1	64.8
2009	61.9	56.1	62.1
2010	61.9	72.5	61.7
2011	60.9	58.2	61.0
2012	59.6	56.2	59.6
2013	58.9	52.2	59.0

주: 총장 및 소속학과가 없는 전임교원의 수는 제외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 표 I-4-4 ■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2013)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58.9	52.2	59.0
수도권	소계	59.5	38.2	59.8
	인문	44.1	7.8	45.3
	사회	59.6	25.7	59.9
	교육	47.5	10.5	48.1
	공학	73.1	117.4	72.8
	자연	59.6	56.0	59.8
	의약	46.5	15.4	47.0
	예·체능	54.8	18.9	55.4
비수도권	소계	58.4	57.5	58.4
	인문	44.9	-	44.9
	사회	59.1	55.7	59.2
	교육	42.6	36.5	42.8
	공학	71.6	67.2	71.8
	자연	67.5	56.6	68.2
	의약	49.5	48.7	49.5
	예·체능	56.2	47.4	56.4

주: 1) 전임교원확보율은 교원법정정원으로 산출되는 비율이기 때문에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등의 5대 계열 구분('대학설립·운영규정'의 <별표1>에 의함)을 따르나, 학생 수는 교육기본통계에서처럼 7대 계열로 분류가 가능함.

2) 총장 및 소속학과가 없는 전임교원의 수는 제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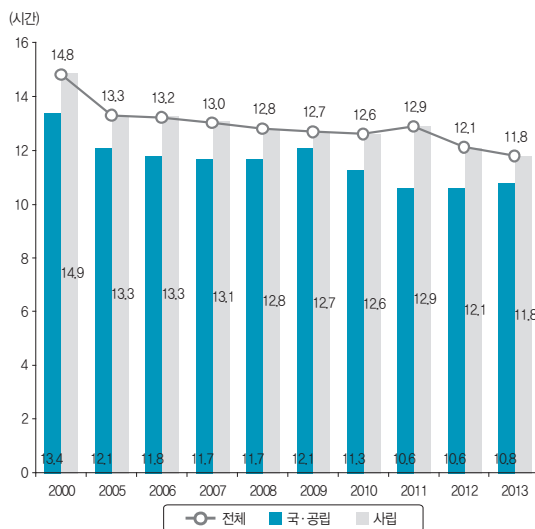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③ 전임교원의 강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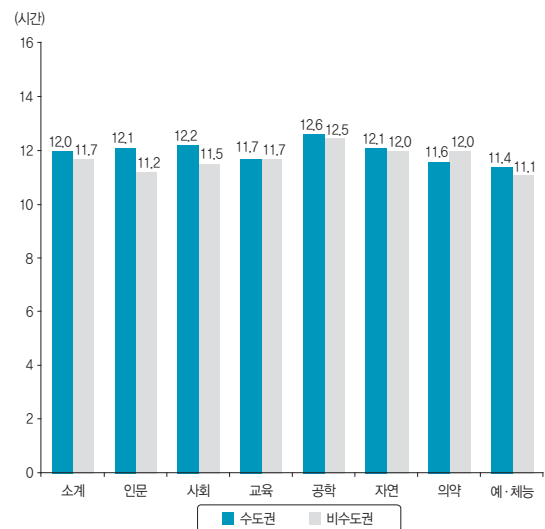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은 2000년 이후에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은 14.8시간이었으나 2005년 13.3시간으로 줄어들었고, 2008년에는 12시간대로 줄어들었다. 2012년까지 12시간대가 계속 유지되다가 2013년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은 11.8시간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전임교원은 같은 기간인 2000년 11,707명에서 2013년 13,015명으로 11% 정도 증가하였는데, 주당 수업시간은 20% 정도 감소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에 27,235명에서 31,879명으로 17% 정도 증가한 비전임교원의 수업부담이 더 많아졌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전임교원 확보와 마찬가지로 전임교원의 수업시간 역시 강의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데, 교원 수 확보에 비하여 담당 수업시간의 개선이 더 요구된다.

설립별로 살펴보면, 국·공립대학의 경우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이 2000년 13.4시간에서 2013년 10.8시간으로 2.6시간 정도 줄어들었다. 사립대학도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이 2000년 14.9시간에서 2013년 11.8시간으로 3.1시간 정도 줄어들었다. 지난 10여년 동안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이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모두 줄어들었고,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주당 수업시간의 차이도 조금씩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립대학 전임교원의 주당수업시간이 국·공립대학보다 많았고, 사립대학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이 국·공립대학보다 약 1시간 정도 많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소재 대학의 전임교원들은 주당 12.0시간 수업을 했으나 비수도권에서는 11.7시간으로 비수도권 대학의 전임교원들이 주당 수업시간이 약간 적었다.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계열별로 주당 수업시간을 살펴보면, 공학계열, 사회계열, 인문계열, 자연계열이 12시간이 넘었고, 교육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이 11시간이 조금 넘었다.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이 전임교원 주당 수업시간이 12시간이 넘었고, 교육계열, 사회계열, 인문계열, 예·체능계열이 11시간이 넘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모두 공학계열이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 수가 가장 많았고, 예·체능계열의 전임교원 수업시간 수가 가장 적었다.



■ 그림 I-4-5 ■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주당 수업시간 수 (2000~2013)



■ 그림 I-4-6 ■ 계열별 지역별 전임교원 주당 수업시간 수 (2013)

■ 표 I-4-5 ■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주당 수업시간 수(2000~2013)

(단위: 시간)

	전체	국·공립	사립
2000	14.8	13.4	14.9
2005	13.3	12.1	13.3
2006	13.2	11.8	13.3
2007	13.0	11.7	13.1
2008	12.8	11.7	12.8
2009	12.7	12.1	12.7
2010	12.6	11.3	12.6
2011	12.9	10.6	12.9
2012	12.1	10.6	12.1
2013	11.8	10.8	11.8

주: 1)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 수=전체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 수의 합/전체 전임교원 수

2) 소속학과가 없는 전임교원의 수는 제외됨.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 표 I-4-6 ■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전임교원 주당 수업시간 수(2013)

(단위: 시간)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11.8	10.8	11.8
수도권	소계	12.0	10.2	12.0
	인문	12.1	12.1	12.1
	사회	12.2	9.3	12.2
	교육	11.7	7.8	11.7
	공학	12.6	11.9	12.6
	자연	12.1	9.8	12.2
	의약	11.6	12.0	11.6
	예·체능	11.4	10.5	11.5
	소속학과없음	0.1	-	0.1
비수도권	소계	11.7	11.0	11.7
	인문	11.2	-	11.2
	사회	11.5	10.9	11.5
	교육	11.7	12.0	11.7
	공학	12.5	11.6	12.6
	자연	12.0	11.3	12.0
	의약	12.0	9.9	12.1
	예·체능	11.1	11.5	11.1
	소속학과없음	0.2	-	0.2

주: 1)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 수=전체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 수의 합/전체 전임교원 수

2) 소속학과가 없는 전임교원의 수는 제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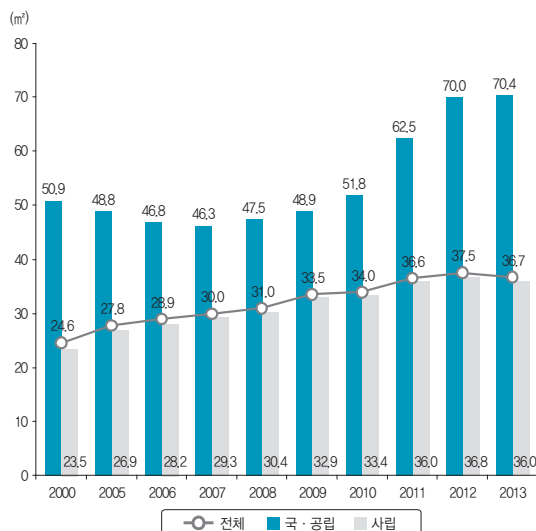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2) 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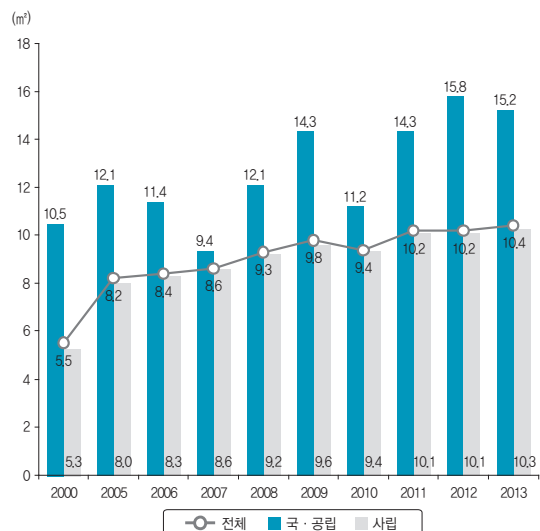
전문대학의 물리적 여건을 보기 위해서 교지면적 및 교사면적과 도서관 현황을 살펴보았다. 교지면적은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값으로, 학생 1인당 교지면적은 2013년 36.7㎡이었는데, 이는 2000년의 24.6㎡ 비하여 12.1㎡, 즉 50% 정도 늘어난 것이다. 이는 2012년 37.5㎡ 보다는 약간 줄어든 수치이다. 교지면적의 변화는 학교 수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설립별로 보면, 2000년 이후에 국·공립의 교지면적이 사립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면적은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특수시설, 기숙시설, 기타시설 등을 합한 면적으로서, 학생 1인당 교사면적은 2000년 5.5㎡에서 2013년 10.4㎡로 두 배가량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서 10여 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교사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립별로 학생 1인당 교사면적을 보면 국·공립이 사립보다 평균적으로 5㎡ 정도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현황은 학생 1인당 도서관 예산, 좌석당 학생 수, 학생 1인당 장서 수를 통하여 볼 수 있는데(표 I-4-8) 참조), 2013년 학생 1인당 도서관 예산은 20,064.7원이었다. 설립별로 보면, 국·공립이 33,825.4원으로 사립의 19,767.5원의 1.7배 정도 된다. 지역별로 보았을 때, 수도권은 22,734.6원, 비수도권은 18,075.6원으로 수도권이 비수도권의 1.3배 정도 되었다. 이를 다시 설립별로 볼 경우에, 수도권의 국·공립은 수도권 사립에 비하여 4배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였고, 지방의 경우에는 국·공립과 사립 간의 차이가 별로 없었다. 도서관 좌석당 학생 수는 전체 평균이 11.4명이었고, 국·공립이 9.1명, 사립이 11.4명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13.6명, 비수도권이 10.1명이었다. 학생 1인당 도서관 장서 수는 평균 16.3권이었으며, 국·공립이 27권, 사립이 16.1권으로 그 차이가 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4.5권, 비수도권이 17.6권으로 비수도권이 좀 더 많은 장서를 보유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국·공립이 예산이나, 좌석당 학생 수, 장서 수, 모든 측면에서 사립보다 더 나은 환경에 있었다. 그리고 예산상으로는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더 나은 환경이었으나, 좌석당 학생 수, 장서 수에서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더 나은 환경이었다.



■ 그림 I-4-7 ■ 연도별 학생 1인당 교지면적(2000~2013)



■ 그림 I-4-8 ■ 연도별 학생 1인당 교사면적(2000~2013)

■ 표 I-4-7 ■ 연도별 설립별 학생 1인당 교지면적 및 교사면적(2000~2013)

(단위: m²)

	학생 1인당 교지면적			학생 1인당 교사면적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사립
2000	24.6	50.9	23.5	5.5	10.5	5.3
2005	27.8	48.8	26.9	8.2	12.1	8.0
2006	28.9	46.8	28.2	8.4	11.4	8.3
2007	30.0	46.3	29.3	8.6	9.4	8.6
2008	31.0	47.5	30.4	9.3	12.1	9.2
2009	33.5	48.9	32.9	9.8	14.3	9.6
2010	34.0	51.8	33.4	9.4	11.2	9.4
2011	36.6	62.5	36.0	10.2	14.3	10.1
2012	37.5	70.0	36.8	10.2	15.8	10.1
2013	36.7	70.4	36.0	10.4	15.2	10.3

주: 1) 교지면적은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값으로, 차용면적은 제외하고 학교 소유 면적만을 나타냄.
 2) 교사면적: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특수시설, 기숙시설, 계열별 부속시설, 기타시설 등을 합한 수치임.
 3) 학생 1인당 교지면적: 합산한 교지면적/재적학생 수
 4) 학생 1인당 교사면적: 합산한 교사면적/재적학생 수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 표 I-4-8 ■ 지역별 설립별 학생 1인당 도서관 예산(2013)

(단위: 원, 명, 권)

	학생 1인당 도서관 예산			도서관 좌석당 학생 수			학생 1인당 도서관 장서 수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20,064.7	33,825.4	19,767.5	11.4	9.1	11.4	16.3	27.0	16.1
수도권	22,734.6	89,876.8	22,053.7	13.6	10.7	13.6	14.5	28.7	14.4
비수도권	18,075.6	19,570.1	18,030.4	10.1	8.7	10.2	17.6	26.5	17.4

주: 1) 학생 1인당 도서관 예산= 전체 도서관 예산/재적학생 수
 2) 도서관 좌석당 학생 수= 재적학생 수/좌석 수
 3) 도서관 학생 1인당 장서 수=장서 수/재적학생 수
 4) 재적학생 수에서 폐교 학생 수는 제외함.
 5) 학교 규모는 학생 수 5000명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음.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Ⅱ . 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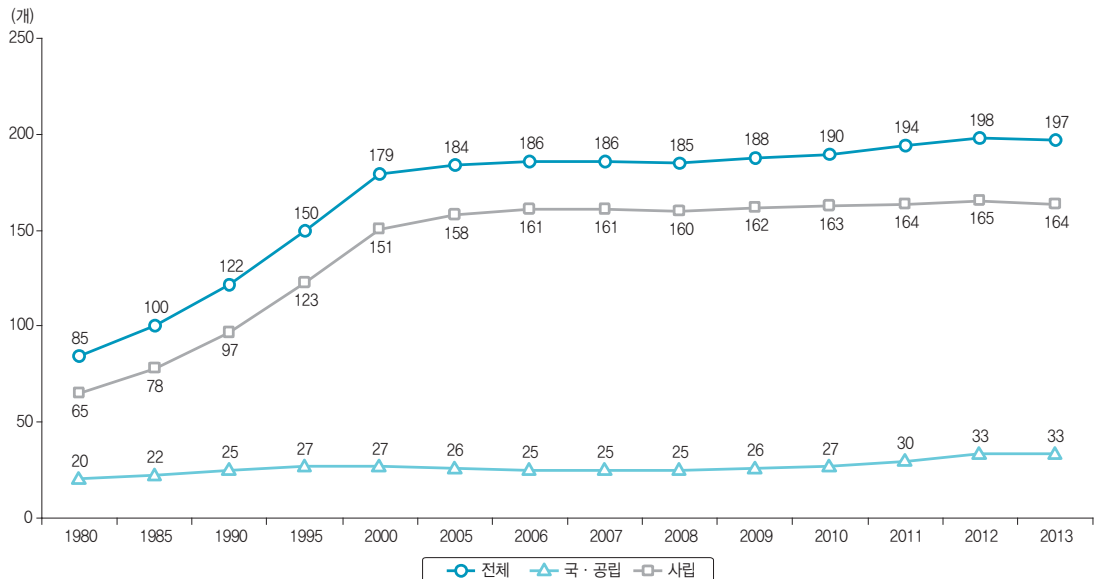
1. 학교
2. 학생
3. 교원
4. 학습 환경 및 여건

이 장에서의 '대학'은 4년제 일반대학만을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4년제 대학의 정보는 개황에서 제시하고 있음.

1. 학교¹²⁾

대학은 2013년 분교 9개교를 포함하여 197개교에 이른다. 이 중에서 국·공립대학은 33개교, 사립은 분교 9개교를 포함하여 164개교로, 사립 비중이 전체의 83.2%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II-1-1]을 통해서 연도별로 대학 수를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에는 186개교였으나, 그 이후부터 증가세가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 85개교에 불과하던 대학이 2012년에 198개로 2.3배 증가하였다. 사립대학은 같은 시기 2.5배 늘어났고, 국·공립대학은 1.7배 정도 늘어났다. 1980년 사립대학은 전체의 76.5%였으나, 2013년에는 83.2%로 1980년과 비교했을 때 6.7%p 증가하였다. 이로써 대학의 양적 확대가 사립대학 수의 증가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지역별로 대학 수를 비교해 보면(〈표 II-1-2〉 참조), 2013년 수도권에는 72개교로 36.5%, 비수도권에는 125개교로 63.5%의 학교가 각각 소재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비수도권에는 전체 국·공립대학의 81.8%에 해당하는 27개교, 전체 사립대학의 59.8%에 해당하는 98개교가 위치해 있었다. 전체 대학 중에서 국·공립대학 대비 사립대학 비중은 비수도권에서는 78.4%인데 반해, 수도권에서는 91.7%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립대학이 국·공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학교규모별로는 대규모 대학은 수도권이 34개교, 비수도권이 60개교로 전체 대학의 47.7%에 차지하며, 소규모 대학은 수도권 24개교, 비수도권 41개교로 전체 대학의 33%의 비중을 차지했다.



■ 그림 II-1-1 ■ 연도별 설립별 학교 수(1980~2013)

주: 학교 수에 분교 수가 포함됨.

12) 이 장에서의 '대학'은 대학과정에 있는 4년제 일반대학만을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4년제 대학의 정보는 개황에서 제시하고 있음.

■ 표 II-1-1 ■ 연도별 설립별 학교 수(1980~2013)

(단위: 개)

	전체	국·공립	사립
1980	85	20	65
1985	100	22	78
1990	107(15)	24(1)	83(14)
1995	131(19)	26(1)	105(18)
2000	161(18)	26(1)	135(17)
2005	173(11)	26	147(11)
2006	175(11)	25	150(11)
2007	175(11)	25	150(11)
2008	174(11)	25	149(11)
2009	177(11)	26	151(11)
2010	179(11)	27	152(11)
2011	183(11)	30	153(11)
2012	189(9)	33	156(9)
2013	188(9)	33	155(9)

주: ()는 분교 수를 나타내는데, 제시된 학교 수에는 분교 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 표 II-1-2 ■ 지역별 학교규모별 설립별 학교 수(2013)

(단위: 개)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197	33	164
수도권	소계	72	6	66
	대규모	34	3	31
	중규모	14	1	13
	소규모	24	2	22
비수도권	소계	125	27	98
	대규모	60	19	41
	중규모	24	1	23
	소규모	41	7	34

주: 1) 대학은 ① 대규모: 10,000명 이상, ② 중규모: 5,000명 이상~10,000명 미만, ③ 소규모: 5,000명 미만의 기준에 의함.

2) 캠퍼스는 본교로 포함하였으며, 분교 9개를 별도로 보아 총 198개임.

3) 지역은 본교 기준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2. 학생

1) 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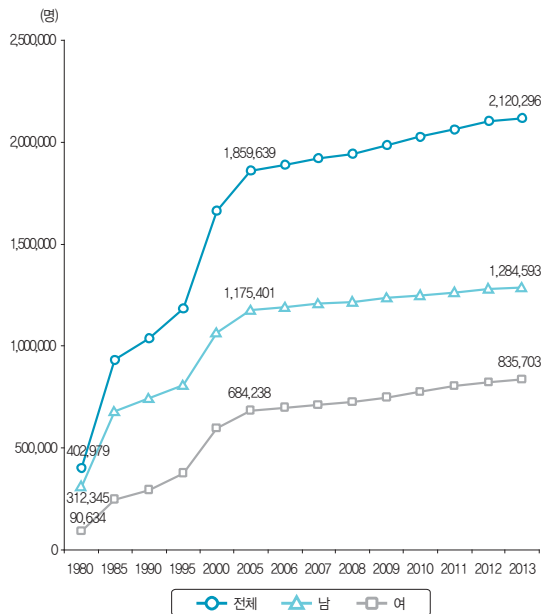
대학의 학생 수는 2013년 남학생 1,284,593명, 여학생 835,703명으로 전체 2,120,296명에 이른다. [그림 II-2-1]을 보면 1980년 학생 수는 402,979명에 불과했으나, 1990년에는 1백만, 2010년에는 2백만을 넘어섰고, 2013년에는 1980년 학생 수의 5배가 넘는 규모로 늘어났다. 고등교육 진학자의 양적확대는 [그림 II-2-4]의 인구 1만 명당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 수의 변화 추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80년 인구 1만 명당 160.9명에 불과하던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 수는 2000년 731.4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후에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3년에는 738.7명에 이르렀다. 학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던 시기는 1990년 후반 대학설립 준칙주의에 따라 대학의 설립이 다소 자유로워지기 시작한 시기와 맞물린다(한강희 외, 2010). 따라서 1990년대 후반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 수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은 대학 설립에 대한 이러한 제도적 변화로 대학이 양적으로 팽창했기 때문이다.

성별로 학생 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남학생 수는 1980년 312,345명에서 2013년 1,284,593명으로 4배 늘어났고, 여학생 수는 1980년 90,634명에서 2013년 835,703명으로 9배 증가하였다. 여학생 수의 증가는 학생 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 수에서 차지하는 여학생 비율의 증가도 가져왔다. 1980년 당시 여학생의 비율은 22.5%로 나타났으나, 1990년에는 30%를 넘어섰고,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13년에는 여학생이 전체 학생의 39.4%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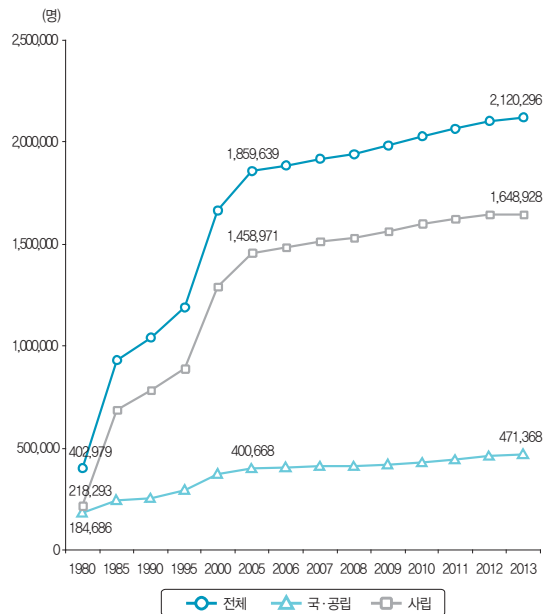
설립별로 학생 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국·공립과 사립학교 간에 다소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국·공립의 경우, 1980년 학생 수는 184,686명에서 2013년 471,368명으로 학생 수가 2.6배 증가하였으나,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1980년 218,293명에서 2013년 1,648,928명으로 7.6배 증가하였다. 설립별 구성비를 보면, 1980년 전체 대학생 중에서 사립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비율은 54.2%였으나, 1985년에는 73.9%로 19.7%p 증가하였다. 그 이후로도 사립대학의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에는 전체 학생의 77.8%에 해당하는 1,648,928명에 이르고 있다.

2013년 계열별로 학생 수를 살펴보면, 사회계열이 622,443명으로 전체 학생의 29.4%를 차지하며 가장 비중이 높았고, 그 다음으로 공학계열 26.0%(551,630명), 인문계열 12.9%(273,042명), 자연계열 12.2%(258,487명), 예·체능계열 10.6%(225,140명), 의약계열 4.9%(102,992명)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교육계열이 4.1%(86,562명)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계열별로 여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의약계열이 61.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교육계열 57.3%, 예·체능계열 53.8%, 인문계열 55.2%, 자연계열 44.3%, 사회계열 40.4%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학계열은 15.4%로 다른 계열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선호되는 특정 계열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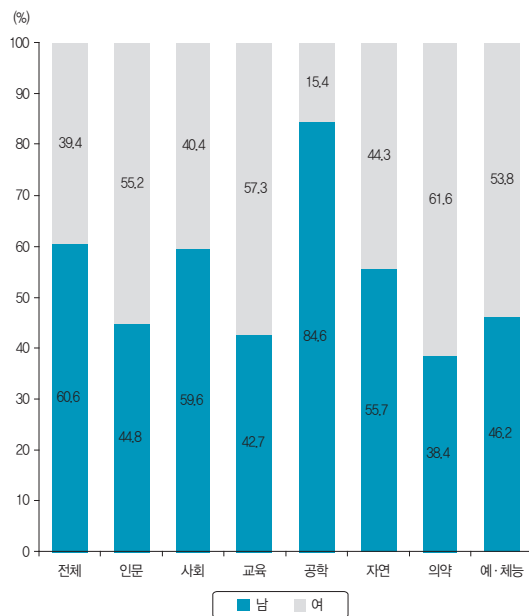
지역별로 재학생 수를 살펴보면 수도권은 787,127명, 비수도권은 1,333,169명으로 전체 학생 중에서 37.1%가 수도권에서 재학하고 있었다. 지역별·계열별로 살펴보면 2013년 수도권에서는 사회계열에 재학 중인 학생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공학계열, 인문계열, 예·체능계열, 자연계열, 교육계열, 의약계열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회계열에 재학 중인 학생이 가장 많았으나, 그 다음으로 공학계열, 자연계열, 인문계열, 예·체능계열, 의약계열, 교육계열 순으로 수도권과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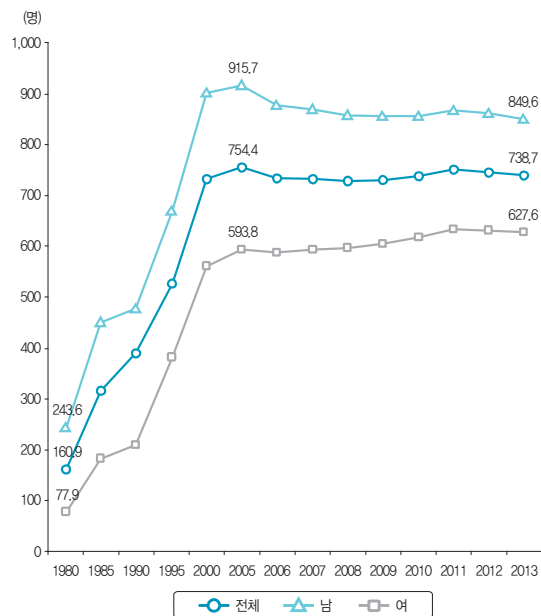
■ 그림 II-2-1 ■ 연도별 성별 학생 수(1980~2013)



■ 그림 II-2-2 ■ 연도별 설립별 학생 수(1980~2013)



■ 그림 II-2-3 ■ 계열별 성별 학생 비율(2013)



■ 그림 II-2-4 ■ 연도별 인구 1만명당 고등교육기관 재적 학생 수(1980~2013)

■ II. 대학 ■

■ 표 II-2-1 ■ 연도별 설립별 성별 학생 수(1980~2013)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1980	402,979	312,345	90,634	184,686	165,098	19,588	218,293	147,247	71,046
1985	931,884	681,796	250,088	243,378	179,092	64,286	688,506	502,704	185,802
1990	1,040,166	744,037	296,129	254,748	184,846	69,902	785,418	559,191	226,227
1995	1,187,735	809,317	378,418	295,941	208,089	87,852	891,794	601,228	290,566
2000	1,664,398	1,068,009	596,389	372,078	247,470	124,608	1,293,320	821,539	471,781
2005	1,859,639	1,175,401	684,238	400,668	266,317	134,351	1,458,971	909,084	549,887
2006	1,888,436	1,192,002	696,434	405,256	270,623	134,633	1,483,180	921,379	561,801
2007	1,919,504	1,206,769	712,735	408,461	273,341	135,120	1,511,043	933,428	577,615
2008	1,943,437	1,216,259	727,178	411,675	275,934	135,741	1,531,762	940,325	591,437
2009	1,984,043	1,234,714	749,329	420,944	283,360	137,584	1,563,099	951,354	611,745
2010	2,028,841	1,250,655	778,186	428,173	286,426	141,747	1,600,668	964,229	636,439
2011	2,065,451	1,263,376	802,075	441,946	294,645	147,301	1,623,505	968,731	654,774
2012	2,103,958	1,282,083	821,875	459,171	305,455	153,716	1,644,787	976,628	668,159
2013	2,120,296	1,284,593	835,703	471,368	311,867	159,501	1,648,928	972,726	676,202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 표 II-2-2 ■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학생 수(2013)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2,120,296	1,284,593	835,703	471,368	311,867	159,501	1,648,928	972,726	676,202
수도권	소계	787,127	444,471	342,656	65,599	43,469	22,130	721,528	401,002	320,526
	인문	123,744	50,379	73,365	6,212	2,978	3,234	117,532	47,401	70,131
	사회	239,414	133,883	105,531	15,805	10,073	5,732	223,609	123,810	99,799
	교육	25,793	10,433	15,360	2,724	1,460	1,264	23,069	8,973	14,096
	공학	200,572	162,643	37,929	22,036	18,081	3,955	178,536	144,562	33,974
	자연	88,525	45,592	42,933	9,914	6,029	3,885	78,611	39,563	39,048
	의약	18,844	6,736	12,108	1,148	533	615	17,696	6,203	11,493
	예·체능	90,235	34,805	55,430	7,760	4,315	3,445	82,475	30,490	51,985
비수도권	소계	1,333,169	840,122	493,047	405,769	268,398	137,371	927,400	571,724	355,676
	인문	149,298	72,024	77,274	38,830	17,640	21,190	110,468	54,384	56,084
	사회	383,029	237,273	145,756	79,996	48,592	31,404	303,033	188,681	114,352
	교육	60,769	26,525	34,244	22,388	11,317	11,071	38,381	15,208	23,173
	공학	351,058	303,810	47,248	151,320	128,918	22,402	199,738	174,892	24,846
	자연	169,962	98,467	71,495	84,138	50,606	33,532	85,824	47,861	37,963
	의약	84,148	32,812	51,336	9,986	3,136	6,850	74,162	29,676	44,486
	예·체능	134,905	69,211	65,694	19,111	8,189	10,922	115,794	61,022	54,772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표 II-2-3 연도별 인구 만 명당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 수(1980~2013)

(단위: 명)

	전체 인구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 수			인구 만 명당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 수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980	37,406,815	18,749,306	18,657,509	601,994	456,752	145,242	160.9	243.6	77.9
1985	40,419,652	20,227,564	20,192,088	1,277,825	910,609	367,216	316.1	450.2	181.9
1990	43,390,374	21,770,919	21,619,455	1,691,681	1,037,298	453,511	389.9	476.5	209.8
1995	44,553,710	22,357,352	22,196,358	2,343,894	1,495,749	848,145	526.1	669.0	382.1
2000	45,985,289	23,068,181	22,917,108	3,363,549	2,076,787	1,286,762	731.4	900.3	561.5
2005	47,041,434	23,465,650	23,575,784	3,548,728	2,148,797	1,399,931	754.4	915.7	593.8
2006	48,371,946	24,302,796	24,069,150	3,545,774	2,132,064	1,413,710	733.0	877.3	587.4
2007	48,597,652	24,410,110	24,187,542	3,558,711	2,121,981	1,436,730	732.3	869.3	594.0
2008	48,948,698	24,576,155	24,372,543	3,562,844	2,106,875	1,455,969	727.9	857.3	597.4
2009	49,182,038	24,664,502	24,517,536	3,591,088	2,107,559	1,483,529	730.2	854.6	605.2
2010	49,410,366	24,757,776	24,652,590	3,644,158	2,119,555	1,524,603	737.5	856.1	618.4
2011	49,779,440	24,942,339	24,837,101	3,735,706	2,163,797	1,571,909	750.5	867.5	632.9
2012	50,004,441	25,039,557	24,964,884	3,728,802	2,154,726	1,574,076	745.7	860.5	630.5
2013	50,219,669	25,132,612	25,087,057	3,709,734	2,135,239	1,574,495	738.7	849.6	627.6

주: 1) 인구 만 명당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 수=고등교육기관 전체 재적학생 수/총인구×10,000

2) 고등교육기관에는 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원격대학, 기능대학, 전공대학, 대학원이 포함됨.

3) 인구 자료는 통계청데이터이며, 2013년 인구수는 2011.12월에 작성한 장래인구추계 자료임.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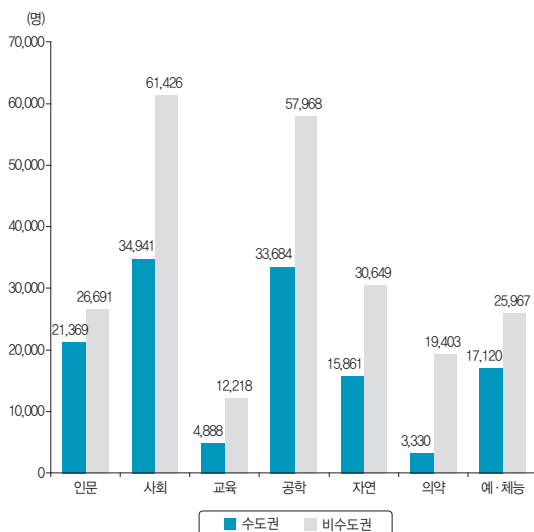
2) 입학

대학 입학생 수를 살펴보면 2013년 365,515명으로, 남학생은 195,112명, 여학생은 170,403명으로 전체 입학생 수 대비 여학생의 비율은 46.6%이었다. 설립별로는 사립대학의 입학생 수가 2013년 284,278명으로 전체 입학생 수의 77.8%를 차지하였다. 이는 대학생의 설립별 구성비와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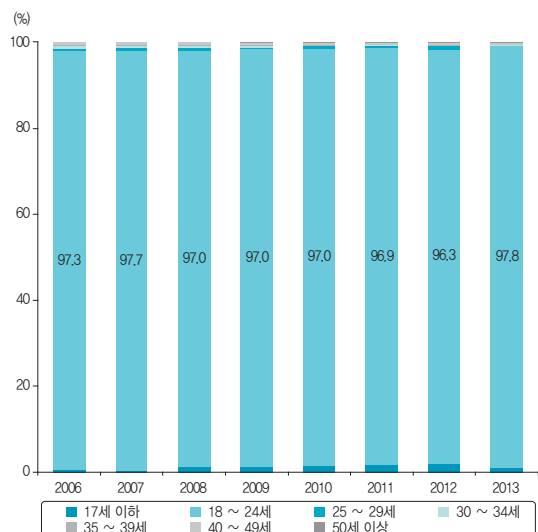
계열별로 입학생 수를 살펴보면, 2013년 사회계열이 96,367명으로 전체 입학생의 26.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공학계열 91,652명으로 25.1%, 인문계열 48,060명으로 13.1 자연계열 46,510명으로 12.7%, 예·체능계열 43,087명으로 11.8%, 의약계열 22,733명으로 6.2%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교육계열이 전체 입학생 수의 4.7%인 17,106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이는 계열별 재학생 수와 같은 양상이었다. 여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의약계열이 67.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교육계열 66.1%, 예·체능계열 59.9%, 인문계열 59.4%, 자연계열 50.4%, 사회계열 48.4%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학계열은 21.2%로 다른 계열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표 II-2-4〉 참조). 재학생 여학생 비율의 계열별 비율 순서는 동일하지만, 각 계열별에서 남녀비율이 재학생보다 균형적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서 특정계열이 선호되는 현상은 점차 완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별·계열별로 입학생 수를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사회계열이 34,941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공학계열, 인문계열, 자연계열, 예·체능, 교육계열 순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의약계열이 3,330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비수도권의 경우 역시 사회계열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공학계열, 자연계열, 인문계열, 예·체능, 의약계열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교육계열이 가장 적었다.

연도별·연령별 입학생 수를 살펴보면 2013년 18세부터 24세 사이 연령의 학생이 전체 입학생의 97.8%를 차지하였다. 2006년부터 살펴봐도 18세부터 24세사이의 입학생 비율이 96~97%사이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학생유형별 입학생 수를 살펴보면, 2013년 전체 입학생 365,515명 중에서 당해연도에 고교를 졸업하고 진학한 자가 279,410명이며, 그 다음으로 재수자 74,390명, 재진학자 5,647명, 검정고시 합격 73명, 기타 5,995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입학생 중에서 76.4%가 당해연도 고교졸업자이며 20.4%가 재수자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2013년에 입학한 학생 중에서 5명 당 1명은 대학입시를 2번 이상 치른 학생으로 볼 수 있다.



■ 그림 II-2-5 ■ 지역별 계열별 입학생 수(2013)



■ 그림 II-2-6 ■ 연도별 연령별 입학생 비율(2006~2013)

■ 표 II-2-4 ■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입학생 수(2013)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365,515	195,112	170,403	81,237	48,597	32,640	284,278	146,515	137,763
수도권	소계	131,193	65,720	65,473	12,667	7,902	4,765	118,526	57,818	60,708
	인문	21,369	7,760	13,609	1,097	500	597	20,272	7,260	13,012
	사회	34,941	16,767	18,174	2,422	1,394	1,028	32,519	15,373	17,146
	교육	4,888	1,633	3,255	495	256	239	4,393	1,377	3,016
	공학	33,684	25,325	8,359	4,760	3,669	1,091	28,924	21,656	7,268
	자연	15,861	7,504	8,357	2,141	1,235	906	13,720	6,269	7,451
	의약	3,330	1,075	2,255	174	88	86	3,156	987	2,169
비수도권	예·체능	17,120	5,656	11,464	1,578	760	818	15,542	4,896	10,646
	소계	234,322	129,392	104,930	68,570	40,695	27,875	165,752	88,697	77,055
	인문	26,691	11,729	14,962	7,053	3,060	3,993	19,638	8,669	10,969
	사회	61,426	32,998	28,428	11,815	6,280	5,535	49,611	26,718	22,893
	교육	12,218	4,168	8,050	4,382	1,789	2,593	7,836	2,379	5,457
	공학	57,968	46,930	11,038	25,029	19,921	5,108	32,939	27,009	5,930
	자연	30,649	15,545	15,104	14,640	7,821	6,819	16,009	7,724	8,285
	의약	19,403	6,403	13,000	2,009	574	1,435	17,394	5,829	11,565
	예·체능	25,967	11,619	14,348	3,642	1,250	2,392	22,325	10,369	11,956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 표 II-2-5 ■ 연도별 연령별 입학생 수(2006~2013)

(단위: 명)

	전체	~ 17세	18 ~ 24세	25 ~ 29세	30 ~ 34세	35 ~ 39세	40 ~ 49세	50세 ~
2006	335,581	1,986	326,686	2,631	1,282	1,128	1,868	-
2007	342,250	1,648	334,423	2,469	995	1,027	1,688	-
2008	342,916	4,298	332,684	2,329	962	969	1,674	-
2009	347,750	4,719	337,439	1,970	887	957	1,279	499
2010	358,511	5,879	347,838	1,685	755	756	1,065	533
2011	361,686	6,483	350,435	2,026	833	566	859	484
2012	372,941	8,097	359,096	2,641	1,023	551	987	546
2013	365,515	4,556	357,438	1,227	521	384	879	510

주: 2006~2008년의 40~49세 범주에는 '40세 이상'의 값을 제시함. 당시에는 50세 이상의 범주를 별도로 구분하여 조사하지 않고, 해당 대상을 40세 이상에 포함시켜 함께 집계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 표 II-2-6 ■ 학생유형별 설립별 성별 입학생 수(2013)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계		365,515	195,112	170,403	81,237	48,597	32,640	284,278	146,515	137,763
당해연도 고교졸업자		279,410	144,745	134,665	64,394	37,296	27,098	215,016	107,449	107,567
재수자		74,390	43,987	30,403	14,304	9,711	4,593	60,086	34,276	25,810
재진학자		5,647	3,045	2,602	874	510	364	4,773	2,535	2,238
검정고시합격		73	49	24	-	-	-	73	49	24
기타		5,995	3,286	2,709	1,665	1,080	585	4,330	2,206	2,124

주: 재수자는 대학입시를 2번 이상 치른 학생을 일컫는 말로 3번이나 4번 그 이상의 대학입시를 치른 학생도 포함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3) 학생 변동 상황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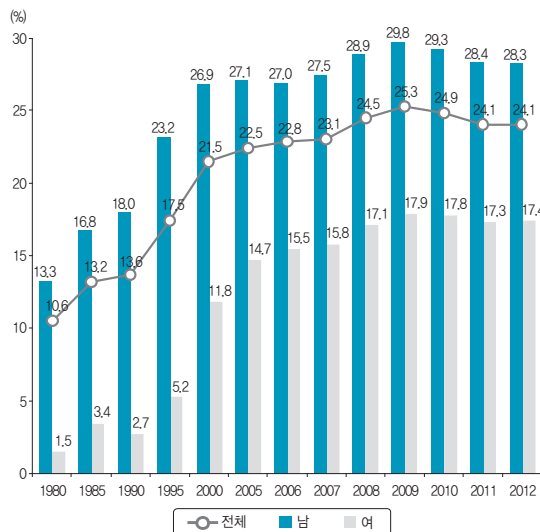
① 휴학⁴⁾

1980학년도 42,804명이었던 휴학생 수는 2010학년도까지 504,599명으로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11학년도에 497,725명으로 다소 줄어든 후 다시 증가하여 2012년 506,133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난 20여년간 전체 학생대 비 휴학생 비율로 살펴보면, 2012학년도 전체 휴학생 비율⁵⁾은 24.1%로 1980학년도 10.6%와 비교하여 13.5%p가 증가했으며,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대학생의 휴학률이 20%가 넘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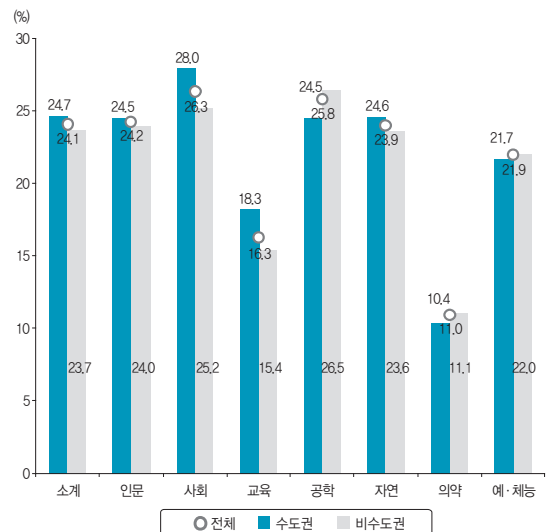
성별 휴학률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980학년도에는 남학생은 13.3%, 여학생은 1.5%였으나 2012년에는 남학생은 28.3%, 여학생은 17.4%로 각각 15%p, 15.9%p 증가하였다. 1980년 이래로 남학생의 휴학률이 여학생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남학생의 군복무로 인한 휴학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설립별 휴학률을 보면, 1980학년도에는 국·공립은 7.1%, 사립은 13.6%였으나 2012학년도에는 국·공립은 24.9%, 사립은 23.8%로 각각 3.2배, 1.8배 증가하였다(〈표 II-2-7〉 참조). 이처럼 지난 20여년 간 국·공립대학의 휴학률이 사립대학보다 더 많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2012학년도에는 국·공립대학의 휴학률이 사립대학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계열별 휴학률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수도권 학생들의 휴학률은 24.7%, 비수도권은 23.7%로, 수도권 학생들이 1%p정도 높은 휴학률을 보였다. 계열별로 보면 인문, 사회, 교육, 자연계열은 수도권 학생들의 휴학률이 높았고, 반면에 공학, 의약, 예·체능 계열에서는 비수도권 학생들의 휴학률이 높게 나타났다.



■ 그림 II-2-7 ■ 연도별 성별 휴학률(1980~2012, 학년도 기준)



■ 그림 II-2-8 ■ 지역별 계열별 휴학률(2012, 학년도 기준)

13)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휴학, 중도탈락, 편입 현황은 조사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재적 학생 현황 파악 차원에서 조사되는 경우와 조사년도 기준으로 전년도 3월 1일부터 차년도(조사년도) 2월 28일을 기준으로 학생 변동 상황 파악 차원에서 조사되는 경우의 두 정표로 조사된다. 이 절에서의 학생 변동 상황은 조사년도 기준으로 전년도 3월 1일부터 차년도(조사년도) 2월 28일을 기준으로 하는 두 번째 조사 기준에 의한 자료임을 밝혀둔다.

14) 휴학과 관련한 자료(학년도 기준)의 자료기준일은 기준학년도 3월 1일 ~ 차년도 2월 28일임.

15) 휴학생 비율(학년도 기준)=(휴학생 수/재적학생 수)×100

표 II-2-7 연도별 설립별 성별 휴학생 수 및 휴학률(1980~2012, 학년도 기준)

(단위: 명, %)

	전체						국·공립						사립					
	휴학생 수			휴학률			휴학생 수			휴학률			휴학생 수			휴학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남	여
1980	42,804	41,480	1,324	10.6	13.3	1.5	13,055	12,869	186	7.1	7.8	0.9	29,749	28,611	1,138	13.6	19.4	1.6
1985	123,162	114,783	8,379	13.2	16.8	3.4	33,390	31,527	1,863	13.7	17.6	2.9	89,772	83,256	6,516	13.0	16.6	3.5
1990	141,626	133,725	7,901	13.6	18.0	2.7	39,203	37,450	1,753	15.4	20.3	2.5	102,423	96,275	6,148	13.0	17.2	2.7
1995	207,842	188,054	19,788	17.5	23.2	5.2	48,170	44,270	3,900	16.3	21.3	4.4	159,672	143,784	15,888	17.9	23.9	5.5
2000	357,128	287,011	70,117	21.5	26.9	11.8	77,952	63,241	14,711	21.0	25.6	11.8	279,176	223,770	55,406	21.6	27.2	11.7
2005	418,952	318,376	100,576	22.5	27.1	14.7	96,629	76,472	20,157	24.1	28.7	15.0	322,323	241,904	80,419	22.1	26.6	14.6
2006	430,540	322,409	108,131	22.8	27.0	15.5	95,335	74,570	20,765	23.5	27.6	15.4	335,205	247,839	87,366	22.6	26.9	15.6
2007	443,694	331,371	112,323	23.1	27.5	15.8	96,280	74,928	21,352	23.6	27.4	15.8	347,414	256,443	90,971	23.0	27.5	15.7
2008	475,568	350,961	124,607	24.5	28.9	17.1	101,324	77,829	23,495	24.6	28.2	17.3	374,244	273,132	101,112	24.4	29.0	17.1
2009	502,607	368,121	134,486	25.3	29.8	17.9	108,428	84,128	24,300	25.8	29.7	17.7	394,179	283,993	110,186	25.2	29.9	18.0
2010	504,599	366,250	138,349	24.9	29.3	17.8	114,402	88,069	26,333	26.7	30.7	18.6	390,197	278,181	112,016	24.4	28.9	17.6
2011	497,725	359,071	138,654	24.1	28.4	17.3	110,604	84,479	26,125	25.0	28.7	17.7	387,121	274,592	112,529	23.8	28.3	17.2
2012	506,133	363,355	142,778	24.1	28.3	17.4	114,434	87,130	27,304	24.9	28.5	17.8	391,699	276,225	115,474	23.8	28.3	17.3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표 II-2-8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휴학생 수 및 휴학률(2012, 학년도 기준)

(단위: 명, %)

		전체						국·공립						사립					
		휴학생 수			휴학률			휴학생 수			휴학률			휴학생 수			휴학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소개	남	여	전체	남	여	소개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506,133	363,355	142,778	24.1	28.3	17.4	114,434	87,130	27,304	24.9	28.5	17.8	391,699	276,225	115,474	23.8	28.3	17.3	
수도권	소개	194,514	124,975	69,539	24.7	28.1	20.3	13,582	10,069	3,513	22.5	25.0	17.5	180,932	114,906	66,026	24.9	28.4	20.5
	인문	30,389	14,467	15,922	24.5	28.8	21.6	1,382	815	567	23.8	29.3	18.7	29,007	13,652	15,355	24.6	28.8	21.8
	사회	68,065	43,289	24,776	28.0	31.6	23.3	4,550	3,217	1,333	29.6	32.6	24.3	63,515	40,072	23,443	27.9	31.5	23.2
	교육	4,723	2,577	2,146	18.3	24.7	13.9	488	327	161	19.0	23.6	13.6	4,235	2,250	1,985	18.2	24.9	13.9
	공학	48,055	41,483	6,572	24.5	25.9	18.2	4,068	3,611	457	21.1	22.5	13.9	43,987	37,872	6,115	24.8	26.2	18.6
	자연	21,908	12,628	9,280	24.6	27.8	21.3	1,914	1,306	608	21.0	23.5	17.2	19,994	11,322	8,672	25.0	28.4	21.6
	의약	2,050	1,160	890	10.4	15.8	7.1	56	16	40	5.2	3.2	6.9	1,994	1,144	850	10.7	16.7	7.2
	예·체능	19,324	9,371	9,953	21.7	27.3	18.2	1,124	777	347	15.7	18.8	11.5	18,200	8,594	9,606	22.3	28.5	18.6
비수도권	소개	311,619	238,380	73,239	23.7	28.5	15.3	100,852	77,061	23,791	25.3	29.1	17.8	210,767	161,319	49,448	23.0	28.2	14.3
	인문	36,016	21,126	14,890	24.0	29.5	19.0	9,964	5,492	4,472	26.3	32.5	21.2	26,052	15,634	10,418	23.2	28.5	18.2
	사회	97,302	71,807	25,495	25.2	29.9	17.6	22,978	15,911	7,067	28.8	32.7	22.7	74,324	55,896	18,428	24.3	29.2	16.2
	교육	9,311	6,419	2,892	15.4	24.1	8.6	3,818	2,744	1,074	17.2	24.3	9.8	5,493	3,675	1,818	14.4	23.9	8.0
	공학	92,171	85,553	6,618	26.5	28.2	14.9	38,882	35,566	3,316	26.1	27.8	15.9	53,289	49,987	3,302	26.8	28.6	14.0
	자연	39,090	27,778	11,312	23.6	28.8	16.4	20,439	14,547	5,892	24.8	29.3	17.9	18,651	13,231	5,420	22.5	28.2	15.0
	의약	8,221	5,892	2,329	11.1	20.1	5.2	826	488	338	9.3	18.6	5.4	7,395	5,404	1,991	11.4	20.3	5.2
	예·체능	29,508	19,805	9,703	22.0	28.5	15.1	3,945	2,313	1,632	21.1	28.5	15.4	25,563	17,492	8,071	22.2	28.5	15.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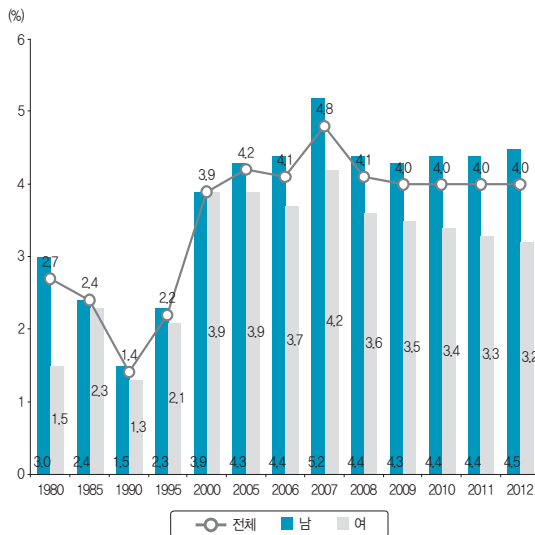
② 중도탈락¹⁶⁾

중도탈락률¹⁷⁾의 추이를 보면, [그림 II-2-9]에서 나타나듯이 1980학년도 중도탈락률은 2.7%이었으나 1990학년도에는 1.4%까지 절반 정도 감소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로 다시 증가하면서 2007학년도에는 4.8%로 중도탈락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이후에는 특별한 증감 없이 4%대를 유지하고 있다. 2012학년도 중도탈락자 수는 전체 84,114명으로 이 중에서 남학생은 57,527명, 여학생은 26,587명으로 여학생보다 남학생 수가 더 많았다. 같은 해 중도탈락률을 보면, 전체학생은 4.0%, 남학생은 4.5%, 여학생은 3.2%로 나타나는데, 이는 1980학년도에 비해서 각각 1.3%p, 1.5%p, 1.7%p 증가한 수치로 지난 20여 년간 중도탈락학생 비율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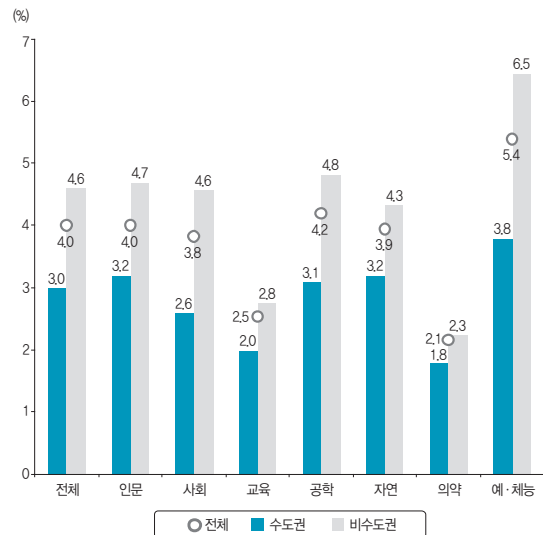
설립별로 중도탈락자를 살펴보면, 2012학년도 사립대학은 69,685명으로 전체 학생 중 4.2%가 중도탈락을 했으며, 국·공립대학은 14,429명으로 전체 학생 중에서 3.1%의 학생이 중도탈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2-9〉 참조). 또한, 사립대학이 국·공립대학보다 중도탈락률이 1.1%p 높았다.

계열별로 보면, 예·체능계열 학생의 중도탈락률이 5.4%로 다른 계열의 학생보다 높았고, 공학계열(4.2%)과 인문계열(4.0%) 학생의 중도탈락률도 4%를 넘었다. 자연계열(3.9%)과 사회계열(3.8%)도 중도탈락률이 3% 후반대로 나타났다. 반면 의약계열(2.1%)과 교육계열(2.5%) 학생의 중도탈락률은 2%대로 다른 계열 학생에 비해 낮았다.

지역별로 2012학년도 중도탈락자를 살펴보면 수도권은 23,496명으로 전체 학생의 3.0%가 중도탈락했으며, 비수도권은 60,618명으로 전체 학생의 4.6%가 중도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중도탈락률이 더 높았다. 지역별·계열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열에서 비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이 더 높았다. 특히, 예·체능계열에 있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는 무려 2.7%로 가장 크게 차이가 났을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의 예·체능계열 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그림 II-2-9 ■ 연도별 성별 중도탈락률(1980~2012, 학년도 기준)



■ 그림 II-2-10 ■ 지역별 계열별 중도탈락률 (2012, 학년도 기준)

16) 중도탈락과 관련한 자료(학년도 기준)의 자료기준일은 기준학년도 3월 1일~차년도 2월 28일임.

17) 중도탈락률(학년도 기준)=(중도탈락 학생 수/재적학생 수)×100

표 II-2-9 연도별 설립별 성별 중도탈락자 수 및 중도탈락률(1980~2012, 학년도 기준)

(단위: 명, %)

	전체						국·공립						사립					
	중도탈락자 수			중도탈락률			중도탈락자 수			중도탈락률			중도탈락자 수			중도탈락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남	여
1980	10,816	9,415	1,401	2.7	3.0	1.5	1,967	1,841	126	1.1	1.1	0.6	8,849	7,574	1,275	4.1	5.1	1.8
1985	21,942	16,195	5,747	2.4	2.4	2.3	4,916	3,802	1,114	2.0	2.1	1.7	17,026	12,393	4,633	2.5	2.5	2.5
1990	14,765	11,029	3,736	1.4	1.5	1.3	2,772	2,107	665	1.1	1.1	1.0	11,993	8,922	3,071	1.5	1.6	1.4
1995	26,203	18,262	7,941	2.2	2.3	2.1	4,412	3,234	1,178	1.5	1.6	1.3	21,791	15,028	6,763	2.4	2.5	2.3
2000	64,410	41,348	23,062	3.9	3.9	3.9	10,909	7,193	3,716	2.9	2.9	3.0	53,501	34,155	19,346	4.1	4.2	4.1
2005	77,407	50,808	26,599	4.2	4.3	3.9	12,326	8,339	3,987	3.1	3.1	3.0	65,081	42,469	22,612	4.5	4.7	4.1
2006	78,083	52,325	25,758	4.1	4.4	3.7	12,647	8,795	3,852	3.1	3.2	2.9	65,436	43,530	21,906	4.4	4.7	3.9
2007	92,349	62,341	30,008	4.8	5.2	4.2	12,296	8,764	3,532	3.0	3.2	2.6	80,053	53,577	26,476	5.3	5.7	4.6
2008	80,355	53,902	26,453	4.1	4.4	3.6	13,669	9,877	3,792	3.3	3.6	2.8	66,686	44,025	22,661	4.4	4.7	3.8
2009	78,804	52,628	26,176	4.0	4.3	3.5	14,140	10,404	3,736	3.4	3.7	2.7	64,664	42,224	22,440	4.1	4.4	3.7
2010	81,641	55,151	26,490	4.0	4.4	3.4	14,510	10,744	3,766	3.4	3.8	2.7	67,131	44,407	22,724	4.2	4.6	3.6
2011	81,614	55,218	26,396	4.0	4.4	3.3	13,666	10,257	3,409	3.1	3.5	2.3	67,948	44,961	22,987	4.2	4.6	3.5
2012	84,114	57,527	26,587	4.0	4.5	3.2	14,429	10,879	3,550	3.1	3.6	2.3	69,685	46,648	23,037	4.2	4.8	3.4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표 II-2-10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중도탈락자 및 중도탈락률(2012, 학년도 기준)

(단위: 명, %)

		전체						국·공립						사립					
		중도탈락자 수			중도탈락률			중도탈락자 수			중도탈락률			중도탈락자 수			중도탈락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84,114	57,527	26,587	4.0	4.5	3.2	14,429	10,879	3,550	3.1	3.6	2.3	69,685	46,648	23,037	4.2	4.8	3.4
수도권	소계	23,496	14,015	9,481	3.0	3.1	2.8	1,349	997	352	2.2	2.5	1.8	22,147	13,018	9,129	3.0	3.2	2.8
	인문	3,901	1,824	2,077	3.2	3.6	2.8	106	65	41	1.8	2.3	1.4	3,795	1,759	2,036	3.2	3.7	2.9
	사회	6,438	3,964	2,474	2.6	2.9	2.3	308	219	89	2.0	2.2	1.6	6,130	3,745	2,385	2.7	2.9	2.4
	교육	523	238	285	2.0	2.3	1.8	25	17	8	1.0	1.2	0.7	498	221	277	2.1	2.4	1.9
	공학	6,044	4,943	1,101	3.1	3.1	3.0	520	453	67	2.7	2.8	2.0	5,524	4,490	1,034	3.1	3.1	3.1
	자연	2,889	1,464	1,425	3.2	3.2	3.3	213	126	87	2.3	2.3	2.5	2,676	1,338	1,338	3.3	3.4	3.3
	의약	350	146	204	1.8	2.0	1.6	13	4	9	1.2	0.8	1.5	337	142	195	1.8	2.1	1.6
	예·체능	3,351	1,436	1,915	3.8	4.2	3.5	164	113	51	2.3	2.7	1.7	3,187	1,323	1,864	3.9	4.4	3.6
비수도권	소계	60,618	43,512	17,106	4.6	5.2	3.6	13,080	9,882	3,198	3.3	3.7	2.4	47,538	33,630	13,908	5.2	5.9	4.0
	인문	7,047	4,013	3,034	4.7	5.6	3.9	1,123	591	532	3.0	3.5	2.5	5,924	3,422	2,502	5.3	6.2	4.4
	사회	17,628	12,857	4,771	4.6	5.3	3.3	2,027	1,496	531	2.5	3.1	1.7	15,601	11,361	4,240	5.1	5.9	3.7
	교육	1,664	822	842	2.8	3.1	2.5	430	247	183	1.9	2.2	1.7	1,234	575	659	3.2	3.7	2.9
	공학	16,799	15,193	1,606	4.8	5.0	3.6	5,471	4,990	481	3.7	3.9	2.3	11,328	10,203	1,125	5.7	5.8	4.8
	자연	7,171	4,639	2,532	4.3	4.8	3.7	3,073	2,056	1,017	3.7	4.1	3.1	4,098	2,583	1,515	4.9	5.5	4.2
	의약	1,666	765	901	2.3	2.6	2.0	130	56	74	1.5	2.1	1.2	1,536	709	827	2.4	2.7	2.1
	예·체능	8,643	5,223	3,420	6.5	7.5	5.3	826	446	380	4.4	5.5	3.6	7,817	4,777	3,040	6.8	7.8	5.6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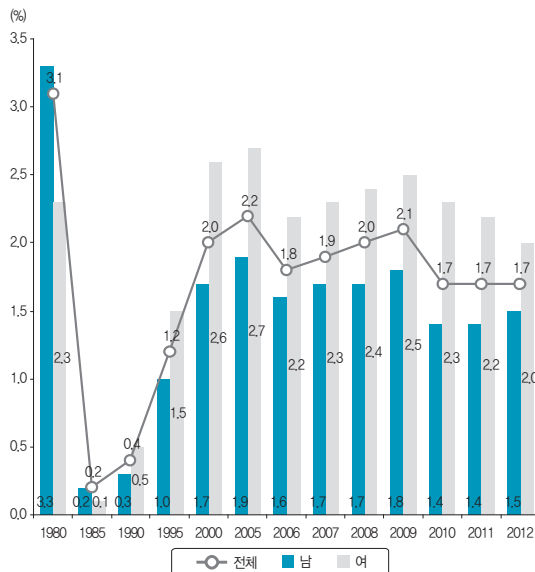
■ II. 대학 ■

③ 편입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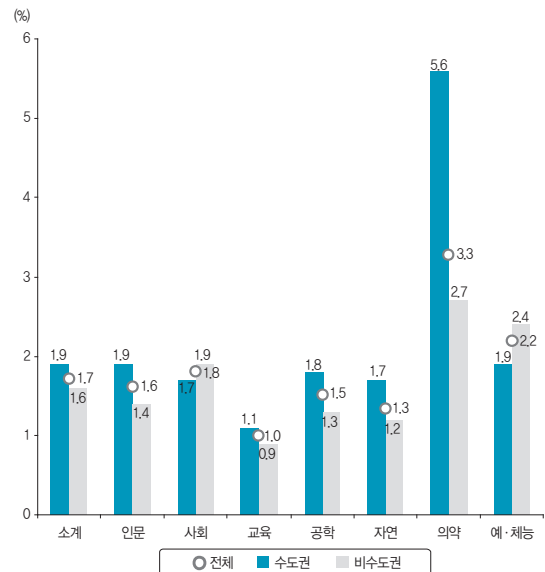
편입생의 수는 <표 II-2-11>에 나타나듯이 1980학년도에는 12,391명이었으나 1985학년도 1,755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1995학년도에는 13,928명까지 급격히 증가하였고 2000학년도에는 33,326명으로 5년 사이에 무려 2만 명 가까이 증가하였다. 그 이후로 2012학년도까지 매년 3~4만 명 사이의 학생들이 편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후반에 급격하게 편입학생이 늘어난 이유는 대학설립 준칙주의에 의해서 대학의 설립이 자유로워지면서 고등교육기관의 재적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이에 맞추어 편입생도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그림 II-2-11]의 편입률은 1995학년도 이후로 1~2%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편입생 정원은 정원 외가 아니라 정원 내에서 재적생의 결원에 따라서 정해지고 때문이다.

2013년 편입률을 계열별로 보면, 의약계열의 편입률이 3.3%로 가장 높았고, 교육계열이 1.0%로 가장 낮았다. 예·체능계열(2.2%)이 의약계열 다음으로 편입률이 높았고, 사회계열(1.8%)과 인문계열(1.6%)도 다른 계열에 비해 편입률이 높은 편이었다. 대학의 편입률은 의약계열과 예·체능계열을 제외하면 1%대를 보였다.

지역별·계열별 편입률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1.9%, 비수도권은 1.6%로 수도권의 편입률이 더 높았다. 이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는 대학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선호도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계열별로 보면, 사회계열과 예·체 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에서 수도권의 편입률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의약계열 편입률은 5.6%로 수도권 평균 편입률(1.9%)에 비해서 크게 웃도는 수치이며, 비수도권의 의약계열 역시 2.7%로 높은 편이었다. 의약계열의 편입률이 높은 이유는 의약계열 특성상 정원이 적고 의학대학이나 약학대학이 다른 대학에 비해 수요가 높은 데 기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그림 II-2-11 ■ 연도별 성별 편입률(1980~2012, 학년도 기준)



■ 그림 II-2-12 ■ 지역별 계열별 편입률(2012, 학년도 기준)

18) 편입과 관련한 자료(학년도 기준)의 자료기준일은 기준학년도 3월 1일~차년도 2월 28일임.

■ 표 II-2-11 ■ 연도별 설립별 성별 편입생 수 및 편입률(1980~2012, 학년도 기준)

(단위: 명, %)

	전체						국·공립						사립					
	편입생 수			편입률			편입생 수			편입률			편입생 수			편입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남	여
1980	12,391	10,284	2,107	3.1	3.3	2.3	746	404	342	0.4	0.2	1.7	11,645	9,880	1,765	5.3	6.7	2.5
1985	1,755	1,427	328	0.2	0.2	0.1	82	66	16	0.0	0.0	0.0	1673	1,361	312	0.2	0.3	0.2
1990	3,686	2,282	1,404	0.4	0.3	0.5	179	100	79	0.1	0.1	0.1	3,507	2,182	1,325	0.4	0.4	0.6
1995	13,928	8,213	5,715	1.2	1.0	1.5	1,265	1,029	236	0.4	0.5	0.3	12,663	7,184	5,479	1.4	1.2	1.9
2000	33,326	17,922	15,404	2.0	1.7	2.6	2,757	1,711	1,046	0.7	0.7	0.8	30,569	16,211	14,358	2.4	2.0	3.0
2005	40,517	21,973	18,544	2.2	1.9	2.7	5,956	3,698	2,258	1.5	1.4	1.7	34,561	18,275	16,286	2.4	2.0	3.0
2006	34,451	19,471	14,980	1.8	1.6	2.2	5,995	4,069	1,926	1.5	1.5	1.4	28,456	15,402	13,054	1.9	1.7	2.3
2007	37,388	20,816	16,572	1.9	1.7	2.3	6,252	4,186	2,066	1.5	1.5	1.5	31,136	16,630	14,506	2.1	1.8	2.5
2008	38,387	20,584	17,803	2.0	1.7	2.4	6,162	3,755	2,407	1.5	1.4	1.8	32,225	16,829	15,396	2.1	1.8	2.6
2009	40,802	22,348	18,454	2.1	1.8	2.5	9,423	6,722	2,701	2.2	2.4	2.0	31,379	15,626	15,753	2.0	1.6	2.6
2010	35,495	17,321	18,174	1.7	1.4	2.3	6,034	3,586	2,448	1.4	1.3	1.7	29,461	13,735	15,726	1.8	1.4	2.5
2011	35,773	18,246	17,527	1.7	1.4	2.2	8,440	5,249	3,191	1.9	1.8	2.2	27,333	12,997	14,336	1.7	1.3	2.2
2012	36,252	19,534	16,718	1.7	1.5	2.0	8,295	5,818	2,477	1.8	1.9	1.6	27,957	13,716	14,241	1.7	1.4	2.1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 표 II-2-12 ■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편입생 수 및 편입률(2012, 학년도 기준)

(단위: 명, %)

		전체						국·공립						사립					
		편입생 수			편입률			편입생 수			편입률			편입생 수			편입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36,252	19,534	16,718	1.7	1.5	2.0	8,295	5,818	2,477	1.8	1.9	1.6	27,957	13,716	14,241	1.7	1.4	2.1
수도권	소계	14,625	7,277	7,348	1.9	1.6	2.1	1,746	1,346	400	2.9	3.3	2.0	12,879	5,931	6,948	1.8	1.5	2.2
	인문	2,308	738	1,570	1.9	1.5	2.1	108	61	47	1.9	2.2	1.6	2,200	677	1,523	1.9	1.4	2.2
	사회	4,167	2,080	2,087	1.7	1.5	2.0	221	155	66	1.4	1.6	1.2	3,946	1,925	2,021	1.7	1.5	2.0
	교육	292	54	238	1.1	0.5	1.5	103	5	98	4.0	0.4	8.3	189	49	140	0.8	0.5	1.0
	공학	3,569	2,850	719	1.8	1.8	2.0	907	818	89	4.7	5.1	2.7	2,662	2,032	630	1.5	1.4	1.9
	자연	1,477	602	875	1.7	1.3	2.0	100	54	46	1.1	1.0	1.3	1,377	548	829	1.7	1.4	2.1
	의약	1,110	257	853	5.6	3.5	6.8	18	11	7	1.7	2.2	1.2	1,092	246	846	5.8	3.6	7.1
	예·체능	1,702	696	1,006	1.9	2.0	1.8	289	242	47	4.0	5.8	1.6	1,413	454	959	1.7	1.5	1.9
비수도권	소계	21,627	12,257	9,370	1.6	1.5	2.0	6,549	4,472	2,077	1.6	1.7	1.6	15,078	7,785	7,293	1.6	1.4	2.1
	인문	2,135	736	1,399	1.4	1.0	1.8	559	194	365	1.5	1.1	1.7	1,576	542	1,034	1.4	1.0	1.8
	사회	7,154	4,013	3,141	1.9	1.7	2.2	1,549	974	575	1.9	2.0	1.8	5,605	3,039	2,566	1.8	1.6	2.3
	교육	568	146	422	0.9	0.5	1.3	128	35	93	0.6	0.3	0.9	440	111	329	1.2	0.7	1.4
	공학	4,653	4,170	483	1.3	1.4	1.1	2,475	2,284	191	1.7	1.8	0.9	2,178	1,886	292	1.1	1.1	1.2
	자연	1,947	1,031	916	1.2	1.1	1.3	1,095	661	434	1.3	1.3	1.3	852	370	482	1.0	0.8	1.3
	의약	1,974	578	1,396	2.7	2.0	3.1	255	51	204	2.9	1.9	3.3	1,719	527	1,192	2.6	2.0	3.1
	예·체능	3,196	1,583	1,613	2.4	2.3	2.5	488	273	215	2.6	3.4	2.0	2,708	1,310	1,398	2.4	2.1	2.6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4) 졸업·진학

2013년 대학 졸업생 수¹⁹⁾는 294,952명으로 남학생은 150,949명, 여학생은 144,003명이었다. 대학의 전체 졸업생 수는 1980년 49,735명에서 2005년까지 급격하게 증가세를 보였고 2005년 졸업생 수는 268,833명이었다. 그 이후에는 2009년과 2010년에 약간의 감소가 있었지만, 해마다 졸업생 수가 조금씩 증가하였고, 2013년은 전년도에 비해서 졸업생 수가 약간 감소하였다. 다만, 졸업생 중에서 여학생의 비율이 1980년 31.8%였으나, 1995년 41.4%, 2005년에는 49.2%, 2013년에는 48.8%를 증가하면서 대학을 졸업하는 여학생의 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재적학생 중 여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과 일치한다.

설립별로 졸업생 수를 살펴보면(〈표 II-2-13〉 참조), 1980년에는 국·공립 대학 졸업생은 12,936명이며 사립대학 졸업생은 36,799명이었으나 2013년에는 국·공립 대학 졸업생은 62,673명, 사립대학 졸업생은 232,279명으로 같은 기간 동안에 국·공립 대학은 졸업생이 4.8배가 늘어났으나 사립대학은 6.3배 늘어났다. 이처럼 사립대학 졸업생이 더 많이 증가한 이유는 대학 진학자의 증가가 사립대학을 통해서 더 활발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별·계열별로 졸업생 수를 살펴보면, 수도권²⁰⁾의 졸업생은 113,929명, 비수도권의 졸업생은 181,023명으로,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비수도권 대학의 졸업생(61.4%)이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모두 사회계열의 졸업생 비중이 가장 높았고, 공학계열이 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계열별 학생의 비율과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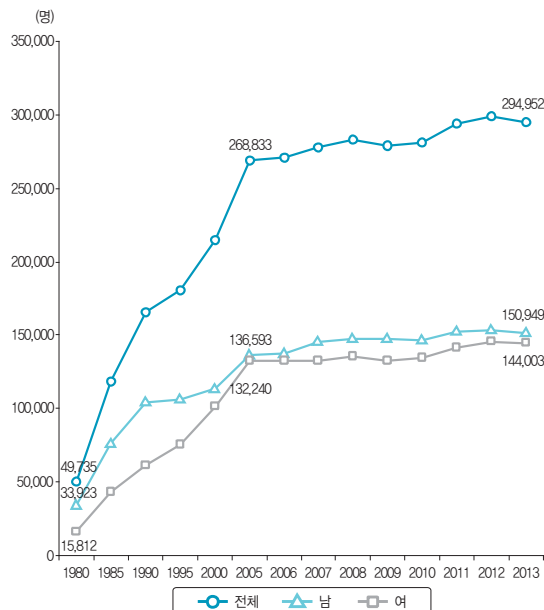
진학자 수는 졸업자의 연도별 추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5년까지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내다가 이후로는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진학률²⁰⁾은 1980년 15.4%였는데 1990년에 7.7%까지 감소하였다가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12.1%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 8.7%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2013년 남학생의 진학률은 9.9%, 여학생의 진학률은 7.5%로 남학생의 진학률이 2.4%p 더 높았다. 이러한 남녀 간의 차이는 연도별로 계속해서 나타났는데, 2000년까지 남녀간 차이는 적게는 2.5%p 많게는 6.7%p의 차이를 보였으나, 그 이후로는 차이가 약간 줄어들어 1%p~3%p 사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진학률을 계열별로 살펴보면, 자연계열 졸업생들의 진학률이 19.5%로 가장 높았고, 공학계열(12.0%)도 졸업생들의 진학률이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계열 졸업생들의 진학률은 9.1%, 예·체능계열은 8.3%로 나타났고, 교육계열(5.7%)은 진학률이 5%를 조금 넘었다. 졸업생들의 진학률이 가장 낮았던 계열은 사회계열(3.4%)과 의약계열(3.4%)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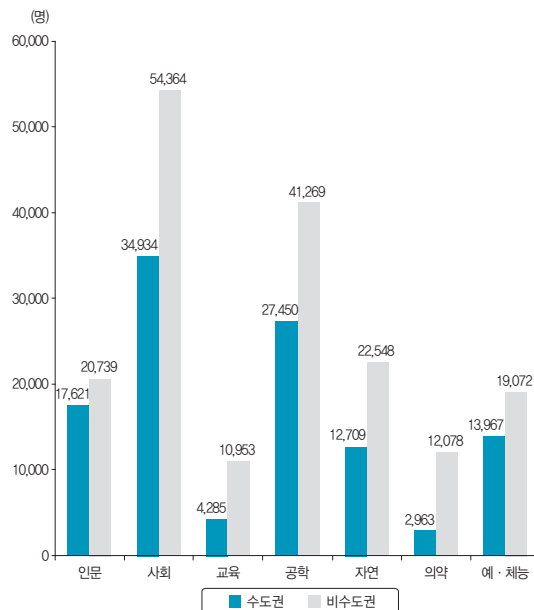
지역별로 진학률을 보면, 수도권 대학은 11.4%이었고, 비수도권은 7.0%로 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진학률이 비수도권 대학보다 높게 나타났다. 계열별로 보면, 수도권 대학은 자연계열(24.8%)이 진학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공학계열(15.1%), 인문계열(10.7%), 예·체능계열(9.6%), 교육계열(8.9%), 사회계열(5.6%), 의약계열(5.1%) 순으로 높았다. 비수도권 대학은 자연계열(16.5%)이 졸업자의 진학률이 가장 높았고, 공학계열(9.9%), 인문계열(7.7%), 예·체능계열(7.4%), 교육계열(4.4%), 의약계열(3.0%), 사회계열(2.0%) 순으로 높았다. 자연계열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모두 진학률이 가장 높은 계열이었고, 진학률이 낮은 계열은 수도권이 의약계열이었고, 비수도권은 사회계열이었다.

19) 졸업자는 전년도 8월 졸업자 및 당해연도 2월 졸업자를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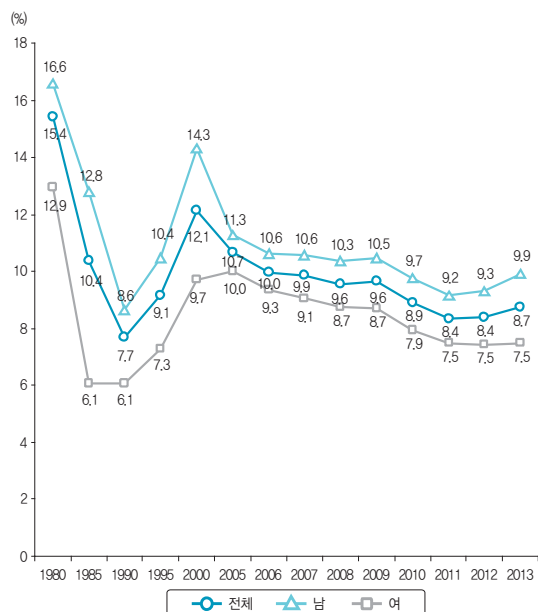
20) 진학률=(진학자 수/졸업자 수)×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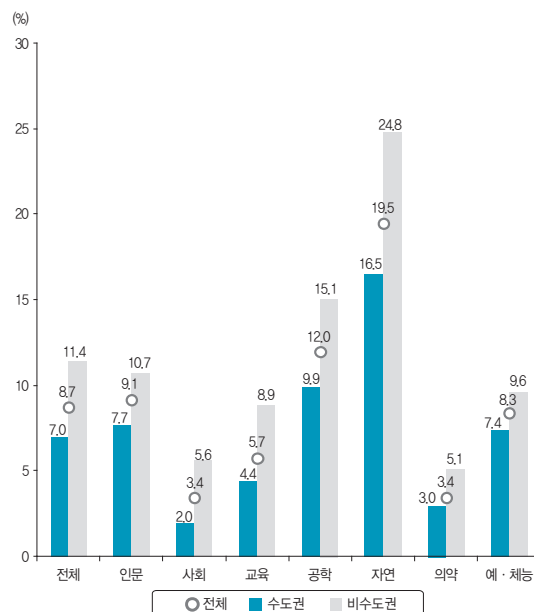
■ 그림 II-2-13 ■ 연도별 성별 졸업생 수(1980~2013)



■ 그림 II-2-14 ■ 지역별 계열별 졸업생 수(2013)



■ 그림 II-2-15 ■ 연도별 성별 진학률(1980~2013)



■ 그림 II-2-16 ■ 지역별 계열별 진학률(2013)

■ II. 대학 ■

■ 표 II-2-13 ■ 연도별 설립별 성별 졸업생 수(1980~2013)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1980	49,735	33,923	15,812	12,936	10,118	2,818	36,799	23,805	12,994
1985	118,584	75,813	42,771	31,395	21,267	10,128	87,189	54,546	32,643
1990	165,916	104,627	61,289	43,086	28,393	14,693	122,830	76,234	46,596
1995	180,664	105,853	74,811	45,603	27,536	18,067	135,061	78,317	56,744
2000	214,498	113,573	100,925	50,868	28,361	22,507	163,630	85,212	78,418
2005	268,833	136,593	132,240	58,957	31,904	27,053	209,876	104,689	105,187
2006	270,546	137,827	132,719	58,155	31,886	26,269	212,391	105,941	106,450
2007	277,858	145,116	132,742	60,055	33,855	26,200	217,803	111,261	106,542
2008	282,670	147,606	135,064	60,832	34,090	26,742	221,838	113,516	108,322
2009	279,059	147,128	131,931	61,730	35,292	26,438	217,329	111,836	105,493
2010	280,341	146,180	134,161	61,757	35,789	25,968	218,584	110,391	108,193
2011	293,967	152,638	141,329	63,499	36,894	26,605	230,468	115,744	114,724
2012	298,883	153,804	145,079	64,027	37,569	26,458	234,856	116,235	118,621
2013	294,952	150,949	144,003	62,673	36,602	26,071	232,279	114,347	117,932

주: 1) 위의 자료는 취업통계조사에 근거해서 작성되었는데, 교육기본통계에서와는 달리 2010년 취업통계조사에서는 시범적으로 조사되기 시작한 한국과학기술원의 학부 졸업생 738명이 포함되어 있음, 교육통계연보에 나타난 2010년 전체 졸업생 수는 279,603명임.

2) 2012년 졸업생 수가 교육통계연보에는 298,727명으로 위의 취업통계조사의 값과 불일치하는데, 이러한 차이는 2012년 폐교된 명신대학교 졸업현황이 취업통계조사에 포함되었기 때문임, 취업통계조사에 포함된 명신대학교 졸업생 156명이 교육통계연보에는 제외됨.

출처: 1)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2)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DB.

■ 표 II-2-14 ■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졸업생 수(2013)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294,952	150,949	144,003	62,673	36,602	26,071	232,279	114,347	117,932
수도권	소계	113,929	56,233	57,696	7,280	4,613	2,667	106,649	51,620	55,029
	인문	17,621	5,634	11,987	574	225	349	17,047	5,409	11,638
	사회	34,934	17,189	17,745	1,972	1,210	762	32,962	15,979	16,983
	교육	4,285	1,398	2,887	335	172	163	3,950	1,226	2,724
	공학	27,450	21,421	6,029	2,035	1,672	363	25,415	19,749	5,666
	자연	12,709	5,430	7,279	1,218	714	504	11,491	4,716	6,775
	의약	2,963	875	2,088	176	71	105	2,787	804	1,983
	예·체능	13,967	4,286	9,681	970	549	421	12,997	3,737	9,260
비수도권	소계	181,023	94,716	86,307	55,393	31,989	23,404	125,630	62,727	62,903
	인문	20,739	7,096	13,643	5,087	1,609	3,478	15,652	5,487	10,165
	사회	54,364	27,940	26,424	11,824	6,180	5,644	42,540	21,760	20,780
	교육	10,953	3,723	7,230	3,902	1,550	2,352	7,051	2,173	4,878
	공학	41,269	34,173	7,096	18,925	15,590	3,335	22,344	18,583	3,761
	자연	22,548	10,688	11,860	11,429	5,778	5,651	11,119	4,910	6,209
	의약	12,078	3,733	8,345	1,348	280	1,068	10,730	3,453	7,277
	예·체능	19,072	7,363	11,709	2,878	1,002	1,876	16,194	6,361	9,833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DB.

표 II-2-15 연도별 설립별 성별 진학자 수 및 진학률(1980~2013)

(단위: 명, %)

	전체						국·공립						사립					
	진학자 수			진학률			진학자 수			진학률			진학자 수			진학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1980	7,674	5,630	2,044	15.4	16.6	12.9	3,129	2,441	688	24.2	24.1	24.4	4,545	3,189	1,356	12.4	13.4	10.4
1985	12,278	9,686	2,592	10.4	12.8	6.1	3,777	3,275	502	12.0	15.4	5.0	8,501	6,411	2,090	9.8	11.8	6.4
1990	12,782	9,049	3,733	7.7	8.6	6.1	4,010	3,062	948	9.3	10.8	6.5	8,772	5,987	2,785	7.1	7.9	6.0
1995	16,500	11,061	5,439	9.1	10.4	7.3	4,843	3,506	1,337	10.6	12.7	7.4	11,657	7,555	4,102	8.6	9.6	7.2
2000	26,000	16,226	9,774	12.1	14.3	9.7	6,894	4,644	2,250	13.6	16.4	10.0	19,106	11,582	7,524	11.7	13.6	9.6
2005	28,652	15,396	13,256	10.7	11.3	10.0	6,742	3,903	2,839	11.4	12.2	10.5	21,910	11,493	10,417	10.4	11.0	9.9
2006	27,016	14,617	12,399	10.0	10.6	9.3	6,608	3,850	2,758	11.4	12.1	10.5	20,408	10,767	9,641	9.6	10.2	9.1
2007	27,412	15,366	12,046	9.9	10.6	9.1	6,820	4,173	2,647	11.4	12.3	10.1	20,592	11,193	9,399	9.5	10.1	8.8
2008	27,072	15,265	11,807	9.6	10.3	8.7	6,579	4,047	2,532	10.8	11.9	9.5	20,493	11,218	9,275	9.2	9.9	8.6
2009	26,890	15,424	11,466	9.6	10.5	8.7	7,192	4,492	2,700	11.7	12.7	10.2	19,698	10,932	8,766	9.1	9.8	8.3
2010	24,879	14,231	10,648	8.9	9.7	7.9	6,930	4,325	2,605	11.2	12.1	10.0	17,949	9,906	8,043	8.2	9.0	7.4
2011	24,575	13,967	10,608	8.4	9.2	7.5	6,934	4,357	2,577	10.9	11.8	9.7	17,641	9,610	8,031	7.7	8.3	7.0
2012	25,161	14,344	10,817	8.4	9.3	7.5	7,006	4,430	2,576	10.9	11.8	9.7	18,155	9,914	8,241	7.7	8.5	6.9
2013	25,753	14,988	10,765	8.7	9.9	7.5	7,471	4,795	2,676	11.9	13.1	10.3	18,282	10,193	8,089	7.9	8.9	6.9

주: 1) 2010년 교육기본통계에서의 진학자 수는 24,381명인데, 이러한 차이는 2010년 취업통계에 한국과학기술원 학부 졸업자 중에서 진학자 498명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2) 2012년 교육기본통계에서의 진학자 수는 25,158명인데, 이러한 차이는 2012년 취업통계에 폐교된 명신대학교 학부 졸업생 중 진학자 3명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출처: 1)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2)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DB.

표 II-2-16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진학자 수 및 진학률(2013)

(단위: 명, %)

		전체						국·공립						사립					
		진학자 수			진학률			진학자 수			진학률			진학자 수			진학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294,952	150,949	144,003	8.7	9.9	7.5	62,673	36,602	26,071	11.9	13.1	10.3	232,279	114,347	117,932	7.9	8.9	6.9
수도권	소계	113,929	56,233	57,696	11.4	13.1	9.8	7,280	4,613	2,667	20.6	22.0	18.1	106,649	51,620	55,029	10.8	12.3	9.4
	인문	17,621	5,634	11,987	10.7	14.3	9.0	574	225	349	18.1	20.9	16.3	17,047	5,409	11,638	10.5	14.1	8.8
	사회	34,934	17,189	17,745	5.6	5.7	5.6	1,972	1,210	762	13.7	13.7	13.6	32,962	15,979	16,983	5.2	5.1	5.2
	교육	4,285	1,398	2,887	8.9	11.2	7.8	335	172	163	18.8	16.3	21.5	3,950	1,226	2,724	8.1	10.4	7.0
	공학	27,450	21,421	6,029	15.1	15.9	12.6	2,035	1,672	363	24.1	24.6	21.5	25,415	19,749	5,666	14.4	15.1	12.1
	자연	12,709	5,430	7,279	24.8	30.3	20.7	1,218	714	504	38.3	44.0	30.4	11,491	4,716	6,775	23.3	28.2	20.0
	의약	2,963	875	2,088	5.1	8.0	3.8	176	71	105	5.7	2.8	7.6	2,787	804	1,983	5.0	8.5	3.6
	예·체능	13,967	4,286	9,681	9.6	7.7	10.4	970	549	421	9.7	8.4	11.4	12,997	3,737	9,260	9.6	7.7	10.4
비수도권	소계	181,023	94,716	86,307	7.0	8.0	5.9	55,393	31,989	23,404	10.8	11.8	9.4	125,630	62,727	62,903	5.4	6.1	4.6
	인문	20,739	7,096	13,643	7.7	10.1	6.5	5,087	1,609	3,478	8.1	8.3	8.1	15,652	5,487	10,165	7.6	10.6	5.9
	사회	54,364	27,940	26,424	2.0	2.0	2.0	11,824	6,180	5,644	2.4	2.4	2.3	42,540	21,760	20,780	1.9	1.9	1.9
	교육	10,953	3,723	7,230	4.4	5.8	3.7	3,902	1,550	2,352	4.9	5.7	4.3	7,051	2,173	4,878	4.2	5.8	3.4
	공학	41,269	34,173	7,096	9.9	9.8	10.3	18,925	15,590	3,335	13.2	13.0	14.0	22,344	18,583	3,761	7.1	7.1	7.0
	자연	22,548	10,688	11,860	16.5	19.3	13.9	11,429	5,778	5,651	19.7	21.9	17.4	11,119	4,910	6,209	13.1	16.3	10.6
	의약	12,078	3,733	8,345	3.0	5.0	2.2	1,348	280	1,068	1.2	2.9	0.7	10,730	3,453	7,277	3.3	5.1	2.4
	예·체능	19,072	7,363	11,709	7.4	7.2	7.5	2,878	1,002	1,876	11.5	11.1	11.8	16,194	6,361	9,833	6.6	6.6	6.7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DB.

5) 취업²¹⁾

2013년 취업자 수는 남자 76,218명, 여자 63,937명으로 전체 140,155명이었다. 2005년(154,542명)부터 2008년(170,878명)까지 취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2010년 129,130명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곧 회복하여 2013년 14만 명 초반을 유지하였다. 취업률은 2005년(65.0%)부터 2009년(68.2%)까지 대체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0년 51.9%로 급감하였다. 그 이후 취업률은 조금씩 증가하여, 2013년에는 55.6%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나 취업률에서의 이러한 변화 추이는 전문대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취업통계조사 방식의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취업통계조사는 2009년까지는 대학자체에서 조사하는 방식을 채택하다가 2010년 건강보험 DB와의 연계를 통한 조사 방식으로 전환되고, 취업자 구분 기준도 바뀌면서 취업률 산정하는 방식이 다소 달라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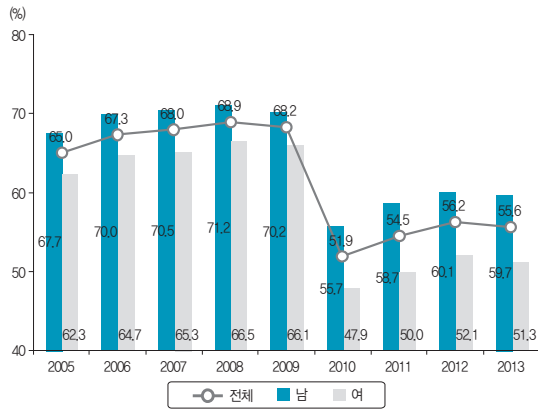
성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취업률 조사가 처음 실시된 해인 2005년 남자는 67.7%, 여자는 62.3%이었으며 2009년까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조사방식 변경되었던 2010년에는 남자 55.7%, 여자 47.9%로 취업률이 급감하였다. 그 이후로 완만하게 상승 경향을 보이면서 2013년 남자 59.7%, 여자 51.3%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남자 졸업자들의 취업률이 여자 졸업자들에 비해 높은 경향이 지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점은 남녀간 취업률의 차이가 조사방식이 변경 전보다 변경 후에 더 커졌다는 점이다. 즉 조사방식 변경 이전에는 2007년 최대 5.2%까지 벌어졌으나 변경 이후에는 2011년에 최대 8.7%까지 벌어졌다.

지역별로 취업률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56.7%, 비수도권은 54.9%로 수도권의 취업률이 약간 높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수도권 남자의 취업률은 62.8%, 여자는 50.9%이며 비수도권 남자의 취업률은 57.9%, 여자는 51.6%로, 남녀 취업률 차이에 있어서 수도권은 11.9%p, 비수도권은 6.3%p로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남녀 취업률 차이에 있어서 2배정도 높았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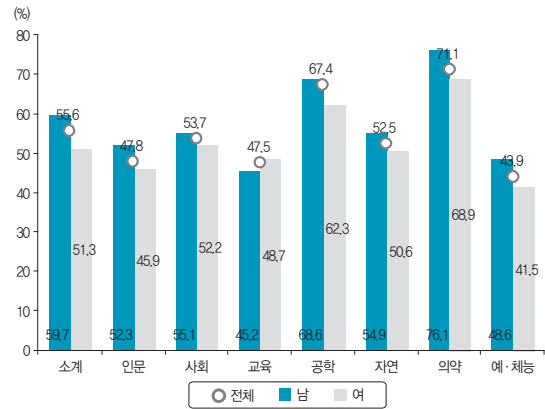
계열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공학계열(71.2%)의 취업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의약계열(69.0%)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은 반대로 의약계열(71.7%)의 취업률이 가장 높았고, 공학계열(65.0%)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 가장 취업률이 낮은 계열은 수도권에선 예·체능계열로 39.9%이었고, 비수도권에서는 인문계열의 취업률이 46.4%로 가장 낮았다. 특히, 교육계열과 자연계열, 예·체능계열에서는 비수도권의 취업률이 수도권에서보다 각각 높았는데, 예·체능계열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률이 7.1%p 차이가 났다. 남녀 취업률 차이가 가장 컸던 계열은 수도권에서는 의약계열로 무려 8.6%p 차이로 남자의 취업률이 높았으며 비수도권에서는 예·체능계열로 8.7%p차이로 남자의 취업률이 높았다.

설립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국·공립대학이 60.1%, 사립대학이 56.5%이며, 비수도권에서는 국·공립대학이 51.5%, 사립대학이 56.3%로 수도권에서는 국·공립대학의 취업률이 높고 비수도권에서는 사립대학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났다. 국·공립과 사립대학의 취업률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계열은 수도권에서는 인문계열로 10.8%p정도 국·공립대학이 높았고, 반면에 비수도권에서는 교육계열로 21.5%p정도 사립대학이 높았다. 비수도권의 교육계열에서 국·공립대학생의 취업률이 사립대학생의 취업률의 절반 정도 미치지 못하는 점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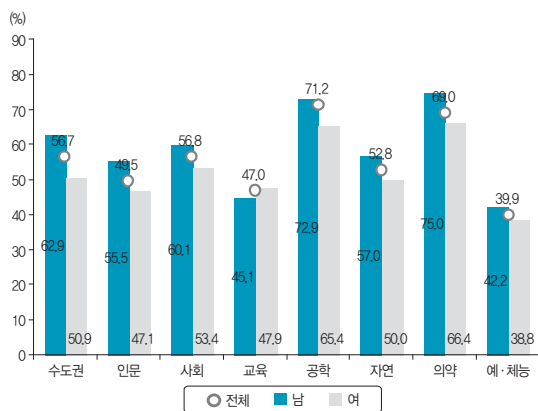
21) 2004년 이전의 졸업생 자료는 교육기본통계를 따르고, 2004년부터의 자료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업통계조사에 근거함. 제시된 자료 중, 교육기본통계조사에서 산출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의 졸업생 현황과 불일치하는 부분은 별도로 주석 처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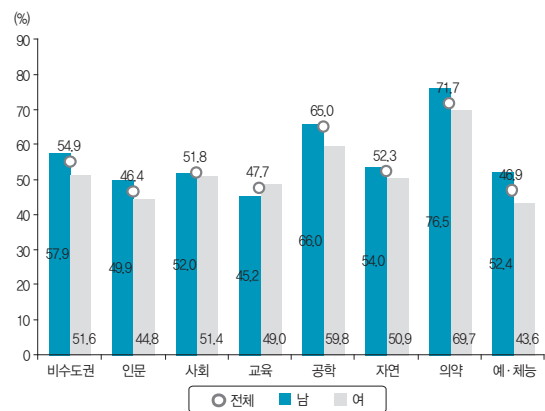
■ 그림 II-2-17 ■ 연도별 성별 취업률(2005~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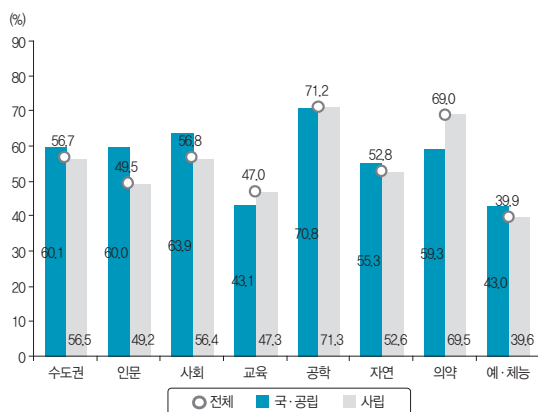
■ 그림 II-2-18 ■ 계열별 성별 취업률(2005~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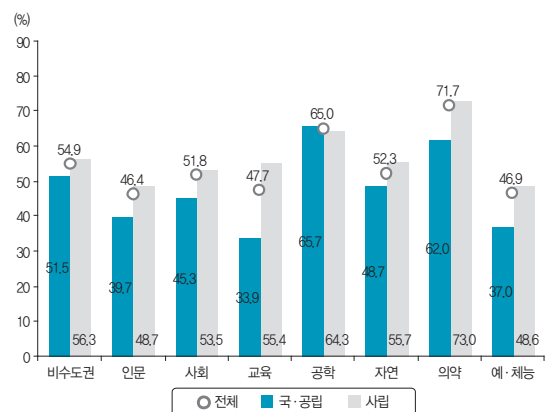
■ 그림 II-2-19 ■ 수도권 계열별 성별 취업률(2013)



■ 그림 II-2-20 ■ 비수도권 계열별 성별 취업률(2013)



■ 그림 II-2-21 ■ 수도권 계열별 설립별 취업률(2013)



■ 그림 II-2-22 ■ 비수도권 계열별 설립별 취업률(2013)

■ II. 대학 ■

■ 표 II-2-17 ■ 연도별 설립별 성별 취업 현황(2005~2013)

(단위: 명, %)

	취업자 수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05	154,542	80,395	74,147	28,629	16,482	12,147	125,913	63,913	62,000
2006	162,174	84,700	77,474	29,743	17,233	12,510	132,431	67,467	64,964
2007	168,254	89,999	78,255	31,234	18,557	12,677	137,020	71,442	65,578
2008	170,878	89,709	81,169	33,188	19,127	14,061	137,690	70,582	67,108
2009	169,277	90,663	78,614	35,178	20,832	14,346	134,099	69,831	64,268
2010	129,130	71,656	57,474	27,911	17,576	10,335	101,219	54,080	47,139
2011	140,204	77,786	62,418	29,784	18,978	10,806	110,420	58,808	51,612
2012	144,836	78,916	65,920	29,137	18,762	10,375	115,699	60,154	55,545
2013	140,155	76,218	63,937	27,439	17,746	9,693	112,716	58,472	54,244

	취업률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05	65.0	67.7	62.3	55.7	60.7	50.2	67.6	69.8	65.4
2006	67.3	70.0	64.7	58.5	62.8	53.4	69.7	72.1	67.4
2007	68.0	70.5	65.3	59.6	63.9	54.2	70.3	72.5	68.0
2008	68.9	71.2	66.5	63.3	67.3	58.6	70.4	72.3	68.4
2009	68.2	70.2	66.1	65.5	68.9	61.1	69.0	70.6	67.4
2010	51.9	55.7	47.9	52.2	57.2	45.6	51.8	55.2	48.4
2011	54.5	58.7	50.0	54.5	60.3	46.6	54.5	58.2	50.8
2012	56.2	60.1	52.1	53.4	59.1	45.5	56.9	60.4	53.5
2013	55.6	59.7	51.3	52.4	58.6	43.9	56.4	60.1	52.9

주: 1) 취업자에 대한 연도별 정의

- : 2004~2009년=조사기준일 시점에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일정 소득이 있는 자
- : 2010년=조사기준일 당시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 2011년=조사기준일 당시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 : 2012~2013년=조사기준일 당시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영농업종사자
 - 교내취업자(2013년 기준): 조사 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학교법인 및 관련 기관(산학협력단, 학교기업 등)에 1년 이상 계약한 자로서, 최저임금 이상의 월 급여(월 1,015,740원, 2013년도 최저임금 4,860원을 월급여액으로 환산한 금액)를 받는 자,
 - 해외취업자: 조사 기준일 당시 해외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며, 91일 이상 고용 계약한 자
 - 영농업종사자: 조사 기준일 당시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영농업에 종사하는 졸업자

2) 2010년 교육기본통계에서의 취업자 수는 129,009명인데, 이러한 차이는 2010년 취업통계에 한국과학기술원 학부 졸업자 중에서 취업자 121명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3) 2012년 교육기본통계에서의 취업자 수는 144,760명인데, 이러한 차이는 2012년 취업통계에 폐교된 명신대학교 학부 졸업생 중 취업자 76명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4) 취업률을 구하는 방식은 연도에 따라 조금씩 변하여 왔음.

연도	취업률	취업대상자
2004~2005	(취업자/취업대상자)×100	졸업자(진학자+입대자)
2006~2009	(취업자/취업대상자)×100	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
2010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대상자)×100	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제외인정자+외국인유학생)
201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교내취업자+해외취업자)/취업대상자)×100	
2012~2013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교내취업자+해외취업자+영농업종사자)/취업대상자)×100	

- 취업불가능자: 수형자, 사망자, 해외이민자, 6개월 이상 장기임원자를 포함함.

- 제외인정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종교지도자 양성 관련학과 졸업자, 여자군인 중 임관 전 훈련생,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교육대상자를 포함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DB.

■ 표 II-2-18 ■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취업자 수(2013)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140,155	76,218	63,937	27,439	17,746	9,693	112,716	58,472	54,244
수도권	소계	54,242	29,109	25,133	3,316	2,236	1,080	50,926	26,873	24,053
	인문	6,942	2,247	4,695	260	113	147	6,682	2,134	4,548
	사회	17,331	9,115	8,216	1,034	685	349	16,297	8,430	7,867
	교육	1,682	494	1,188	112	59	53	1,570	435	1,135
	공학	16,197	12,840	3,357	1,064	897	167	15,133	11,943	3,190
	자연	4,920	2,104	2,816	399	221	178	4,521	1,883	2,638
	의약	2,343	751	1,592	96	57	39	2,247	694	1,553
비수도권	예·체능	4,827	1,558	3,269	351	204	147	4,476	1,354	3,122
	소계	85,913	47,109	38,804	24,123	15,510	8,613	61,790	31,599	30,191
	인문	7,902	2,721	5,181	1,716	628	1,088	6,186	2,093	4,093
	사회	24,997	13,028	11,969	4,774	2,696	2,078	20,223	10,332	9,891
	교육	4,789	1,519	3,270	1,219	525	694	3,570	994	2,576
	공학	23,250	19,603	3,647	10,418	8,794	1,624	12,832	10,809	2,023
	자연	9,469	4,474	4,995	4,295	2,283	2,012	5,174	2,191	2,983
	의약	7,778	2,490	5,288	807	188	619	6,971	2,302	4,669
	예·체능	7,728	3,274	4,454	894	396	498	6,834	2,878	3,956

주: <표 II-2-17> 각주 참조.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DB.

■ 표 II-2-19 ■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취업률(2013)

(단위: %)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소계	55.6	59.7	51.3	52.4	58.6	43.9	56.4	60.1	52.9
	인문	47.8	52.3	45.9	41.5	48.3	38.3	49.0	53.0	47.2
	사회	53.7	55.1	52.2	47.8	51.5	43.5	54.8	55.8	53.7
	교육	47.5	45.2	48.7	34.5	37.8	32.3	52.7	49.1	54.2
	공학	67.4	68.6	62.3	66.2	67.8	58.7	67.9	69.0	63.7
	자연	52.5	54.9	50.6	49.2	52.9	45.6	54.2	56.3	52.8
	의약	71.1	76.1	68.9	61.7	74.0	58.1	72.1	76.3	70.3
수도권	예·체능	43.9	48.6	41.5	38.5	47.6	32.8	44.6	48.7	42.5
	소계	56.7	62.9	50.9	60.1	65.2	51.9	56.5	62.7	50.8
	인문	49.5	55.5	47.1	60.0	68.9	54.6	49.2	54.9	46.9
	사회	56.8	60.1	53.4	63.9	68.2	56.7	56.4	59.5	53.3
	교육	47.0	45.1	47.9	43.1	42.8	43.4	47.3	45.4	48.1
	공학	71.2	72.9	65.4	70.8	73.0	60.7	71.3	72.9	65.7
	자연	52.8	57.0	50.0	55.3	57.6	52.8	52.6	56.9	49.8
비수도권	의약	69.0	75.0	66.4	59.3	83.8	41.5	69.5	74.4	67.5
	예·체능	39.9	42.2	38.8	43.0	45.7	39.7	39.6	41.7	38.8
	소계	54.9	57.9	51.6	51.5	57.8	43.1	56.3	58.0	54.7
	인문	46.4	49.9	44.8	39.7	45.9	36.8	48.7	51.3	47.5
	사회	51.8	52.0	51.4	45.3	48.4	41.8	53.5	53.1	54.1
	교육	47.7	45.2	49.0	33.9	37.3	31.7	55.4	50.9	57.4
	공학	65.0	66.0	59.8	65.7	67.3	58.5	64.3	65.0	60.8
비수도권	자연	52.3	54.0	50.9	48.7	52.5	45.0	55.7	55.7	55.8
	의약	71.7	76.5	69.7	62.0	71.5	59.6	73.0	76.9	71.3
	예·체능	46.9	52.4	43.6	37.0	48.6	31.1	48.6	52.9	45.9

주: <표 II-2-17> 각주 참조.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DB.

5)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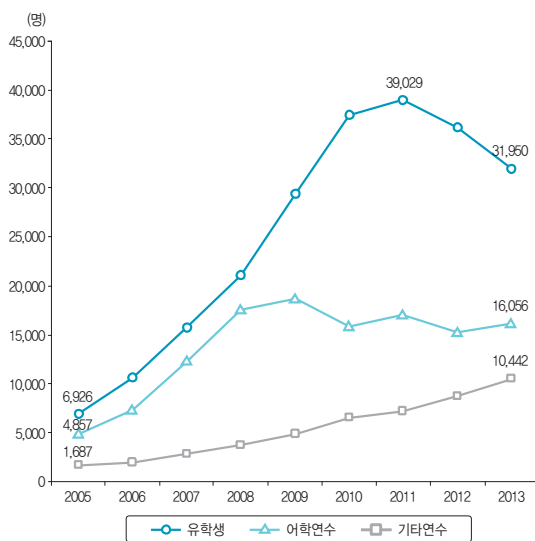
대학의 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2005년 6,926명에서 2011년까지 39,029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2년부터 감소하면서 2013년에는 31,950명으로 최근 2년간 약 7천명 정도 감소하였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성별로 살펴보면, 2005년 이후 2007년 한 해만 제외하고는 여학생 수가 남학생보다 더 높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아 대략 1대 1의 성비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출신국가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이 전체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유학생 수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아시아 기타 국가 12%, 몽골 및 미주가 각각 3%, 기타국가가 2%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국가가 특정 국가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그 국가 유학생의 상황과 선호도의 변화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다양한 국가 출신의 유학생들을 고루 유치해서 균형적인 유학생 교육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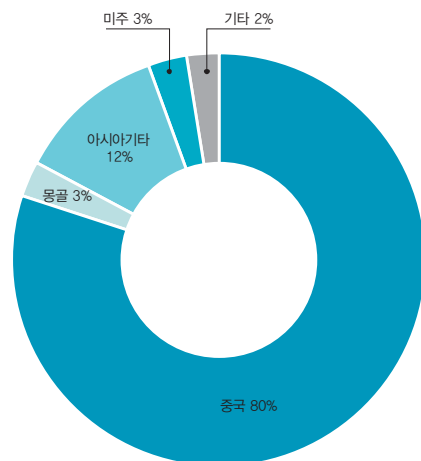
계열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사회계열에 재학 중인 학생이 9,075명으로 수도권 전체 학생의 54.7%가 사회계열에 재학 중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교육계열과 의약계열은 각각 149명, 174명으로 이 둘을 합해도 수도권 전체의 2%내외에 불과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수도권에서도 사회계열에 재학 중인 유학생이 8,230명으로 전체의 5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교육계열과 의약계열에서는 각각 136명, 203명으로 이 둘을 합해도 비수도권 전체의 2%내외에 불과했다.

2013년 외국인 유학생들의 졸업 현황을 보면(〈표 II-2-13〉 참조), 미상인 학생이 4,255명으로 가장 많았다. 미상인 학생을 제외하면 본국으로 귀국한 학생(38.7%)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국내진학자(15.4%)와 국내취업자(4.4%) 순이었다. 2007년부터 보면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이 매우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국내 외국인 연수생은 2005년 6,544명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 26,498명으로 2005년 대비 약 4배 정도 증가했다. 외국인 연수생은 어학연수와 기타연수로 구분될 수 있는데, 2005년 어학연수생 4,857명, 기타연수생 1,687명이었으나 2013년은 어학연수생 16,056명, 기타연수생 10,442명으로 어학연수가 기타연수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그림 II-2-23 ■ 연도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 수 (2005~2013)



■ 그림 II-2-24 ■ 출신국가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2013)

표 II-2-20 연도별 설립별 성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2005~2013)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05	6,926	3,317	3,609	1,036	486	550	5,890	2,831	3,059
2006	10,670	5,279	5,391	1,420	731	689	9,250	4,548	4,702
2007	15,696	7,933	7,763	2,036	1,063	973	13,660	6,870	6,790
2008	21,114	10,503	10,611	3,022	1,569	1,453	18,092	8,934	9,158
2009	29,422	14,444	14,978	4,433	2,231	2,202	24,989	12,213	12,776
2010	37,491	18,093	19,398	6,299	3,196	3,103	31,192	14,897	16,295
2011	39,029	18,770	20,259	7,109	3,634	3,475	31,920	15,136	16,784
2012	36,116	17,132	18,984	6,963	3,512	3,451	29,153	13,620	15,533
2013	31,950	15,217	16,733	6,263	3,189	3,074	25,687	12,028	13,659

주: 이 장에서의 대학은 대학과정에 있는 4년제 일반대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전체 대학과정(산업대, 교육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포함)에서의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와는 차이가 있음.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표 II-2-21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2013)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31,950	15,217	16,733	6,263	3,189	3,074	25,687	12,028	13,659
수도권	소계	16,596	7,414	9,182	1,172	520	652	15,424	6,894	8,530
	인문	2,631	747	1,884	192	42	150	2,439	705	1,734
	사회	9,075	4,088	4,987	397	171	226	8,678	3,917	4,761
	교육	149	44	105	48	16	32	101	28	73
	공학	2,014	1,583	431	232	184	48	1,782	1,399	383
	자연	1,150	414	736	167	64	103	983	350	633
	의약	174	45	129	88	27	61	86	18	68
예·체능		1,403	493	910	48	16	32	1,355	477	878
비수도권	소계	15,354	7,803	7,551	5,091	2,669	2,422	10,263	5,134	5,129
	인문	2,272	853	1,419	561	177	384	1,711	676	1,035
	사회	8,230	4,088	4,142	2,469	1,157	1,312	5,761	2,931	2,830
	교육	136	31	105	63	13	50	73	18	55
	공학	1,995	1,666	329	1,123	936	187	872	730	142
	자연	997	433	564	685	308	377	312	125	187
	의약	203	106	97	8	3	5	195	103	92
예·체능		1,521	626	895	182	75	107	1,339	551	788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표 II-2-22 권역별 출신국가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2013)

(단위: 명)

	전체	아시아					미주			기타
		중국	몽골	베트남	일본	기타	미국	캐나다	기타	
전체	31,950	25,604	898	450	748	2,513	504	251	211	771
수도권	16,596	12,582	567	179	376	1,646	413	217	172	444
비수도권	15,354	13,022	331	271	372	867	91	34	39	327

주: 1) '기타'는 아시아와 미주 지역에 속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를 나타냄.

2) 아시아의 '기타'는 중국, 몽골, 베트남,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아시아 지역 국가를 나타냄.

3) 미주의 '기타'는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나머지 미주 지역 국가를 나타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 II. 대학 ■

■ 표 II-2-23 ■ 연도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졸업 현황(2007~2013)

(단위: 명)

	전체	본국귀국	국내취업	국내진학	미상
2007	1,462	890	99	473	-
2008	2,280	1,318	82	880	-
2009	3,563	2,128	134	1,301	-
2010	4,798	2,004	167	1,551	1,076
2011	6,383	3,269	294	1,589	1,231
2012	9,492	4,684	612	1,634	2,562
2013	10,238	3,957	454	1,572	4,255

주: 1) 외국인 유학생은 대학학위과정에 한함.

2) 2009년까지는 본국귀국, 국내취업, 국내진학 등 세 범주로만 구분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현황을 조사하다가, 2010년에 '미상'의 범주를 추가하여 조사하기 시작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 표 II-2-24 ■ 연도별 성별 어학연수 및 기타연수 학생 수(2005~2013)

(단위: 명)

	전체			어학연수			기타연수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05	6,544	2,881	3,663	4,857	2,244	2,613	1,687	637	1,050
2006	9,167	3,895	5,272	7,249	3,228	4,021	1,918	667	1,251
2007	15,146	6,525	8,621	12,272	5,624	6,648	2,874	901	1,973
2008	21,229	9,331	11,898	17,467	8,117	9,350	3,762	1,214	2,548
2009	23,576	9,699	13,877	18,690	8,183	10,507	4,886	1,516	3,370
2010	22,462	8,550	13,912	15,893	6,691	9,202	6,569	1,859	4,710
2011	24,253	8,948	15,305	17,065	6,909	10,156	7,188	2,039	5,149
2012	23,971	8,893	15,078	15,275	6,306	8,969	8,696	2,587	6,109
2013	26,498	9,636	16,862	16,056	6,494	9,562	10,442	3,142	7,300

주: 이 장에서의 대학은 4년제 일반대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전제 대학과정(산업대, 교육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포함)에서의 국내 외국인 연수생 수와는 차이가 있음.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 표 II-2-25 ■ 연도별 출신국가별 국내 외국인 연수생 현황(2005~2013)

(단위: 명)

	전체	아시아					미주			기타
		중국	몽골	베트남	일본	기타	미국	캐나다	기타	
2005	6,544	2,616	203	135	1,665	670	479	83	61	632
2006	9,167	4,074	251	179	2,435	734	694	86	48	666
2007	15,146	8,874	374	420	2,595	1,069	768	103	68	875
2008	21,229	13,837	684	260	2,383	1,612	1,010	127	122	1,194
2009	23,576	14,237	945	258	2,936	2,029	1,178	163	197	1,633
2010	22,462	12,438	979	238	2,723	2,327	1,298	184	202	2,073
2011	24,253	11,938	970	366	3,193	3,149	1,604	250	279	2,504
2012	23,971	11,986	986	486	2,773	3,246	1,500	194	302	2,498
2013	26,498	12,545	1,018	764	2,997	4,131	1,285	209	533	3,016

주: 1) 외국인 연수생은 어학연수와 기타연수 학생의 수를 합산한 것임.

2) 출신국가별 외국인 연수생에는 해당 국가의 재외동포가 포함됨.

3) '기타'는 아시아와 미주 지역에 속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를 나타냄.

4) 아시아의 '기타'는 중국, 몽골, 베트남,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아시아 지역 국가를 나타냄.

5) 미주의 '기타'는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나머지 미주 지역 국가를 나타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3. 교원

1) 교원의 구성

대학의 교원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임교원에는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가 포함되고, 비전임교원에는 시간강사, 겸임교수, 명예교수, 객원교수, 대우교수, 초빙교수, 기타 등이 포함된다. 우선 [그림 II-3-1]의 전임교원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 33,340명으로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2013년 63,042명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약 2배 정도 늘어났다. 다음으로 [그림 II-3-2]의 비전임교원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 22,919명에서 시작하여 꾸준히 늘어나서 2013년 89,139명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약 4배 정도 증가하였다. 주목해야할 점은 고등교육의 양적팽창 시기인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전임교원은 45,087명에서 41,943명으로 3,144명이 감소했으나 반면에 비전임교원은 24,228명이 증가하였고, 2005년까지도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서 고등교육의 양적 확대에 따른 교원 수요의 상당 부분을 비전임교원에 의존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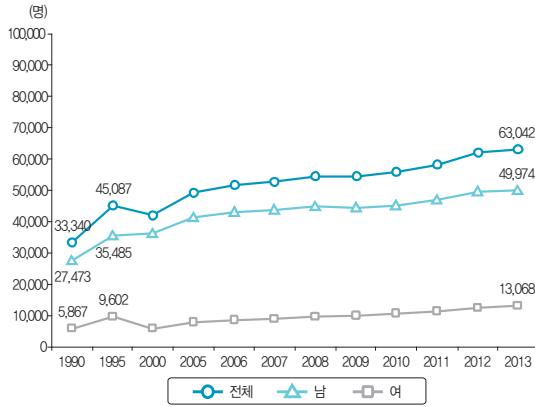
성별로 살펴보면, 1990년 이후로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 모두에서 남자 교원 수가 여자 교원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임교원을 보면, 1990년 여교원의 비율이 17.6%였으며 2000년에는 여교원 비율이 13.7%까지 낮아졌다. 그 이후로 꾸준히 늘어나서 2013년 여교원 비율이 20.7%로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교원의 남녀 비율이 약 4:1로 압도적으로 남교원의 비중이 높았다. 비전임교원의 경우, 1990년 여교원의 비율이 25.7%이었고, 그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13년 비전임 교원 중 여교원의 비율은 41.0%이었다. 비전임교원은 2013년 남녀 비율이 약 3:2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서 전임교원보다 비전임교원에서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교원 현황을 설립별로 살펴보면(표 II-3-1 참조), 2013년 전임교원의 경우 국·공립교원은 15,418명으로 이 중에서 남교원 13,386명, 여교원 2,032명이었고, 사립교원은 47,624명으로 이 중에서 남교원 36,588명, 여교원 11,036명이 있었다. 국·공립의 여교원 비율은 13.2%, 사립은 23.2%로 사립대학이 국·공립대학보다 여교원 비율이 더 높았다. 비전임교원의 경우, 국·공립교원은 22,003명으로 이 중에서 남교원 14,049명, 여교원 7,954명이었고, 사립교원은 67,136명으로 이 중에서 남교원 38,568명, 여교원 28,568명이었다. 비전임교원도 사립대학(42.6%)이 국·공립대학(36.1%)에 비해 여교원 비율이 높았다. 이처럼 국·공립대학의 전임여교원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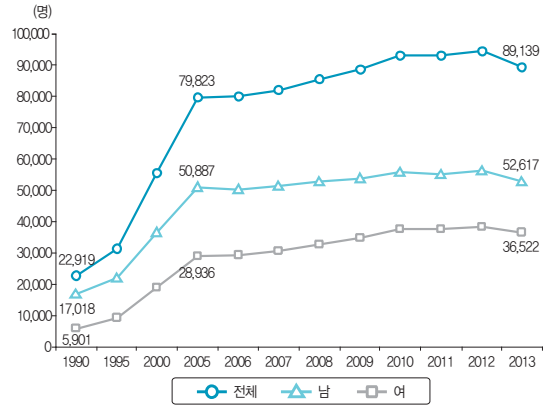
연도별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의 비율을 살펴보면, 1990년에는 68.7%로 전임교원이 비전임교원보다 많았다. 그러나 1995년 이후로 비전임교원이 급격하게 증가한 결과 전임교원보다 많아져서 2005년에는 비전임교원의 비율이 162.2%까지 높아졌다. 그 후 비전임교원의 비중은 증감을 반복하였고, 2013년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의 비율은 141.4%이었다. 이를 통해서 고등교육 양적 확대에 따른 교원의 확대는 비전임교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대학에 재직 중인 외국인 교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1,556명이던 외국인 교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13년 7,474명으로 4.8배 증가하였다. 앞서 전체 교원 중에서 비전임교원의 급격한 증가 양상과는 다르게, 외국인 교원에 있어서는 오히려 2005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줄곧 전임교원이 비전임교원보다 많았으며, 그 격차는 조금씩 증가해왔다. 2013년 전체 외국인 교원 중에서 전임교원의 비중은 67.2%로 외국인 교원 10명 중에 약 6명 이상이 전임교원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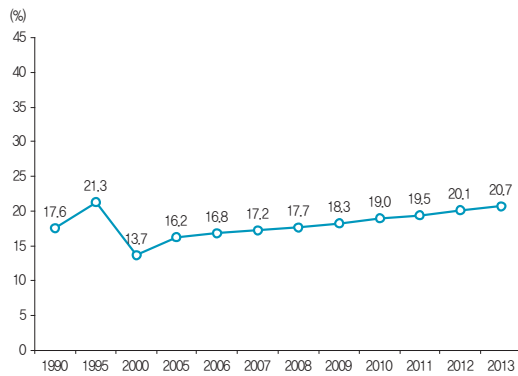
■ II. 대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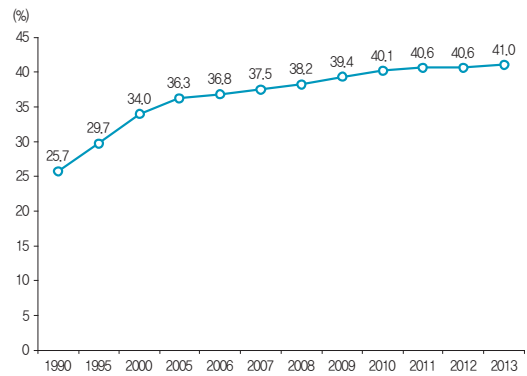
■ 그림 II-3-1 ■ 연도별 전임교원 현황(1990~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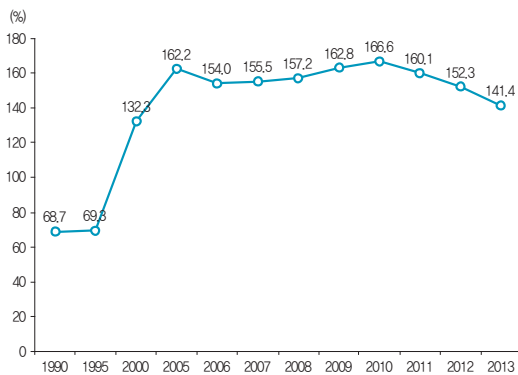
■ 그림 II-3-2 ■ 연도별 비전임교원 현황(1990~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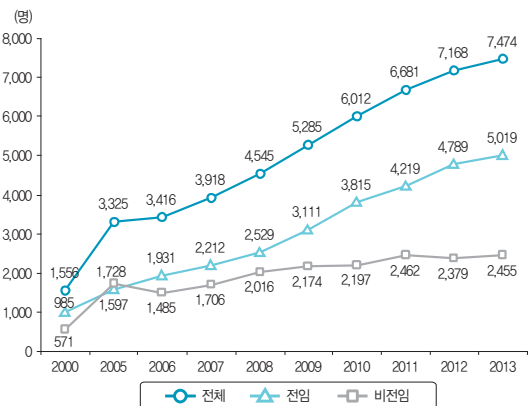
■ 그림 II-3-3 ■ 연도별 전임 여교원 비율(1990~2013)



■ 그림 II-3-4 ■ 연도별 비전임 여교원 비율(1990~2013)



■ 그림 II-3-5 ■ 연도별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 비율 (1990~2013)



■ 그림 II-3-6 ■ 연도별 외국인 교원 현황(2000~2013)

■ 표 II-3-1 ■ 연도별 설립별 성별 교원 수(1990~2013)

(단위: 명)

	전임교원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1990	33,340	27,473	5,867	10,373	9,234	1,139	22,967	18,239	4,728
1995	45,087	35,485	9,602	12,697	10,971	1,726	32,390	24,514	7,876
2000	41,943	36,185	5,758	11,359	10,393	966	30,584	25,792	4,792
2005	49,200	41,227	7,973	13,008	11,618	1,390	36,192	29,609	6,583
2006	51,859	43,151	8,708	13,385	11,919	1,466	38,474	31,232	7,242
2007	52,763	43,671	9,092	13,510	11,973	1,537	39,253	31,698	7,555
2008	54,331	44,728	9,603	13,703	12,119	1,584	40,628	32,609	8,019
2009	54,518	44,528	9,990	13,301	11,682	1,619	41,217	32,846	8,371
2010	55,972	45,335	10,637	13,746	12,014	1,732	42,226	33,321	8,905
2011	58,104	46,797	11,307	14,489	12,665	1,824	43,615	34,132	9,483
2012	61,993	49,528	12,465	15,341	13,373	1,968	46,652	36,155	10,497
2013	63,042	49,974	13,068	15,418	13,386	2,032	47,624	36,588	11,036

	비전임교원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1990	22,919	17,018	5,901	5,194	4,154	1,040	17,725	12,864	4,861
1995	31,265	21,976	9,289	7,595	5,651	1,944	23,670	16,325	7,345
2000	55,493	36,624	18,869	12,626	8,856	3,770	42,867	27,768	15,099
2005	79,823	50,887	28,936	15,907	10,735	5,172	63,916	40,152	23,764
2006	79,848	50,458	29,390	16,174	10,816	5,358	63,674	39,642	24,032
2007	82,040	51,301	30,739	16,402	10,917	5,485	65,638	40,384	25,254
2008	85,410	52,768	32,642	17,515	11,562	5,953	67,895	41,206	26,689
2009	88,769	53,826	34,943	17,711	11,523	6,188	71,058	42,303	28,755
2010	93,249	55,813	37,436	19,218	12,333	6,885	74,031	43,480	30,551
2011	93,033	55,296	37,737	19,873	12,720	7,153	73,160	42,576	30,584
2012	94,423	56,052	38,371	21,993	14,105	7,888	72,430	41,947	30,483
2013	89,139	52,617	36,522	22,003	14,049	7,954	67,136	38,568	28,568

주: 1) 전임교원에는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가 포함됨.

2) 비전임교원에는 시간강사, 겸임교수, 명예교수, 객원교수, 대우교수, 초빙교수, 기타 등이 포함됨.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 II. 대학 ■

■ 표 II-3-2 ■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전임 교원 수(2013)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63,042	49,974	13,068	15,418	13,386	2,032	47,624	36,588	11,036
수도권	소계	24,910	19,534	5,376	3,140	2,684	456	21,770	16,850	4,920
	인문	4,818	3,313	1,505	341	253	88	4,477	3,060	1,417
	사회	4,316	3,557	759	361	312	49	3,955	3,245	710
	교육	1,057	638	419	145	110	35	912	528	384
	공학	5,035	4,774	261	836	800	36	4,199	3,974	225
	자연	3,153	2,540	613	616	529	87	2,537	2,011	526
	의약	4,380	3,337	1,043	569	472	97	3,811	2,865	946
	예·체능	2,109	1,339	770	271	207	64	1,838	1,132	706
	소속학과없음	42	36	6	1	1	-	41	35	6
비수도권	소계	38,132	30,440	7,692	12,278	10,702	1,576	25,854	19,738	6,116
	인문	5,685	4,083	1,602	1,241	993	248	4,444	3,090	1,354
	사회	6,499	5,412	1,087	1,607	1,396	211	4,892	4,016	876
	교육	2,475	1,623	852	1,207	960	247	1,268	663	605
	공학	8,266	7,947	319	4,062	3,958	104	4,204	3,989	215
	자연	4,942	4,171	771	2,831	2,521	310	2,111	1,650	461
	의약	7,163	5,043	2,120	747	478	269	6,416	4,565	1,851
	예·체능	3,004	2,070	934	568	381	187	2,436	1,689	747
	소속학과없음	98	91	7	15	15	-	83	76	7

주: 1) 전임교원에는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가 포함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 표 II-3-3 ■ 연도별 설립별 외국인 교원 수(2000~2013)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전임	비전임	소계	전임	비전임	소계	전임	비전임
2000	1,556	985	571	110	3	107	1,446	982	464
2005	3,325	1,597	1,728	401	19	382	2,924	1,578	1,346
2006	3,416	1,931	1,485	335	20	315	3,081	1,911	1,170
2007	3,918	2,212	1,706	408	26	382	3,510	2,186	1,324
2008	4,545	2,529	2,016	501	30	471	4,044	2,499	1,545
2009	5,285	3,111	2,174	600	85	515	4,685	3,026	1,659
2010	6,012	3,815	2,197	765	64	601	5,247	3,651	1,596
2011	6,681	4,219	2,462	928	226	702	5,753	3,993	1,760
2012	7,168	4,789	2,379	1,027	237	790	6,141	4,552	1,589
2013	7,474	5,019	2,455	1,108	251	857	6,366	4,768	1,5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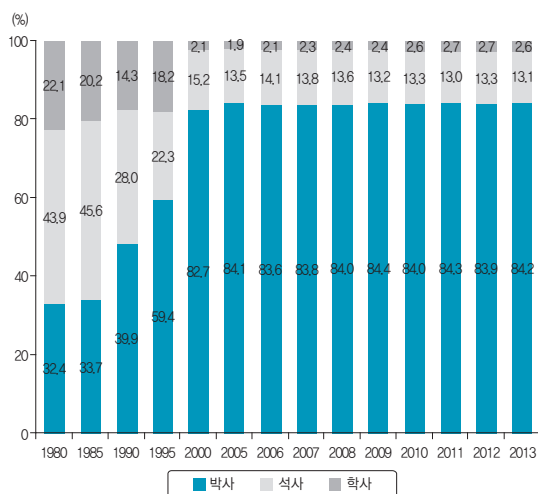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2) 교원의 학위 소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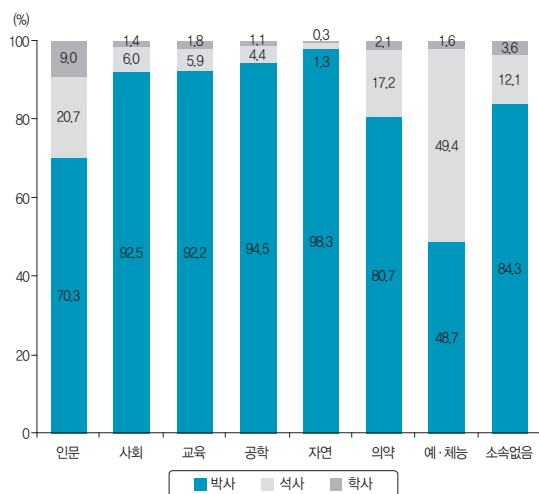
연도별로 전임교원의 학위 소지 현황을 살펴보면,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면서 석사 및 학사학위를 소지한 교원은 점차 줄어들었다. 1980년 4,683명이었던 박사학위 소지 교원은 2013년에 1980년 대비 11배가 넘는 규모인 53,095명으로 늘어났다. 전체 교원 대비 박사학위 소지 교원 비율 역시 1980년 32.4%에서 2013년에는 84.2%로 증가하였다. 반면, 석사학위 소지 교원의 경우 1980년 6,353명(43.9%)에서 2013년에는 8,253명(13.1%)으로 그 수는 증가하였지만, 전체 교원 중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으며, 학사학위 소지 교원 역시 마찬가지로 1980년 3,193명(22.1%)에서 2013년 1,656명(2.6%)으로 그 수는 증가하였지만, 전체 교원 중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다. 박사학위 소지자의 학위취득 국가를 살펴보면(〈표 II-3-4〉 참조), 1980년은 국내 3,012명(64.3%), 국외 1,671명(35.7%)이었으나 2013년은 국내 32,338(60.1%), 국외 20,757(39.9%)로 점차 국외 박사 학위취득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계열별 전임교원의 학위 소지 현황을 보면, 박사학위 소지자의 비중은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에서 90%를 넘는 반면, 예·체능계열의 경우에는 48.7%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전체 교원의 절반을 넘지 못하였다. 예·체능계열을 제외한 대부분의 계열에서 박사, 석사, 학사학위 순으로 교원의 학위 소지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예·체능계열은 박사학위 소지자보다 석사학위 소지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교원의 학위 소지 현황을 살펴보면(〈표 II-3-5〉 참조), 전반적으로 수도권 대학에서 전체 24,910명의 교원 중에서 박사학위 소지자가 86.2%(21,464명), 석사학위 소지자가 11.5%(2,860명), 학사학위 소지자가 2.3%(560명)로 박사학위소지자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 비수도권 대학 역시 전체 교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는 83.0%(31,631명), 석사학위 소지자가 14.1%(5,393명), 학사학위 소지자가 2.9%(1,096명)로 역시 박사학위 소지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아울러 수도권 대학의 박사학위 소지자 비율이 비수도권 대학보다 높은 것이 특징이었다.



■ 그림 II-3-7 ■ 연도별 전임교원 학위소지 현황 (1980~2013)



■ 그림 II-3-8 ■ 계열별 전임교원 학위소지 현황(2013)

■ II. 대학 ■

■ 표 II-3-4 ■ 연도별 전임교원 학위 소지 현황(1980~2013)

(단위: 명)

	전체	박사			석사	학사	기타
		전체	국내	국외			
1980	14,458	4,683	3,012	1,671	6,353	3,193	229
1985	26,047	8,789	5,434	3,355	11,873	5,260	125
1990	40,505	16,155	10,238	5,917	11,328	5,808	49
1995	45,087	26,771	16,357	10,414	10,057	8,207	52
2000	41,943	34,666	21,293	13,373	6,394	863	20
2005	49,200	41,379	25,636	15,743	6,660	932	229
2006	51,859	43,362	26,840	16,522	7,298	1,103	96
2007	52,763	44,217	27,000	17,217	7,293	1,219	34
2008	54,331	45,631	27,817	17,788	7,372	1,299	29
2009	54,518	46,011	27,896	18,115	7,198	1,297	12
2010	55,972	47,004	28,569	18,435	7,458	1,470	40
2011	58,104	48,968	29,571	19,397	7,553	1,561	22
2012	61,993	52,040	31,815	20,225	8,240	1,672	41
2013	63,042	53,095	32,338	20,757	8,253	1,656	38

주: '기타'에는 국제전문학교 졸업 및 기타의 사유로 정식학사 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한 교원(즉, 전문학사 혹은 학사학위가 없는 교원)이 포함됨.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 표 II-3-5 ■ 지역별 계열별 전임교원 학위 소지 현황(2013)

(단위: 명)

		전체	박사			석사	학사	기타
			전체	국내	국외			
전체		63,042	53,095	32,338	20,757	8,253	1,656	38
수도권	소계	24,910	21,464	10,516	10,948	2,860	560	26
	인문	4,818	3,464	1,419	2,045	962	390	2
	사회	4,316	4,086	1,385	2,701	185	44	1
	교육	1,057	952	377	575	54	45	6
	공학	5,035	4,817	2,063	2,754	193	19	6
	자연	3,153	3,133	1,109	2,024	19	-	1
	의약	4,380	3,954	3,573	381	396	28	2
	예·체능	2,109	1,028	577	451	1,043	30	8
	소속학과없음	42	30	13	17	8	4	-
비수도권	소계	38,132	31,631	21,822	9,809	5,393	1,096	12
	인문	5,685	3,921	2,282	1,639	1,213	551	-
	사회	6,499	5,923	3,982	1,941	467	109	-
	교육	2,475	2,303	1,628	675	153	18	1
	공학	8,266	7,753	5,070	2,683	391	121	1
	자연	4,942	4,822	2,746	2,076	89	27	4
	의약	7,163	5,358	4,949	409	1,587	216	2
	예·체능	3,004	1,463	1,112	351	1,484	53	4
	소속학과없음	98	88	53	35	9	1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4. 학습 환경 및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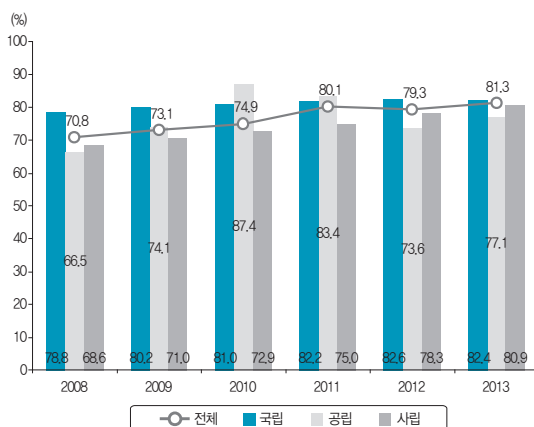
1) 전임교원 현황

① 전임교원 확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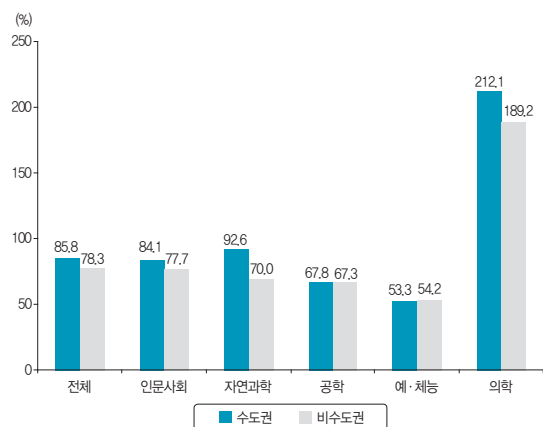
전임교원 확보율은 대학의 여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대학의 재정지원 사업의 선정지표의 하나로도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들은 전임교원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결과, 2008년 70.8%에 머물렀던 전임교원 확보율은 2013년 81.3%까지 높아져 2008년 대비 무려 10.5%p나 증가하였다. 2013년 설립별로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을 살펴보면, 국립대학은 82.4%이었으며, 공립대학은 77.1%, 사립대학은 80.9%로 국립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은 85.8%, 비수도권 대학은 78.3%로 수도권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비수도권 대학보다 7.5%p 높았다. 수도권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국립대학이 98.9%, 공립이 77.1%, 사립대학이 84.5%이었고, 비수도권에서는 국립대학 79.4%, 사립대학 77.7%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 차이가 14.4%p나 차이가 났으나 비수도권에서는 그 차이가 1.7%p에 불과했다. 전임교원 확보율을 통해 대학의 여건을 살펴보면, 비수도권에서는 국립과 사립대학 사이의 여건 차이가 별로 없었으나 수도권에서는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사이의 대학의 여건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²²⁾로 살펴보면 의학계열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모두 높았는데 전임교원 확보율이 각각 212.1%, 189.2%로 나타났다. 의학계열을 제외한 다른 계열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수도권에서는 자연과학계열 92.6%, 인문사회계열 84.1%, 공학계열 67.8%, 예·체능계열 53.3%이었고, 비수도권에서는 인문사회계열 77.7%, 자연과학계열 70.0%, 공학계열 67.3%, 예·체능계열 54.2%이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모두 예·체능계열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가장 낮았고, 예·체능계열을 제외한 모든 계열에서 수도권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높았다.



■ 그림 II-4-1 ■ 연도별 전임교원 확보율(2008~2013)



■ 그림 II-4-2 ■ 계열별 지역별 전임교원 확보율(2013)

22) 전임교원 확보율은 '대학설립·운영규정'의 5대계열로 구분하여 산출됨.

■ II. 대학 ■

■ 표 II-4-1 ■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확보율(2008~2013)

(단위: %)

	전체	국립	공립	사립
2008	70.8	78.8	66.5	68.6
2009	73.1	80.2	74.1	71.0
2010	74.9	81.0	87.4	72.9
2011	80.1	82.2	83.4	75.0
2012	79.3	82.6	73.6	78.3
2013	81.3	82.4	77.1	80.9

주: 1) 전임교원에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가 포함되며, 소속학과가 없는 전임교원의 수는 제외됨.

2) 전임교원 확보율(편제정원 기준)=(전임교원수/교원법정정원(편제정원 기준)) × 100

3) 여기서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편제정원 기준임.

4) 교원법정정원: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제1항의 “별표5”와 제2항에 의해 교원1인당 학생수로 나누어 산출(편제정원)되며, 소수점이하는 올림하여 산출됨.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제1항의 별표5

대계열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교수1인당 학생 수	25	20	20	20	8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할 교원을 산정하는 경우의 계열별 학생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학생 수를 말한다. 1) 대학원이 없는 대학: 대학의 학생 정원, 2) 대학원이 있는 대학: 학사과정의 학생정원에 대학원 학생정원의 1.5배(전문대학원의 경우는 학생정원의 2배)를 합한 학생 수, 3) 대학원 대학: 대학원 학생정원의 2배의 학생 수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 표 II-4-2 ■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전임교원 확보율(2013)

(단위: %)

		전체	국립	공립	사립
	전체	81.3	82.4	77.1	80.9
수도권	계	85.8	98.9	77.1	84.5
	인문사회	84.1	116.4	82.0	82.3
	자연과학	92.6	104.6	83.3	91.0
	공학	67.8	70.6	70.2	67.2
	예·체능	53.3	75.0	80.6	51.0
	의학	212.1	161.1	-	223.3
비수도권	계	78.3	79.4	-	77.7
	인문사회	77.7	80.3	-	76.9
	자연과학	70.0	78.2	-	65.1
	공학	67.3	72.0	-	63.2
	예·체능	54.2	69.9	-	51.2
	의학	189.2	111.3	-	270.5

주: 1) <표 II-4-1>의 주 1)~4) 참조.

2) 전임교원 확보율은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등의 5대 계열 구분(‘대학설립·운영규정’의 <별표1>에 의함)을 따름. 위의 전공계열은 이러한 계열 구분에 의한 것임.

- 인문·사회계열: 어학·문학·사회 및 신학 등
- 자연과학계열: 이학·해양·농학·수산·간호·보건·약학 및 한약학 등(의예과·치의예과·한의예과·수의예과 등은 자연과학계열에 포함됨)
- 공학계열: 공학 등
- 예·체능계열: 음악·미술·체육 및 무용 등
- 의학계열: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수의학 등

3) 의학계열은 계열의 특성 상 전임교원의 수가 많음. 그래서 의학계열을 포함하여 전체의 전임교원 확보율만을 제시할 경우에는 다른 계열의 전임교원 확보율을 왜곡해서 보여줄 가능성이 커짐.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여기서는 5대 계열 전체의 전임교원 확보율뿐만 아니라, 의학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 전체의 전임교원 확보율을 소계로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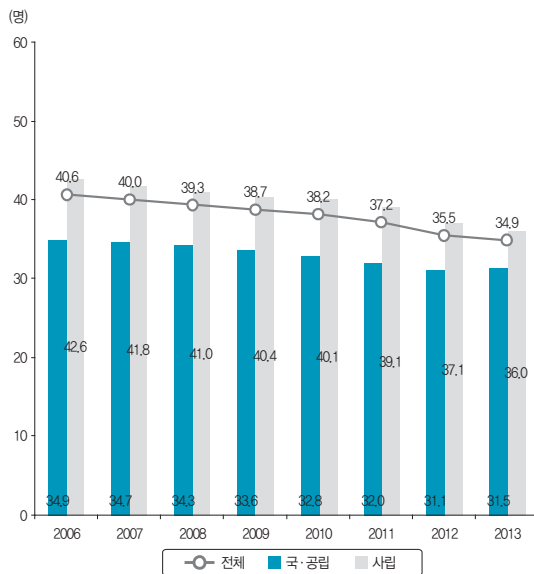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②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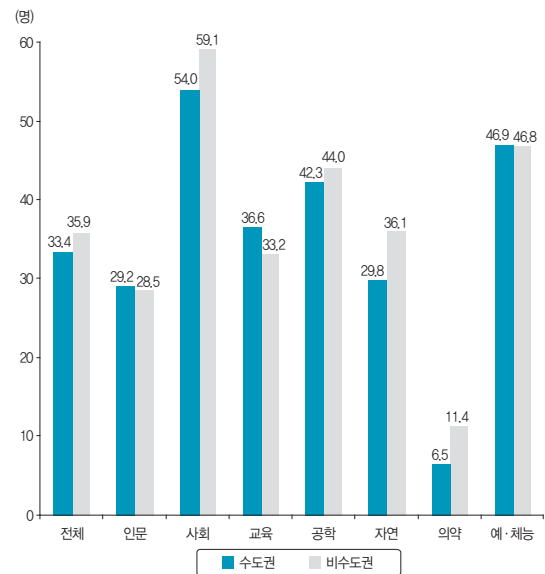
연도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 이래로 꾸준히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06년 40.6명에서 2013년 34.9명으로 2006년 대비 약 5.7명 정도 감소하였다. 국·공립대학은 2006년 34.9명에서 2013년 31.5명으로 2006년 대비 약 3.4명 정도 감소하였고, 사립대학은 42.6명에서 36.0명으로 2006년 대비 약 6.6명 정도 감소하였다. 2006년 사립대학이 국·공립대학보다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약 7.7명이나 많았으나 꾸준한 노력으로 2013년에는 그 차이가 약 4.5명으로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보다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적어 국·공립대학의 교육여건이 좀 더 나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33.4명으로 나타났지만 비수도권에서는 35.9명으로 나타나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설립별로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살펴보면, 수도권의 국·공립대학은 23.6명, 사립대학은 34.8명, 비수도권의 국·공립대학은 33.5명, 사립대학은 37.1명이었다. 이를 통해서 수도권에 소재한 국·공립대학이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계열별로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의약계열이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낮고 사회계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약계열 6.5명, 인문계열 29.2명, 자연계열 29.8명, 교육계열 36.6명, 공학계열 42.3명, 예·체능계열 46.9명이었다. 비수도권에서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의약계열이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낮고 사회계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약계열 11.4명, 인문계열 28.5명, 교육계열 33.2명, 자연계열 36.1명, 공학계열 44명, 예·체능계열 46.8명, 사회계열 59.1명이었다.



■ 그림 II-4-3 ■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2006~2013)



■ 그림 II-4-4 ■ 계열별 지역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2013)

■ II. 대학 ■

■ 표 II-4-3 ■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2000~2013)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2006	40.6	34.9	42.6
2007	40.0	34.7	41.8
2008	39.3	34.3	41.0
2009	38.7	33.6	40.4
2010	38.2	32.8	40.1
2011	37.2	32.0	39.1
2012	35.5	31.1	37.1
2013	34.9	31.5	36.0

주: 총장 및 소속학과가 없는 전임교원의 수는 제외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 표 II-4-4 ■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2013)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34.9	31.5	36.0
수도권	소계	33.4	23.6	34.8
	인문	29.2	21.1	29.8
	사회	54.0	37.1	55.9
	교육	36.6	28.7	37.7
	공학	42.3	30.3	44.6
	자연	29.8	19.5	32.3
	의약	6.5	5.3	6.7
	예·체능	46.9	32.1	49.0
비수도권	소계	35.9	33.5	37.1
	인문	28.5	34.6	26.8
	사회	59.1	48.6	63.1
	교육	33.2	30.6	35.5
	공학	44.0	39.7	48.2
	자연	36.1	32.6	40.8
	의약	11.4	8.6	12.2
	예·체능	46.8	37.5	49.0

주: 1) 전임교원확보율은 교원법정정원으로 산출되는 비율이기 때문에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등의 5대 계열 구분('대학설립·운영규정'의 <별표1>에 의함)을 따르나, 학생 수는 교육기본통계에서처럼 7대 계열로 분류가 가능함.

2) 전임교원에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가 포함되고, 총장 185명과 소속학과가 없는 전임교원은 제외됨.

3)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산출하기 위한 재적학생 수와 전임교원 수에는 학부와 대학부설 대학원의 현황이 포함됨.

4)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재적학생 수/전임교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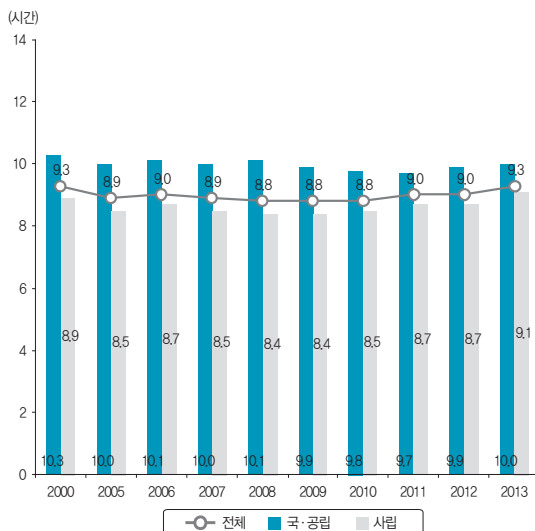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③ 전임교원의 강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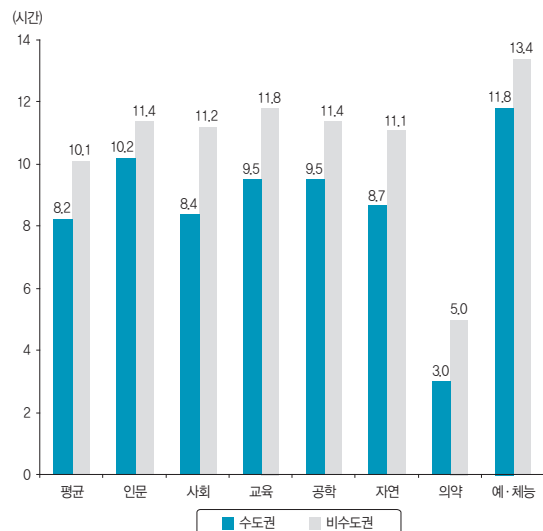
연도별로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은 9.3시간이었으나 2005년에 8.9시간으로 소폭 감소하였고 2006년 다시 증가하여 9.0시간이 되었으나 그 이후로 2010년에 8.8시간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1년과 2012년에 다시 9.0시간으로 늘어났으며 2013년에는 다시 0.3시간 증가하여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이 9.3시간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여 년간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은 9시간 전후로 나타났으며 특별히 뚜렷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설립별로 살펴보면, 국·공립대학의 경우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이 2000년 10.3시간에서 2013년 10.0시간으로 0.3시간 정도 줄어들었다. 반면, 사립대학은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이 2000년 8.9시간에서 2013년 9.1시간으로 0.4시간 정도 소폭 증가하였다. 이처럼 지난 10여년 동안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이 국·공립대학은 줄고, 사립대학은 늘었지만, 국·공립대학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이 사립대학보다 많았다. 2013년에는 국·공립대학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이 사립대학보다 약 1시간 정도 많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소재 대학의 전임교원들은 주당 8.2시간 수업을 했으나 비수도권에서는 10.1시간으로 비수도권 대학의 전임교원들이 주당 2시간 정도 수업시간이 더 많았다.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계열별로 주당 수업시간을 살펴보면, 의학계열 3.0시간, 사회계열 8.4시간, 자연계열 8.7시간, 교육과 공학계열 각각 9.5시간, 인문계열 10.2시간, 예·체능계열 11.8시간으로 예·체능계열 전임교원의 수업시간이 가장 많았다.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의학계열 5.0시간, 자연계열 11.1시간, 사회계열 11.2시간, 공학과 인문계열 각각 11.4시간, 교육계열 11.8시간, 예·체능계열 13.4시간으로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예·체능계열 전임교원의 수업시간이 가장 많았다. 이를 통해 의학계열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모든 계열에서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이 11시간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비수도권 소재 대학 전임교원들의 수업 시간이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보다 뚜렷하게 많음을 알 수 있다.



■ 그림 II-4-5 ■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주당 수업시간 수 (2000~2013)



■ 그림 II-4-6 ■ 지역별 계열별 전임교원 주당 수업시간 수 (2013)

■ II. 대학 ■

■ 표 II-4-5 ■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주당 수업시간 수(2000~2013)

(단위: 시간)

	전체	국·공립	사립
2000	9.3	10.3	8.9
2005	8.9	10.0	8.5
2006	9.0	10.1	8.7
2007	8.9	10.0	8.5
2008	8.8	10.1	8.4
2009	8.8	9.9	8.4
2010	8.8	9.8	8.5
2011	9.0	9.7	8.7
2012	9.0	9.9	8.7
2013	9.3	10.0	9.1

주: 1)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 수를 산출하기 위한 전임교원 수에는 대학과 대학부설 대학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가 포함되고, 총장은 제외됨.

2)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 수=전체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 수의 합/전체 전임교원 수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 표 II-4-6 ■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전임교원 주당 수업시간 수(2013)

(단위: 시간)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9.3	10.0	9.1
수도권	소계	8.2	9.3	8.0
	인문	10.2	7.4	10.4
	사회	8.4	7.9	8.5
	교육	9.5	8.3	9.6
	공학	9.5	10.9	9.2
	자연	8.7	9.0	8.6
	의약	3.0	8.6	2.3
	예·체능	11.8	12.2	11.7
	소속학과없음	-	-	-
비수도권	소계	10.1	10.1	10.1
	인문	11.4	9.8	11.9
	사회	11.2	9.9	11.7
	교육	11.8	11.2	12.3
	공학	11.4	11.0	11.8
	자연	11.1	11.0	11.2
	의약	5.0	6.1	4.6
	예·체능	13.4	13.9	13.3
	소속학과없음	1.6	0.5	3.0

주: 1)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 수를 산출하기 위한 전임교원 수에는 대학과 대학부설 대학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가 포함되고, 총장은 제외됨.

2)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 수=전체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 수의 합/전체 전임교원 수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2) 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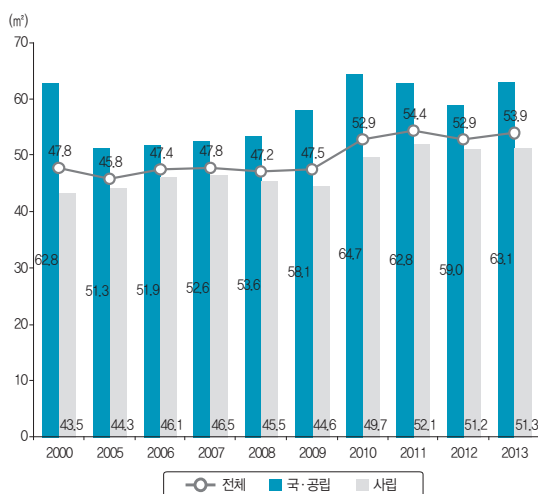
대학 시설 현황은 학생 1인당 교지면적, 교사면적, 도서관 현황으로 살펴볼 수 있다. 교지면적은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값이며, 이를 재적학생 수로 나누면 학생 1인당 교지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교사면적은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특수시설, 기숙시설, 계열별 부속시설, 기타시설 등을 합한 수치를 재적학생 수로 나누면 학생 1인당 교사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연도별 학생 1인당 교지면적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 47.8㎡에서 2005년 45.8㎡으로 줄어들었다가 그 후로 증감을 거듭하며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53.9㎡로 나타났다. 설립별로 보면,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에 비해 학생 1인당 교지면적이 넓었으며, 2013년에는 국·공립대학 63.1㎡, 사립대학은 51.3㎡로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보다 학생 1인당 교지면적이 1.2배 정도 넓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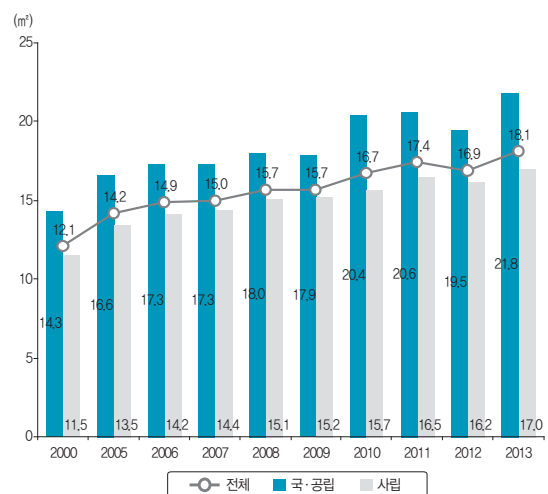
연도별 학생 1인당 교사면적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 12.1㎡이었으며 그 뒤로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18.1㎡로 2000년 대비 1.5배 늘어났다. 설립별로 보면, 2000년 국·공립대학은 14.3㎡, 사립대학은 11.5㎡로 국·공립대학이 학생 1인당 교지면적이 사립대학보다 1.2배 정도 넓었다. 반면, 2013년에는 국·공립대학 21.8㎡, 사립대학은 17.0㎡로 교지면적과는 다르게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교사면적의 차이는 오히려 약간 늘어났다.

2013년 학생 1인당 도서관 예산은 102,791.8원이었고, 국·공립대학(120,783.4원)이 사립대학(97,648.7원)보다 1.2배 정도 도서관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142,019.8원)이 비수도권 대학(79,323.1원)보다 학생 1인당 도서관 예산이 많았다.

2013년 도서관 좌석당 학생 수도 국·공립대학(5.9명)이 사립대학(6.2명)보다 적었고, 수도권 대학(5.3명)이 비수도권 대학(6.6명)에 비해 적었다. 학생 1인당 도서관 장서 수는 2013년 56.3권이었고, 국·공립대학이 66.5권, 사립대학이 53.4권으로,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보다 학생 1인당 장서 수가 많았고, 수도권 대학(66.2권)이 비수도권 대학(50.4권)보다 많았다.



■ 그림 II-4-7 ■ 연도별 설립별 학생 1인당 교지면적 (2000~2013)



■ 그림 II-4-8 ■ 연도별 설립별 학생 1인당 교사면적 (2000~2013)

■ II. 대학 ■

■ 표 II-4-7 ■ 연도별 설립별 학생 1인당 교지면적 및 교사면적(2000~2013)

(단위: m²)

	학생 1인당 교지면적			학생 1인당 교사면적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사립
2000	47.8	62.8	43.5	12.1	14.3	11.5
2005	45.8	51.3	44.3	14.2	16.6	13.5
2006	47.4	51.9	46.1	14.9	17.3	14.2
2007	47.8	52.6	46.5	15.0	17.3	14.4
2008	47.2	53.6	45.5	15.7	18.0	15.1
2009	47.5	58.1	44.6	15.7	17.9	15.2
2010	52.9	64.7	49.7	16.7	20.4	15.7
2011	54.4	62.8	52.1	17.4	20.6	16.5
2012	52.9	59.0	51.2	16.9	19.5	16.2
2013	53.9	63.1	51.3	18.1	21.8	17.0

주: 1) 교지면적은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값으로, 차용면적은 제외하고 학교 소유 면적만을 나타냄.

2) 교사면적: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특수시설, 기숙시설, 계열별 부속시설, 기타시설 등을 합한 수치임.

3) 학생 1인당 교지면적: 합산한 교지면적/재적학생 수

4) 학생 1인당 교사면적: 합산한 교사면적/재적학생 수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 표 II-4-8 ■ 지역별 설립별 학생 1인당 도서관 현황(2013)

(단위: 원, 명, 권)

	학생 1인당 도서관 예산			도서관 좌석당 학생수			학생 1인당 도서관 장서수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102,791.8	120,783.4	97,648.7	6.1	5.9	6.2	56.3	66.5	53.4
수도권	142,019.8	234,842.9	133,656.5	5.3	4.4	5.5	66.2	112.0	62.0
비수도권	79,323.1	102,343.9	69,179.1	6.6	6.2	6.8	50.4	59.1	46.6

주: 1) 학생 1인당 도서관 예산= 전체 도서관 예산/재적학생 수

2) 도서관 좌석당 학생 수= 재적학생 수/좌석 수

3) 도서관 학생 1인당 장서 수=장서 수/재적학생 수

4) 폐교 재적학생 수는 제외됨.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2), 교육통계연보.



Ⅲ. 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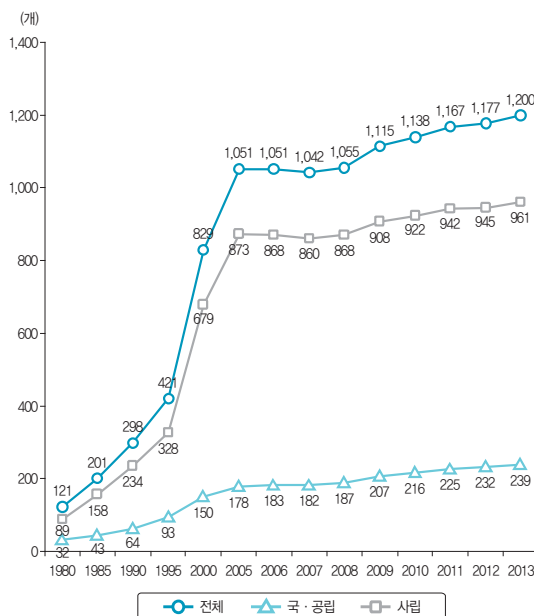
- 1. 학교
- 2. 학생
- 3. 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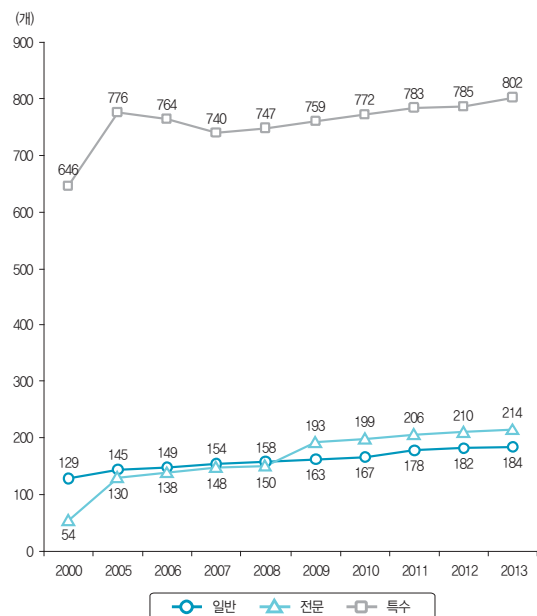
1. 학교

우리나라 대학원(일반대학원) 교육은 1953년 문교부 훈령 제 8호 ‘대학원규정’이 제정 시행된 이후 고등교육의 대중화와 함께 최상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성장해 왔다.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에 걸쳐 외형적 교육체제를 갖춘 대학원은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에 이르러 양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에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고급인력수요와 대학교육의 사회적 수요 급증에 따라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대량 신설·인가로 급격한 팽창을 이루었다. 대학원 수의 증가는 [그림 Ⅲ-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원 수는 1,200개로 1980년 대학원 수(121개)와 비교하면 약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를 설립별로 나누어 보면, 국·공립대학원 수는 239개(19.9%), 사립대학원은 961개(80.1%)로 사립대학원이 국·공립대학원보다 약 4배 많았다. 유형별²³⁾로 2013년 대학원 수를 살펴보면, 특수대학원 802개(66.8%), 전문대학원 214개(17.8%), 일반대학원 184개(15.3%)로 특수대학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일반대학원은 2000년 129개에 비해 2013년 현재 184개로 약 1.4배가량 증가했고, 특수대학원은 2000년 646개에서 2013년 802개로 약 1.2배 증가했다. 특히 전문대학원은 대학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은 아니지만, 2000년(54개)과 비교할 때 2013년 약 4배 규모인 214개로 증가했다. 대학원 유형별 현황은 [그림 Ⅲ-1-2]에서 찾아볼 수 있다.



■ 그림 Ⅲ-1-1 ■ 연도별 설립별 대학원 수(1980~2013)



■ 그림 Ⅲ-1-2 ■ 연도별 유형별 대학원 수(2000~2013)

23) 제 2조 (대학원의 종류 등) ① 대학원은 그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대학원 :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2. 전문대학원 : 전문직업분야 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3. 특수대학원 : 직업인 또는 일반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 표 Ⅱ-1-1 ■ 연도별 설립별 유형별 대학원 수(1980~2013)

(단위: 개)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대학부설 대학원	대학원 대학	전체	대학부설 대학원	대학원 대학	전체	대학부설 대학원	대학원 대학
1980	121	121	—	32	32	—	89	89	—
1985	201	201	—	43	43	—	158	158	—
1990	298	298	—	64	64	—	234	234	—
1995	421	421	—	93	93	—	328	328	—
2000	829	812	17	150	150	—	679	662	17
2005	1,051	1,017	34	178	178	—	873	839	34
2006	1,051	1,015	36	183	183	—	868	832	36
2007	1,042	1,006	36	182	182	—	860	824	36
2008	1,055	1,018	37	187	186	1	868	832	36
2009	1,115	1,077	38	207	206	1	908	871	37
2010	1,138	1,098	40	216	215	1	922	883	39
2011	1,167	1,126	41	225	224	1	942	902	40
2012	1,177	1,134	43	232	231	1	945	903	42
2013	1,200	1,157	43	239	238	1	961	919	42

주: 대학원대학은 1998년부터 집계되기 시작함.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 표 Ⅱ-1-2 ■ 연도별 유형별 대학원 설치 현황(2000~2013)

(단위: 개)

	전체				대학부설대학원				대학원대학			
	전체	일반	전문	특수	전체	일반	전문	특수	전체	일반	전문	특수
2000	829	129	54	646	812	129	44	639	17	—	10	7
2005	1,051	145	130	776	1,017	145	98	774	34	—	32	2
2006	1,051	149	138	764	1,015	149	106	760	36	—	32	4
2007	1,042	154	148	740	1,006	154	117	735	36	—	31	5
2008	1,055	158	150	747	1,018	157	119	742	37	1	31	5
2009	1,115	163	193	759	1,077	162	161	754	38	1	32	5
2010	1,138	167	199	772	1,098	166	165	767	40	1	34	5
2011	1,167	178	206	783	1,126	177	171	778	41	1	35	5
2012	1,177	182	210	785	1,134	181	173	780	43	1	37	5
2013	1,200	184	214	802	1,157	183	177	797	43	1	37	5

주: 1) 대학원대학은 1998년부터 집계되기 시작함.

2) '일반'은 일반대학원, '전문'은 전문대학원, '특수'는 특수대학원을 말함.

3)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2항'에 의거하여 '대학(일반대학)'은 일반/전문/특수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고,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은 전문/특수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대학'은 특수대학원을, '대학원대학'은 전문 또는 특수대학원 중 1개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음. 단, 특별법법인으로 설립된 한국학대학원의 경우 대학원대학이면서도 일반대학원으로 집계함.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2. 학생²⁴⁾

1) 학생 수

대학원 학생 수는 1980년 33,939명에서 2013년 329,822명으로 약 1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는 1995년 대학원 설립기준의 완화와 함께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및 고등교육의 대중화·보편화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1980년 28,153명에서 2013년 170,870명으로 약 6배로 증가한 반면, 1980년 5,786명에 불과했던 여학생은 2012년 158,952명으로 약 27배 늘어났다. 1980년 당시에는 남학생이 전체 대학원 학생 수의 83.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반해 2013년에는 남학생이 51.8%, 여학생이 48.1%로 비율이 비슷해졌다. 이를 통해 대학원 남녀 학생 수의 차이가 지난 30여년 동안 점차 줄어들어 현재에는 그 차이가 거의 없어졌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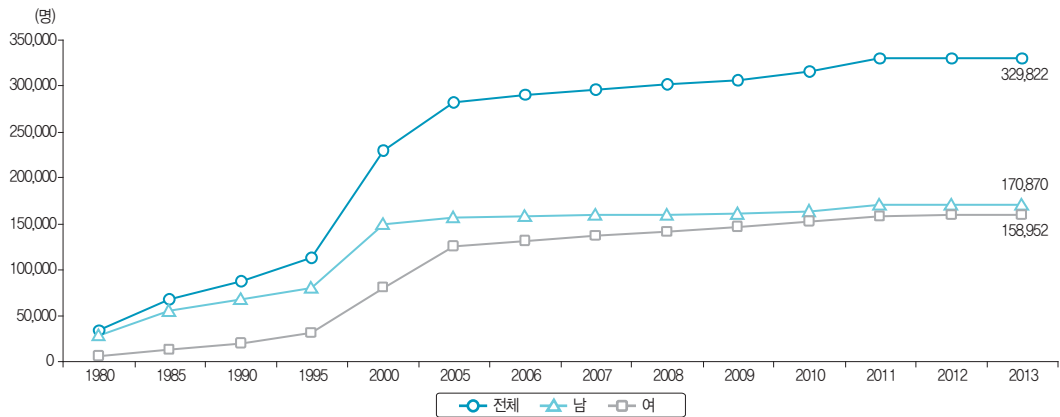
석사과정 학생 수는 1980년 29,901명에서 2000년대 10만명을 넘었고, 2013년 263,884명으로, 1980년에 비해 학생 수가 8배 이상 증가하였다. 성별로 보면, 1980년에 남학생은 24,485명, 여학생은 5,416명으로 전체 석사과정 학생 중 여학생의 비중이 20%가 되지 않았다(표 Ⅲ-2-1 참조). 그러나 여학생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2010년에는 여학생 비중이 50%를 넘었다. 2013년 석사과정 남학생은 130,184명, 여학생은 133,700명으로 전체 학생 중 여학생의 비중은 50.7%이었다.

박사과정 학생 수(석·박사통합과정 포함, 이하 동일)도 지난 30여년간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1980년 4,038명에서 2013년 65,938명으로 16배 이상 증가하였다. 성별로 보면 1980년 남학생은 3,668명, 여학생은 370명으로 여학생이 전체 학생의 10%도 채 되지 않았다(표 Ⅲ-2-1 참조). 그러나 석사과정과 마찬가지로 박사과정 학생 중 여학생의 비율도 점차 늘어나서, 2005년 이후 여학생의 비율이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박사과정 학생 중 여학생의 비율은 38.3%로 1980년에 비해 29.1%p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진학하는 여학생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박사과정 학생 중 남학생의 비율이 여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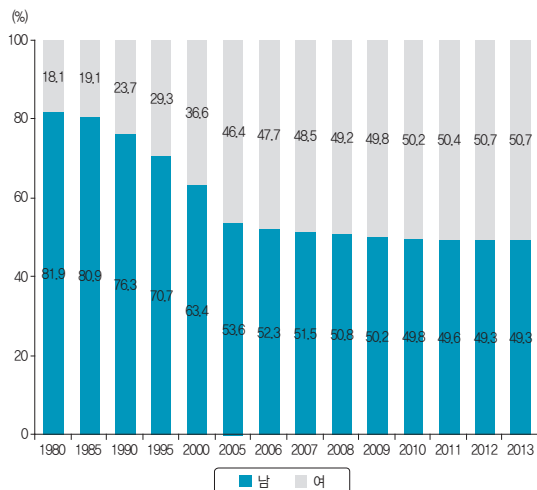
2013년 계열별 석사과정 학생 수를 보면, 사회계열이 73,539명(27.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교육계열(53,330명, 20.2%), 인문계열(38,291명, 14.5%), 공학계열(35,092명, 13.3%), 의약계열(26,941명, 10.2%), 예·체능계열(19,884명, 7.5%), 자연계열(16,807명, 6.4명) 순이었다(표 Ⅲ-2-2 참조). 성별로 보면, 계열별로 남녀 성비가 다른데, 교육계열의 경우 여학생의 비율이 73.1%나 되고, 반면 공학계열은 남학생의 비율이 80%를 넘었다. 인문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 등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은 편이고, 사회계열은 남학생의 비율이 높았고, 예·체능계열은 여학생 비율이 높았다.

2013년 계열별 박사과정 학생 수를 보면, 공학계열이 16,215명(24.6%)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계열이 12,890명(19.5%), 자연계열이 10,787명(16.4%), 의약계열이 8,962명(13.6%), 인문계열이 7,975명(12.1%), 교육계열이 4,783명(7.3%), 예·체능계열이 4,326명(6.6%)이었다(표 Ⅲ-2-2 참조).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학생의 계열별 비중은 약간 다르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박사과정 여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계열은 교육계열(71.0%)이었다. 예·체능계열(55.5%)과 인문계열(53.7%)도 여학생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반면, 의약계열(48.8%), 자연계열(37.2%), 사회계열(35.9%), 공학계열(13.3%)은 여학생의 비율이 절반이 되지 않았다. 계열별로 석사과정과 비교했을 때, 박사과정이 모든 계열에서 여학생 비율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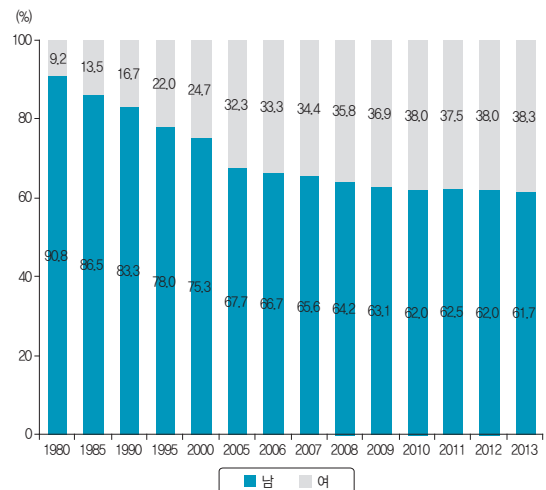
24)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에 포함하여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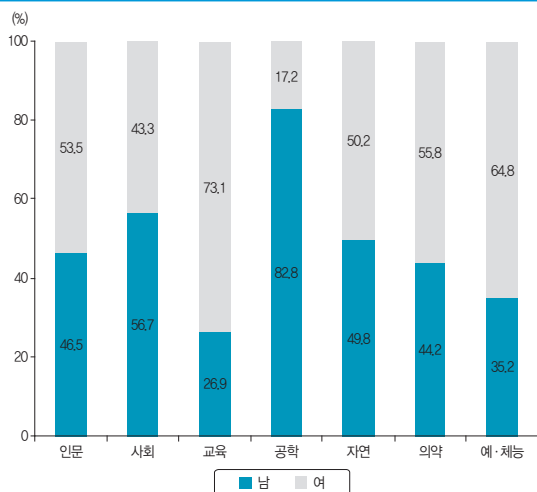
■ 그림 III-2-1 ■ 연도별 성별 대학원 학생 수(1980~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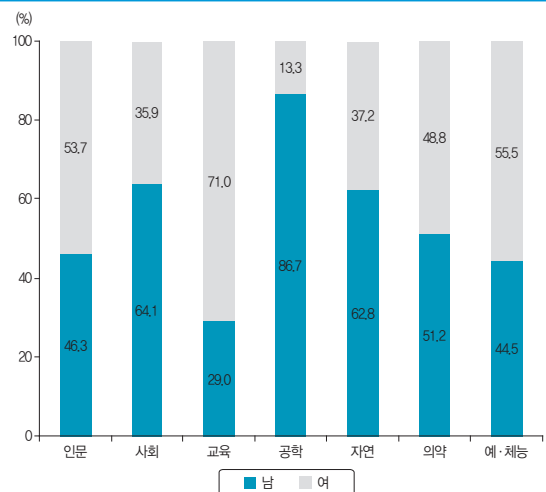
■ 그림 III-2-2 ■ 연도별 학생성비(석사과정, 1980~2013)



■ 그림 III-2-3 ■ 연도별 학생성비(박사과정, 1980~2013)



■ 그림 III-2-4 ■ 계열별 학생성비(석사과정, 2013)



■ 그림 III-2-5 ■ 계열별 학생성비(박사과정, 2013)

■ Ⅲ. 대학원 ■

■ 표 Ⅲ-2-1 ■ 연도별 대학원과정별 성별 학생 수(1980~2013)

(단위: 명)

	전체			석사과정			박사과정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1980	33,939	28,153	5,786	29,901	24,485	5,416	4,038	3,668	370
1985	68,178	55,726	12,452	57,698	46,666	11,032	10,480	9,060	1,420
1990	86,911	67,351	19,560	72,417	55,284	17,133	14,494	12,067	2,427
1995	112,728	81,053	31,675	93,993	66,449	27,544	18,735	14,604	4,131
2000	229,437	149,365	80,072	197,436	125,259	72,177	32,001	24,106	7,895
2005	282,225	157,295	124,930	238,753	127,868	110,885	43,472	29,427	14,045
2006	290,029	158,371	131,658	243,833	127,550	116,283	46,196	30,821	15,375
2007	296,576	159,458	137,118	249,016	128,250	120,766	47,560	31,208	16,352
2008	301,412	159,733	141,679	252,010	128,017	123,993	49,402	31,716	17,686
2009	306,471	160,381	146,090	256,085	128,608	127,477	50,386	31,780	18,606
2010	316,633	164,266	152,367	263,100	131,060	132,040	53,533	33,206	20,327
2011	329,933	171,410	158,523	270,234	134,091	136,143	59,699	37,319	22,380
2012	329,544	170,512	159,032	267,232	131,869	135,363	62,312	38,643	23,669
2013	329,822	170,870	158,952	263,884	130,184	133,700	65,938	40,686	25,252

주: 석/박사통합과정의 학생 수는 박사과정에 포함됨.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 표 Ⅲ-2-2 ■ 지역별 계열별 대학원과정별 성별 학생 수(2013)

(단위: 명)

		전체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329,822	170,870	158,952	263,884	130,184	133,700	53,384	31,693	21,691	12,554	8,993	3,561
수도권	소계	184,579	92,657	91,922	148,164	70,844	77,320	27,872	15,756	12,116	8,543	6,057	2,486
	인문	30,511	14,638	15,873	25,187	12,126	13,061	4,956	2,320	2,636	368	192	176
	사회	54,685	30,945	23,740	46,881	26,056	20,825	7,314	4,578	2,736	490	311	179
	교육	25,648	5,814	19,834	23,648	5,278	18,370	1,907	505	1,402	93	31	62
	공학	25,660	21,282	4,378	17,561	14,262	3,299	4,555	3,939	616	3,544	3,081	463
	자연	13,583	6,772	6,811	8,320	3,600	4,720	2,768	1,516	1,252	2,495	1,656	839
	의약	17,482	7,340	10,142	12,489	4,868	7,621	3,532	1,722	1,810	1,461	750	711
	예·체능	17,010	5,866	11,144	14,078	4,654	9,424	2,840	1,176	1,664	92	36	56
비수도권	소계	145,243	78,213	67,030	115,720	59,340	56,380	25,512	15,937	9,575	4,011	2,936	1,075
	인문	15,755	6,874	8,881	13,104	5,696	7,408	2,517	1,108	1,409	134	70	64
	사회	31,744	19,025	12,719	26,658	15,649	11,009	4,977	3,312	1,665	109	64	45
	교육	32,465	9,901	22,564	29,682	9,048	20,634	2,755	842	1,913	28	11	17
	공학	25,647	21,827	3,820	17,531	14,790	2,741	6,486	5,659	827	1,630	1,378	252
	자연	14,011	8,377	5,634	8,487	4,775	3,712	3,702	2,374	1,328	1,822	1,228	594
	의약	18,421	9,150	9,271	14,452	7,035	7,417	3,716	1,954	1,762	253	161	92
	예·체능	7,200	3,059	4,141	5,806	2,347	3,459	1,359	688	671	35	24	11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 표 Ⅲ-2-3 ■ 대학원유형별 대학원과정별 성별 학생 수(2013)

(단위: 명)

		전체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329,822	170,870	158,952	263,884	130,184	133,700	53,384	31,693	21,691	12,554	8,993	3,561
대학 부설 대학원	소계	321,076	165,961	155,115	257,232	126,529	130,703	51,630	30,656	20,974	12,214	8,776	3,438
	일반대학원	148,978	83,068	65,910	89,362	46,465	42,897	47,701	28,028	19,673	11,915	8,575	3,340
	전문대학원	36,856	20,097	16,759	32,628	17,268	15,360	3,929	2,628	1,301	299	201	98
	특수대학원	135,242	62,796	72,446	135,242	62,796	72,446	-	-	-	-	-	-
대학원 대학	소계	8,746	4,909	3,837	6,652	3,655	2,997	1,754	1,037	717	340	217	123
	일반대학원	261	90	171	135	40	95	125	50	75	1	-	1
	전문대학원	7,692	4,439	3,253	5,724	3,235	2,489	1,629	987	642	339	217	122
	특수대학원	793	380	413	793	380	413	-	-	-	-	-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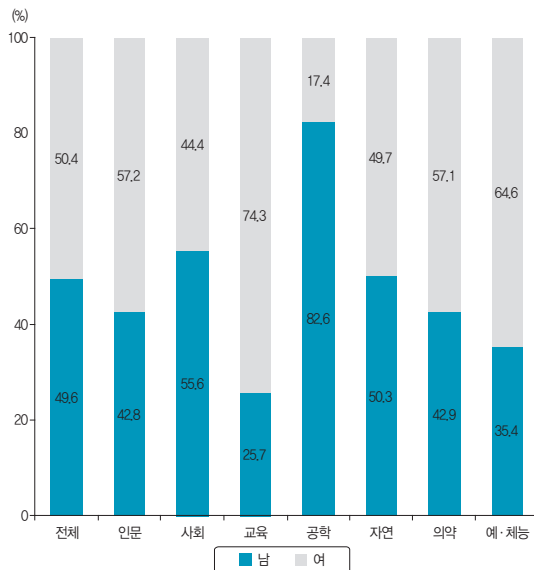
2) 입학

2013년 대학원 입학생 수는 128,860명으로 이 중 석사과정 입학생은 101,940명, 박사과정 입학생은 24,920명으로 나타났다(〈표 Ⅲ-2-4〉 참조). 석사과정 입학생 중 남학생은 50,556명(50.4%), 여학생은 51,384명(49.6%)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조금 많았다. 박사과정 입학생(석·박사통합과정포함, 이하 동일)은 남학생이 15,062명(60.4%), 여학생이 9,858명(38.6%)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았으며, 석사과정 입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비율이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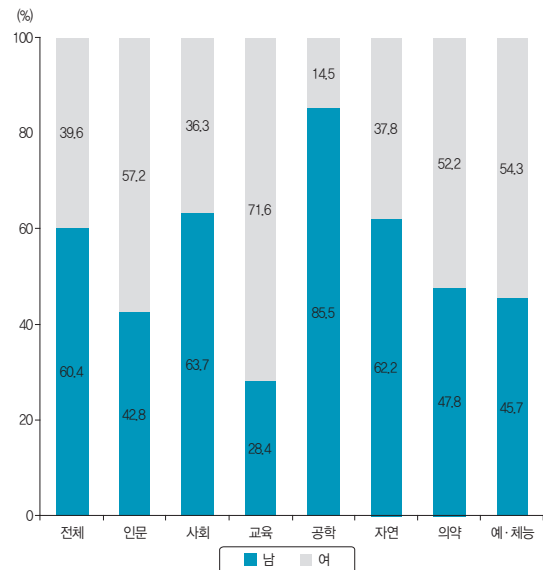
2013년 계열별 석사과정 입학생을 살펴보면(〈표 Ⅲ-2-4〉 참조), 사회계열이 28,810명으로 전체 입학생 중 28.3%를 차지했고, 교육계열이 17.3%(17,661명)를 차지하고 있었다. 공학계열(15.3%)과 인문계열(14.3%)도 입학생 중 비중이 10%가 넘었다. 반면 의약계열(9.5%), 자연계열(7.8%), 예·체능계열(7.5%)은 다른 계열에 비해 입학생 비중이 낮은 편이었다. 석사과정 입학생 중 여학생의 비율이 높은 계열은 교육계열(74.3%), 예·체능계열(64.6%), 인문계열(57.2%), 의약계열(57.1%)이었고, 자연계열(49.7%), 사회계열(44.4%), 공학계열(42.9%)은 남학생의 비해 여학생이 적었다.

2013년 계열별 박사과정 입학생을 살펴보면(〈표 Ⅲ-2-4〉 참조), 공학계열 입학생(6,085명, 24.4%)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사회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 인문계열, 교육계열, 예·체능계열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교육계열(71.6%)의 여학생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인문계열(57.2%), 예·체능계열(54.3%), 의약계열(52.2%)도 남학생보다 여학생 비율이 높았다. 반면 자연계열(37.8%), 사회계열(36.3%), 공학계열(28.4%)은 남학생보다 여학생 비율이 낮았다.

대학원 입학생의 연령을 보면(〈표 Ⅲ-2-6〉 참조),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입학생 모두 2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석사과정은 25~29세 사이의 입학생이 32.8%로 가장 많았고, 박사과정도 25~29세 사이의 입학생이 27.9%로 가장 많았다. 석사과정의 입학생 중 20대의 비중은 56.2%, 30대는 25.2%, 40대는 13.8%, 50대는 4.4%, 60대는 0.5%이었다. 박사과정은 20대가 40.0%, 30대 33.0%, 40대가 18.7%, 50대가 7.7%, 60대가 0.7%이었다.



■ 그림 Ⅲ-2-6 ■ 계열별 석사과정 입학생 성비(2013)



■ 그림 Ⅲ-2-7 ■ 계열별 박사과정 입학생 성비(2013)

표 Ⅲ-2-4 지역별 계열별 대학원과정별 성별 입학생 수(2013)

(단위: 명)

		전체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126,860	65,618	61,242	101,940	50,556	51,384	20,563	12,006	8,557	4,357	3,056	1,301
수도권	소계	71,510	35,556	35,954	57,632	27,339	30,293	10,673	5,992	4,681	3,205	2,225	980
	인문	11,247	4,933	6,314	9,442	4,152	5,290	1,681	714	967	124	67	57
	사회	21,443	11,975	9,468	18,497	10,110	8,387	2,799	1,776	1,023	147	89	58
	교육	9,169	2,009	7,160	8,373	1,793	6,580	773	209	564	23	7	16
	공학	10,916	8,983	1,933	7,704	6,247	1,457	1,832	1,569	263	1,380	1,167	213
	자연	5,905	2,899	3,006	3,797	1,653	2,144	1,132	620	512	976	626	350
	의약	6,484	2,549	3,935	4,517	1,620	2,897	1,438	672	766	529	257	272
	예·체능	6,346	2,208	4,138	5,302	1,764	3,538	1,018	432	586	26	12	14
비수도권	소계	55,350	30,062	25,288	44,308	23,217	21,091	9,890	6,014	3,876	1,152	831	321
	인문	6,113	2,503	3,610	5,165	2,107	3,058	900	373	527	48	23	25
	사회	12,387	7,243	5,144	10,313	5,910	4,403	2,027	1,308	719	47	25	22
	교육	10,321	3,055	7,266	9,288	2,752	6,536	1,019	295	724	14	8	6
	공학	10,747	9,087	1,660	7,874	6,619	1,255	2,411	2,080	331	462	388	74
	자연	6,089	3,616	2,473	4,151	2,344	1,807	1,457	940	517	481	332	149
	의약	6,844	3,346	3,498	5,204	2,551	2,653	1,556	750	806	84	45	39
	예·체능	2,849	1,212	1,637	2,313	934	1,379	520	268	252	16	10	6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표 Ⅲ-2-5 대학원유형별 대학원과정별 성별 입학생 수(2013)

(단위: 명)

		전체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126,860	65,618	61,242	101,940	50,556	51,384	20,563	12,006	8,557	4,357	3,056	1,301
대학 부설 대학원	소계	123,472	63,760	59,712	99,257	49,094	50,163	19,956	11,667	8,289	4,259	2,999	1,260
	일반대학원	63,704	35,068	28,636	40,998	21,395	19,603	18,536	10,743	7,793	4,170	2,930	1,240
	전문대학원	13,536	7,434	6,102	12,027	6,441	5,586	1,420	924	496	89	69	20
	특수대학원	46,232	21,258	24,974	46,232	21,258	24,974	-	-	-	-	-	-
대학원 대학	소계	3,388	1,858	1,530	2,683	1,462	1,221	607	339	268	98	57	41
	일반대학원	79	32	47	46	18	28	33	14	19	-	-	-
	전문대학원	2,971	1,674	1,297	2,299	1,292	1,007	574	325	249	98	57	41
	특수대학원	338	152	186	338	152	186	-	-	-	-	-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 Ⅲ. 대학원 ■

■ 표 Ⅲ-2-6 ■ 연도별 연령별 입학생 수(2006~2013)

(단위: 명)

	석사								박사							
	전체	~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9세	50~59세	60세~	전체	~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9세	50~59세	60세~
2006	93,907	20,000	34,487	14,135	10,254	15,031	-	-	17,005	759	4,558	4,236	2,986	4,466	-	-
2007	95,977	20,395	35,858	13,950	10,668	15,106	-	-	17,979	840	5,078	4,196	3,114	4,751	-	-
2008	95,184	20,149	36,079	13,703	10,422	14,831	-	-	18,188	938	5,134	4,191	3,128	4,797	-	-
2009	101,159	21,656	40,010	14,158	10,374	11,727	2,926	308	18,929	1,037	5,452	4,082	3,201	3,760	1,298	99
2010	105,731	23,016	39,842	15,302	10,936	12,710	3,553	372	21,227	1,332	5,994	4,516	3,439	4,202	1,581	163
2011	105,353	24,033	37,590	15,695	10,775	13,172	3,733	355	21,519	1,689	6,082	4,451	3,316	4,193	1,630	158
2012	102,788	24,046	34,915	15,436	10,128	13,573	4,222	468	23,328	2,345	6,443	4,832	3,327	4,405	1,816	160
2013	101,940	23,857	33,476	15,791	9,860	14,021	4,467	468	24,920	3,008	6,950	4,815	3,401	4,659	1,909	178

주: 1) 2008년 호남대학교교육대학원 연령별 입학자가 전형별 입학자보다 많게 산출되고 있어서, 2008년 교육기본통계(113,371명)와 다르게 나타남.
 2) 2006~2008년의 40~49세 범주에는 '40세 이상'의 값을 제시함. 당시에는 50~59, 60세 이상의 범주를 별도로 구분하여 조사하지 않고, 해당 대상을 40세 이상에 포함시켜 함께 집계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 표 Ⅲ-2-7 ■ 계열별 연령별 입학생 수(2013)

(단위: 명)

	석사								박사							
	전체	~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9세	50~59세	60세~	전체	~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9세	50~59세	60세~
전체	101,940	23,857	33,476	15,791	9,860	14,021	4,467	468	24,920	3,008	6,950	4,815	3,401	4,659	1,909	178
인문	14,607	2,751	4,189	2,257	1,499	2,646	1,074	191	2,753	54	568	526	408	756	374	67
사회	28,810	4,637	7,927	4,980	3,582	5,547	1,957	180	5,020	93	730	841	795	1,618	871	72
교육	17,661	3,488	5,772	3,139	2,129	2,556	543	34	1,829	21	365	437	345	499	152	10
공학	15,578	4,656	6,463	1,829	1,000	1,302	312	16	6,085	1,488	2,264	815	571	684	252	11
자연	7,948	3,529	2,838	604	311	473	172	21	4,046	1,098	1,625	561	336	318	102	6
의약	9,721	2,394	3,852	1,881	695	729	163	7	3,607	225	984	1,255	631	422	86	4
예·체능	7,615	2,402	2,435	1,101	644	768	246	19	1,580	29	414	380	315	362	72	8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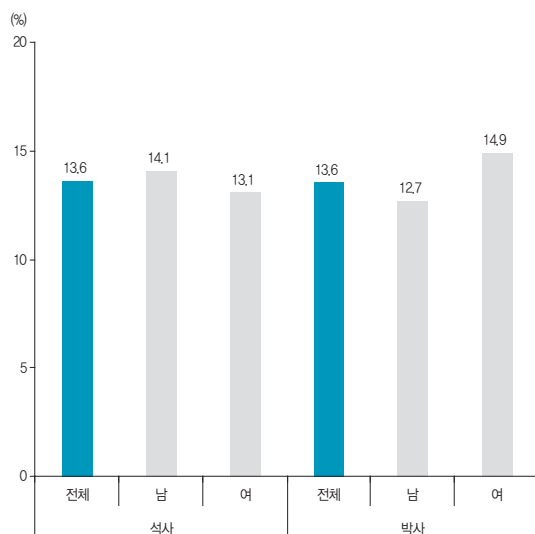
3) 학생 변동 상황²⁵⁾

① 휴학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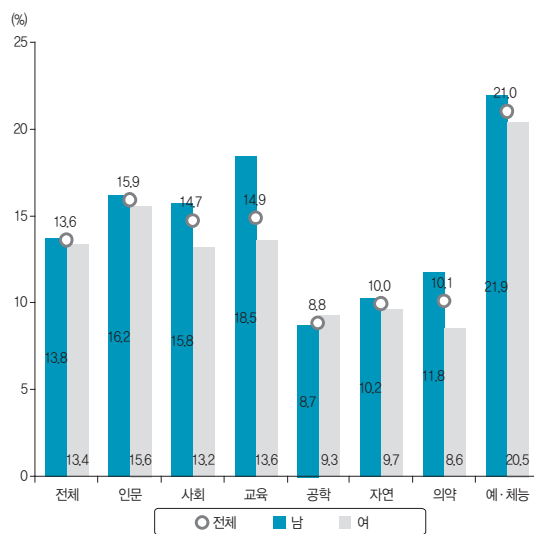
대학원의 휴학생 수를 보면, 2006학년도 전체 휴학생 수는 41,745명이었으며, 휴학생 수가 해마다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12학년도에는 휴학생 수가 44,747명으로 나타났다. 2006학년도 휴학생 중 남학생은 22,242명으로 전체 휴학생 중 53.3%를 차지하였으며, 2012학년도 휴학생 중 남학생은 23,513명으로 52.5%를 차지하였다. 한편 휴학생의 남녀 비율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대학원 과정별로 보면, 석사과정 휴학생은 지난 7년간 3만 5천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고, 2012학년도 석사과정 학생의 휴학률은 13.6%이었다.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도 그리 큰 변화가 없었는데, 2012학년도 남학생의 휴학률은 14.1%, 여학생은 13.1%로 남학생의 휴학률이 약간 높았다.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은 2006학년도 휴학생 수가 6,613명에서 2012학년도 8,444명으로 늘었고, 2012학년도 휴학률은 13.6%이었다. 박사과정 남학생의 휴학률은 12.7%, 여학생은 14.9%로 여학생의 휴학률이 남학생보다 2.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학년도 계열별로 휴학률을 살펴보면, 예·체능계열의 휴학률이 21.0%로 가장 높았고, 인문계열이 15.9%, 교육계열이 14.9%, 사회계열이 14.7%, 의약계열이 10.1%, 자연계열이 10.0%, 공학계열이 8.8%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휴학률은 13.8%, 여학생은 13.4%로 남·여학생간의 휴학률의 차이가 크지 않은 편이었다. 공학계열을 제외하고 모든 계열에서 남학생의 휴학률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특히 교육계열에서 남·여학생간의 차이가 가장 컸는데, 남학생의 휴학률이 18.5%, 여학생의 휴학률이 13.6%이었다. 반면 남·여학생간의 휴학률 차이가 가장 적었던 계열은 인문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로, 휴학률이 0.6%p차이가 났다.



■ 그림 III-2-8 ■ 대학원 과정별 성별 휴학률(2012, 학년도 기준)



■ 그림 III-2-9 ■ 계열별 성별 휴학률(2012, 학년도 기준)

25)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휴학과 중도탈락 현황은 조사년도 기준으로 전년도 3월 1일부터 차년도(조사년도) 2월 28일을 조사 기준으로 하는 자료임을 밝혀둔다.

26) 휴학과 관련한 자료(학년도 기준)의 자료기준일은 당해년도 3월 1일~차년도 2월 28일임

■ Ⅲ. 대학원 ■

■ 표 Ⅲ-2-8 ■ 연도별 대학원과정별 성별 휴학생 수(2006~2012, 학년도 기준)

(단위: 명)

	전체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06	41,745	22,242	19,503	35,132	18,147	16,985	6,445	3,982	2,463	168	113	55
2007	42,108	22,137	19,971	34,906	17,772	17,134	7,000	4,246	2,754	202	119	83
2008	43,981	22,626	21,355	36,439	18,296	18,143	7,257	4,141	3,116	285	189	96
2009	42,297	21,309	20,988	34,787	17,067	17,720	7,151	4,009	3,142	359	233	126
2010	45,071	22,088	22,983	36,898	17,624	19,274	7,658	4,129	3,529	515	335	180
2011	46,336	22,557	23,779	37,656	17,765	19,891	8,090	4,412	3,678	590	380	210
2012	44,747	23,513	21,234	36,303	18,599	17,704	7,753	4,451	3,302	691	463	228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 표 Ⅲ-2-9 ■ 지역별 계열별 대학원과정별 성별 휴학생 수(2012, 학년도 기준)

(단위: 명)

		전체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44,747	23,513	21,234	36,303	18,599	17,704	7,753	4,451	3,302	691	463	228
수도권	소계	26,368	13,381	12,987	21,430	10,613	10,817	4,386	2,405	1,981	552	363	189
	인문	4,801	2,368	2,433	3,819	1,879	1,940	926	464	462	56	25	31
	사회	8,647	5,274	3,373	7,410	4,489	2,921	1,163	735	428	74	50	24
	교육	3,857	1,022	2,835	3,538	944	2,594	305	74	231	14	4	10
	공학	2,257	1,834	423	1,614	1,290	324	532	450	82	111	94	17
	자연	1,331	635	696	800	368	432	400	187	213	131	80	51
	의약	1,867	970	897	1,216	582	634	504	286	218	147	102	45
	예·체능	3,608	1,278	2,330	3,033	1,061	1,972	556	209	347	19	8	11
비수도권	소계	18,379	10,132	8,247	14,873	7,986	6,887	3,367	2,046	1,321	139	100	39
	인문	2,363	1,100	1,263	1,887	873	1,014	459	217	242	17	10	7
	사회	4,134	2,703	1,431	3,408	2,211	1,197	714	484	230	12	8	4
	교육	5,117	1,961	3,156	4,672	1,816	2,856	439	142	297	6	3	3
	공학	2,210	1,875	335	1,601	1,365	236	568	477	91	41	33	8
	자연	1,417	895	522	930	596	334	448	275	173	39	24	15
	의약	1,675	947	728	1,144	594	550	510	333	177	21	20	1
	예·체능	1,463	651	812	1,231	531	700	229	118	111	3	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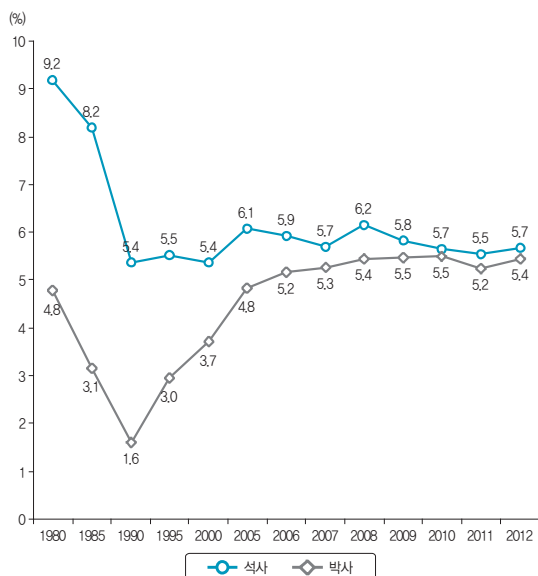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② 중도탈락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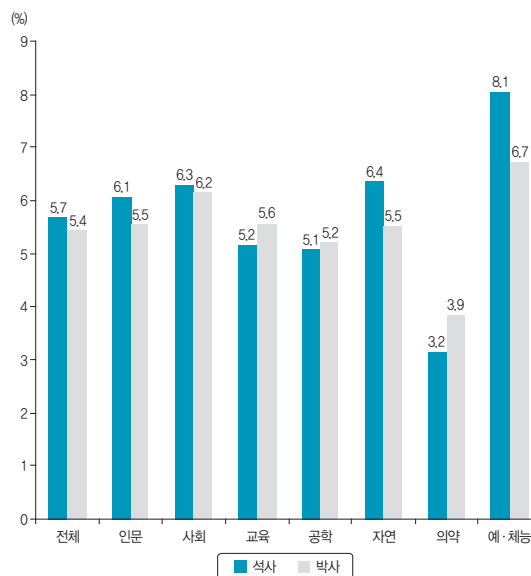
중도탈락률²⁸⁾의 추이를 보면, 1980학년도 석사과정 학생의 중도탈락률은 9.2%로 거의 10명 중 한 명꼴로 대학원을 그만두었다면, 1985학년도에는 중도탈락률이 8%대로 낮아졌고, 1990년대는 5%대로 더 낮아졌다. 2000년대에도 석사과정 학생의 중도탈락률이 2005학년도(6.1%)와 2008학년도(6.2%)를 제외하면 5%대를 유지하였다. 2012학년도 석사과정 학생의 중도탈락률은 5.7%이었다.

박사과정 학생(석·박사통합과정포함, 이하 동일)의 중도탈락률은 석사과정과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1980년대와 1990년대보다 오히려 2000년대의 중도탈락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80학년도 박사과정 중도탈락률은 4.8%로 석사과정의 절반수준 정도였다. 1990학년도까지 중도탈락률이 계속 줄어 1.6%까지 중도탈락률이 줄어들었다. 그 이후 중도탈락률은 계속 늘어났고, 2006학년도 이후 박사과정 중도탈락률은 5%대를 유지하고 있고, 2012학년도 중도탈락률은 5.4%이었다.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중도탈락률은 현재로 오면서 그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2012학년도에는 0.3%p차이를 보였다.

계열별로 중도탈락률을 보면, 석사과정은 예·체능계열의 중도탈락률이 8.1%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자연계열(6.4%), 사회계열(6.3%), 인문계열(6.1%)이 중도탈락률이 6%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열(5.2%)과 공학계열(5.1%)은 중도탈락률이 5%를 조금 넘었고, 의약계열이 3.2%로 중도탈락률이 가장 낮았다. 박사과정 학생의 중도탈락률도 예·체능계열이 6.7%로 가장 높았으며, 사회계열(6.2%)도 중도탈락률이 6%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약계열이 중도탈락률이 3.9%로 가장 낮았다. 그 외 인문계열(5.5%), 교육계열(5.6%), 공학계열(5.2%), 자연계열(5.5%)은 중도탈락률이 5%대로 나타났다.



■ 그림 III-2-10 ■ 연도별 대학원과정별 중도탈락률
(1980~2012, 학년도 기준)



■ 그림 III-2-11 ■ 계열별 대학원과정별 중도탈락률
(2012, 학년도 기준)

27) 중도탈락과 관련한 자료(학년도 기준)의 자료기준일은 당해연도 3월 1일~차년도 2월 28일임.

28) 중도탈락률(학년도 기준)=(중도탈락 학생 수/재적학생 수)×100

■ Ⅲ. 대학원 ■

■ 표 Ⅲ-2-10 ■ 연도별 대학원과정별 성별 중도탈락 학생 수(1980~2012, 학년도 기준)

(단위: 명)

	전체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1980	2,943	2,535	408	2,750	2,355	395	193	180	13	-	-	-
1985	5,055	4,064	991	4,725	3,790	935	330	274	56	-	-	-
1990	4,115	3,091	1,024	3,884	2,928	956	231	163	68	-	-	-
1995	5,743	4,193	1,550	5,188	3,767	1,421	555	426	129	-	-	-
2000	11,789	7,762	4,027	10,599	6,846	3,753	1,190	916	274	-	-	-
2005	16,627	9,650	6,977	14,529	8,171	6,358	2,098	1,479	619	-	-	-
2006	16,850	9,685	7,165	14,468	8,021	6,447	2,277	1,588	689	105	76	29
2007	16,722	9,562	7,160	14,215	7,887	6,328	2,367	1,599	768	140	76	64
2008	18,240	10,467	7,773	15,548	8,725	6,823	2,530	1,657	873	162	85	77
2009	17,663	9,674	7,989	14,902	7,944	6,958	2,553	1,600	953	208	130	78
2010	17,831	9,749	8,082	14,883	7,896	6,987	2,691	1,679	1,012	257	174	83
2011	18,105	9,682	8,423	14,976	7,726	7,250	2,803	1,755	1,048	326	201	125
2012	18,585	9,913	8,672	15,190	7,822	7,368	2,963	1,827	1,136	432	264	168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 표 Ⅲ-2-11 ■ 지역별 계열별 대학원과정별 성별 중도탈락 학생 수(2012, 학년도 기준)

(단위: 명)

		전체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18,585	9,913	8,672	15,190	7,822	7,368	2,963	1,827	1,136	432	264	168
수도권	소계	10,192	5,240	4,952	8,386	4,158	4,228	1,498	902	596	308	180	128
	인문	1,775	863	912	1,491	714	777	255	136	119	29	13	16
	사회	3,202	1,901	1,301	2,770	1,621	1,149	413	269	144	19	11	8
	교육	1,393	433	960	1,279	396	883	105	35	70	9	2	7
	공학	1,237	1,019	218	892	717	175	263	236	27	82	66	16
	자연	776	359	417	495	203	292	168	95	73	113	61	52
	의약	581	237	344	403	147	256	128	66	62	50	24	26
	예·체능	1,228	428	800	1,056	360	696	166	65	101	6	3	3
비수도권	소계	8,393	4,673	3,720	6,804	3,664	3,140	1,465	925	540	124	84	40
	인문	914	393	521	766	321	445	141	67	74	7	5	2
	사회	2,246	1,466	780	1,916	1,246	670	323	215	108	7	5	2
	교육	1,740	587	1,153	1,598	541	1,057	142	46	96	-	-	-
	공학	1,354	1,143	211	932	794	138	381	316	65	41	33	8
	자연	891	505	386	605	328	277	232	146	86	54	31	23
	의약	588	293	295	443	211	232	135	75	60	10	7	3
	예·체능	660	286	374	544	223	321	111	60	51	5	3	2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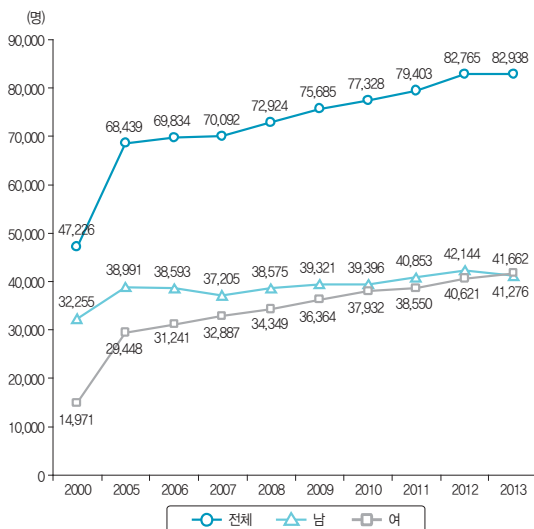
4) 졸업·취업²⁹⁾

①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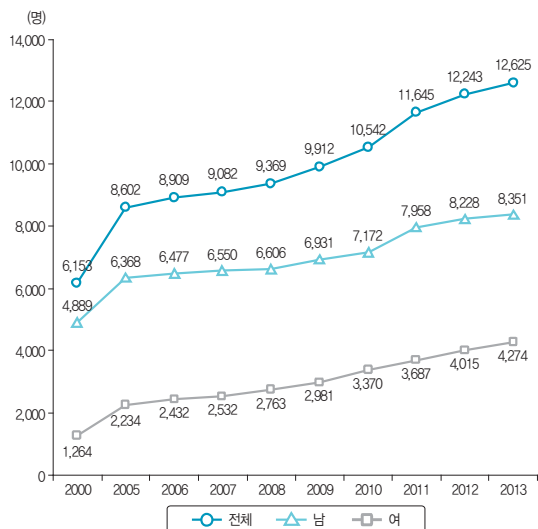
대학원의 학위취득자 수³⁰⁾는 1980년 5,552명에서 2013년 95,563명으로 약 17배 증가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 학위취득자가 1980년 4,561명에서 2013년 49,627명으로 10배 이상 늘어났고, 여자 학위취득자도 1980년 991명에서 2013년 45,936명으로 46배나 늘어났다. 1980년부터 학위취득자 수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많았지만, 현재로 올수록 그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1980년 학위취득자 중 여자의 비율은 17.8%였지만, 2013년에는 학위취득자 중 여자의 비율이 48.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2-11) 참조).

대학원과정별 학위취득자 수를 보면, 석사학위취득자 수는 2000년 47,226명에서 2013년 82,938명으로 1.7배정도 늘어났다. 성별로 보면, 2000년 석사학위취득자 중 여자의 비율은 31.7%였지만, 여자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 2013년에는 석사학위취득자 중 여자의 비율(50.2%)이 절반을 넘었다. 박사학위취득자(석·박사통합과정 포함, 이하 동일)를 보면, 2000년 6,153명이었고, 2010년에는 박사학위취득자가 만명을 넘었다. 2010년 이후로도 박사학위취득자 수는 계속 늘고 있고, 2013년 박사학위취득자는 12,625명이었다. 박사학위취득자 중 여자의 비율은 2000년 20.5%에서 점점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2013년에는 여자의 비율이 33.9%이었다. 박사학위취득자 중 여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자의 비중이 2배 이상 많았다.

(표 Ⅲ-2-13)을 보면, 일반대학원 기준 2013년 계열별 대학원과정별 평균 졸업소요 기간을 알 수 있는데, 대학원 졸업을 위해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모두 합쳐 평균적으로 3.2년이 소요되며 석사과정은 2.4년, 박사과정은 5.1년이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석사과정 졸업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계열은 공학계열로 2.1년이었고, 가장 긴 계열은 인문계열과 예·체능계열로 각각 3.0년이 소요되었다. 박사과정 중에는 의학계열이 4.2년으로 졸업을 위해 가장 짧은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인문계열이 6.5년으로 가장 긴 기간이 졸업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Ⅲ-2-12 ■ 연도별 성별 석사학위 취득자 수 (2000~2013)



■ 그림 Ⅲ-2-13 ■ 연도별 성별 박사학위 취득자 수 (2000~2013)

29) 이 절은 교육기본통계에 근거해서 작성하되, 취업률을 포함하여 일반대학원의 졸업 상황에 대한 자료는 취업통계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였음.

30) 학위취득자 수는 전년도 8월 졸업자 및 당해연도 2월 졸업자를 포함함.

■ Ⅲ. 대학원 ■

■ 표 Ⅲ-2-12 ■ 연도별 대학원과정별 성별 학위취득자 수(1980~2013)

(단위: 명)

	전체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1980	5,552	4,561	991	-	-	-	-	-	-	-	-	-
1985	18,037	14,808	3,229	-	-	-	-	-	-	-	-	-
1990	22,269	17,233	5,036	-	-	-	-	-	-	-	-	-
1995	31,505	23,033	8,472	-	-	-	-	-	-	-	-	-
2000	53,379	37,144	16,235	47,226	32,255	14,971	6,153	4,889	1,264	-	-	-
2005	77,041	45,359	31,682	68,439	38,991	29,448	8,602	6,368	2,234	-	-	-
2006	78,743	45,070	33,673	69,834	38,593	31,241	8,909	6,477	2,432	-	-	-
2007	79,174	43,755	35,419	70,092	37,205	32,887	8,995	6,476	2,519	87	74	13
2008	82,293	45,181	37,112	72,924	38,575	34,349	9,344	6,593	2,751	25	13	12
2009	85,597	46,252	39,345	75,685	39,321	36,364	9,713	6,785	2,928	199	146	53
2010	87,870	46,568	41,302	77,328	39,396	37,932	10,252	6,967	3,285	290	205	85
2011	91,048	48,811	42,237	79,403	40,853	38,550	11,040	7,496	3,544	605	462	143
2012	95,008	50,372	44,636	82,765	42,144	40,621	11,436	7,635	3,801	807	593	214
2013	95,563	49,627	45,936	82,938	41,276	41,662	11,751	7,712	4,039	874	639	235

주: 대학원 학위취득자(해당연도)는 전년도 8월, 해당연도 2월 학위취득자를 대상으로 함.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 표 Ⅲ-2-13 ■ 지역별 계열별 대학원과정별 성별 학위취득자 수(2013)

(단위: 명)

		전체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95,563	49,627	45,936	82,938	41,276	41,662	11,751	7,712	4,039	874	639	235
수도권	소계	54,059	27,330	26,729	47,216	22,964	24,252	6,352	4,034	2,318	491	332	159
	인문	7,810	3,666	4,144	7,049	3,296	3,753	730	354	376	31	16	15
	사회	16,550	9,477	7,073	15,109	8,496	6,613	1,412	966	446	29	15	14
	교육	7,453	1,509	5,944	7,127	1,416	5,711	323	92	231	3	1	2
	공학	8,870	7,257	1,613	7,289	5,845	1,444	1,407	1,255	152	174	157	17
	자연	4,570	2,168	2,402	3,428	1,486	1,942	990	587	403	152	95	57
	의약	4,827	1,992	2,835	3,703	1,396	2,307	1,027	550	477	97	46	51
	예·체능	3,979	1,261	2,718	3,511	1,029	2,482	463	230	233	5	2	3
비수도권	소계	41,504	22,297	19,207	35,722	18,312	17,410	5,399	3,678	1,721	383	307	76
	인문	3,793	1,684	2,109	3,458	1,538	1,920	331	144	187	4	2	2
	사회	9,629	5,575	4,054	8,665	4,897	3,768	959	676	283	5	2	3
	교육	8,709	2,385	6,324	8,281	2,237	6,044	427	147	280	1	1	-
	공학	8,149	6,861	1,288	6,567	5,438	1,129	1,404	1,259	145	178	164	14
	자연	4,294	2,486	1,808	3,185	1,744	1,441	933	612	321	176	130	46
	의약	5,220	2,609	2,611	4,125	1,936	2,189	1,080	666	414	15	7	8
	예·체능	1,710	697	1,013	1,441	522	919	265	174	91	4	1	3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 표 Ⅲ-2-14 ■ 계열별 대학원과정별 평균 졸업소요기간(일반대학원, 2013)

(단위: 년)

	전체	석사과정	박사과정
전체	3.2	2.4	5.1
인문	3.7	3.0	6.5
사회	3.2	2.5	4.8
교육	3.4	2.7	5.3
공학	2.9	2.1	5.5
자연	3.1	2.2	5.5
의약	3.1	2.5	4.2
예·체능	3.4	3.0	4.6

주: 평균 졸업소요기간= 졸업소요기간의 총합/재적학생 수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DB

② 취업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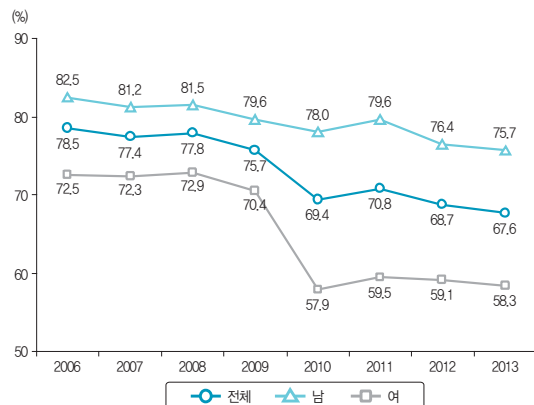
2013년 일반대학원의 졸업자 중에서 취업자 수는 24,133명으로 전년대비 863명 감소하였다. 이는 졸업자 수가 전년대비 555명 증가한 것과는 대비를 이룬다. 취업률은 2006년~2009년 사이 80%를 유지하다가 2010년~2011년 취업률이 70%대로 떨어졌고, 2012년과 2013년 취업률은 60%대로 떨어졌다(표 Ⅲ-2-14 참조). 취업률이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 중 하나는 취업통계조사가 2009년까지는 기존의 대학자체에서 조사하는 방식을 채택하다가 2010년 건강보험 DB와의 연계를 통한 조사 방식으로 전환되고, 취업자 구분 기준도 바뀌면서 취업률 산정하는 방식이 다소 달라졌기 때문이다.

석사학위취득자의 취업률을 보면, 2006년 취업률은 78.5%이었고, 2009년까지 취업률은 70%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2010년 취업률이 69.4%로 낮아졌다가 2011년(70.8%) 약간 높아졌지만, 2012년(68.7%)과 2013년(67.6%)에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2006년~2008년까지 취업률이 80%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이후 취업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여자의 취업률은 남자에 비해 낮았는데, 2006년~2009년 70%대를 유지하다가 2010년(57.9%) 취업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2006년에서 2013년 사이 석사학위취득자 남녀 모두 취업률이 하락하고 있었다. 남자의 취업률이 여자에 비해 높았는데, 이들 간의 차이는 2010년과 2011년 20%p이상 벌어졌다가 2013년 약간 줄어들었는데, 남자 취업률이 75.7%, 여자 취업률이 58.3%이었다. 계열별로 2013년 취업률을 보면, 의약계열이 85.2%로 취업률이 가장 높았고, 교육계열(70.0%)과 공학계열(75.8%)이 그 다음으로 높았고, 예·체능계열(30.3%)과 인문계열(49.1%)은 취업률이 50%에 미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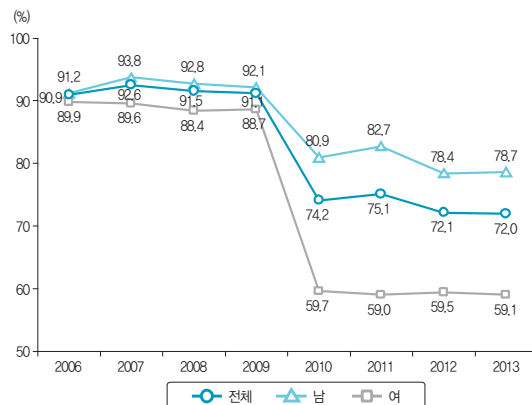
박사학위취득자(석·박사통합과정포함, 이하 동일)의 취업률을 보면, 2006년 취업률은 90.9%이었고, 2009년까지 취업률은 90%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2010년 이후 박사학위 취득자의 취업률이 70%대로 낮아졌으며 2013년(72.0%)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2006년~2009년까지 취업률이 90%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2010년과 2011년에는 80%를 조금 넘었고, 2012년과 2013년에는 70%대로 감소하였다. 여자는 2006년~2009년 80%대를 유지하다가 2010년(59.7%) 취업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2013년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2006년에서 2013년 사이 박사학위취득자 남녀 모두 취업률이 하락하고 있었다. 남자의 취업률이 여자에 비해 높았는데, 이들 간의 차이는 2010년과 2011년 20%p이상 벌어졌다가 2013년 약간 줄어들었는데, 남자 취업률이 78.7%, 여자 취업률이 59.1%이었다. 계열별로 2013년 취업률을 보면, 박사학위취득자 역시 의약계열(84.8%)이 취업률이 가장 높았고, 공학계열(80.6%), 교육계열(74.6%), 사회계열(70.2%), 자연계열(67.9%), 예·체능계열(49.9%), 인문계열(35.1%) 순이었다.

대학원의 학제의 특성상 이미 취업한 상태인 학생들(기취업자)이 존재한다. 위에서 제시된 취업률에는 기취업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기취업자를 뺀 취업률을 구하면 위에서 제시한 취업률과 약간이 차이가 생긴다. 취업률과 기취업자를 제외한 취업률을 계열별로 비교해 보면, 석사학위취득자의 경우 의약계열이 차이가 가장 많이 났다. 의약계열은 취업률이 85.2%인 반면, 기취업자를 제외한 취업률이 14.3%로 70.9%p 차이가 났고, 교육계열도 취업률(70.0%)과 기취업자를 제외한 취업률(27.9%)이 42.1%p 차이가 났다. 박사학위취득자도 의약계열이 가장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의약계열은 취업률이 84.8%인 반면, 기취업자를 제외한 취업률이 12.1%로 72.7%p 차이가 났고, 교육계열도 취업률(74.6%)과 기취업자를 제외한 취업률(13.8%)이 60.8%p 차이가 났다. 석사학위취득자보다 박사학위취득자가 취업률과 기취업자를 제외한 취업률 간 차이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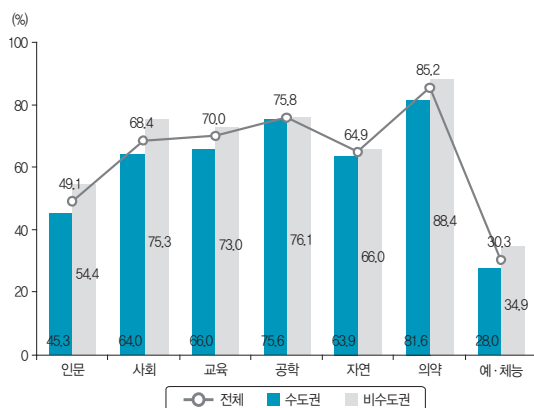
31)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업통계조사에서는 2006년부터 조사대상자의 범위를 넓혀서 학부졸업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대학원의 졸업자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음. 따라서 이 소절에서 다루는 대학원 졸업자는 모두 취업통계조사에서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일반대학원 졸업자로 범위를 한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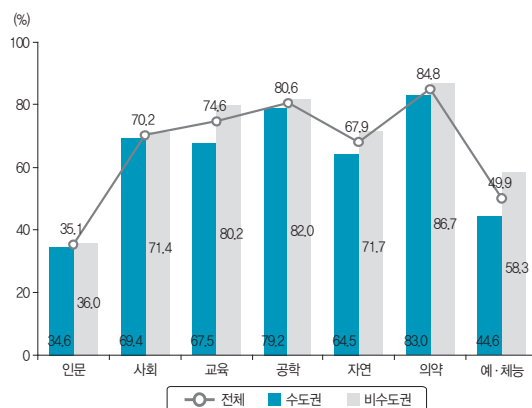
■ 그림 Ⅲ-2-14 ■ 연도별 성별 석사 취업률(2006~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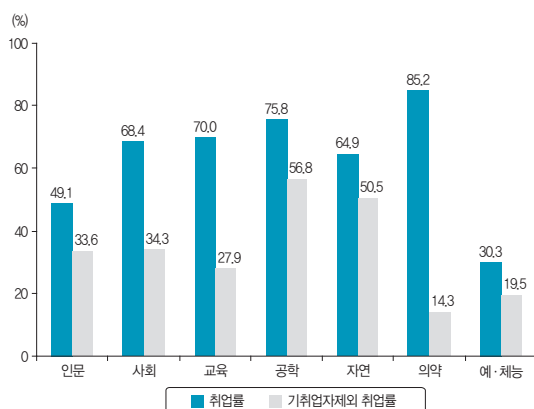
■ 그림 Ⅲ-2-15 ■ 연도별 성별 박사 취업률(2006~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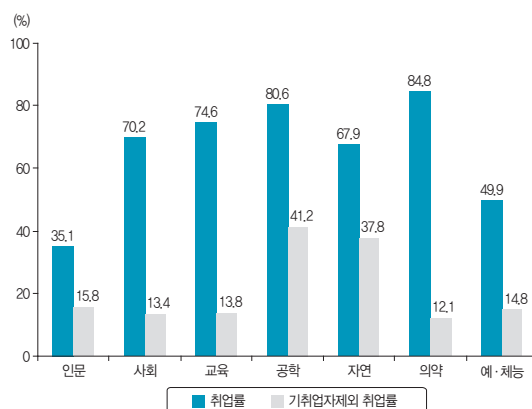
■ 그림 Ⅲ-2-16 ■ 계열별 지역별 석사 취업률(2013)



■ 그림 Ⅲ-2-17 ■ 계열별 지역별 박사 취업률(2013)



■ 그림 Ⅲ-2-18 ■ 계열별 기취업자 대비 취업자비율 (석사, 2013)



■ 그림 Ⅲ-2-19 ■ 계열별 기취업자 대비 취업자비율 (박사, 2013)

■ Ⅲ. 대학원 ■

■ 표 Ⅲ-2-15 ■ 연도별 대학원과정별 성별 취업 현황(일반대학원, 2006~2013)

(단위: 명, %)

	취업자 수								
	전체			석사과정			박사과정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06	24,664	16,234	8,430	17,180	10,785	6,395	7,484	5,449	2,035
2007	24,190	15,533	8,657	16,514	9,967	6,547	7,676	5,566	2,110
2008	24,835	15,813	9,022	17,127	10,299	6,828	7,708	5,514	2,194
2009	25,356	16,055	9,301	17,427	10,482	6,945	7,929	5,573	2,356
2010	24,054	18,198	7,858	18,872	10,843	6,029	7,182	5,355	1,827
2011	25,160	16,848	8,312	17,603	11,193	6,410	7,557	5,655	1,902
2012	24,996	16,290	8,706	17,446	10,792	6,654	7,550	5,498	2,052
2013	24,133	15,318	8,815	16,500	9,825	6,675	7,633	5,493	2,140
	취업률								
	전체			석사과정			박사과정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06	81.9	85.2	76.1	78.5	82.5	72.5	90.9	91.2	89.9
2007	81.7	85.3	75.8	77.4	81.2	72.3	92.6	93.8	89.6
2008	81.6	85.1	76.2	77.8	81.5	72.9	91.5	92.8	88.4
2009	79.9	83.6	74.3	75.7	79.6	70.4	91.1	92.1	88.7
2010	70.7	78.9	58.3	69.4	78.0	57.9	74.2	80.9	59.7
2011	72.1	80.6	59.4	70.8	79.6	59.5	75.1	82.7	59.0
2012	69.7	77.0	59.2	68.7	76.4	59.1	72.1	78.4	59.5
2013	68.9	76.8	58.5	67.6	75.7	58.3	72.0	78.7	59.1

주: 1) 취업자에 대한 연도별 정의

- : 2004~2009년=조사기준일 시점에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일정 소득이 있는 자.
- : 2010년=조사기준일 당시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 2011년=조사기준일 당시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 : 2012~2013년=조사기준일 당시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영농업종사자.
- 교내취업자(2013년 기준): 조사 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학교법인 및 관련 기관(산학협력단, 학교기업 등)에 1년 이상 계약한 자로서, 최저임금 이상의 월 급여(월 1,015,740원, 2013년도 최저임금 4,860원을 월급여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받는 자.
- 해외취업자: 조사 기준일 당시 해외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며, 91일 이상 고용 계약한 자.
- 영농업종사자: 조사 기준일 당시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영농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2) 취업률을 구하는 방식은 연도에 따라 조금씩 변하여 왔음.

연도	취업률	취업대상자
2004~2005	(취업자/취업대상자)×100	졸업자-(진학자+입대자)
2006~2009	(취업자/취업대상자)×100	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
2010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대상자)×100	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제외인정자+외국인유학생)
201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교내취업자+해외취업자)/취업대상자)×100	
2012~2013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교내취업자+해외취업자+영농업종사자)/취업대상자)×100	

- 취업불가능자: 수형자, 사망자, 해외인민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를 포함함.
- 제외인정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종교지도자 양성 관련학과 졸업자, 여자군인 중 입관 전 훈련생,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교육대상자를 포함함.

3) 취업통계조사에서는 2012년 폐교된 명신대학교 대학원 졸업자 현황이 포함되어 2012년 교육통계연보보다 취업자 수가 9명 더 많게 집계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DB.

표 Ⅲ-2-16 지역별 계열별 대학원과정별 성별 취업자 수(일반대학원, 2013)

(단위: 명)

		전체			석사과정			박사과정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24,133	15,318	8,815	16,500	9,825	6,675	7,633	5,493	2,140
수도권	소계	12,320	7,417	4,903	8,396	4,676	3,720	3,924	2,741	1,183
	인문	679	223	456	521	139	382	158	84	74
	사회	2,104	1,239	865	1,298	643	655	806	596	210
	교육	622	145	477	410	74	336	212	71	141
	공학	4,117	3,461	656	3,042	2,465	577	1,075	996	79
	자연	2,109	1,059	1,050	1,472	650	822	637	409	228
	의약	2,110	1,070	1,040	1,248	586	662	862	484	378
	예·체능	579	220	359	405	119	286	174	101	73
비수도권	소계	11,813	7,901	3,912	8,104	5,149	2,955	3,709	2,752	957
	인문	528	201	327	443	160	283	85	41	44
	사회	1,553	1,092	461	971	629	342	582	463	119
	교육	904	247	657	585	128	457	319	119	200
	공학	3,993	3,429	564	2,908	2,427	481	1,085	1,002	83
	자연	2,060	1,306	754	1,420	833	587	640	473	167
	의약	2,383	1,393	990	1,529	844	685	854	549	305
	예·체능	392	233	159	248	128	120	144	105	39

주: <표 Ⅲ-2-15> 각주 참조.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DB.

표 Ⅲ-2-17 지역별 계열별 대학원과정별 성별 취업률(일반대학원, 2013)

(단위: %)

		전체			석사과정			박사과정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합계	68.9	76.8	58.5	67.6	75.7	58.3	72.0	78.7	59.1
	인문	45.4	54.7	41.6	49.1	57.6	46.0	35.1	48.8	27.1
	사회	69.1	75.5	60.1	68.4	75.0	61.5	70.2	76.2	56.0
	교육	71.5	81.3	68.6	70.0	77.7	68.2	74.6	85.6	69.6
	공학	77.0	79.2	66.9	75.8	78.0	67.2	80.6	82.2	64.8
	자연	65.8	72.1	59.0	64.9	70.7	59.7	67.9	74.6	56.6
	의약	85.0	91.1	78.7	85.2	92.0	79.0	84.8	89.9	78.1
	예·체능	34.8	48.8	27.8	30.3	42.8	25.7	49.9	58.7	39.2
수도권	소계	65.5	74.1	55.8	64.1	73.2	55.4	68.8	75.6	56.8
	인문	42.3	50.5	39.2	45.3	51.5	43.4	34.6	48.8	26.1
	사회	66.0	71.8	59.1	64.0	69.0	59.8	69.4	75.1	57.1
	교육	66.5	74.0	64.5	66.0	69.2	65.4	67.5	79.8	62.7
	공학	76.5	78.9	65.9	75.6	78.2	66.4	79.2	80.9	62.2
	자연	64.0	69.3	59.5	63.9	68.8	60.4	64.5	70.0	56.4
	의약	82.2	88.4	76.6	81.6	90.2	75.3	83.0	86.3	79.1
	예·체능	31.6	41.9	27.4	28.0	35.8	25.7	44.6	52.3	37.1
비수도권	소계	72.8	79.5	62.4	71.6	78.2	62.4	75.8	82.0	62.1
	인문	50.2	60.4	45.5	54.4	64.3	50.0	36.0	48.8	28.9
	사회	73.8	80.3	61.9	75.3	82.2	65.1	71.4	77.8	54.1
	교육	75.4	86.4	72.0	73.0	83.7	70.5	80.2	89.5	75.5
	공학	77.6	79.4	68.1	76.1	77.8	68.2	82.0	83.5	67.5
	자연	67.7	74.5	58.3	66.0	72.2	58.8	71.7	79.1	56.8
	의약	87.8	93.4	80.9	88.4	93.4	82.9	86.7	93.4	76.8
	예·체능	41.0	57.8	28.7	34.9	52.2	25.8	58.3	66.5	43.8

주: <표 Ⅲ-2-15> 각주 참조.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DB.

■ Ⅲ. 대학원 ■

■ 표 Ⅲ-2-18 ■ 지역별 계열별 대학원과정별 성별 기취업자 수(일반대학원, 2013)

(단위: 명)

		전체			석사과정			박사과정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11,716	7,691	4,025	6,710	4,038	2,672	5,006	3,653	1,353
수도권	소계	5,128	3,254	1,874	2,714	1,554	1,160	2,414	1,700	714
	인문	201	92	109	114	36	78	87	56	31
	사회	1,082	755	327	458	269	189	624	486	138
	교육	325	91	234	169	29	140	156	62	94
	공학	1,135	1,025	110	656	580	76	479	445	34
	자연	462	282	180	229	122	107	233	160	73
	의약	1,684	896	788	968	475	493	716	421	295
	예·체능	239	113	126	120	43	77	119	70	49
비수도권	소계	6,588	4,437	2,151	3,996	2,484	1,512	2,592	1,953	639
	인문	237	110	127	190	82	108	47	28	19
	사회	1,173	887	286	674	468	206	499	419	80
	교육	706	206	500	429	95	334	277	111	166
	공학	1,413	1,293	120	837	744	93	576	549	27
	자연	745	527	218	412	274	138	333	253	80
	의약	2,097	1,258	839	1,342	746	596	755	512	243
	예·체능	217	156	61	112	75	37	105	81	24

주: 기취업자는 조사 기준일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이고, 입학 당시에도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를 말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DB.

■ 표 Ⅲ-2-19 ■ 지역별 계열별 대학원과정별 성별 기취업자 제외 취업률(일반대학원, 2013)

(단위: %)

		전체			석사과정			박사과정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소계	35.5	38.2	31.8	40.1	44.6	35.0	24.8	26.4	21.7
	인문	28.9	28.6	29.1	33.6	34.9	33.1	15.8	16.0	15.6
	사회	26.5	22.3	32.3	34.3	31.5	37.2	13.4	11.1	18.9
	교육	23.2	19.7	24.2	27.9	30.0	27.5	13.8	7.7	16.5
	공학	52.8	52.5	54.3	56.8	56.9	56.5	41.2	41.3	40.4
	자연	46.7	47.4	46.0	50.5	51.8	49.3	37.8	39.7	34.7
	의약	13.5	11.4	15.6	14.3	13.4	15.1	12.1	8.7	16.6
	예·체능	18.5	19.8	17.8	19.5	22.4	18.5	14.8	15.7	13.6
수도권	소계	38.2	41.6	34.5	43.4	48.9	38.2	26.5	28.7	22.5
	인문	29.8	29.6	29.8	35.4	38.1	34.5	15.6	16.3	15.1
	사회	32.0	28.0	36.8	41.4	40.1	42.6	15.7	13.9	19.6
	교육	31.8	27.6	32.9	38.8	42.1	38.1	17.8	10.1	20.9
	공학	55.4	55.6	54.8	59.3	59.8	57.7	43.9	44.8	35.4
	자연	50.0	50.8	49.3	53.9	55.9	52.6	40.9	42.6	38.4
	의약	16.6	14.4	18.6	18.3	17.1	19.2	14.1	11.2	17.4
	예·체능	18.5	20.4	17.8	19.7	22.9	18.8	14.1	16.1	12.2
비수도권	소계	32.2	34.8	28.1	36.3	40.5	30.5	22.8	23.8	20.6
	인문	27.7	27.3	27.9	31.0	31.3	30.9	16.1	15.5	16.4
	사회	18.1	15.1	23.5	23.0	21.0	25.9	10.2	7.4	17.7
	교육	16.5	14.3	17.2	19.5	21.6	19.0	10.6	6.0	12.8
	공학	50.1	49.5	53.6	54.2	54.0	55.0	38.5	37.8	45.5
	자연	43.2	44.5	41.5	46.8	48.4	44.9	34.4	36.8	29.6
	의약	10.5	9.0	12.3	10.8	10.8	10.8	10.1	6.3	15.6
	예·체능	18.3	19.1	17.7	19.2	21.6	17.8	15.8	15.2	16.9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DB.

5)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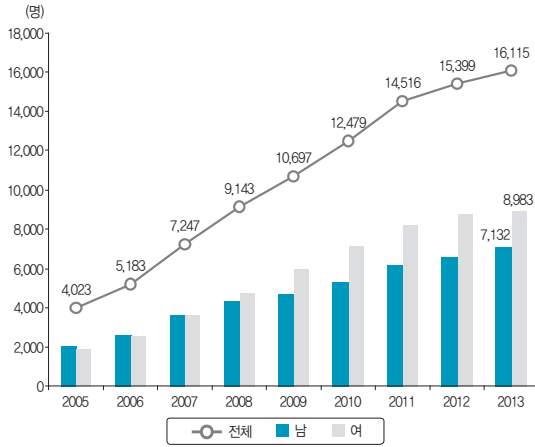
2012년 현재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1,212명으로 2005년 5,742명과 비교하여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약 3.7배 증가하였다. 석사과정 연도별 성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를 살펴보기 위해 [그림Ⅲ-2-20]을 보면, 2005년 4,023명에서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현재 석사과정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16,115명에 달한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남학생 수가 더 많았으나 2009년부터 여학생이 남학생을 앞지르기 시작하였다. 2013년 현재 외국인 여학생 수는 10,963명으로 남학생보다 714명 더 많았다. 박사과정 외국인 유학생 수(석·박사통합과정 포함, 이하 동일) 또한 2005년 1,719명부터 2013년 현재 5,097명까지 증가세를 유지하였고 외국인 유학생의 성별을 살펴보면, 석사과정과는 달리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꾸준히 남자 외국인 유학생 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원과정별로는 석사과정이 16,115명으로 76.0%를, 박사과정이 5,097명으로 24.0%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3년 수도권 11,578명, 비수도권 9,634명으로 수도권의 외국인 유학생이 1,944명 더 많았다. 구체적으로 성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남학생 5,113명, 여학생 6,465명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1,352명 많았고, 비수도권은 남학생 5,136명, 여학생 4,498명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638명 많았다. 수도권 소재 대학원 석사과정 외국인 유학생 수가 가장 많은 계열은 사회계열(4,521명)이었고, 그 다음으로 인문계열(2,057명), 공학계열(924명), 예·체능계열(468명), 자연계열(459명), 교육계열(329명), 의약계열(222명) 순이었다. 비수도권 소재 대학원 석사과정 유학생은 사회계열(3,284명)에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공학계열(1,365명), 인문계열(974명), 교육계열(445명), 자연계열(439명), 예·체능계열(424명), 의약계열(204명) 순으로 많았다. 수도권 소재 대학원 박사과정 외국인 유학생 수는 공학계열(750명)이 가장 많았고 인문계열(521명), 자연계열(502명), 사회계열(401명), 의약계열(235명), 예·체능계열(114명), 교육계열(75명) 순이었다. 비수도권 소재 대학원 박사과정 유학생은 공학계열(918명)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자연계열(674명), 사회계열(351명), 인문계열(207명), 의약계열(167명), 교육계열(100명), 예·체능계열(82명)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 계열별 대학원과정별 성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그림 Ⅲ-2-22]와 [그림 Ⅲ-2-23]을 통해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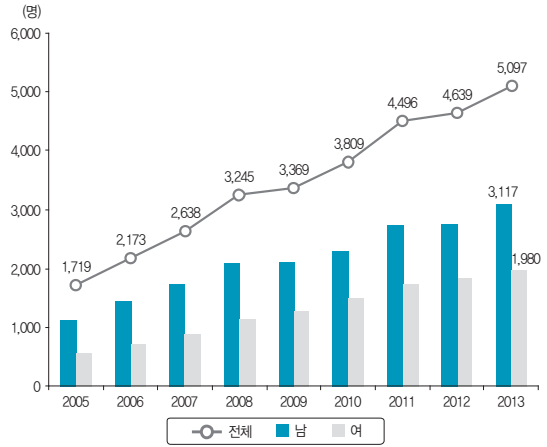
국내 대학원과정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출신국가별로 살펴보면, 아시아 국가 유학생이 86.5%(18,353명)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미주 출신이 6.6%(1,403명)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이 58.2%(10,689명)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아시아는 남학생 8,501명, 여학생 9,852명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1,351명 더 많고, 미주는 남학생 786명, 여학생 617명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169명 더 많았다.

연도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 수 추이를 보면, 2007년 1,598명에서 2013년 현재 7,618명으로 약 4.8배정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졸업 후 현황을 보면, 미상이 47.0%(3,580명), 본국귀국 이 38.6%(2,943명), 국내취업 이 9.5%(640명), 국내진학이 6.0%(455명)이었다. 국내 대학원 과정 졸업 이후 외국인 유학생 절반가량이 미상으로 파악된다고 볼 수 있다. 대학원에 소속된 국내 외국인 연수생은 어학연수생과 기타연수생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대학원 소속의 국내 외국인 연수생 수는 2013년 1,099명이었고, 이 중에서 어학연수생은 36.1%(397명)이었으며, 기타연수생은 63.9%(702명)를 차지하였다. 어학연수의 경우, 여학생이 33명, 기타연수의 경우 남학생이 86명이 더 많았다. 외국인 연수생들의 현황을 출신국가별로 살펴보면, 단일 국가로는 중국 출신의 연수생이 24.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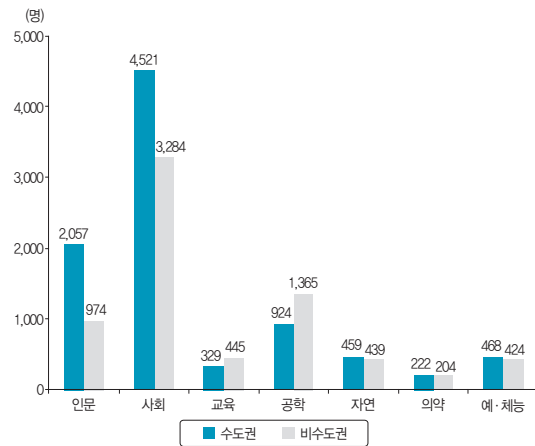
■ Ⅲ. 대학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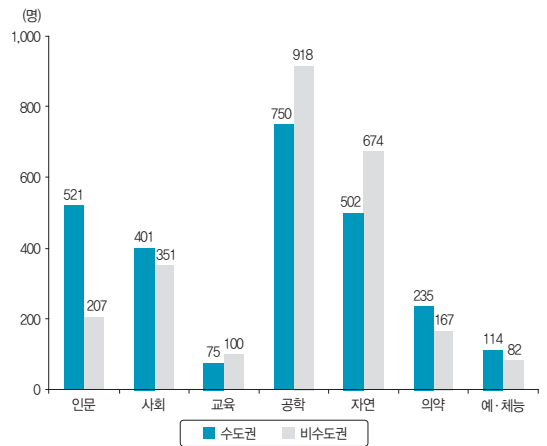
■ 그림 Ⅲ-2-20 ■ 연도별 성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 (석사, 2005~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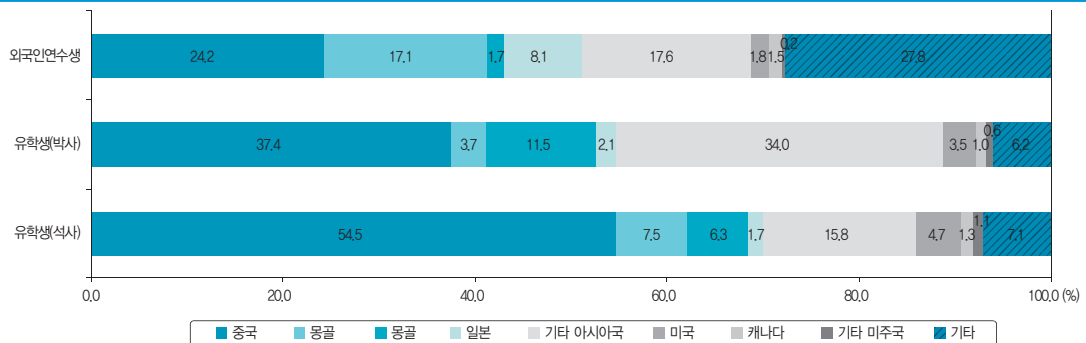
■ 그림 Ⅲ-2-21 ■ 연도별 성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 (박사, 2005~2013)



■ 그림 Ⅲ-2-22 ■ 지역별 계열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 (석사, 2013)



■ 그림 Ⅲ-2-23 ■ 지역별 계열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 (박사, 2013)



■ 그림 Ⅲ-2-24 ■ 출신국가별 대학원과정별 유학생 및 외국인 연수생(대학원) 현황(2013)

■ 표 Ⅲ-2-20 ■ 연도별 대학원과정별 성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2005~2013)

(단위: 명)

	전체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05	5,742	3,247	2,495	4,023	2,104	1,919	1,719	1,143	576	-	-	-
2006	7,356	4,087	3,269	5,183	2,633	2,550	2,173	1,454	719	-	-	-
2007	9,885	5,365	4,520	7,247	3,628	3,619	2,638	1,737	901	-	-	-
2008	12,388	6,453	5,935	9,143	4,368	4,775	3,245	2,085	1,160	-	-	-
2009	14,066	6,831	7,235	10,697	4,728	5,969	2,919	1,816	1,103	450	287	163
2010	16,291	7,632	8,659	12,479	5,325	7,154	3,221	1,934	1,287	588	370	218
2011	19,012	8,992	10,020	14,516	6,241	8,275	3,767	2,274	1,493	729	477	252
2012	20,038	9,412	10,626	15,399	6,634	8,765	3,776	2,215	1,561	863	563	300
2013	21,212	10,249	10,963	16,115	7,132	8,983	4,089	2,445	1,644	1,008	672	336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 표 Ⅲ-2-21 ■ 지역별 계열별 대학원과정별 성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2013)

(단위: 명)

		전체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21,212	10,249	10,963	16,115	7,132	8,983	4,089	2,445	1,644	1,008	672	336
수도권	소계	11,578	5,113	6,465	8,980	3,633	5,347	1,962	1,071	891	636	409	227
	인문	2,578	853	1,725	2,057	660	1,397	504	188	316	17	5	12
	사회	4,922	2,013	2,909	4,521	1,812	2,709	365	180	185	36	21	15
	교육	404	86	318	329	69	260	73	17	56	2	-	2
	공학	1,674	1,260	414	924	683	241	452	360	92	298	217	81
	자연	961	475	486	459	171	288	311	192	119	191	112	79
	의약	457	216	241	222	86	136	149	77	72	86	53	33
	예·체능	582	210	372	468	152	316	108	57	51	6	1	5
비수도권	소계	9,634	5,136	4,498	7,135	3,499	3,636	2,127	1,374	753	372	263	109
	인문	1,181	425	756	974	354	620	198	67	131	9	4	5
	사회	3,635	1,608	2,027	3,284	1,440	1,844	327	156	171	24	12	12
	교육	545	164	381	445	135	310	99	29	70	1	-	1
	공학	2,283	1,838	445	1,365	1,075	290	756	624	132	162	139	23
	자연	1,113	670	443	439	213	226	538	376	162	136	81	55
	의약	371	206	165	204	104	100	131	78	53	36	24	12
	예·체능	506	225	281	424	178	246	78	44	34	4	3	1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 표 Ⅲ-2-22 ■ 출신국가별 대학원과정별 성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2013)

(단위: 명)

		전체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21,212	10,249	10,963	16,115	7,132	8,983	4,089	2,445	1,644	1,008	672	336
아시아	소계	18,353	8,501	9,852	13,833	5,780	8,053	3,603	2,111	1,492	917	610	307
	중국	10,689	4,142	6,547	8,783	3,272	5,511	1,549	664	885	357	206	151
	몽골	1,399	400	999	1,211	342	869	160	48	112	28	10	18
	베트남	1,606	1,009	597	1,020	593	427	354	254	100	232	162	70
	일본	377	121	256	268	79	189	106	41	65	3	1	2
	기타	4,282	2,829	1,453	2,551	1,494	1,057	1,434	1,104	330	297	231	66
미주	소계	1,403	786	617	1,140	631	509	210	122	88	53	33	20
	미국	931	537	394	754	436	318	145	82	63	32	19	13
	캐나다	268	136	132	215	106	109	43	24	19	10	6	4
	기타	204	113	91	171	89	82	22	16	6	11	8	3
기타		1,456	962	494	1,142	721	421	276	212	64	38	29	9

주: 각 국가에는 재외동포가 포함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 Ⅲ. 대학원 ■

■ 표 Ⅲ-2-23 ■ 연도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졸업 현황(2007~2013)

(단위: 명)

	전체	본국귀국	국내취업	국내진학	미상
2007	1,598	1,097	225	276	-
2008	1,959	1,288	290	381	-
2009	2,252	1,655	290	307	-
2010	3,533	1,720	503	395	915
2011	4,913	2,307	684	473	1,449
2012	6,197	2,865	543	471	2,318
2013	7,618	2,943	640	455	3,580

주: 외국인유학생 졸업자는 대학원과정이 구분되지 않음.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 표 Ⅲ-2-24 ■ 성별 어학연수 및 기타연수 학생 수(2013)

(단위: 명)

	전체			어학연수			기타연수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13	1,099	576	523	397	182	215	702	394	308

주: 대학원에서의 국내 외국인 연수생 현황은 2012년부터 조사되기 시작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 표 Ⅲ-2-25 ■ 출신국가별 국내 외국인 연수생 현황(2013)

(단위: 명)

	전체	아시아					미주			기타
		중국	몽골	베트남	일본	기타	미국	캐나다	기타	
2013	1,099	266	188	19	89	193	20	16	2	306

주: 1) 외국인 연수생은 어학연수와 기타연수 학생의 수를 합산한 것임.

2) 출신국가별 외국인 연수생에는 해당 국가의 재외동포가 포함됨.

3) '기타'는 아시아와 미주 지역에 속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를 나타냄.

4) 아시아의 '기타'는 중국, 몽골, 베트남,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아시아 지역 국가를 나타냄.

5) 미주의 '기타'는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나머지 미주 지역 국가를 나타냄.

6) 대학원에서의 국내 외국인 연수생 현황은 2012년부터 조사되기 시작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3. 교원

1) 교원의 구성

대학원에 소속되어 있는 전임교원 수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729명이었던 전임교원 수는 점차 증가하여 2013년 7,436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2013년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중 남교원은 5,905명, 여교원은 1,531명이었다. 이는 2000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9.2배, 16.6배로 늘어난 규모이다. 전반적으로 남교원이 여교원보다 많으나 증가세는 여교원이 두드러졌다. 비전임교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0년 1,331명에서 2013년 16,559명으로 12배 이상 늘어났고 전임교원에 비해 증가폭이 컸다. 비전임교원도 남녀 교원 모두 증가추세를 보였다. 아울러 전임교원은 2008년에서 2009년, 비전임교원은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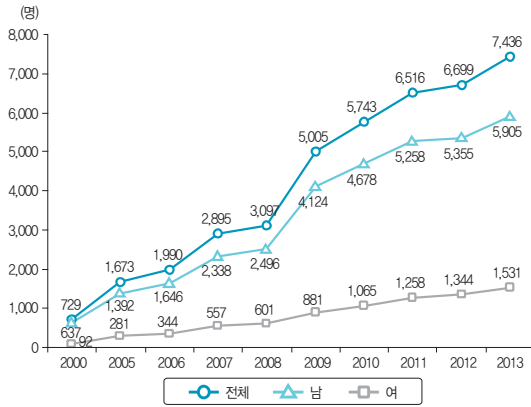
대학원의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 모두 남교원이 여교원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교원 비율을 보면, 전임교원의 경우 2000년 여교원 비율은 12.6%이었고, 2009년 여교원 비율이 약간 낮아졌지만,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다. 2013년 전임교원 중 여교원 비율은 20.6%로 2000년과 비교했을 때 8.0%p 증가하였다. 비전임교원 중 여교원의 비율은 2000년 26.3%에서 계속 증가하여 2013년 32.9%로 6.6%p 늘어났다. 전임교원과 비교했을 때, 비전임교원의 여교원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설립별로 교원 현황을 살펴보면(표 Ⅲ-3-1 참조), 2013년 전임교원의 경우 국·공립교원은 2,613명으로 이 중에서 남자 2,227명, 여자 386명이었고, 사립교원은 4,823명으로 이 중에서 남자 3,678명, 여자 1,145명이었다. 국·공립의 여교원 비율은 14.8%, 사립은 23.7%로 사립대학이 국·공립대학보다 여교원 비율이 더 높았다. 비전임교원의 경우 국·공립교원은 2,423명으로 이 중에서 남자 1,850명, 여자 573명이었고, 사립교원은 14,136명으로 이 중에서 남자 9,262명, 여자 4,874명이었다. 비전임교원도 사립대학(34.5%)이 국·공립대학(23.6%)에 비해 여교원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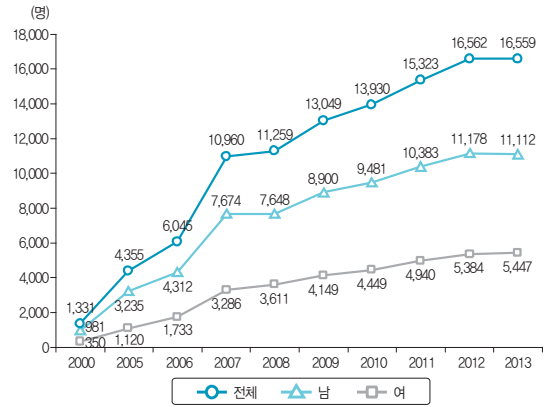
연도별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100%를 넘었다. 2000년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의 비율은 183%이었고, 2007년 379%로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그 후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13년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 비율은 223%이었다. 이를 설립별로 비교하면, 사립이 국·공립에 비해 비전임교원의 비율이 높았는데, 2000년 국·공립은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 비율이 103%이었고, 사립은 190%이었다. 2013년에는 국·공립과 사립간의 격차가 더 벌어졌는데, 국·공립이 93%, 사립이 293%이었다. 이를 통해서 고등교육 양적 확대에 따른 교원의 확대는 비전임교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연도별 외국인 교원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84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교원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에는 963명으로 11배 증가하였다. 특히 2000년에는 전임교원이 62명(73.8%), 비전임교원이 22명(26.2%)으로 전임교원 수가 더 많았으나, 2013년에는 전임교원이 387명(40.1%), 비전임교원이 576명(59.8%)으로 비전임교원 수가 전임교원 수보다 많아졌다. 설립별로 보면, 2013년 현재 전체 외국인 교원 중 82.2%에 달하는 792명이 사립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국·공립학교에서 일하는 외국인 교원은 171명으로 17.8% 해당된다.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외국인 교원 중 전임교원의 비율은 41.9%,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외국인 교원 중 전임 교원은 32.2%로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교원 모두 전임교원보다는 비전임교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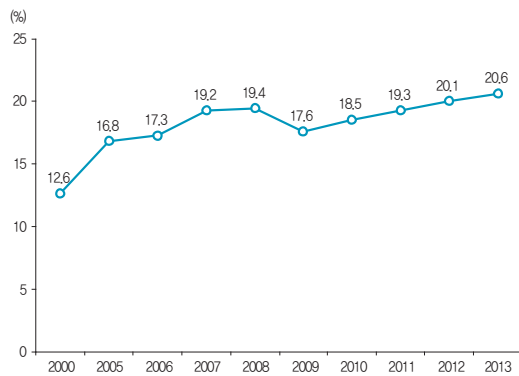
■ Ⅲ. 대학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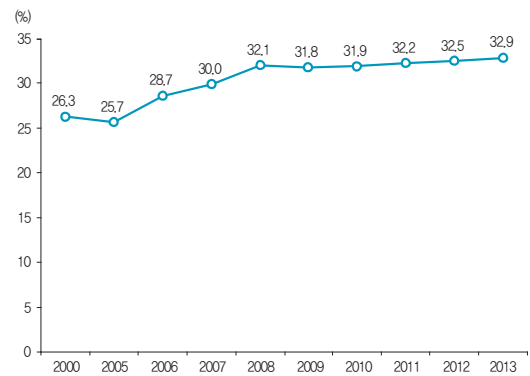
■ 그림 Ⅲ-3-1 ■ 연도별 성별 전임교원 현황(2000~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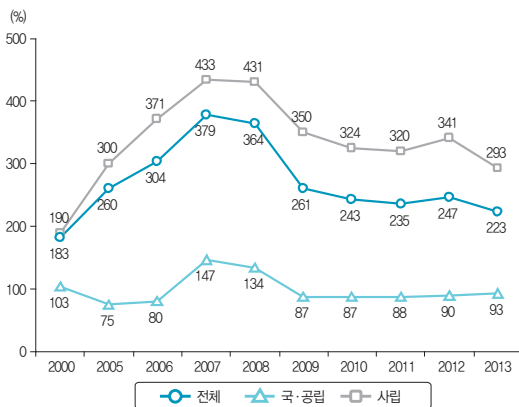
■ 그림 Ⅲ-3-2 ■ 연도별 성별 비전임교원 현황(2000~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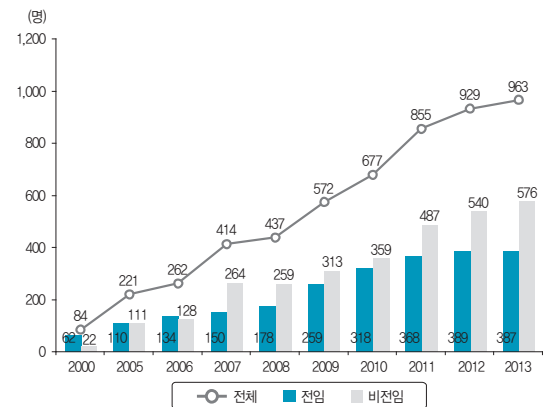
■ 그림 Ⅲ-3-3 ■ 연도별 전임 여교원 비율(2000~2013)



■ 그림 Ⅲ-3-4 ■ 연도별 비전임 여교원 비율(2000~2013)



■ 그림 Ⅲ-3-5 ■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 비율(2000~2013)



■ 그림 Ⅲ-3-6 ■ 연도별 외국인 교원 현황(2000~2013)

■ 표 Ⅲ-3-1 ■ 연도별 설립별 성별 교원 수(2000~2013)

(단위: 명)

	전임교원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00	729	637	92	59	55	4	670	582	88
2005	1,673	1,392	281	296	259	37	1,377	1,133	244
2006	1,990	1,646	344	461	411	50	1,529	1,235	294
2007	2,895	2,338	557	553	488	65	2,342	1,850	492
2008	3,097	2,496	601	706	617	89	2,391	1,879	512
2009	5,005	4,124	881	1,702	1,494	208	3,303	2,630	673
2010	5,743	4,678	1,065	1,976	1,713	263	3,767	2,965	802
2011	6,516	5,258	1,258	2,389	2,053	336	4,127	3,205	922
2012	6,699	5,355	1,344	2,512	2,159	353	4,187	3,196	991
2013	7,436	5,905	1,531	2,613	2,227	386	4,823	3,678	1,145

	비전임교원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00	1,331	981	350	61	51	10	1,270	930	340
2005	4,355	3,235	1,120	223	188	35	4,132	3,047	1,085
2006	6,045	4,312	1,733	371	332	39	5,674	3,980	1,694
2007	10,960	7,674	3,286	814	631	183	10,146	7,043	3,103
2008	11,259	7,648	3,611	949	737	212	10,310	6,911	3,399
2009	13,049	8,900	4,149	1,476	1,146	330	11,573	7,754	3,819
2010	13,930	9,481	4,449	1,717	1,360	357	12,213	7,754	4,092
2011	15,323	10,383	4,940	2,103	1,628	475	13,220	8,755	4,465
2012	16,562	11,178	5,384	2,265	1,746	519	14,297	9,432	4,865
2013	16,559	11,112	5,447	2,423	1,850	573	14,136	9,262	4,874

주: 1) 전임교원에는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가 포함됨.

2) 비전임교원에는 시간강사, 겸임교수, 명예교수, 객원교수, 대우교수, 초빙교수, 기타 등이 포함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 표 Ⅲ-3-2 ■ 연도별 설립별 외국인 교원 수(2000~2013)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전임	비전임	소계	전임	비전임	소계	전임	비전임
2000	84	62	22	-	-	-	84	62	22
2005	221	110	111	13	1	12	208	109	99
2006	262	134	128	5	1	4	257	133	124
2007	414	150	264	18	-	18	396	150	246
2008	437	178	259	19	3	16	418	175	243
2009	572	259	313	41	10	31	531	249	282
2010	677	318	359	77	22	55	600	296	304
2011	855	368	487	154	52	102	701	316	385
2012	929	389	540	152	55	97	777	334	443
2013	963	387	576	171	55	116	792	332	46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 Ⅲ. 대학원 ■

■ 표 Ⅲ-3-3 ■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교원 수(2013)

(단위: 명)

		전임교원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7,436	5,905	1,531	2,613	2,227	386	4,823	3,678	1,145
수도권	소계	4,470	3,432	1,038	522	456	66	3,948	2,976	972
	인문	610	459	151	51	39	12	559	420	139
	사회	1,251	1,057	194	217	196	21	1,034	861	173
	교육	261	116	145	14	12	2	247	104	143
	공학	319	306	13	43	40	3	276	266	10
	자연	289	247	42	41	36	5	248	211	37
	의약	1,526	1,093	433	139	120	19	1,387	973	414
	예·체능	198	140	58	16	12	4	182	128	54
	소속학과없음	16	14	2	1	1	-	15	13	2
비수도권	소계	2,966	2,473	493	2,091	1,771	320	875	702	173
	인문	122	93	29	28	19	9	94	74	20
	사회	517	442	75	354	308	46	163	134	29
	교육	167	116	51	33	27	6	134	89	45
	공학	323	301	22	209	192	17	114	109	5
	자연	144	127	17	61	55	6	83	72	11
	의약	1,654	1,367	287	1,399	1,165	234	255	202	53
	예·체능	27	17	10	-	-	-	27	17	10
	소속학과없음	12	10	2	7	5	2	5	5	-
		비전임교원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7,103	5,717	1,386	1,219	1,073	146	5,884	4,644	1,240
수도권	소계	4,350	3,318	1,032	460	398	62	3,890	2,920	970
	인문	358	221	137	6	5	1	352	216	136
	사회	1,652	1,412	240	73	70	3	1,579	1,342	237
	교육	291	132	159	4	2	2	287	130	157
	공학	469	437	32	42	39	3	427	398	29
	자연	579	483	96	23	23	-	556	460	96
	의약	592	390	202	295	247	48	297	143	154
	예·체능	330	178	152	5	4	1	325	174	151
	소속학과없음	79	65	14	12	8	4	67	57	10
비수도권	소계	2,753	2,399	354	759	675	84	1,994	1,724	270
	인문	47	30	17	7	6	1	40	24	16
	사회	437	407	30	273	260	13	164	147	17
	교육	81	49	32	27	16	11	54	33	21
	공학	1,093	1,043	50	182	172	10	911	871	40
	자연	622	509	113	43	31	12	579	478	101
	의약	384	299	85	211	176	35	173	123	50
	예·체능	36	20	16	-	-	-	36	20	16
	소속학과없음	53	42	11	16	14	2	37	28	9

주: 1) 전임교원에는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가 포함됨.

2) 비전임교원은 시간강사, 겸임교수, 명예교수, 객원교수, 대우교수, 초빙교수, 기타 등을 포함하나, 여기서는 시간강사를 제외함. 시간강사는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등의 5대 계열 구분(‘대학설립·운영규정’의 <별표1>에 의함)을 따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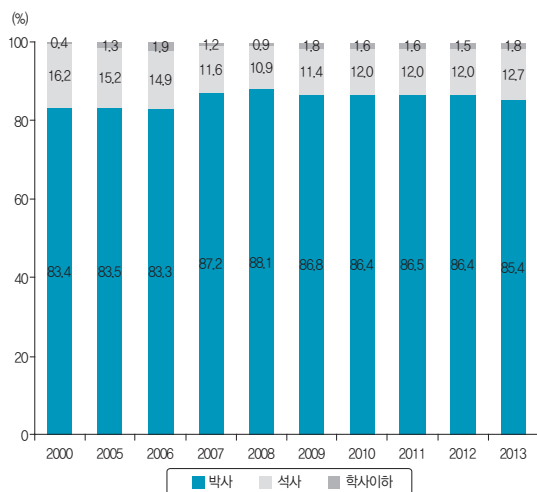
2) 교원의 학위 소지 현황

연도별로 전임교원의 학위 소지 현황을 살펴보면,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면서 그 외 학위를 소지한 교원은 점차 줄어들었다. 2000년 608명이었던 박사학위 소지 교원은 2013년에 2000년 대비 10배가 넘는 규모인 6,353명으로 늘어났다. 전체 교원 대비 박사학위 소지 교원 비율 역시 2000년 83.4%에서 2013년에는 85.4%로 증가하였다. 반면, 석사학위 소지 교원의 경우 2000년 118명(16.2%)에서 2013년에는 947명(13.1%)으로 그 수는 증가하였지만, 전체 교원 중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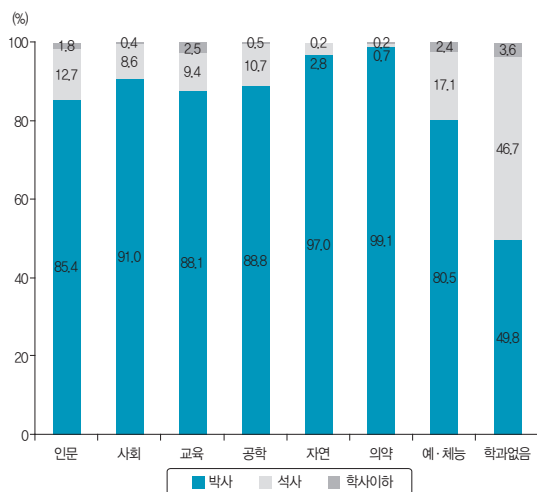
2013년 계열별 전임교원의 학위 소지 현황을 보면, 박사학위 소지자의 비중은 의약계열(99.1%), 자연계열(97.0%), 사회계열(91.0%)이 90%를 넘는 반면, 소속학과가 없는 교원의 경우에는 49.8%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전체 교원의 절반을 넘지 못하였다. 이 외 공학계열(88.8%), 교육계열(88.1%), 인문계열(85.4%), 예·체능계열(80.5%)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교원이 비율이 80%가 넘었다. 모든 계열에서 박사, 석사, 학사학위 순으로 교원의 학위 소지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교원의 학위 소지 현황을 살펴보면(〈표 Ⅲ-3-5〉 참조), 전반적으로 수도권 대학에서 전체 4,470명의 교원 중에서 박사학위 소지자가 85.7%(3,829명), 석사학위 소지자가 12.6%(562명), 학사학위 소지자가 1.6%(71명)로 박사학위 소지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전체 교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는 85.1%(2,524명), 석사학위 소지자가 13.0%(385명), 학사학위 소지자가 1.9%(57명)로 역시 박사학위 소지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수도권 대학의 박사학위 소지자 비율이 비수도권 대학보다 높은 것이 특징적이었다.

신규임용된 전임교원의 경우, 2006년 국내 박사학위를 소지한 신규임용 전임 남자 교원의 비율이 41.6%에서 2013년 현재 42.2%로, 국내 박사학위를 소지한 신규임용 전임 여교원도 18.8%에서 19.1%로 약간 증가하였다. 국내·외 박사학위 소지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에는 국내 박사학위 소지자가 전체 신규임용 전임교원의 60.4%(90명)였으나, 2013년에는 61.3%(199명)로 0.9%p 증가하였다. 반면 국외 박사학위 소지자 비중도 2006년 39.6%(59명)에서 2013년 38.8%(126명)로 0.8%p 감소하였다.



■ 그림 Ⅲ-3-7 ■ 연도별 전임교원 학위소지 현황 (2000~2013)



■ 그림 Ⅲ-3-8 ■ 계열별 전임교원 학위소지 현황(2013)

■ Ⅲ. 대학원 ■

■ 표 Ⅲ-3-4 ■ 연도별 전임교원 학위 소지 현황(2000~2013)

(단위: 명)

	전체	박사	석사	학사	기타
2000	729	608	118	3	-
2005	1,673	1,397	255	21	-
2006	1,990	1,657	296	30	7
2007	2,895	2,524	337	33	1
2008	3,097	2,729	339	27	2
2009	5,005	4,345	571	89	-
2010	5,743	4,964	689	90	-
2011	6,516	5,636	779	94	7
2012	6,699	5,789	807	99	4
2013	7,436	6,353	947	128	8

주: '전체'에는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소지자뿐만 아니라, 국제전문학교 졸업 및 기타의 사유로 정식학사 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한 교원(즉, 전문학사 혹은 학사학위가 없는 교원)이 포함됨.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 표 Ⅲ-3-5 ■ 지역별 계열별 전임교원 학위 소지 현황(2013)

(단위: 명)

		전체	박사	석사	학사	기타
전체		7,436	6,353	947	128	8
수도권	소계	4,470	3,829	562	71	8
	인문	610	556	52	2	-
	사회	1,251	1,130	96	21	4
	교육	261	226	34	1	-
	공학	319	304	14	-	1
	자연	289	286	2	-	1
	의약	1,526	1,218	268	39	1
	예·체능	198	95	95	7	1
	소속학과없음	16	14	1	1	-
비수도권	소계	2,966	2,524	385	57	-
	인문	122	110	11	1	-
	사회	517	427	70	20	-
	교육	167	154	12	1	-
	공학	323	319	4	-	-
	자연	144	143	1	-	-
	의약	1,654	1,343	276	35	-
	예·체능	27	17	10	-	-
	소속학과없음	12	11	1	-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 표 Ⅲ-3-6 ■ 연도별 성별 신규임용 전임교원 박사학위 소지 현황(2006~2013)

(단위: 명)

	전체			국내			국외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06	149	111	38	90	62	28	59	49	10
2007	245	192	53	134	102	32	111	90	21
2008	248	196	52	130	97	33	118	99	19
2009	319	241	78	160	121	39	159	120	39
2010	341	218	123	188	108	80	153	110	43
2011	480	331	149	267	177	90	213	154	59
2012	272	187	85	160	104	56	112	83	29
2013	325	240	85	199	137	62	126	103	23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 표 Ⅲ-3-7 ■ 지역별 계열별 성별 신규임용 전임교원 박사학위 소지 현황(2013)

(단위: 명)

		전체			국내			국외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325	240	85	199	137	62	126	103	23
수도권	소계	223	160	63	129	83	46	94	77	17
	인문	40	26	14	17	7	10	23	19	4
	사회	61	51	10	26	22	4	35	29	6
	교육	19	7	12	13	4	9	6	3	3
	공학	16	16	-	11	11	-	5	5	-
	자연	28	23	5	16	11	5	12	12	-
	의약	44	25	19	35	19	16	9	6	3
	예·체능	10	7	3	8	6	2	2	1	1
	소속학과없음	5	5	-	3	3	-	2	2	-
비수도권	소계	102	80	22	70	54	16	32	26	6
	인문	5	3	2	3	1	2	2	2	-
	사회	13	9	4	10	7	3	3	2	1
	교육	13	9	4	9	7	2	4	2	2
	공학	27	24	3	15	12	3	12	12	-
	자연	10	8	2	4	3	1	6	5	1
	의약	32	26	6	28	24	4	4	2	2
	예·체능	-	-	-	-	-	-	-	-	-
	소속학과없음	2	1	1	1	-	1	1	1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관련조사 및 자료 /
참고문헌

관련조사 및 자료

■ 교육기본통계(kess.kedi.re.kr)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전체 교육기관에 대한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교육 통계서비스 시스템 운영을 통해 통계간행물, 유초중등통계, 대학통계, 취업통계, 평생통계 및 국제통계 등의 서비스를 실시함
- 교육기본통계 고등교육 관련 항목은 아래와 같음

학 교	① 학교 개황	
학 생	① 정원내/외 재적학생 수	② 학부 편제정원 및 재학생 현황
	③ 연령별 재적학생 수	④ 대학 지원자 및 입학자 수
	⑤ 연령별 입학자 수	⑥ 졸업상황
	⑦ 연령별 졸업자	⑧ 교원자격증 발급현황
	⑨ 학생 변동 상황	⑩ 제적사유별 제적자 수
	⑪ 장학금 급여 및 학비감면 상황	⑫ 외국인 유학생 현황(국가별, 유학형태별, 학과별)
	⑬ 외국인 졸업자 수	⑭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 현황
	⑮ 탈북청소년 현황	
	※ 학제별 추가 입력 사항	
	- 교육대학: 학급편성 기준	
	- 산업대학, 사이버대학: 직업별 신·편입생 수, 연령별 편입생 수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 직업별 학생 수	
	-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진학상황	
교직원	① 총장 및 전임교원 현황	② 겸임 및 초빙교원 현황
	③ 기타교원 현황(겸임·초빙교원과 시간강사를 제외한 비전임 교원)	
	④ 시간강사 현황(실제인원)	⑤ 재직교원 수
	⑥ 교원안식년(연구년)제 운영현황	⑦ 전임교원 본교 및 타대학 출신비율 현황
	⑧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⑨ 외국인 비전임교원 현황
	⑩ 교원 주당 수업시수 현황	⑪ 교원급여 및 수업시수 현황
	⑫ 교수 교육훈련 현황	⑬ 직원 현황
	⑭ 직원연수 및 교육훈련 실적(교원 제외)	
	※ 학제별 추가 입력 사항	
	-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원현황(교원확보율, 교원1인당 학생 수)	
	- 교육대학: 교원현황(교원확보율, 교원1인당 학생 수)	
시 설	①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기관 현황	② 계열별 부속시설(지적, 건물)
행 정	① 동아리 활동 현황	② 학생회 현황
교 육	① 교양강좌 개설 및 수강 현황	② 교직강좌 개설 및 수강 현황
	③ 전공강좌 개설 및 수강 현황	④ 사이버강좌 개설 및 수강 현황
	⑤ 학점교류 현황	⑥ 산학연교류 현황

■ 취업통계조사(kess.kedi.re.kr)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 2004년부터 매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를 대상으로 취업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왔음
- 2006년부터 일반대학원 졸업자에 대해서도 취업통계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함
- 2004~2009년까지 대학자체조사로 취업통계를 산출하였고, 2010년부터는 건강보험DB와 연계하여 취업자를 조사하기 시작함
- 조사내용의 개요는 아래와 같음

구분	내용
학생 인적 정보	- 학교가 학사정보DB로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써, 연계조사와 신뢰도 검증을 위해 필요함 - 대학 및 전문대학 : 학교코드, 본/분교, 학번, 성명, 단과대학명, 학부명, 학과명, 학과소분류명, 주야간구분, 우편번호, 집주소, 집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출신고교, 해외연수여부, 국가기술자격여부, 토익점수,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입학년월(재입학년월, 편입학년월), 졸업년월, 산업체위탁생여부, 부전공학과명, 복수전공학과명, 편입여부, 교직과정 이수여부, 기취업여부, 외국인유학생여부, 예비역여부 - 일반대학원 : 학교코드, 본/분교, 학번, 성명, 단과대학명, 전공명, 세부전공명, 주야간구분, 우편번호, 집주소, 집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기취업여부, 논문명, 생년월일, 성별, 입학년월(재입학년월, 편입학년월), 졸업년월, 주민등록번호, 편입여부, 외국인유학생여부, 취득학위, 예비역여부
취업 정보	① 취업자 : 건강보험직장가입자(건강보험직장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산업인력공단 DB 확인 해외취업자), 영농업 종사자 ② 진학자 : 국내전문대학/국내대학/국내대학원, 국외전문대학/국외대학/국외대학원 ③ 입대자 ④ 취업불가능자 : 수형자, 사망자*, 해외이민자, 6개월이상 장기입원자 ⑤ 기타 ⑥ 미상 ⑦ 제외인정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자군인 중 임관 전 훈련생,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교육대상자, 종교지도자 양성관련학과 졸업자(KEDI 일괄처림)

주: *는 건강보험 DB와의 연계조사를 나타내고, 나머지는 학교조사로 이루어짐.

참고문헌

교육부(1998). 교육 50년사.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한강희 외(2010). 한국전문대학교육 30년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분석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2년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계획 및 지침서(대학).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2년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계획 및 지침서(대학원).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2년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계획 및 지침서(전문대학).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2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DB연계 취업통계조사 계획 및 지침서.

만든 사람들

교육부

승용배(교육정보통계국장)	한석수(대학지원실장)
최수진(교육통계과장)	배성근(대학지원관)
김지연(교육통계과)	신인섭(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
최홍보(교육통계과)	이성식(취업창업교육지원과)

한국교육개발원

김창환(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장)
강영혜(교육통계연구센터소장)
박성호, 이미라, 김상호, 이진아, 한효진, 백수현, 정동철, 배정현, 남유진, 고성원,
유미래, 전소열, 김종민(이상 연구분석서비스팀)
김본영, 최나연, 이경미, 김단비, 윤신영, 이탁호, 손영호, 김연천(이상 고등교육통계팀)
조미영, 이기준, 손지혜, 김은미, 엽승현, 구경아(이상 취업통계팀)

2013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 고등교육·취업통계편

통계자료 SM 2013-11-02
발행처 : 한국교육개발원
발행인 : 백순근
발행일 : 2013년 12월
주 소 : (137-791) 서울 서초구 바우포로 1길 35(우면동)
인 쇄 : (주)범신사 02-720-9786~9
ISSN : 2287-8521

수록된 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교육정보통계국 교육통계과

Tel : 044) 203-6351
Fax : 044) 203-6971
<http://www.moe.go.kr>

대학지원실 취업창업교육지원과

Tel : 044) 203-6880
Fax : 044) 203-6238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 교육통계연구센터

Tel : 02) 3460-0380
Fax : 02) 3460-0120
<http://kess.kedi.re.kr>

